

# 군선교 신학

11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량한 생활로 기독교문화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8년 군목제도가 창설되고 1969년에 전군신자화운동이 시작, 이후 세례운동, 군인교회 건축 등 군선교가 활발하게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선교 사역은 교회부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전력화로 강군육성의 중심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치관 혼란시대에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온전한 가치정립을 가능케 해 모범 국민 육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침례)사역의 결실로 2020년까지 기독교 신자를 전 국민의 75%까지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내외에서 귀한 섬김을 다해 왔는데, 금년에 우리는 더 건강한 사역을 실천하고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치적인 결과에 너무 매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전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전략의 목표대로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고 청년들을 전도하고 세례 주고 양육하는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세례 주고, 후원하고, 양육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눅 10:37)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개교회의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내게는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애국운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명을 따르는 신앙운동입니다. 그 비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루는 일은 우리의 과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020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매진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본 논문집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등 비전2020실천운동을 다각도로 점검한 논문들이 실려 있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훈장례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등 군선교사역에 참고가 될 논문들과 2013년 논문공모 당선작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록 제13회 심포지엄과 「군선교신학」 제11권을 통해 군선교사역자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 비전2020실천운동에 새로운 불을 붙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 주신 쿼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군선교 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목표지점을 7년 남겨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략과 열매를 재평가하여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그리스도인화(化)하는 민족복음화운동을 반드시 이루고자 이번 「군선교신학」 제11권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을 특집으로 묶었다.

수적 목표에 미급했다고 궤도수정을 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지금까지 해온 전략 중 긍정적인 면과 다소 비효과적인 면을 찾아 더 격려할 것과 새로운 방법을 연구 모색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깊은 기도와 헌신된 삶을 통해 받은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정신이 우리 국군장병들의 가슴마다 깊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교두보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호에도 본 학회 연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군종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글들이 우리의 병영생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비전2020실천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터이니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논문집에 원고를 써주신 집필자 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0월 23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 종 윤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박선희 목사… 4
-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7

■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 11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 이종윤·김대덕
- 49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 | 정재원
- 92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에 대한 논찬  
-1004군인교회를 중심 | 이규철
- 96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주연중
- 128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강사문

■ 연구위원 논문

- 138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 이규철
- 168 『조선예수교장로회훈장례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 최석환
- 190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 강사문
- 214 ACT(수용전념치료) 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 김동연
- 241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 안명준
- 264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 김성봉
- 290 “여호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 김진섭
- 333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 김수진
- 366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 전호진
- 385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 김상만

■ 제10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당선작

394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 군종복사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신종훈

420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 강찬영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Vision 2020 Movement in Historical-Critical Study

■ 이종윤 Lee, Jong Yun

■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김대덕 Kim, Dee Duk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사람이 만든 계획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복음사역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 순복하고 순응하면서 민족구원을 위한 뜻과 목표,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성경을 통

해 답을 찾고, 또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더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9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역할은 심는 일이요, 아볼로의 역할은 물 주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곧 인류 구원을 향한 복음사역의 주인이시며, 선택받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하는 인류구원의 대 드라마 속에서 60만 국군장병 복음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비전2020실천운동사역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1998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 예배 특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을 포함한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둔다.

(1) 주님의 대명을 따라 AD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다.

(2) 진중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음화되도록 한다. 남자 20여만 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 25년 동안 500만 명이 신자화되므로 그들이 가정을 가질 경우(고별료 가정처럼) 효과적으로 가정복음화가 될 것이다.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한다. 1996년 현재 1,200만 신자(인구 4,500만의 25%)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2020년에는 3,700만 신자(인구 5,000만의 75% 이상)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될 것이므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 즉 현재 기독교인 수의 0.04%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명에서 2020년에는 0.1%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0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한다.

(4)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군선교를 통해 이룩하게 된다.

이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실천해야 한다.

\* 통일 신학을 정립하는 일

\*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받도록 하는 일(노헤미야 전략)

\* 비전2020운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일 등이다.<sup>1</sup>

조국 대한민국 복음화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인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다. 우리는 이제 목표점인 2020년이 7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난 17년간의 결실과 부족했던 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인 부분은 물론 저출산, 군복무 기간 단축, 입영자원의 감소, 치열한 종교 간 영적 경쟁, 병영시설 및 시스템 등 환경변화 등 군 내부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이 비전이 한국교회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되던 시점의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신뢰도가 지금은 크게 위축되고 실추되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군선교사역이 청년전도의 유일한 대안이라 할 만큼 중요한 사역임을 인정하면서도 개교회 지도자는 현실적 양적 부흥에만 급급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투자에 인색함과 무관심 등으로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이 추구하는 진중세례뿐만 아니라, 양육과 지역교회 연결을 통한 출석예정교인으로 관리하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여 개교회 성장과 부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는 점이 약해진 것도 큰 변이 중 하

<sup>1</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22-23. 「군선교신학」1(2004. 5. 30), 30-47.

나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을 지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과 목적의 비전이 훼손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전진을 하되, 지혜로운 중간평가와 함께 그 목표를 성취하는 향후과제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까지

지난 2012년 5월 1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설립 40주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육군훈련소(소장: 김정호 장로) 연병장에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최고의 찬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칭찬하신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당시 훈련소 입소 인원 약 1만 2천 명 가운데 9,519명이 참석하여 8,506명이 세례를 받고 1,013명이 축복 기도를 받은 연무대교회(담임: 신현복 군종목사) 진중세례식이 집례되었다.

지구촌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이런 영적 사건이 언제 있었으며, 향후에도 다시 이런 거룩하고 감격적인 지구촌 최대의 세례예식이 집례될 수 있겠는가?

“지난 1990년 당시 육군 교육사령관인 김진영 장로(육군참모총장 역임, 현재 MEAK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장)는 육군 제2훈련소(현재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제2기 진중세례운동을 시작, 1993년 참모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전군으로 확대하여 계룡대에 육·해·공군 본부교회 새 예배당 건축사업과 함께 한국교회는 새 도약의 군선교사역을 펼치게 된다.”<sup>2</sup>

우리나라의 군선교사역은 1948년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제안으로 정달빈 목사로 하여금 군종사역을 시작하게 했으나 군종목사 제도는 기독교 신자가 불과 전체 국민의 약 5-6%일 때, 그것도 동족상잔의 비참한 역사로 일컫는 6·25전쟁 중에 창설(1951년 2월 7일 국가제도로 육군에

서 시작)되었다. “1969년 9월, 당시 1군사령관 한신 장군에 의하여 ‘1인1종교갯기’라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백낙준 박사, 김옥길 총장 등이 나서서 이미 1965년 김활란 박사에 의해 시작된 ‘전국복음화운동’의 민족복음화운동에 발맞춰 본격적인 ‘60만 국군장병복음화운동’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초교파 범교회적으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설립되었다.”<sup>3</sup>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군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진중교회당 건축에 박차를 가해 “1990년부터 비전2020실천운동이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되던 1998년까지 약 9년 동안 교회당이 진중에 무려 354동이 건축되었는데, 1004군인교회의 약 35%에 해당된다.”<sup>4</sup> 집을 세웠으니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응한 결실이 장병영혼 구원운동을 민족복음화라는 청사진으로까지 전개한 ‘비전2020실천운동’이다.

한편 1990년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장병전도세례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결실 증가와 함께 전군으로 확대되면서, 진중세례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양육 및 전역 후를 대비 지역교회로 연결시켜, 실질적인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 모두들에게

<sup>2</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2), 10.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1998. 11. 13) 경과보고내용〉

<sup>3</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2013. 2. 21), 207.  
설립 당시에는 ‘전군신자화후원회’로 창립되어 1976년 7월 20일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이 시작되면서 1999년 2월 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되었다. 군선교연합회는 사단법인체로 기독교 종단 군선교 대표 전문기관으로서 기독교 군종활동 지원 및 군선교사역 단일 창구로서의 진중교회당 건축, 비전2020실천운동, 정책, 교육, 복지, 전도,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군목 파송교단과 함께 연합사역을 총괄하는 센터이다.

<sup>4</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04군인교회 총람집」(2011. 5. 29), 845.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때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40주년 기념사업인 육·해·공군 본부교회당 헌당예배(1996년 4월 25일)를 전후로 합참의장을 지낸 이필섭 장로에 의해 “1996년 기준 한국교회 신자 수를 1,200만 명이라고 할 때 매년 장병 22만 명을 전도하여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세례 받고 들어오는 장병들이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볼 때, 매년 평균 25만 명 기독교장병들을 사회로 환원하면, 2020년 기준으로 25년간 625만 명이 되며, 군세례신자가 친구,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최소한 3명 이상에게는 복음의 영향력이 전도의 결실을 맺으면 본인을 포함하여 625만 명 곱하기 4명을 하면 그 합계가 2,500만 명이 되며, 1996년 당시 기독교인 1,200만 명을 합하면 3,700만 명이 된다. 그 인원은 전체 국민을 5천만 명으로 기준했을 때 75%가 된다”<sup>5</sup>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또한 처음에 창안되었을 때는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가 표제였으나, 시대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목표연도였던 202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게 되어 ‘비전2020’이 되었으며, 군선교연합회 내에 전담 특별부설기구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민족복음화의 청사진이 한국교회에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 후 비전2020운동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에 1997년 11월 20일 당시 군복음화후원회 정기이사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부설기구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해인 1998년 1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인준과 실천운동 위원장에 이사 이종운 목사, 실천운동본부장에 이사 이필섭 장로를 선임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5일 군종목사 파송교단 정책회의를 통해 계획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998년 2월 9일 군복음화후원회 제27차 정기총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본

부’ 조직 및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1998년 2월 23일 역사적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또한 각 교단으로부터 연결 군인신자를 관리할 대상교회로 약 2,900교회를 추천 받았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본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교회가 1998년 11월 12일 총 918교회가 등록하여, ‘비전2020운동실천교회’(군선교회원교회)로 인정하여 등록증 및 실천교회 간판이 전달되었다. 군내로는 당시 정부정책인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육성”이라는 정책에 발맞춰 군세례신자를 지역교회로 연결시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민·군 연합의 교두보가 되도록 했으며, 실무적인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 군인교회, 지역교회, MEAK 중앙본부 및 전국지회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1월 13일은 한국교회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군내적으로는 한국군종목사단의 결의와 한국교회적으로 군목파송 10개 교단 결의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애국애족운동’, 군으로는 ‘신앙전력화운동’, 교회적으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임을 선포하는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가 전국 교회와 교단, 관련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들 약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예배와 특강, 결의대회로 진행되었다.<sup>6</sup>

민족복음화를 향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인교회 내부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나, 공적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실천하는 순수한 영혼구원사역이요, 민족구원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sup>5</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국가안보와 비전2020실천운동 - 특강내용 수록”,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8. 11. 13), 39.

<sup>6</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10-16.

하나님께서서는 대한민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그 도구로 삼으셨다. 이는 20대 청년전도의 사역을 성취하시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우리는 항상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짧은 교회역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던 한국교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70-80년대 중반까지의 교회부흥과 성장의 모습은 그림자같이 사라져 버리고, 20세기 말 1990년부터 침체에 접어들면서 교회개혁과 불신자 전도, 특별히 청년전도인 캠퍼스 선교는 그로기(groggy)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어,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흥과 쇠퇴의 공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결단코 변절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위기의 한국교회 탈출구로 삼으사, 1990년부터 육군훈련소에서 불씨를 지펴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병전도와 진중세례의 중심인 비전2020사역은 계속 진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다. 풍성함도 빈곤함도 강함도 약함도 넉넉함도 모자람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기에 비전2020사역은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2020년이 지나서도 민족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실천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2020년이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상황이 사람의 눈높이와 평가로 암울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시며, 그 완성의 시간과 진행방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성경적 복음사역의 원리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이다. 민족복음화를 향한 '비전2020사역'은 군선교를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

### 3. 비전2020운동의 준비단계와 내용

필자는 지난 1998년 2월 23일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예배 때 당시 군복음화후원회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 1) 목표설정—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비전2020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이라는 주제특강을 하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군선교사역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스라엘의 통일노력과 통일신학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정립한 바 있다.

① 이스라엘의 남북분단은 지배계급(권력자)들의 권력욕에서 기인된다. 한국의 남북 분열도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분히 미·소 양 진영의 패권주의와 당시 민족지도자들의 사욕이 없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다윗을 이상형으로 제시한 역대기 신학이 있지만 사무엘서에 의하면 다윗의 역할은 훨씬 축소되고 대신 백성의 역할이 증대된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백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② 무력 통일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더했을 뿐 통일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③ 역대기에서 온 이스라엘 사상이 강조되었다. 종족이나 지리적 면에서 민족 동질성이 강조되었다. 한 민족, 한 형제성이 강조되므로 서로 비방하고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④ 히스기야, 요시아 왕 때엔 북쪽 동포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가 독일 통일을 앞당겼음을 기억하자.

⑤ 역대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복한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⑥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에스겔의 경우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⑦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통일을 기다렸다.

⑧ 결국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군선교를 구체화해야 한다.<sup>7</sup>

위와 같이 밝히면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 2) 작전 지침 — 느헤미야 작전 적용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가 사명으로 받고, 이를 실천케 하는 일: 느헤미야 작전을 실천함으로”라는 내용에서 BC 445부터 BC 432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전략을 우리의 군선교 작전 지침으로 삼자고 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의 핵심제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권 선정을 바로 하자.
- ② 중간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 ③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④ 기지(tact)를 바르게 발휘하라.
- ⑤ 정직하게 하라.

<sup>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27.

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⑦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라.

⑧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sup>8</sup>

## 3) 비전2020운동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비전2020운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 본다.

① 일반 및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전2020운동 지회를 각각 조직 운영한다.

② 비전2020운동의 조직을 위한 세부계획지침서를 작성 발표하여 지회 창설을 돕는다.

③ 전군 기독장병을 전산관리하고, 군인교회와 일반교회가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며, 기독장병들을 위한 기도 동역자를 찾아 연결시켜 준다.

④ 기독장병 영성훈련을 강화하여 복음 확산의 전초병이 되게 한다.

⑤ 일반교회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기도협력을 고취키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⑥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반드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한다.

⑦ 성장이 둔화된 한국교회를 회생시키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비전2020을 통해 일으킨다.<sup>9</sup>

## 4) 군인교회와 일반교회 실천세부사항

군복음화후원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우

<sup>8</sup> Ibid., 28-30, 40-44.

<sup>9</sup> Ibid., 31, 46-47.

선 1천여 군인교회와 4만여 일반교회가 실천해야 할 전략전술을 마련하였다.

### (1) 군인교회 전도·세례·양육·신자명단 수집 연결

최초 전략도는 군인교회에서는 우선 훈련소, 신교대, 교육사, 훈련단 등 신병교육기간 동안 집중 전도하여 세례를 집례하도록 한다는 전략 속에 장·사·병 교육기관인 44개 부대를 선정하여 입소인원대비 60% 이상(육군사단신교대 기준은 연3천 명 이상 세례목표설정) 전체는 연간 22만 명 전도세례를 집례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인교회마다 집중기도팀을 두어 기도 불씨를 지피 확산시켜 나갔다. 전도 및 세례집례가 끝나면 군인신자 기록카드를 수집하여 지역교회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sup>10</su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리, 1004군인교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은 전술적인 면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 (2) 일반실천교회·기도·선교비 후원·연결신자관리·가족관리

일반교회에는 우선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설명회와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병행하였다. 연간 20만 명 이상의 군세례신자를 연결 받을 준비로 기도사역과 전담부서조직과 선교비 후원과 가족전도를 하도록 홍보 및 교육하였다. 즉, 본교회 출석예정교인으로서 집중관리토록 하였는데, 차후에는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sup>11</su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교회별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sup>10</sup>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1) 불신전우전도-‘러브터치’ 장병전문전도지 활용 2) 전도전우세례 3) 세례전우양육-양육1단계는 주일예배출석 4) 양육전우연결-군인신자카드작성 5) 연결전우관리-지역교회 연결 여부확인 등 관리

또한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프로그램 중 네 번째 단계인 ‘VIP 가족전도’는 일반교회에서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현대교회 전도는 관계성 전도인데, 각 교회로 전달되는 기초자료 속에 지역 내 청년을 본교회가 전도하지 못하였는데 군인교회에서 전도하여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장병들의 명단이 본교회로 올 때 그 가족의 집 주소와 세대주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되므로 교회에서는 고급정보를 받게 되어, 그것을 기초로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연약한 마음을 교회가 조그마한 사랑의 관심만 가져 줘도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VIP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sup>12</sup>을 잘 적용하여 군세례신자 장병보다 먼저 그 가족부터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에 주어지는 특혜인 셈이다.

### (3)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조직과 운영

한국교회의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전체를 총괄한다. 실천현장인 군인교회와 일반실천교회(차후 군선교회원교회로 명칭 통일)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진중전도세례·후원·연결·양육 등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완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중앙본부는 종합센터로서 전국 16개 지회와 교단, 군인교회 등과 네트워크화되어 실무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초창기에는 전국 지역 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회조직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부터는

<sup>11</sup>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1) 청지기 임명 2) 전도특공대(전담부서) 조직 3) 기도하기 4) VIP가족전도하기 5) 사랑의 편지 보내기 6) 선물 보내기 7) 심방하기 8) 초청하기 9) 전역 후 영접하기 10) 후원하기

<sup>12</sup> VIP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 1) 전도대상자 등록 2) 전도특공대 편성 3) 사랑의 기도하기 4) 사랑의 편지 보내기 5) 사랑의 전화하기 6) 사랑의 선물 보내기 7) 사랑의 만남 갖기 8) 사랑의 관계성 확인 9) 사랑의 복음제시 10) 사랑의 초청하기

지역은 지회에 완전히 임무를 실천하도록 맡겼으며, 중앙본부에서 봉사하는 사역위원은 주로 예비역으로서 자원봉사자이며, 서울·경기 중심의 수도권을 9개 교구로 편성하여 군선교 회원교회를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회원교회들이 본교회 연결 군인신자의 정보사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본회 사역위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면 각종 기록사항들을 개교회별로 입력하여 차후 필요 시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 (4) 5단계 실천전략

지금은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다소 수정 보완되었지만 초창기에 5단계로 편성한 기본전략은 군인교회와 군선교회원교회(비전2020실천교회)가 민·군차원에서 확실하게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 ① 1단계 전략: 입대 전 전도/양육

###### a. 민간교회/대학생 선교단과의 공조전략

- 교단별 청소년 연합집회 시 군대에서 신앙생활 소개
- 대학생 선교단체 연합집회 시 군대에서 신앙생활 소개
- 대형교회 청년/대학부 영성수련회 시 군대에서 신앙생활 소개

###### b.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 전략

- 입대 직전 파송예배
- 입대 후 신앙생활 지도
- 전역 후 환영예배

###### c. 군선교사 훈련과정 설치운영

- 연 2회 기도원 활용

- 사명감 있는 평신도 군선교사 양육(군종병/기독교간부/신우회장)

##### ② 2단계 전략: 입대 후 전도·세례/양육

###### a. 진중전도/세례

- 군선교전략 요충지 집중전도/세례
- 장교 전도 및 세례
- 부사관 전도 및 세례
- 사병 전도 및 세례
- 군인가족 전도 및 세례
- 진중합동세례식 집중후원전략(민간교회와 1:1 연결 안정적 지원)
- 부대별 진중전도/세례 전략전술 개발 및 보급
- 세례신자들에게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소개

###### b. 진중 군인신자 양육(성경공부)

- 초급/중급/고급과정 양육
- 집사(안수) 후보 신자 양육
- 장로 후보 신자 양육
- 선발된 민간인 교역자를 통한 군인교회 양육
- 장병영성수련회를 통한 양육
- 군종병 집체교육을 통한 양육
- 조찬기도회를 통한 양육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양육

##### ③ 3단계 전략: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

###### a.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부투 활용

###### b.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교적카드를 작성/발송

###### c. 대대 군종병/연대급 군종병/기독교간부/여전도회원 중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후 실무를 담당(임명직분: 비전2020추진 부장/차장/위원)

##### ④ 4단계 전략: 군인신자 실천(일반)교회 연결

<sup>13</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45, 49-53

- a. 군목파송 11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  
기로 등록한 교회를 비전2020운동 실천교회(군선교회원교회)로 하  
며 군인신자를 연결하도록 함(연결통지서 월 1회 송부).
  - b.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함(시는 구 단위, 군은 읍·면 단위에 1개  
처 이상).
  - c.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청·장  
년 평균 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d.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실천교회로 연결함  
(전산시스템 운용).
  - e. 일반 신청 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함.
- ⑤ 5단계 전략: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 신자) 관리(양육)
- a. 방침
    -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시
    - 전역 후 반드시 본교회 등록 영접을 확인(종결)
    - 21세기 한국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이론 체계화)
    - 군인신자 관리기록카드(표준양식부록)에 의하여 약 25개월 양  
육기록유지
    - 실천교회 관리기록카드에 의하여 본부에서 관리
  - b.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 사랑의 등록: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사랑의 청지기: 1:1 집중관리자 선정 및 전담부서 조직
    - 사랑의 기도: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1')를 위해서 1분(1') 이  
상 기도
    - 사랑의 편지: 매월 서신, 후보, 책자 등 우송
    - 사랑의 선물: 절기별 기호품 선물 전달
    - 사랑의 심방: 연 1회 부대 방문심방

-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 시 교회로 초청
- 사랑의 영접: 전역 시 영접 환영 예배
- 사랑의 전도: 가족전도의 기회로 활용(평소)
- 사랑의 헌금: 전도, 세례 경비 후원(1명 세례 - 3천 원)<sup>14</sup>

#### (5) 참여대중화

비전2020실천운동은 명실상부하게 '애국애족운동', '신앙전력화운  
동',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갖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며,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실천하는 사역인 만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  
도운동을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  
가 1998년 개설된 이후 2005년까지는 중보기도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7년간 비전2020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여 서명한 성도가 전  
국적으로 약 1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일에 지금도 잊지 않고 중  
보기도 서명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파위는 대단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민족복음화를 이루자는 비전2020사역은 기도사역이 가장 근본이요  
뼈대요 핵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행하시기 때  
문이다.

한편 민간교회의 프로그램 실천 참여는 1999년 21세기 기독교 운동으  
로 선포할 때에는 약 1천여 교회였으나 현재는 군세례신자 명단이 가고  
있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4,300여 교회이다. 연결 받은 각 교회들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적용해 4,300여 교회가 제대로 사역  
을 실천했다면 이미 한국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금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4,300여 교회를 중심으로 비전2020사역이 다  
시 한 번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각 교회들의 상황과 여건이

<sup>14</sup> Ibid., 54-55.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군선교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선교연합회는 9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한편 비전2020사역의 대중화를 위해서 MEAK 중앙본부는 각종 교육 홍보영상물을 제작 및 보급해 왔으며,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을 제정(1999. 2. 26)하여 각종 군선교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다. 또한 군선교가를 제정, 노래를 통해 비전2020사역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은 국내는 물론 이미 세계화가 되었다. 그 근거로 군선교사역은 대한민국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전2020사역을 창안하였던 전 합참의장 이필섭 장로는 지난 2002년 세계기독교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분의 공로와 덧붙여서 대한민국 교회의 진중세례를 포함한 군선교사역을 경험한 세계기독교인연합회(AMCF) 임역원으로 활동하는 각국 지도자들은 한국 군선교가 모범적이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결코 중단 없는 비전2020사역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창대해져 가고 있다.

<sup>15</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 매뉴얼 22판」(2011. 3. 25), 28.

※ 군선교회원교회 실천 9모델 내용

1모델-군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2모델-본교회 출석 군인신자 양육/관리, 3모델-출석예정교인 양육(사랑의 10대 실천중심), 4모델-VIP가족전도, 5모델-진중세례(침례) 및 후원, 6모델-군선교 교역자 파송 및 후원, 7모델-군선교사업 참여 및 후원, 8모델-문화사역 및 위문활동, 9모델-상기 모델 중 2가지 이상 모델 실천.

## 4. 비전2020운동의 실천

### 1) 진중세례 결실과 특기사항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사역은 장병전도 세례사역이다. 지난 1990년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된 사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3년 동안 국내 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큰 변화와 대통령이 일곱 번 바뀔 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으며, 국가 안보적 환경,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자원의 부족과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입대자원만을 놓고 볼 때, 비전2020사역 계획을 처음 세울 때에는 연 35만 명이 입대하였으나, 지금은 연 약 28만 명이 입대하고 있다. 무려 약 7만 명이 줄었다. 군복무기간도 처음 계획이 진행될 때에는 육군 기준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으나 지금은 21개월이다. 병영 생활관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는 군선교 전략과 전술도 현장 맞춤형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군종목사 인원도 당시에는 약 350명이었으나 지금은 약 260명으로 90여 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대대급 교회에서 사역하는 군선교 교역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 탈바꿈하였다. 교역자의 연령이 65세 이하로 젊어졌으며, 전문교육을 받는 등 정예화가 되고 있다.

대대급 교회에서의 양육과 기간병 전도세례도 그 바탕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물론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지휘관과 장병 구령 열정이 강한 군종목사가 콤비를 이루면 최고의 결실을 맺는다. 반면에 지휘관이 반기독교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에 군종목사 또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주의적이면 세례 결실은 최악을 맞는다. 그러나 아무리 지휘관이 냉소적이라 할지라도 군종목사가 중심을 잡고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지휘관의 반대적 영향도 능히 다스리면서 소정의 목표성취를 이루어 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군종목사는 가는 부대마다 상황조건에 상관없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B라는 군종목사가 가는 부대는 아무리 상황조건이 선교적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곳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선교적 보안관계상 통계현황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해 본다.

(1) 연도별 수세실적 전체현황<sup>16</sup>

(단위: 명)

연도별	총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인 원	3,554,132	177,110	184,320	182,614	171,274	174,550	153,225	154,808	162,260	161,825	155,767
연도별	2002	2001	2000	'99	'98	'97	'96	'95	'94	'93	'92
인 원	182,230	186,959	187,156	216,080	207,951	177,003	190,000	186,000	130,000	128,000	85,000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진중 수세신자 수는 약 355만 명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열매이다. 물론 목표치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근본적으로 입대인원 감소를 고려하면 무난한 편이다. 또한 최초 계획 시 기세레신자 수를 연간 약 3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기세레신자 수는 평균 약 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25만 명 연결 기준으로 보면 약 3만 명 정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수세신자 약 18만 명+기세레신자 약 5만 명=약 23만 명).

<sup>16</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2013. 2. 21), 68-73.

(2) 최근부대별 3년치 대비 수세 증감 현황(2010~2012년)

〈육군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1군	2사단	2,831	2,271	1,187	-1,084	3군	6사단	3,407	2,865	2,680	-185
	7사단	4,016	4,046	4,646	600		8사단	2,116	1,694	1,161	-533
	11사단	2,024	1,349	1,711	362		9사단	2,128	2,245	2,415	170
	12사단	3,116	3,786	2,286	-1,500		17사단	2,810	2,226	2,005	-221
	15사단	3,104	3,681	3,364	-317		20사단	2,278	1,062	1,481	419
	21사단	3,428	4,138	4,174	36		25사단	4,273	4,478	2,666	-1,812
	22사단	3,805	3,058	2,550	-508		26사단	3,712	2,496	2,566	70
	23사단	1,258	819	1,248	429		28사단	1,944	2,464	3,233	769
	27사단	1,485	2,331	1,561	-770		30사단	2,551	2,213	1,762	-451
	36사단	1,056	947	980	33		51사단	1,391	1,665	646	-1,019
소 계	26,123	26,426	23,707	-2,719	55사단	730	1,569	1,295	-274		
2작사	31사단	2,000	2,836	1,965	-871	수기사	1,786	2,851	2,853	2	
	32사단	2,150	2,065	2,306	241	소 계	38,430	38,025	34,851	-3,174	
	35사단	2,005	2,229	2,155	-74	육군훈련소	63,906	71,972	76,057	4,085	
	37사단	1,226	1,510	1,644	134	특수전교육단	581	410	653	243	
	39사단	2,149	2,762	1,400	-1,362	부사관학교	510	780	1,338	558	
	50사단	4,603	3,923	2,685	-1,238	3사관학교	648	698	295	-403	
53사단	2,761	2,627	1,787	-840	육군사관학교	101	65	137	72		
소 계	16,894	17,952	13,942	-4,010	보병학교	2,552	3,061	2,389	-672		
3군	1사단	3,126	3,488	3,191	-297	학군교	2,273	2,446	888	-1,558	
	3사단	2,665	3,343	2,747	-596	소 계	70,571	79,432	81,757	2,325	
	5사단	3,513	3,366	4,150	784	일반부대	12,211	8,954	9,784	830	
합 계	10년도 / 164,229		11년도 / 170,789		12년도 / 164,041		증감 / -6,748				

〈해군 현황〉

(단위: 명)

〈공군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해군교육사	3,090	3,047	2,674	-373	공군교육사	8,983	4,332	4,939	607
해병대학교육훈련단	5,915	5,193	4,458	-735	해군사관학교	53	66	57	-9
해군사관학교	94	67	47	-20	일반부대	152	439	308	-131
일반부대	98	387	586	199	소 계	9,188	4,837	5,304	467
소 계	9,197	8,694	7,765	-929					

〈수세인원 3년간 대비 증감현황〉

10대비감소	10대비증가	11대비감소	11대비증가
25개 부대	18개 부대	26개 부대	18개 부대

〈수세부대 3년간 대비 증감현황〉

10년도	11년도	12년도	10대비증감	11대비증감
182,614	184,320	177,110	-5,504	-7,210

군종목사는 평균 2년 복무를 하기 때문에 3년치 통계 비교의 의미는 매우 크다. 증감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년(2010-2011년)은 약 3천 명 가까운 수세결실이나 2012년 결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휘관의 종교와 인간관계, MCF의 역할, 군종목사의 영적 파워와 지도력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진리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군종목사일수록 세례 결실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직도 진중 합동세례식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있는 이들은 다시 한 번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현재 1004군인교회 진중세례식은 한국교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 결의된 거룩한 예식이다. 육군훈련소 세례식은 군목과송 11개 교단의 공식 후원사업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이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대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 전도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한 후에 세례식을 집행한다면 분명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강제세례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지금의 진중세례는 완전 자율적이다. 본인이 원한다면 세례집례를 하고 계속 신앙 양육을 하면서 자대에 잘 정착하도록 보살피고 지역교회로 연결되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처리하면 된다.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기에 타 종교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전도해서 세례를 집행하여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복음적이지 않겠는가? 지상교회의 절대적 사명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있다. 또한 진중세례의 전략적 보강은 매우 고무적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훈련병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전천후 사역이다. 훈련 및 교육부

대에서 1차 전도 및 세례식이 집행되고, 2차는 자대 배속 후에 전개된다. 이등병에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상이다. 제대별로는 중대, 대 대급부터 군단, 군사, 본부까지 전 군인교회에서 1년에 두 번씩(전반기-6월 마지막 주일, 하반기-추수감사절) 진중세례 주일이 지켜지고 있다. 이 시스템이 더욱 안착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의할 수가 있다.

훈련병 때의 세례와 기간병일 때의 세례는 다를 수 있다. 세례 자체는 동일하지만 기간병은 그만큼 심오해져 있는 상태이다. 훨씬 더 어렵지만 제대로 전도하고 세례를 집행한다면 최고의 이상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군인신자 교적카드도 정확히 작성할 것이고, 주소도 정확하므로 지역교회 연결과 관리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비전2020사역 기간 중에 육군훈련소는 엄청난 영적 사건의 결실을 맺었다. 지난 1997년 4월 19일에 연병장에서 7,200명 수세결실을 맺었다. 누구도 그 결실을 앞으로는 능가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15년이 지나서 2012년 5월 19일에 9,519명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진중세례식에 참석하여 8,506명이 세례를 받고 1,013명이 축복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장병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이다.

세례예식은 본인이 죄 씻음 받은 표를 받고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으로 그다음부터 더욱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가면 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9절 말씀처럼 바울의 씨 뿌림과 아볼로의 물 주는 사역이 소중하지만 자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새겨야 한다.

**2) 군인신자 명단수집과 장병 종교전수조사 대비**

전도, 세례만큼 중요한 것은 신자관리이다. 군인교회 내에서의 관리와

지역교회로 연결을 위해서도 군인신자카드 작성과 수집은 필수요소이며, 핵심 업무이다.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면 우리는 그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양육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신자카드 작성이다. 즉 교적관리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에너지를 투자하여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출생은 시켰으나,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양이 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지금의 군중정책 중에 각 종교별로 군중장교 정원 분배와 기타 운영 등에 종교별 신자 수가 기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장병 종교전수조사’ 라는 제도를 도입,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본인이 서명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4년여 통계결과로 군중목사 3명이 증원되었다. 진중세례결실은 선교적 측면만 아니라 군중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중세례신자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관리의 첫 번째 핵심업무가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되는 신자카드는 본인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고, 군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전수조사에 바르게 답하여 부가가치를 얻고, 거주지 지역교회로 연결되어 출석예정 교인으로 관리되면서, 그 가족까지 전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비전2020사역의 핵심은 전도세례와 신자카드 작성과 연결, 더 나아가 장병 종교전수조사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진중세례·명단수집·연결인원·전수조사 인원대비 현황〉<sup>17</sup>

구 분	세례인원	명단수집인원	연결인원	전수조사인원
총 계	2,658,290명	1,715,173명	1,357,800명	746,739명
2012년	177,110명	131,438명	108,562명	180,497명
2011년	184,320명	147,178명	127,285명	171,245명
2010년	182,614명	132,744명	108,035명	200,656명
2009년	171,435명	122,781명	104,393명	194,341명
2008년	174,550명	163,733명	104,234명	
2007년	153,225명	122,637명	105,160명	
2006년	154,808명	146,955명	89,135명	
2005년	162,260명	107,928명	93,212명	
2004년	161,825명	114,434명	100,815명	
2003년	155,767명	92,810명	68,965명	
2002년	182,230명	111,798명	110,248명	
2001년	186,959명	143,996명	102,881명	
2000년	187,156명	128,535명	96,393명	
1999년	216,080명	37,129명	30,430명	
1998년	207,951명	11,077명	8,052명	

상기 도표 현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진중세례인원만 큼 명단수집인원도, 연결인원도, 전수조사인원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특별히 전수조사인원 현황은 곧 군중정책의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평소에 보다 더 실무적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매뉴얼대로 실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비전2020사역은 매우 건강한 사역이 될 것이다.

### 3) 진중세례신자의 자대 정착과 양육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차이의 핵심 문제점의 원인은 훈련소, 교육사, 신교대, 훈련단 등에서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자대로 배속된 후에

<sup>1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2013. 2. 21), 68.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대는 교육부대와 확연히 그 분위기와 생활 시스템이 다르다. 비전2020사역을 실천하는 일반 군선교회원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소속부대의 주소 등 빠짐 없는 정확한 기초정보 내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비전2020사역’의 알찬 결실과 실천을 위해서는 훈련을 마치고 전입해 오는 진중세례신자인 신병들을 잘 영접하여 자대 군인교회에서 반드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중세례신자의 양육의 첫 단계는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성장을 위하여 각 교회별 나름대로의 양육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여 자대교회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전입해 오는 시점으로부터 처음 3개월 기간 동안은 집중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양육활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모든 군인교회들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는 군인신자 기록카드(교적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부대주소가 있는 기초정보를 군선교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교회 연결과 사랑의 양육 등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결과적으로 군 내부와 군 외부에서 진중세례신자인 초신자들을 향한 입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 4) 군인교회 영적 부흥을 향한 기도운동 전개

21세기 기독교 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은 현 시점에서의 한국교회와 청년전도 및 영적 부흥운동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쇠퇴기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군선교현장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군선교현장이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영혼구원 사역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유일한 선교적 비전 실현의 원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상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전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양육) 지키게(실천) 하라”는 말씀, 즉 건강한 교회로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실천적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기도이다. 기도 없이는 결단코 이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없다. 이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다.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목사나 군선교 교역자, MCF 회원, 가족, 신우형제 등의 기도운동으로부터 다시 한 번 진중에 비전2020사역의 불을 지폈으면 한다.

물론 일반 군선교회원교회도 기도운동이 먼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일에는 기도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비전2020사역자들이 스스로 더 강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원천은 곧 기도이다. 기도하면 책임감도, 지혜도, 담대함도, 연합도, 긍정적인 마음도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 비전2020사역이, 진중전도세례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청년전도의 원천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더 강한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남은 7년여 동안 다시 한 번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정밀한 사역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자.

대한민국 1004군인교회의 영적 부흥운동을 5만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운동으로 이끌어 나가자. 기도할 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쫓개게 될 것이다. 기도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가장 지혜로움으로 사명감을 심어 줄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기도야말

로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꺼지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 5)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비전2020사역의 완성

비전2020운동이 영혼구원 전도사역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우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한다. 교회를 경작하라.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먼저 교회를 말끔과 행위사역을 함께하는 옥토로 만들어 교회 되게 해야 비전2020운동의 열매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먼저 교회를 통전적(wholistic) 시각으로 보게 하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옆문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혼구원뿐 아니라 육신구원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둘째, 말씀사역과 자비사역을 통해 개인 성장과 교회의 질적 성장이 함께 오게 한다. 그러면 양적 성장도 이루게 된다.

기독장병들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아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무사고, 무사기한 병영 천국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음의 매뉴얼을 찾아 숙지한다.

- ① 선한 마음(33): 불쌍히 여기는 마음(그리스도의 사랑)
- ② 정확한 진단(34): 가까이 접근하여 상태 확인(관심 표현)
- ③ 응급조치(34):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맬(문제해결)
- ④ 계속치료(34):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봄(지속적 관리)
- ⑤ 사후관리(35):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하고 계속 돌볼 것 주문(끝까지 책임)

그 일을 위한 천사 역할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사하기: 먼저 접근하는 당신이 천사(웃으며,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 ② 경청하기: 공감하는 당신이 천사(이입감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 ③ 동행하기: 함께하는 당신이 천사(위기의 순간에 헬퍼로서)
- ④ 칭찬하기: 격려하는 당신이 천사(낙심 중에 소망을 갖도록)
- ⑤ 선행하기: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생명구원을 열심히)

1004군인교회 장병들이 진중에서 각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강한 병영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는 천사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전2020운동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된 통일조국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sup>18</sup>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선사인 사역은 비전2020사역의 완성인 것이다.

## 5. 비전2020운동의 비판적 연구

### 1) 긍정적인 면

#### (1) 연합운동

- 군선교사역은 교회연합, 교단연합, 지역연합, 민·군연합, 기관연합 운동이다.

#### (2) 전도운동

-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전도운동이다.
- 특별한 군선교사역은 유일한 청년전도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지상교회의 사명은 불신자 전도이다. 군선교는 생명전도운동이다.

<sup>18</sup> 이종윤, 「군선교신학」10 (서울: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10. 10), 33-34.

### (3) 애국운동

- 20대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을 정립시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는 애국운동이다.
- 바른 신앙과 바른 습관으로 훈련된 청년들이 사회와 국가의 중심이 될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설이 가능하기에 애국운동이다.

### (4) 강군육성운동(병영 치유)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믿게 하므로 승리하는 필승의 강군이 되는 운동이다.

### (5) 민족복음화운동

- 비전2020운동은 민족복음화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 민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민족 살리기 운동이다.

### (6) 평신도운동

- 비전2020운동은 공교롭게도 세례(김진영 장로)와 연결(이필섭 장로) 사역 모두 출발점이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장로님들로부터 시작된 평신도운동이다.
- 입대 전 기독교청년들을 군복무기간 동안 평신도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운동이다.<sup>19</sup>

## 2) 부정적인 면

<sup>19</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청년들을 군선교사로 훈련시켜 파송함으로써 군복무기간 동안에 단순한 군복무가 아니라 군선교사로서 복무토록 권장하며, 구체적인 '군선교사훈련 프로그램'인 '청년비전캠프'를 매월 둘째 주일 이 지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갖고 있다.

### (1) 타 종교와 경쟁

필연적인 사실이며 현실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는 말씀대로 도덕종교가 아니라 생명신앙이다.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 진리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명제는 영원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아니라 필연적 현실일 뿐이다. 진리 안에서 우리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을 뿐이다.

### (2) Nominal Christian(명목상 신자) 양산

부인할 수 없는 일부 현실이다. 그러나 전체 비율로 볼 때는 미미하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렸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기에 자연스럽게 타 종교에 갈 수 있다. 호기심일 수도 있고, 간식 및 이벤트 행사로 인하여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의 사명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장벽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내심을 갖고 계속 양육하면서 인도하면 된다. 기독교 진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전도의 대상인 것이다.

## 6. New 비전2020실천운동의 미래전략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고 하였다. 비전2020운동의 실천은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씨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전력했으나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재검토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부족을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고전 3:9)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므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께서 100% 하신다. 동시에 인간이 100% 한다는 것이 성경원리다. 하나님100% + 인간100%가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사시킨다.

### 1) 비전2020실천운동의 미래전략: ABC 3-Pr원리

ABC 3-Pr원리는 Ardent Prayer(열렬한 기도), Biblical Preaching(성경적 설교), Consistent Program(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1) 열렬한 기도(Ardent Prayer)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8).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을 성령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경우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마 6:10).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신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막 9:29).

이제야 알 것 같다. 왜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하시는 비전2020운동을 실천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열렬한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임을 고백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 ① 365일 새벽기도회

천사(1004)군인교회는 365일 새벽기도회 시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기도를 쉽 없이 해야 한다.

#### ② 홍해작전

매년 6월 6일(현충일)부터 6월 25일(6·25한국전쟁) 20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어 홍해작전을 시행한다.

- a.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와 동일시하고 기도와 말씀작전으로 홍해를 건너는 작전을 전 군부대교회가 시행한다.
- b. 나라와 부대의 당면한 문제 그리고 지휘관과 부대와 전우의 안녕을 위하여, 비전2020운동 전도대상자를 위한 특별기도제목 등을 5개 내지 10개 이내로 정하여 기도카드를 만들어 기도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열열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2분씩) 기도하게 하고 새벽에 함께 기도한다.
- c.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합주단 조직  
2020년까지 연속 기도하는 기도합주단을 모아 제대 후에도 기도동지로 계속 ‘열열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2분씩) 기도하는 그룹으로 만든다.  
기도합주단 이름은 각각 자기들이 지어 붙인다. 기도합주단 구성요원은 계급이나 지위 상관없이 기도 동역자로 5-10명 내외로 한다.  
이와 같은 기도운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지속성이 요구된다. 다른 이를 위한 도고를 해야 하므로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2-3).

## d. 협력교회 기도지원

군선교 지원(협력)교회들로 하여금 군인교회가 시행하는 흥해작전 기간(6.6-6.25) 동안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 결고리는 부대 군목(군선교사역자) 책임하에 지원(협력)교회에 기도요 청서를 적어도 흥해작전 1개월 전(5월 5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2)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세상 이야기와 철학을 설교로 둔갑시켜 선포하는 이 시대의 강단이 변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신세대 젊은이들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와 가치관에 몰들었다고 성경 이외 다른 복음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즉 성경만으로 전도, 교육, 개인과 사회변화를 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즉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방법으로 정확무오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심리적, 사회학적, 문화적, 인류학적 접근법을 사용한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kerygma)가 아니다. 성경적 설교를 선포함으로 군인교회의 목회가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상승케 된다. 군목(군선교사역자)들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것들을 제시한다.

① 강해설교 방법 특장을 통해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경적 설교자로 다

시 나게 한다.

2박 3일 기간 중(1일 8시간×3일=24시간) 66권 성경 중 1권을 끝내는 Practicum까지 한다.

② 1,000편의 강해설교집(각 설교 편당 A4 1page 분량)을 출판하여 군목(군선교 사역자)들의 설교사역을 돕는다.

성경적 설교와 성경공부가 개인 심성을 치유 또는 변화시키고, 부대와 부대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킨다.

## (3)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Consistent Program)

교회 프로그램은 회중의 신앙을 갱신시키고 복음증거자로서 성도들을 전군복음화에 기여케 한다. 교회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되 3개의 E기둥을 세운다. 3개의 E기둥이란 Education(교육), Evangelism(전도), Expenditure(낭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① 크리스천 교육—하나님의 말씀(christian education of the whole christian leaders)/양육사역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은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첫째, 거듭난 인간, 둘째, 성숙한 신자, 셋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양성에 있다.

거듭난 성도가 미숙아처럼 자기만 돌보라고 하면 문제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군인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하고, 군인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② 전군복음화—하나님의 뜻(evangelization of the whole ROK)/전도사역

모든 민족(whole nations)에게, 분부한 모든 것(복음, whole gospel)을,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세상 끝 날까지(시간적 끝까지), 땅 끝까지(공간적 끝까지) 전파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다.

군인교회 모든 신자들이 전도자의 사명감을 갖고 각 교회별로 전도배가 운동을 실천한다.

비전2020운동은 전군신자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운동이다.

③ 거룩한 낭비—하나님의 사랑(holy expenditure of the whole believers)/선샤인 사역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부음으로 왜 낭비하는가(마 26:6-13)라는 제자들의 불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시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다. 거룩한 낭비는 오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이웃 사랑의 방법이다. 군선교사역 중 선한 사마리아 운동이 바로 거룩한 낭비 운동이다. 이 구제사역, 사랑사역을 통해 듣지 못한 이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이를 보게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해야 한다.

## 2) 지휘관 협력을 유도

① 예비역 전 지휘관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부대를 예방하게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해 부대장으로 하여금 부대원의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군중 업무 협조를 부탁하게 한다(한국군선교연합회에 특별 부서를 설정하여 가급적 예비역들이 전에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지휘관과 인적 관계를 배려하여 연결시킨다).

② 국방부, 삼군 본부 등도 방문하여 격려한다.

## 3) 일반교회 협력을 유도한다.

① 비전2020실천운동 교회로 지정한 교회를 활성화하고 확장한다.

② 협력교회 내 기도합주단을 조직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기도합주단을 협력교회에서도 여러

그룹으로 조직하게 하여 ‘열열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2분씩) 기도하게 하고 매달 1,000원씩 헌금하게 한다.

## 7. 실제적 제안(Practical Suggestions)

한국교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서 국가 차원의 애국애족운동이요, 군 차원에서는 신앙전력화운동임을 선포하였다. 여기까지 속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끌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드리자. 무조건 긍정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사역 내용들을 살펴보자. 무조건 꽃대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헌신하는 1004군인교회, 4천여 군선교회원교회,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 군선교 유관기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앙본부를 비롯한 국내외에 있는 지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하나, 비전2020실천운동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열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새 마음과 각오로 2020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자. 다시 한 번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는 사명감을 회복하고 결단하여 더 강하게 실천하자.

둘, 1004군인교회는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MCF 임직원 및 회원, 군종병을 비롯한 신우형제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세례를 집례하고 명단을 수집하여 군선교연합회로 보내고 전입해 오는 군세례신자 신병의 자대에서의 빠른 정착과 지역교회로의 연결을 위해 군인교회용 비전2020실천 프로그램인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자. 특별히 신자카드, 즉 교적부 관리를 확실히 하고 완전한 행정업무 관

리로 비전2020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진중세례신자를 지역교회로 연결할 때 부대주소가 있는 자료만을 연결하도록 하자.

셋, 약 4,000 군선교회원교회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제직들과 군선교사역 담당자들이 비전2020사역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만들자. 청년전도에 있어서 유일하게 살아 있는 곳임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6-9절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넷, 진중세례신자 수, 장병 종교전수조사 수, 명단수집 및 연결신자 수, 결연된 신자 수가 동일하게 되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매뉴얼대로 책임 있는 임무수행에 최고, 최상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하자.

다섯, 장병영혼구원 사역인 '비전2020실천운동' 과 '좋은 군사' 로 만들자는 '선샤인 사역' 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한국교회 재부흥의 역사를 창출하는 선교적 전략전술이 되도록 기도사역을 실천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 '비전2020사역' 과 '선샤인 사역' 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하자. 그 중심에 우리가, 내가 있도록 하자.

여섯, New Vision 2020운동 ABC 3-Pr원리를 실천하여 2020년까지 민족 75%를 복음화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일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죽도록 충성하자.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 1004군인교회를 중심 -

An Interim Assessment and Suggestion for Vision 2020 Movement

정재원 Jeong, Jae Won

- 17사단 군종참모
- 신반포중앙교회
- 풀러 신학대학원수학
- 총신대 대학원(Ph. D)
- 예비역군목(#50)
- 현 사랑의교회 부목사



## 1. 들어가는 말

비전2020실천운동이 선포되고 태동하던 1990년대 후반기 군교회들은 병사들로 넘쳐났다. 거의 모든 부대들이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등병들은 인성교육 및 사고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했고, 그들 대부분은 교회로 몰려들었다. 반강제적 참석 지시가 아니더라도 숨 막히는 내무반에서 잠시라도 떠나기를 원

하는 이등병들에게 교회는 탈출구였고 피난처였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무실에서는 선임들의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예배 후에 나눠 주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그리워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던 그 시절.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군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아가 군선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비전2020’ 이 선포되고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천 년대 들어서 병영문화는 어지러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10여 년 만에 너무도 다른 모습의 병영 환경이 구축되었다. 종교행사 참석 강요는커녕 강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강조되면서 병사들의 무종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국방부에 내려졌고, 이로 인해 군 신앙전력화의 대표 슬로건이었던 ‘1인1종교갓기운동’은 구시대 유물이 되었고, 무종교 병사들이 50%를 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군에 마련되었다. 현대식 병영시설 개선사업으로 1실 6인의 최신식 생활관들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2012년부터는 ‘동기생활관’ 제도가 운영되어 말 그대로 동기들끼리만 생활하는 편안한 생활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병 상호간의 관계도 과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군의 급격한 변화는 군선교의 환경과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믿음이 없는 병사들에게 더 이상 교회는 피난처나 탈출구가 아니며, 교회보다 더 편리하고 재미있는 여가생활이 생활관에서, 체육관에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군종목사들은 군선교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년째 추진되어 오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이런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추진 동

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18년간의 각종 통계들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평가해 보려고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이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 2020년까지 이제 7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향후 7년의 시간이 지난 18년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2. 비전2020실천운동 고찰

### 1)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비전2020실천운동은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미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3만여 명을 제외한 27만여 명 중에서 매년 22만여 명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이미 세례 받고 군에 들어오는 3만여 명과 군에 입대한 후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22만여 명을 장성한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한 후 민간교회로 매년 25만여 명씩 파송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이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민간교회로 넘겨진 국군장병 한 명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세울 경우 최소한 4명의 기독교 신자가 가장이 된다고 판단할 때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은 100만여 명 기독교 신자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2020년도까지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20년도까지 새로운 기독교 신자가 2,500만여 명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1996년도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 1,200만여 명에 25년 동안 새롭게 증가될 2,500만여 명 기독교 신자를 합하여 도합 3,700만여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만약 세워진 목표대로 달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만여 개

의 민간교회에서 25년 동안 계속 전도할 것이므로 거의 3,700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무난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2020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5천만 여 명 중 3,700만여 명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신앙전력화운동이며,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된, 명실공히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됨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선교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이자 목표이다.

## 2)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개념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개념은 1,000여 개 군인교회가 전도와 세례를 실시하고, 4만여 일반교회가 후원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에서는 군인교회와 일반교회를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역할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3,700만 성도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1천여 군인교회는 목표를 매년 25만 명의 기독교신자를 배출(군인세례 22만 명+입대 전 세례교인 3만 명)하여 2020년까지 625만 명(매년 25만 명×25년)을 배출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한 주요활동은 목표달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적극적인 전도와 세례를 주고 이들을 양육하고 일반교회에 연결해 주며, 아울러 군선교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5만여 개의 일반교회는 군에서 세례 받은 자를 미래교인으로 등록하고 매년 25만 명을 영입하여 25년 후 625만의 믿음의 가정으로 육성하여 3,700만 성도의 나라(625만 명×4인 가족+1,200만 명)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주요 활동은 기도와 교제(서신, 전화, 심방, 초청)를 통한 예비등록교인을 관리하고, 진중세례식을 후원하며 1:1 연결을 통한 고정 지원과 본인 전역 전에 그의 가족도 집중전도하고 전역 후에 교회

〈표1〉 Vision2020실천운동 전략<sup>1</sup>

3 천 7 백 만 성 도 의 나 라	군 인 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 배출 (군인세례인원 22만 명+입대세례교인 3만 명)</li> <li>- 2020년까지 625만 명 배출 (매년 25만 명×25년)</li> </ul> </li> </ul>
	(전도 세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활동 :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달성을 위한 기도</li> <li>- 적극적인 전도와 세례</li> <li>- 양육과 일반교회 연결</li> <li>- 군선교 기관과 협력</li> </ul> </li> </ul>
	일 반 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등록교인(매년군인신자 25만 명 영입)</li> <li>- 가정복음화 : 625만 믿음의 가정 (매년 25만 명×25년)</li> <li>- 민족복음화 : 3,700만 성도의 나라 (625만 명×4인 가족=2,500만 명) (매년 25만 명×25년)</li> </ul> </li> </ul>
	(후원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활동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P 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li> <li>- 예비등록교인관리: 기도, 교제(서신, 전화, 심방, 초청)</li> <li>- 세례식 후원: 1:1 연결을 통한 고정지원</li> <li>- 가족전도: 본인 전역 전 가족 집중전도</li> <li>- 전역 후 영접: 본인 출석</li> </ul> </li> </ul>
	실 천 운 동 부 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만 명 후원교회 선정 연결</li> <li>- 매년 25만 명 관리배출 확인</li> </ul> </li> <li>•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만 명 양육관리 후원교회 확대 관리</li> <li>- 후원교회의 적극적인 실천 보장</li> <li>- 군인교회, 일반교회 사역협력 총괄</li> </ul> </li> </ul>

<sup>1</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아주 특별한 선교」(창간호) (서울 :한국군선교연합회, 2002), 61.

에 출석하도록 영접하는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이와 같이 군교회와 일반교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확인 하면서 21세기 기독교 운동 실천과 교단, 교회 연합사역 실천을 목표로 하며, 주요 활동은 미래출석교인을 양육, 종합관리하고, 군선교회원교회 육성과 지회를 육성하여 지역중심의 실천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3) 비전2020실천운동 3대 중요전략<sup>2</sup>

#### (1) 전도전략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여만 명의 국군장병들 중에서 22만여 명의 영혼들을 전도 및 구원하여 진중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목표를 가진다.

#### (2) 양육전략

매년 세례 받고 군에 들어오는 3만여 명과 군에서 세례 받은 22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장성한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 (3) 파송전략

매년 군대에서 제대하는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하는 것과 인수인계하는 목표를 가진다.

<sup>2</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 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9.

### 4) 비전2020실천운동 5단계 실천전략<sup>3</sup>

#### (1) 1단계 전략: 입대 전 전도 및 양육

##### ① 민간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의 공조 전략

여기서는 교단별 청소년 연합집회 시, 대학생 선교단체 연합집회 시, 대형교회 청년 및 대학부 영성수련회 시 군대에서의 신앙생활을 소개한다.

##### ②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 전략

해당 교회에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 대하여 입대 직전 파송예배를 드리고 입대 후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전역 후 환영예배를 드려 줌으로써 신앙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 주는 전략이다.

##### ③ 군선교사 훈련과정 설치 운영 전략

연 2회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활용하여 사명감 있는 평신도 군선교사로 양육(군종병/기독교간부/신우회장)하는 전략이다.

#### (2) 2단계 전략: 입대 후 전도·세례 및 양육

##### ① 진중전도와 세례를 통한 신자 확보 전략

군선교 전략 요충지를 집중하여 전도 및 세례를 베푸는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인가족들에게 세례를 준다. 특별히 진중 합동세례식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전략(민간교회와 1:1 연결을 통한 안정적 지원)을 가진다. 또한 부대별로 진중전도와 세례 전략전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세례 신자들에게는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 ② 진중 군인신자를 양육하는 전략

이것은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군인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되 집사(안

<sup>3</sup> Ibid., 54-55.

수) 후보신자, 장로 후보신자를 내는 필수과정으로 도입하고, 선발된 민간인 교육자를 통하여 군인교회에서 이러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 (3) 3단계 전략: 군인신자 교적카드 관리

이 전략은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봉투를 활용하여 군인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군인신자 교적카드를 작성·발송하고, 대대 군종병/연대 군종병/기독간부/여전도회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임명한 후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군인신자 연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4) 4단계 전략: 군인신자와 군선교회원교회 연결

이 전략은 군목파송 11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하기로 등록한 교회를 군선교회원교회로 정하여 군인신자를 연결하는 것이다(연결통지서 월 1회 송부).

군선교회원교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시는 구 단위, 군은 읍·면 단위에 1개 처 이상)하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나 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청장년 평균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군선교회원교회로 연결(전산시스템 운용)하고, 일반 신청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한다.

### (5) 5단계 전략: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신자) 관리 및 양육

#### ① 연결된 군인신자 관리방침

- a.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시
- b. 전역 후 반드시 본교회 등록 영접을 확인(총결)

- c. 21세기 한국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이론 체계화)
  - d. 군인신자 관리기록카드(표준양식부록)에 의하여 약 24개월 양육 기록 유지
  - e. 군선교회원교회 관리기록카드에 의하여 본부에서 관리
- #### ②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
- a. 사랑의 등록: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b. 사랑의 청지기: 1:1 집중관리자 선정 및 전담부서 조직
  - c. 사랑의 기도: 1:1:1 기도실천, 공식 집회 시 기도
  - d. 사랑의 편지: 매월 서신, 주보, 책자 등 후송
  - e. 사랑의 선물: 절기별 기호품 선물전달
  - f. 사랑의 심방: 연 1회 부대 방문심방
  - g.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 시 교회로 초청
  - h. 사랑의 영접: 전역 시 영접 환영 예배
  - I. 사랑의 전도: 가족전도의 기회로 활용(평소)
  - j. 사랑의 헌금: 전도, 세례경비 후원(1명 세례 시 3천 원)

### 5)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제<sup>4</sup>

- ① 제1모델 - 중보기도사역
- ② 제2모델 - 군선교사 파송(입대 전 청년 양육, 청년비전캠프)
- ③ 제3모델 - 군인신자 결연양육(사랑의 10대 실천사항)
- ④ 제4모델 - 군세례장병 가정 전도(VIP 가족 전도)
- ⑤ 제5모델 - 문화사역(위문집회, 찬양, 공연, 영상물 등)
- ⑥ 제6모델 - 진중세례 집례 및 후원
- ⑦ 제7모델 - 군선교 교역자 파송 및 후원

<sup>4</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 매뉴얼 22판」(2011), 30-45.

⑧ 제8모델 - 군선교연합회 정기 후원회원 등록

6)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 및 사역 분담<sup>5</sup>

〈표2〉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 및 사역 분담

구 분	군 인 교 회	군선교연합회(MEAK)	군선교회원교회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앙전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예방, 사기진작</li> <li>명량한 병영생활 조성</li> </ul> </li> <li>국가 공인 엘리트 청년 전도/결연/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군인신자 25만 명 연결 (군세례인원 22만 명 + 입대세례교인 3만 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민족·인류복음화 기여</li> </ul> </li> <li>군종목사파송 11개 교단 공동협력</li> <li>한국교회 연합사역 모델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회부흥/출석예정교인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25만 명 군세례신자 연결</li> </ul> </li> <li>지역복음화/VIP가족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25만 명 × 25년 = 625만 가정</li> </ul> </li> <li>민족복음화/3,700만 성도의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5만 명 × 4인 가족 = 2,500만 명</li> </ul> </li> </ul>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도 - 세례(침례)</li> <li>연결 - 명단수집, 확인</li> <li>양육 - 예배출석, 성경공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종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지역중심의 실천</li> <li>군목파송 12개 교단과 공동 협력 사업전개</li> <li>군선교회원교회 육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원 - 기도, 물질</li> <li>양육 - 출석예정교인등록, 관리</li> <li>전도 - VIP(귀빈) 가족전도</li> </ul>
전 술 (실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신신우 전도</li> <li>결신전우 세례(침례)</li> <li>초신전우 양육</li> <li>양육전우 결연</li> <li>결연전우 관리</li> </ol> </li> <li>비전 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인교회 관련업무 총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과 민을 연결하는 전문 창구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개발</li> <li>실무업무 전체</li> <li>교육(군인교회, 회원교회)</li> <li>홍보</li> <li>전산(군인교회, 회원교회, 중앙본부, 전국지회)</li> <li>방문활동(군인교회, 회원교회)</li> <li>후원확보(목적후원, 정기후원)</li> <li>군선교사 훈련(군인대예정자)</li> <li>특별예배</li> <li>중보기도 서명운동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선교연합 조찬기도회 실시</li> </ul> </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선교회원교회 9모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모델 - 군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li> <li>2모델 - 본교회 출석 군인신자 양육관리</li> <li>3모델 - 출석예정교인 양육 (사랑의 10대 실천중심)</li> <li>4모델 - VIP 가족전도</li> <li>5모델 - 진중세례(침례) 및 후원</li> <li>6모델 - 군선교 교역자 파송 및 후원</li> <li>7모델 - 군선교사업 참여 및 후원</li> <li>8모델 - 문화사역 및 위문활동</li> <li>9모델 - 상기 모델 중 2가지 이상 모델 실천</li> </ol> </li> </ul>

구 분	군 인 교 회	군선교연합회(MEAK)	군선교회원교회
출석 예정 교인 연결 체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도/진중세례(침례)</li> <li>군인 신자카드 작성 및 전산입력</li> <li>군인신자카드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선교연합회(비전2020본부)</li> </ul> </li> <li>군인신자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일예배 출석</li> <li>초신자 성경공부 실시</li> <li>비전 부조직 및 업무 총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인신자카드접수(전산디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입력전산처리</li> </ul> </li> <li>명단 - 군선교회원교회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선교회원교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본부)</li> <li>지방(지회)</li> </ul> </li> </ul> </li> <li>종합점검 및 정책개발</li> <li>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지기 임명</li> <li>선물 보내기</li> <li>심방하기</li> <li>초청하기</li> <li>초청하기</li> <li>영접하기</li> <li>편지 보내기</li> <li>후원하기</li> <li>VIP(귀빈)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도대상자</li> <li>사랑의 선물 등록 보내기</li> <li>전도특공대</li> <li>사랑의 만남</li> <li>사랑의 기도</li> <li>사랑의 관계성 확인</li> <li>사랑의 편지</li> <li>사랑의 복음 제시</li> <li>사랑의 전화</li> <li>사랑의 초청</li> </ol> </li> </ol> </li> <li>군선교사 파송(기독교청년회 - 주일학교교사, 청년대학부 임원, 성가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복무기간을 군선교기간 병행</li> </ul> </li> <li>군선교연합회 제시 업무 사항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자 실무교육 참여</li> <li>행정사항 실행</li> <li>모델교회를 목표로 실천</li> <li>각종 사례수집 전파</li> <li>중보기도 회원확보(서명운동 참여)</li> <li>전 교인 대상 특별예배, 홍보설명회 실시</li> </ul> </li> </ul>

7)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되고 있다. 첫째, 군선교를 통한 세례장병 25만 명이 매년 일정 수준의 그리

<sup>5</sup> Ibid., 28

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배출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군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 정도로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둘째, 이 세례 장병이 제대 후 민간교회나 학교, 직장에 모두 연계되어 교회에 소속되고, 지속적인 양육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이 한 가정(4인 가족 및 친지)을 이룰 때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비록 현 교회의 신자 증가의 정 체현상 속에서도 전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하며, 교회학교를 통한 젊은이들의 전도와 양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가 복음통일과 세계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전2020 실천운동의 목표달성(75% 복음화)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이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양적·질적 성장의 동시적 목표와 수준의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회 신뢰회복과 한국교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교회부흥이 뒤따르지 않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은 무가치하며 의미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영혼구원과 치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한국인의 꿈을 주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이웃에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비전 2020실천운동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달성될 것이다.<sup>6</sup>

## 8)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창설<sup>7</sup>

<sup>6</sup> 정성길, “비전 2020 군선교 실천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 선교전략 연구” (켈리포니아신학대학원, 1999), 52-53.

<sup>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 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10-16.

2020년까지 3,700만 명 성도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추진본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 11월 20일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부설기구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위원장에 이종윤 목사를, 본부장에 이사 이필섭 장로를 선임 추대하여 1998년 2월 23일에 창설되었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군인 및 일반교회의 군선교사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통합하여 비전2020의 3대 실천과제인 군의 전도 및 세례, 교회 및 기관의 기도와 재정후원, 군인신자들의 일반교회 연결 및 관리활동을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당시 군 목 파송 10개 교단<sup>8</sup> 총무와 교단장,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회원교회(당시 명칭 등록교회)들이 각각 비전2020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비전2020운동은 한국 예비역 기독교장교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민간교회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선교운동이 되었고, 21세기 민족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선교전략으로 인정을 받고 이를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 9)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개과정

1996년 진중세례 목표인원을 수립하여 세례운동으로 시작한 비전 2020실천운동은 1998년 민간교회들 가운데 군선교회원교회를 지정하여 세례 받은 장병들과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sup>8</sup>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합동, 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이다.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까지 11개 교단이다.

세례와 더불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양육의 문제를 위해 장병들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대급 교회들을 신축하거나 보수하고, 대대급 교회들을 목회할 민간 지원 성직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민간 지원 성직자들 교육을 위해 한국 군선교 교육원을 개설하여 13주 과정으로 군선교학, 군목회학, 군종학, 군상담학 등 4개 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전반기까지 13개 기수가 교육을 받았으며 총 수료인원은 약 640명에 이른다. 또한 장병들 양육을 위해 「좋은 군사», 「더 좋은 군사», 「TEE영상교육자료」 등 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였으며, 최근에는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사고예방이라는 군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병영 내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장병들을 좋은 군사로 양성하여 실천적인 크리스천이 되게 함으로써 건강한 병영을 만들고 이를 위해 1004군인교회 모든 장병들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선사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표3〉 연도별 군선교 교역자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담	-	-	-	-	-	-	341
비전담	-	-	-	-	-	-	134
총계	404	-	-	-	-	684	475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담	-	354	389	370	367	388	362
비전담	-	268	287	274	223	222	216
총계	680	622	676	644	590	610	578

〈표4〉 교단별 군선교 교역자 현황 및 군선교교육원 수료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사역구분별				계	직분별			
	전담 (교육원)	비전담 (교육원)	65세 초과자	불명		목사	강도사	전도사	기타
군종목사 파송교단	고신	13 (12)	4			17	17		
	기감	94 (74)	26 (7)			120	93		27
	기성	3 (3)	7			10	9		1
	기장	-	6		1	7	7		
	기침	30 (18)	11 (3)	1	1	43	41		2
	기하성	12 (9)	7 (2)	1	1	21	19		2
	대신	29 (23)	7 (1)		1	37	36		1
	백석	31 (25)	7 (3)	3		41	36	1	4
	예성	16 (14)	3 (1)		1	20	17		3
	통합	62 (47)	44 (12)	3		109	98		11
합동	56 (44)	43 (13)	11	2	112	109		3	
기 타	40 (30)	33 (4)	4	1	78	74		4	
불 명		1		6	7	7			
합 계	386 (299)	199 (46)	23	14	622	563	1	58	

〈표5〉 연도별 교회 신축 및 증개축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축	41	26	25	29	39	33	31	37
증개축	4	5	7	10	8	15	15	8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축	26	29	31	27	18	18	26	436
증개축	22	18	20	14	18	11	9	184

### 3. 각종 통계를 통한 비전2020실천운동 평가

#### 1) 진중세례 통계

〈표6〉 진중세례 통계

연도	세례(기)	영세(천)	수계(불)
1996	190,000	4,739	62,136
1997	177,003	6,597	77,570
1998	207,951	6,597	77,570
1999	216,080	10,618	80,607
2000	187,156	14,512	80,539
2001	186,959	21,387	83,317
2002	182,230	19,687	81,542
2003	155,767	19,100	72,507
2004	161,825	22,626	67,268
2005	162,260	28,106	67,744
2006	154,808	27,233	62,184
2007	153,225	34,001	61,967
2008	174,550	51,734	69,524
2009	171,435	48,629	77,944
2010	182,614	35,684	98,944
2011	184,320	30,190	92,328
2012	177,110	33,012	
계	2,658,290	414,452	1,213,691

※ 세례는 군선교연합회에서 발표한 국군 통계임. 영세와 수계는 육군 군종병과 10년사에 기재된 육군만의 통계임.

#### 2) 육군 신자 통계

〈표7〉 육군 신자 통계

연도	신자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1996	431,752	245,424	61,779	123,754		795
1997	417,097	239,604	59,988	116,747		760
1998	429,172	248,137	61,030	119,101		904
1999	432,573	247,936	58,918	124,965		754
2000	427,218	244,858	60,825	120,732		803
2001	438,449	253,059	66,169	118,499		722
2002	416,026	229,044	71,275	114,682		1,025
2003	411,127	226,382	70,129	113,622		994
2004	443,120	244,652	78,169	119,140		1,159
2005	356,327	196,081	62,722	96,572		952
2006	338,058	184,464	58,500	93,872	526	696
2007	303,138	160,942	57,426	83,187	819	764
2008	284,175	156,661	50,162	75,896	901	555
2009	281,147	152,802	48,629	77,944	1,132	640
2010	292,406	160,974	49,778	79,444	1,607	603
2011	253,481	140,970	44,099	66,556	1,286	570
2012	261,807	148,271	45,281	66,150	1,491	614

#### 3)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

〈표8〉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세자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명단수집	11,077	37,129	128,535	143,996	111,798
연결인원	8,052	30,430	96,393	102,881	110,248
결연인원	-	-	2,273	6,796	10,196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세자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5
명단수집	92,810	114,434	107,928	146,955	122,637
연결인원	68,965	100,815	93,212	89,135	105,160
결연인원	4,094	37,332	28,764	23,922	16,740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세자	174,550	171,274	182,614	184,320	177,110
명단수집	163,733	122,781	132,744	147,178	131,438
연결인원	104,234	104,393	108,035	127,285	108,562
결연인원	19,933	13,211	14,734	14,195	

※ 위의 통계표에 나오는 명단수집은 수세자들이 세례 후 작성한 기록카드 수집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연결인원은 이 명단을 군선교회원교회에 통보한 인원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편지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자대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결연인원은 연결인원들 가운데 정확한 부대주소를 파악하여 군선교회원교회에 통보해 준 인원을 말한다.

#### 4) 육군 OO사단 신교대 성례인원 통계

〈표9〉 육군 OO사단 신교대 성례인원 통계

기수	세례	영세	수계	계	중대총원	비고
11-28	124	30	34	188	163	+25
12-1	327	24	178	613	483	+130
12-2						
12-3	331	18	135	547	443	+104
12-4						
12-5	185	33	-	246	280	-
12-6	171	23	-	252	273	-
12-7	377	42	144	563	538	+25
12-8						
12-9	146	7	-	153	274	-
12-10	196	23	129	390	268	+122
12-11	157	23	-	233	268	-
12-12	165	47	-	243	254	-
12-13	163	64	120	368	270	+98
12-14	286	105	202	663	467	+196
12-15						
12-16	164	48	68	340	263	+77
12-17	159	31	105	312	249	+63
12-18	148	20	-	168	240	-
12-19	121	28	-	149	239	-

#### 5) 통계표 분석

위의 통계표를 분석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진중세례 목표인원인 1년 22만 명을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약 18만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성과가 있었다.

셋째, 육군 신자 통계를 보면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되던 1996년 245,424명이던 기독교 신자가 2011년에는 148,271명으로 약 10만 명이 줄었다.

넷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인 군선교회원교회와의 결연을 통한 군세례장병 양육 및 관리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세례장병의 자대 배치를 추적하여 정확한 부대주소를 확보해서 군선교회원교회에 통보한 인원은 매년 세례장병의 10%에도 못 미쳤으며, 2004년도 23%가 가장 높은 경우였다. 구체적인 인원으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세례인원 2,658,290명 가운데 정확한 자대주소가 회원교회로 통보된 인원은 192,550명으로 세례인원의 7.2%에 불과했다.

다섯째, 군세례장병들 중에는 타 종교 성례를 동시에 받은 장병들 상당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위의 사실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해 온 18년 동안 끊임없이 진중세례를 위해 매진해 왔는데 신자가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기독교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3.1%로 10년 전인 1995년 50.7%보다 2.4%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은 반대로 신자 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군내

신자 수 감소 가운데 천주교 신자 수는 기독교와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독교는 10년 전의 19.7%에 비해 18.3%로 1.4% 감소하였고, 불교는 23.2%에서 22.8%로 0.4% 낮아진 반면, 천주교는 10.9%로 10년 전의 6.6%에 비해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군 신자 수에도 반영되어 천주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군의 모든 종교가 신자 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종교자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일반사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군의 신자 수가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거나 1인 1종교 갖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군의 종교활동 강조가 무종교의 자유리는 인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 신자 수가 아니라 신자율 55%에 집착했던 우리의 태도 등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진중세례=그리스도인'이라는 등식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182,61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고스란히 군에 남아 있던 2011년도 신자조사에서 기독교 신자가 역대 최소치인 140,970명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2만 명이나 줄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군선교 전략이나 정책들을 절박한 심정으로 수정하고 재수립해야 한다. 군에서 세례 받은 형제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하고 순진한 생각으로는 군선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표8〉 연도별 수세자 및 군선교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세례장병의 10% 내외만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되어 관리

되어졌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비전2020실천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전방 OO사단 신교대에서 행해진 기독교 세례, 천주교 영세, 불교 수계 인원 통계표 〈표9〉는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중대 총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수계 통계가 남아 있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총원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12-14, 15기 2개 중대는 중복 성례자들이 196명까지 생겨났다. 요즘 육군훈련소나 사단 신교대에서 장병들이 흔히 말하는 '트리플크라운', '그랜드슬램', '세종대왕' 이라고 불리는 장병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신교대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육군 훈련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단 신교대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군선교 현장의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예전처럼 어떤 이유든지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나중이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세 종교의 성례를 모두 받았거나 두 종교의 성례를 받았다면 그의 종교적 정체성은 어떠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답은 자명하다.

#### 4. 설문조사를 통한 비전2020실천운동 평가

18년 동안 추진되어 온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아주 다양하며,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견해와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제23회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시에 대상별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MCF 및 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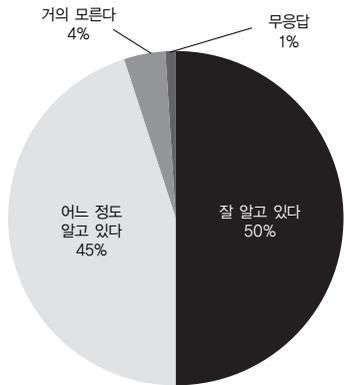
교회 성도, 군종병 및 신우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상별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종목사**

설문조사에 응한 군종목사는 총 159명이었으며,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115명, 해군 15명, 공군 27명이었고, 계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 24명, 대위 71명, 소령 16명, 중령 5명, 대령 2명이었으며, 복무 기간으로 분류해 보면 1-5년 88명, 6-10년 30명, 11-15년 27명, 16년 이상이 12명이었다. 총 15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7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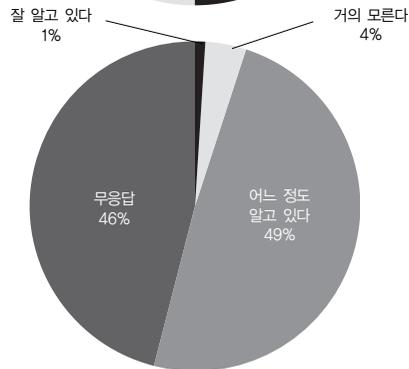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79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72명)  
거의 모른다(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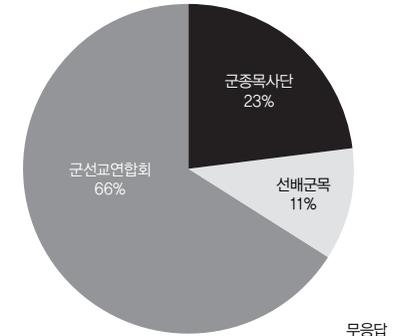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1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79명)  
거의 모른다(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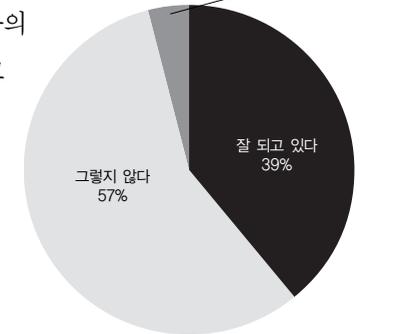
3. 비전2020운동 실천사항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주로 듣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군종목사단(40명)  
선배군목(19명)  
군선교연합회(1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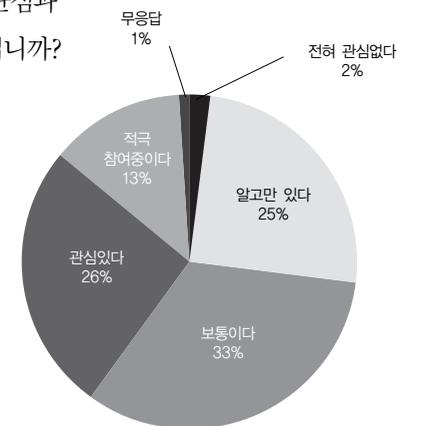
4.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62명)  
그렇지 않다(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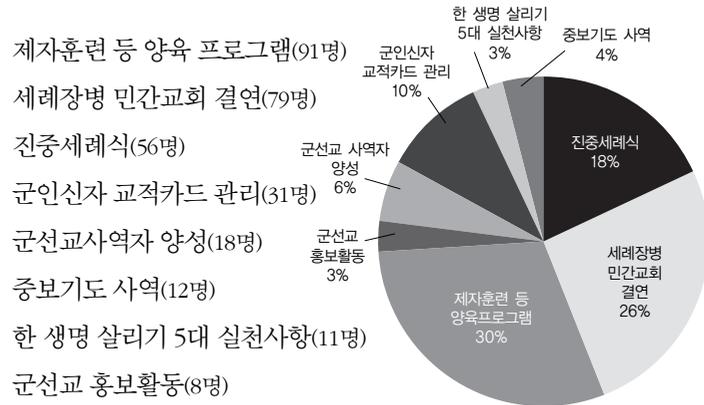


5. 목사님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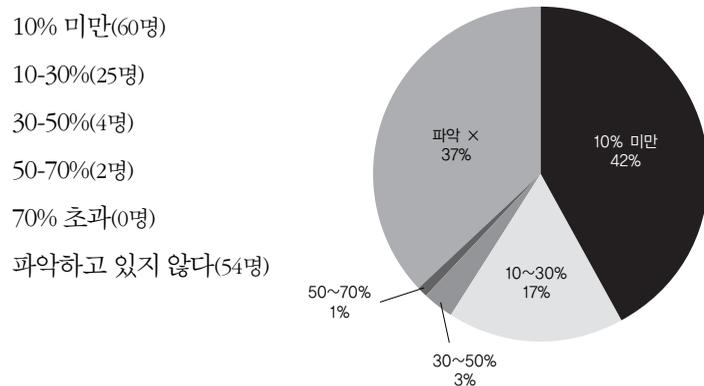
전혀 관심 없다(3명)  
알고만 있다(40명)  
보통이다(52명)  
관심 있다(42명)  
적극 참여 중이다(20명)



6.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전2020운동의 실천 분야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 교회 출석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율은 몇 % 정도입니까?



## 2) 군선교 교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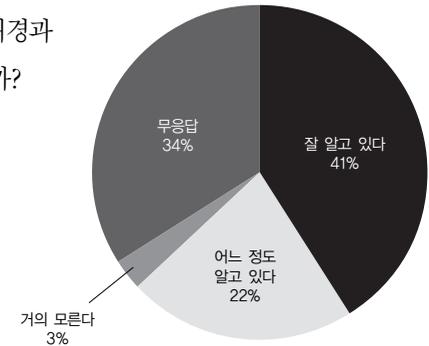
설문조사에 응한 군선교 교역자들은 총 91명이었으며,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85명, 해군은 없었으며, 공군이 5명이었다. 사역지별 분포를 보면, 중대급 이하 제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12명, 대대급 61명, 연대급

15명, 사단급 1명이었으며, 군선교 교역자로 사역한 기간을 살펴보면 1-5년 61명, 6-10년 15명, 11-15년 6명이었으며, 16년 이상이 8명이었다.

총 14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8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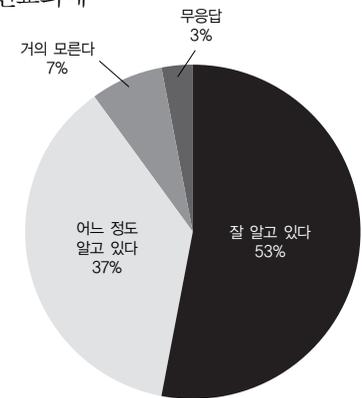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37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20명)  
거의 모른다(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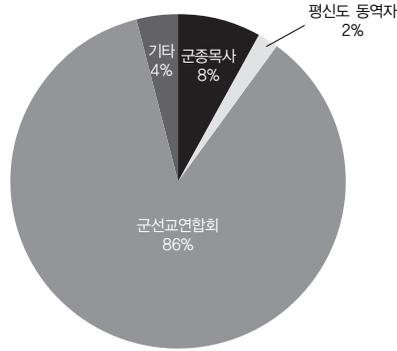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인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49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34명)  
거의 모른다(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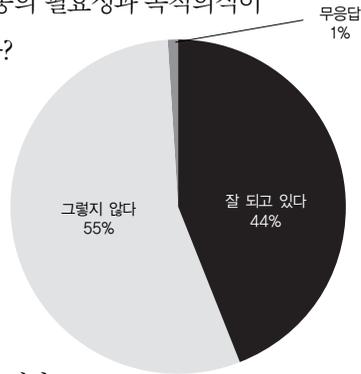
3. 비전2020운동 실천사항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주로 듣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 군중목사(7명)
- 선배사역자(2명)
- 군선교연합회(78명)
- 기타(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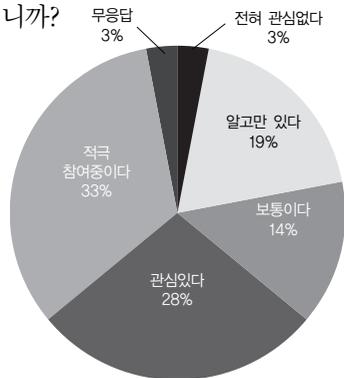
4. 군선교교역자들끼리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되고 있다(40명)
- 그렇지 않다(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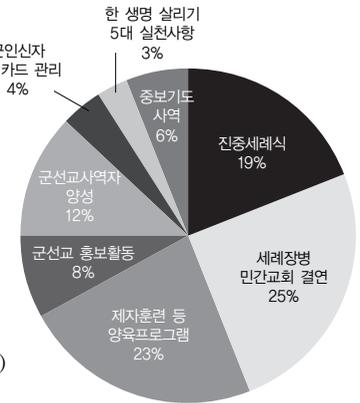
5. 목사님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관심 없다(3명)
- 알고만 있다(17명)
- 보통이다(13명)
- 관심 있다(25명)
- 적극 참여 중이다(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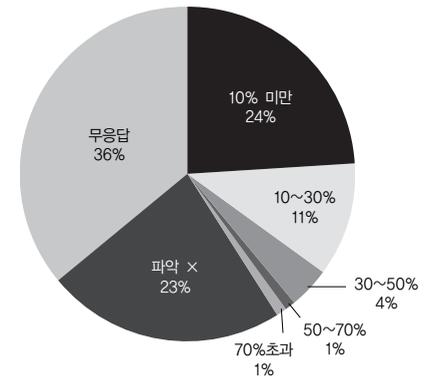
6.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전2020운동의 실천 분야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중세례식(32명)
- 세례장병 민간교회 결연(43명)
- 제자훈련 등 양육 프로그램(39명)
- 군선교 홍보활동(14명)
- 군선교사역자 양성(20명)
- 군인신자 교적카드 관리(7명)
-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6명)
- 중보기도 사역(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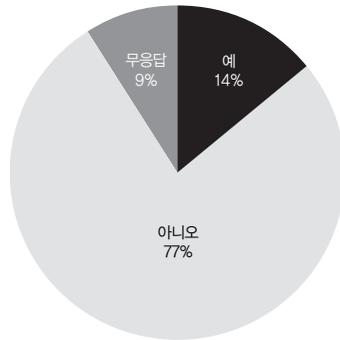
7. 귀 교회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율은 몇 % 정도입니까?

- 10% 미만(22명)
- 10-30%(10명)
- 30-50%(3명)
- 50-70%(1명)
- 70% 초과(1명)



12. 전역예정자들이 전역하기 전에  
군선교회원교회들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까?

예(13명)  
아니오(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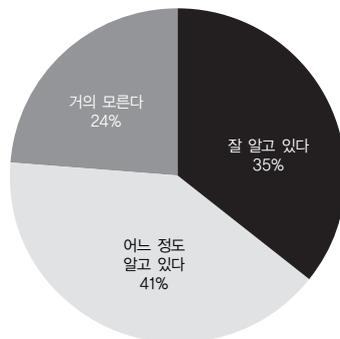
3) MCF 및 군교회 성도

설문조사에 응한 MCF 회원들은 총 120명이었으며,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97명, 해군은 10명, 공군이 9명이었다. 대상자들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하사 1명, 원사 6명, 준위 2명, 중위 2명, 대위 7명, 소령 16명, 중령 17명, 대령 7명, 준장 6명, 소장 4명이었으며, 군인교회를 출석하여 섬기고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1-5년 23명, 6-10년 20명, 11-15년 23명 그리고 16년 이상이 46명이었다.

총 12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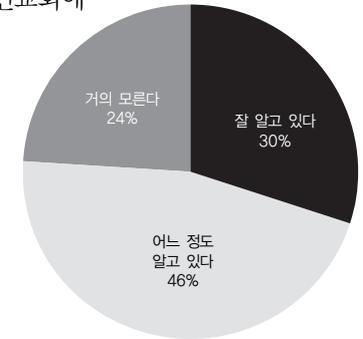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41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47명)  
거의 모른다(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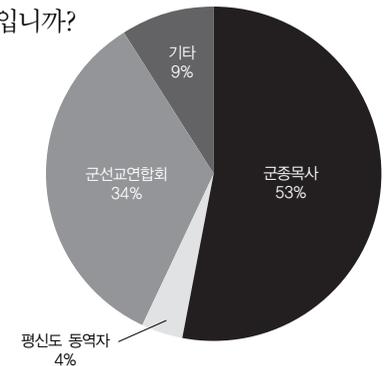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인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35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53명)  
거의 모른다(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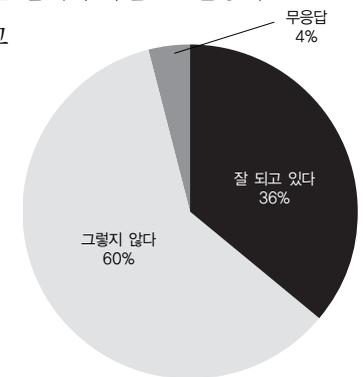
3. 비전2020운동 실천사항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주로 듣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군종목사(63명)  
평신도 동역자(4명)  
군선교연합회(40명)  
기타(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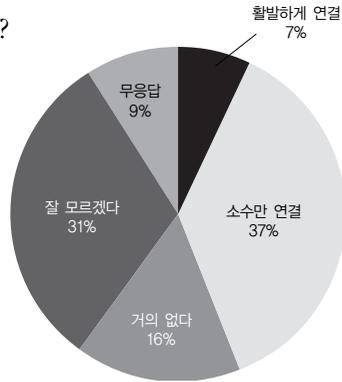
4. MCF 회원들이나 군인교회 신자들 안에서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62명)  
그렇지 않다(91명)



7. 출석 교회 장병들이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활발하게 연결(8명)
- 소수만 연결(43명)
- 거의 없다(19명)
- 잘 모르겠다(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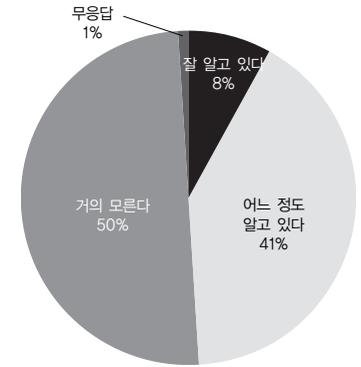
4) 군중병 및 신우

군중병 및 신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23회 6·25 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에 등록된 인원 현황을 참고하여 군별, 부대 형태별, 부대 위치별로 분류하여 설문조사 대상 부대들을 선정하여 특정한 부대에 조사 인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총 584명의 설문조사자가 회수되었고, 이를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520명, 해군 6명, 공군 53명이었으며, 계급별로는 이병 11명, 일병 178명, 상병 255명, 병장 48명이었고, 신앙이력으로 살펴보면 입대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55명, 3-10년차가 114명, 11년 이상 된 사람들이 57명, 모태신자가 348명으로 대부분의 형제들이 군에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총 8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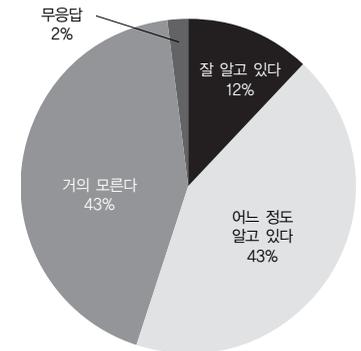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다(46명)
-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7명)
- 거의 모른다(2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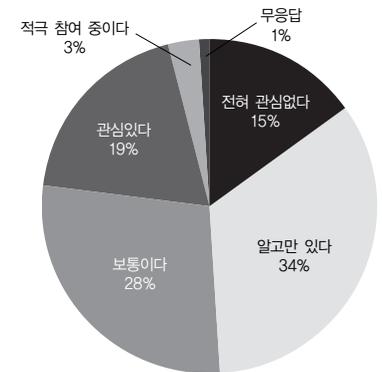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중병 및 신우들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다(71명)
- 어느 정도 알고 있다(249명)
- 거의 모른다(254명)



3. 귀하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관심 없다(86명)
- 알고만 있다(197명)
- 보통이다(165명)
- 관심 있다(113명)
- 적극 참여 중이다(15명)



### 5)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이 군종목사를 비롯한 핵심 주체들에게 얼마만큼 이해되고 공감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군종목사들 가운데 50%만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26%만 관심이 있고 13%만 적극 참여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듣는 통로가 군선교연합회(66%), 군종목사단(23%), 선배나 동료 군목(11%)라고 응답하였으며,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 분야들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제사훈련 등 양육 프로그램(30%), 세례장병 민간교회 결연(26%), 진중세례식(18%), 군인신자 교적카드 관리, 군선교 사역자 양성, 중보기도 사역,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군선교 홍보활동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현황을 묻는 질문에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군목이 54명이었고, 60명의 군목들이 10% 미만의 장병들만 결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설문 결과를 보면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추진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로서의 기능 또한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군선교교육원을 통해 훈련받고 사역지에 배치받은 군선교 교역자들은 전반적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전개과정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33%의 교역자들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비전2020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여겨지며, 또한 눈여겨볼 대목은 군선교 교역자들끼리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5%의 교역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다. 또한 군종목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 출석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율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군선교 교역자들의 입장에서도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MCF 회원들의 경우에도 MCF 회원들이나 군인교회 신자들 안에서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에 이르는 91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군종병 및 신우들의 경우에도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8%, 12%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19%, 적극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MCF 회원들과 군종병 및 신우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군종목사들의 설문결과가 이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5. 통계표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비전2020실천운동 문제점

각종 통계표 분석과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비전2020실천운동을 평가할 수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과를 계량화된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전2020실천운동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중세례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군선교 활동과 군인교회 목회활동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18년간 지속되어 온 비전2020실천운동을 현 시점에서 단순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각종 통계표와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냉철하게 인정해야 하고, 향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과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군선교 수행 핵심 주체들의 역량이 제대로 결집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에 있는 군인교회와 유관기관들 모두가 선교 공동체로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진중세례운동만으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18년 동안의 세례통계와 신자통계는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고 있다.

셋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군선교회원교회들과의 결연을 통한 관리 및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8년 동안 계속된 부대주소 타령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기 전에 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을 방해하는 오해와 갈등들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과 군인교회 목회활동은 별개인가?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연합회의 프로그램인가?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왜 군선교연합회 내에 존재해야 하는가? 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단의 상급기관인가? 또는 군종목사단이 상급기관인가? 이런 갈등과 오해들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고 앞으로의 비전2020실천운동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군종목사들과—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라고 하기도 어려운—군선교연합회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들과 오해들이 불식되지 않고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힘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비전2020실천운동의 내용은 군종목사들의 군 목회활동, 선교활동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표현이 다를 뿐 군종목사들이 장병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 비전2020실

천운동의 핵심이다. 그런데 왜 현재와 같은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까? 애초 비전2020실천운동이 선포되고 본부가 창설된 후 1998년 11월 13일에 한국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 당시 군목 파송 10개 교단 교단장과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회 원교회(당시 명칭 등록교회)들이 각각 비전2020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까지 하였고, 야심차게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언하였다. 그렇게 함께 시작한 비전2020실천운동이 왜 마치 군선교연합회가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전체의 역량을 모으는 일에 장애가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들의 자성과 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만약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비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마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걸로 주장하는 왜곡 및 회피의 자세로 향후 비전2020실천운동을 논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6. 향후 7년을 위한 제안

### 1) 군선교 주체로서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

누가 뭐래도 군선교의 핵심 주체들은 현역 군종목사들이다. 군종목사들은 군선교 교역자, MCF 회원 및 군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군종병 및 신우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군선교를 위해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운용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결국 군종목사들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결집시키지 않는 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군종목사단의 혁신이 필요하다. 군종목사단은 친목단체일 수 없다. 2012년 기준 180,497명의 군내 기독교 신자 장병들과 군인가족

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군종목사들의 사명을 인정한다면 군종목사단은 1004군인교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최고 기구일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종목사단은 자체 혁신 운동을 통해 군종목사들이 군선교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효율적인 군선교 수행을 위해 토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를 제외하면 1년에 한두 번 현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현재의 형태는 결코 현장감 있는 선교 수행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즉각 대응하고 조치하는 상시 작동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군종목사단을 의사소통 및 교육의 기본 조직으로 삼고, 더 나아가 군인교회 총회 조직 같은 조직정비를 통해 군선교 수행에 합당한 살아 있는 조직이 되게 혁신해야 한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에 군종목사단 일원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하며, 군종목사단이 군선교의 주체라는 분명한 의식 제고 등 구체적인 혁신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군인신자 장병들의 실제적인 민간교회 결연을 위한 주소 확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3대 중요전략, 즉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 중 22만여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전도전략, 군에 오기 전 이미 세례를 받은 3만여 명과 군에서 세례 받은 22만여 명의 장병들을 군교회와 민간교회가 함께 관리하고 양육한다는 양육전략, 매년 군대에서 제대하는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하고 인계하는 파송전략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3대 중요전략 가운데 진중세례식 등을 통한 전도전략의 경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사단 신교대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물론 한 해 세례목표 인원인 22만 명을 한 번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매년 약 18만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타 종교와의 중복 성례로 인한 부작용이나 진중세례식이 훈련기간 중에 이벤트화되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큰 성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전도전략 수행을 통해 훌륭한 선교적 바탕을 만들었음에도 다음 전략인 양육전략과 파송전략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세례를 베푼 후에는 전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군선교회원교회와의 결연을 통해 세례장병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종 자대주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주소가 확보되는 인원은 세례 인원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다수의 군선교 관계자들이 세례를 베푼 직후 세례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명단 제출과 관련하여 본인들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8>의 명단수집인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명단은 기본 자료일 뿐 필요한 것은 세례장병들이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최종 자대주소이므로 각급 부대교회가 모든 전입신자들의 기록카드를 2차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세례장병들이 자대 배치 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허점이 있고, 또한 모든 부대교회의 군종목사들이나 군선교 교역자들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전체 세례장병 주소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단급 부대교회가 신교대와 보충중대를 두 축으로 세례장병들의 자대분류결과와 정확한 주소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1) 신병교육대-세례 장병 자대분류 결과 확보

육군의 경우 작년까지 2주간 별도로 운영하던 제2신교대를 폐지하고 신교대 훈련기간을 7주로 통합하였다. 5주 신병훈련 후 수료식을 하고 나머지 2주간은 이등병으로서 전투기술과 체력단련에 집중하게 한 것이다. 사단급 신교대에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은 사단 내에 배치되는 사단자원들과 타 부대로 배치 받는 외부자원들로 구분되며, 그 인원 비율은 다음의 <표10>과 같이 사단자원이 62%에 이른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5주 수료식 전에(대개는 4주차에) 사단자원들의 자대배치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단 부관부에서 연대급까지 분류하여 연대로 내려주면 연대에서 중대까지 최종 분류하여 다시 사단 부관부로 보고하게 되고, 사단 부관부는 이를 신교대에 통보해서 수료식 전에 부모님들에게 알려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때 사단 부관부와 협조하여 사단자원들의 자대분류 결과를 확보하면 많은 세례장병들의 정확한 자대주소를 확보하여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교대 세례장병 명부를 작성한다.
- ② 세례인원 가운데 사단자원과 외부자원을 분류한다.
- ③ 5주차 수료식 전에 사단 부관부로부터 사단자원 자대분류 결과를 확보한다.
- ④ 정확한 자대 주소를 확인하여 세례장병 명부에 기록한다.
- ⑤ 군인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군선교연합회에 세례장병 명단을 발송한다.
- ⑥ 세례 장병 명부를 예하대 교회에도 발송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⑦ 군선교연합회는 세례 장병들을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시킨다.
- ⑧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회원교회 결연 결과를 사단교회로 통보해 준다.

<표10>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 인원 현황

구 분	사단자원(사단내배치)	외부자원(타부대배치)	계
13-17기	194	105	298
13-27기	152	150	302
13-37기	166	126	292
13-47기	201	93	294
13-57기	188	111	299
13-67기	200	98	298
13-77기	181	62	243
13-87기	160	96	256
13-97기	120	120	240
계	1,562(62%)	960(38%)	2,522

(2) 사단 보충중대-육군훈련소 및 병과학교 수료 자원들 세례 여부 및 자대분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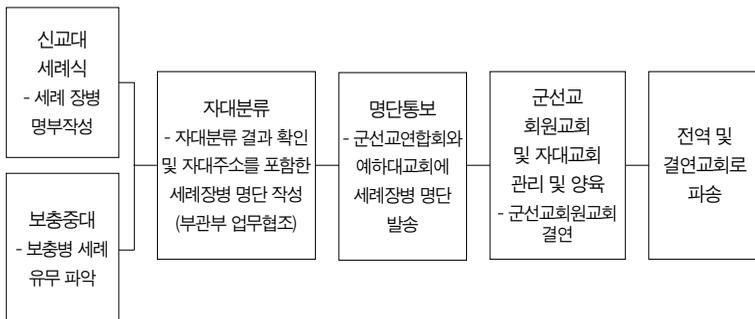
신교대를 운영하는 사단의 경우(사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5% 수준의 자원들을 사단 신교대에서 보충하지만 그 외의 인원들, 즉 육군훈련소 출신 인원들이나 종합군수학교, 종합행정학교, 군의학교, 상무대, 통신학교 등 병과학교를 거친 인원들은 반드시 사단 보충중대를 통하게 된다.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보충중대로 입소한 보충병들은 매주 화요일 자대분류를 거쳐 수요일에 배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의 자대분류는 연대급 분류에 그치고 수요일에 연대로 배치받은 후에 최종 부대분류를 하게 되며, 각 연대는 병사들의 분류결과를 사단 부관부로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신교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관부를 통해 최종 분류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단급 군종참모부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보충중대 입소 인원들 중에 군에 와서 세례를 받은 인원을 미리 조사해서 이 인원들에 한해서 자대분류 결과와 주소를 확보해서 군선교연합회로 통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매주 화요일 오전에 보충중대 입소 인원 중 세례장병을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한다.
- ② 매주 목요일에 사단 부관부를 통해 자대 분류 결과를 확보한다.
- ③ 정확한 자대 주소를 확인하여 세례 장병 명부에 기록한다.
- ④ 군인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군선교연합회에 세례 장병 명단을 발송한다.
- ⑤ 세례 장병 명부를 예하대 교회에도 발송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⑥ 군선교연합회는 세례 장병들을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시킨다.
- ⑦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회원교회 결연 결과를 사단교회로 통보해 준다.

〈표11〉 육군 17사단 보충중대 인원 현황(2013년도)

구 분	육군훈련소	병과학교교육	계
1월	3	70	73
2월	57	128	185
3월	1	112	113
4월	14	103	117
5월	28	114	162
6월	63	156	219
계	166	683	869

(3) 군세례장병 자대분류결과 및 주소파악 관련업무 체계도



(4) 군인신자 기록카드 명칭 및 양식 변경

앞서 언급한 대로 대다수의 군선교 관계자들이 세례를 배운 직후 세례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명단제출과 관련하여 본인들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군인신자 기록카드 양식으로 두 차례 작성을 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과 양식을 진중세례장병 기록카드(1차)와 군인교회 전입신병 기록카드(2차)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3) 기타 제안들

논문의 분량과 초점 문제로 본 논문에 모두 신지를 못했지만 필자는 향후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육군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여 이미 조직되어 있는 해·공군 군인교회 총회와 연계하여 군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총회 산하 실행위원회와 지역 군목단을 통해 적시적이고 기동성 있는 선교를 수행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교적부, 구역성경공부 교재, 아동부 및 청소년부 성경공부 교재를 통일하는 등 군인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론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 후 양육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등 모든 군인교회가 동일한 선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훈련소와 신교대를 중심으로 한 진중세례운동 전략을 점차 수정하여 자대배치 후 세례운동을 확산시키고, 등록→양육→정착의 구도가 아니라 등록→정착→양육의 구도로 새신자 정착 운동을 전개하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목장, 반, 셀 등의 소그룹 활동을 시행하고, 하사 이상의 미혼 간부로 구성된 군인교회 청년부 조직 및 활용, 대대급 이하 교회 결연제도를 통한 협력 선교 그리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군선교 등

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문제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2012년 국군장로연합회 주관 제1회 군선교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향후 군선교 현장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연구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 7. 나오는 말

1996년 이래 군선교의 핵심이었던 비전2020실천운동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2020년도에 3,700만 명의 성도로 채워지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여러 가지 논리적 허점이 있고 다소 허황되게 들리기까지 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여 군선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발 역할을 했다. “군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 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군선교 현장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군선교의 후원자들인 우리나라 성도들의 가슴에 군선교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상황과 신학적 성향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연합사업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연합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의 상황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숙제들을 가지고 있다. 2020년 까지 이제 7년 남아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현장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을 고수하는 일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변화를 위해 군종목사를 비롯한 군선교 관계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다만, 군선교를 위한 전략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이 파괴력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현장

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막연한 낙관주의와 이상적인 논리에 빠져 현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선교인가? 우리 모두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이다.

• 부록(Appendix)

〈현역 및 예비역 군종목사들의 군선교 관련 논문들〉

번호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학위	학교
1	신세대 입영장병들을 위한 군선교 전략	권오민	2011	석사	총신대
2	변화하는 군선교를 위한 군목의 리더십	성건화	2009	석사	총신대
3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2008	박사	총신대
4	Vision2020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 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남송현	2007	박사	총신대
5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2007	박사	총신대
6	군목 정체성 분석과 군선교 전략 연구	전영권	2006	석사	장신대
7	Vision Camp를 통한 군선교 활성화 방안: 강철교회를 중심으로	한생현	2006	박사	장신대
8	효율적인 군선교 전략 연구 : 20사단, 23사단 사병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양재준	2005	석사	총신대
9	Vision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軍)선교 전략 연구: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상기	2004	석사	총신대
10	세례를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장승권	2004	석사	장신대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논문 논찬

##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에 대한 논찬

- 1004군인교회를 중심 -

A Comment: An Interim Appraisal and Suggestion  
of Vision 2020 Movement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Div., Th. M.),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대학원(Ph.D.), 예)군종목사, MEAK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계명대학교 출강,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군종목사로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정재원 목사님께서 “비전 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이라는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작금의 급격한 병영 문화의 변화 추이로 인해 진중 세례의 열도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상황과 더불어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의 민간교회와의 결연 현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최근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체적 논문 구성의 측면에서, 논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을 한 후 두 방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 실태를 진단했

다. 하나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방법론인 진중세례 누적 통계 분석을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다른 하나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일선에서 있는 군종목사들, 군선교 교역자, MCF 및 군교회 성도 그리고 군종병 및 신우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 2020실천운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후 논자는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2020년에 이르는 향후 7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이르고 있다.

논자는 그의 논문의 중심 논제인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측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자료와 설문 결과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논자의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과학적 기법을 토대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 논문의 과학적 가치를 발한다고 본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요 방안이지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례장병들을 민간 교회와 실제로 결연시키기 위한 주소 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제안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논문의 실제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된다.

논자가 비전2020실천운동과 관련된 세 통계표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적한 비전2020실천운동을 실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들과 기타 제언들은 매우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논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논자가 제시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기우이자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에 신중하게 몇 마디를 드려 본다.

먼저, 논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군종 목사들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이의 갈등과 오해들이 자리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자는 한국교회의 비전인 비전2020실천운동이 내적 갈등 요인들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

다면 이는 큰일이다. 그 내적 갈등의 주요인이 인적 문제이든 재정적 문제이든 혹은 주도권 문제이든 무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적절 분열 양상을 빚는다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실행 의지가 현역 군종목사들보다도 군선교 교역자들이 더욱 높고 강하다는 통계 분석은 가히 충격적이다. 아무리 군종목사들의 업무가 무겁고 군선교의 환경이 힘들다고 해도 주 안에서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자 일' (고전 10:13)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성으로써 감당하는 것이지, 원망이나 실망의 에너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군종목사들은 각 교단으로부터 군대로 파송된 자랑스러운 성직자로서 60만 국군장병의 종교적 지배자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지도자이다. 군선교연합회는 일반교회와 성도들을 군복음화의 현장으로 안내하여 군선교에 협력하도록 결정적 섬김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 연합선교기관이다. 하나님은 군종목사들과 한국교회의 군선교 비전을 대변하는 군선교연합회 모두를 사랑하신다. 양자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섬기는 자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군선교의 두 기둥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진실함과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돕고 협력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를 진정으로 권고 드린다.

다음으로 논자는 향후 7년을 위한 제안 가운데 군선교의 주체로서의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를 제안하고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 활성화의 주역인 군종목사님들이 불타는 사명감과 전문적 능력으로 직무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대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논자가 제안한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방안은 획일적 일방통행 식의 군종목사단 운영체제에서 군인교회 성도들이 망라된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논자의 이러한 강조는 논문 말미의 '기타 제안들'에서 다

시 반복되어 강조되는데, 이는 신중하게 고려해 볼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 판단된다.

특히 논자는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여 군선교정책을 수리하고 시행하는 일을 더욱 가속화시키되 교적부, 구역교재, 교회학교 교재 등을 통일시켜 궁극적으로 군인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론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논자가 강조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극대화를 위한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는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물론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지는 제안을 이해하지 못할 비는 아니나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는 일과 비전2020실천운동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군인교회 총회조직을 공론화시키는 자체가 너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이자 노파심이 든다. 아무래도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 에너지와 행정의 열정을 쏟아야 하는데, 과연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인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 부분을 감수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현대는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는 군의 안팎으로부터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리어 한국군종목사단은 관료적 계층구조인 총회를 조직하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네트워크 형태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를 조언 드린다.

정재원 목사님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이라는 귀한 논문이 한국교회가 그토록 열망하며 기도하는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논문

##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A study on the Effec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ivil Elements for the Military mission  
- based on the Vision 2020 Movement -

■ 주연종 Ju, Yeon Jong

- 총신대/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 M)
- 풀러 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 대학원(Ph. D.)
  - 예비역군목(#50)
- 현 사랑의교회 부목사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군선교가 군 내외는 물론 교회 안팎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며,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인 민간요소의 모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선교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제 속에서 법령에 따라 군에서 허용한 4개 종교<sup>1)</sup>가 군 조직의 존재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협력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각 선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선교이다.<sup>2)</sup> 따라서 군선교에는 일반적인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혼합으로도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한국군 내에서의 군선교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종교 간 갈등이나 상호 공격적인 태도를 자제하며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군선교는 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이기는 하나 엄연히 군 외의 조직이나 종교단체에서의 성직자 파송, 관리, 후원 등의 이른바 민간요소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군 내부에서는 성직자의 양성 및 파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민간 종교단체로부터 양성되고 파송된 성직자를 군에 편입시켜 활동하게 함으로 군 내에서의 바른 신앙을 통한 신앙의 전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군선교에서 민간요소가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군선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요소가 어떤 선교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논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민간요소 모델을 찾기로 한다.

<sup>1)</sup> 2007년에 원불교 군종장교가 임관함으로 현재 군 내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가 군종병과의 구성 종교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불교 비구니를 시작으로 여성 군종장교도 임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2)</sup> 김창제, 『군선교』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188-189.

<sup>3)</sup> Ibid., 189-190.

## 2) 용어의 정의

### (1) 군선교

‘군선교’라 함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군인과 군속,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다. 군대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편성된 조직이다.<sup>4</sup> 그러므로 군선교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이기에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sup>5</sup>

### (2) 민간요소

‘민간요소’라 함은 현재 군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간 고려하는 METT-TC<sup>6</sup> 요소 중 마지막 요소로서 민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작전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전에서의 민간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아 이티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서의 한국군 작전은 대부분이 민간요소인 정부행정기관과 주민을 지원하는 민사작전<sup>7</sup>으로서 군중활동도 민사작전의 한 부분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민간요소라 함은 군목을 포함한 군인과 군의 시설

<sup>4</sup>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이자 군인이었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으로 정의하고,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폭력 행위로 설명하였다. 전쟁은 폭력과 비인간적인 비극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논리나 이론보다는 감성과 경험이 앞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군선교 이해의 선결 조건이다.

<sup>5</sup> 서정운, “군선교의 기본방향”, 『군선교신학』, 총회군선교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국, 1990), 21.

<sup>6</sup> METTTC라 함은 임무(mission), 적 상황(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가용부대(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고려요소(civil consideration)로서 공격이나 방어 간 거의 모든 군의 제반 작전 간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과 장비 및 조직을 제외한 민간교회 및 목회자, 종교단체, 교단, 민간성직자(이하, 군선교 교역자) 등 민간에 해당되는 군선교와 연관된 모든 요소를 칭한다.

### (3) 연구방법

먼저, 군선교에 있어서의 민간요소의 역사를 살펴보고 군선교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의 발전과정을 기술함으로 지난 60여 년간 군선교 현장과 관계했던 단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민간요소에 해당되는 제 기능들의 역할을 기술한 후 본고의 핵심 주제인 비전2020실천운동과 민간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민간요소가 군선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 민간요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연구에 있어서는 그간 발표되었던 각종 군선교 관련 논문들은 물론, 국방 외교의 전문가자료들도 활용하되, 무엇보다 군선교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사례들과 설문 내용을 분석하고 통계들을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근거로 미래 예측 기법을 통해 향후 민간요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 2.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사

### 1) 민간요소의 역사

<sup>7</sup> 민간요소는 최근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이를 별도의 작전으로 취급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이라 칭하여 수행하고 있다. 민사작전을 통해서 군은 주민과 정부행정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도 한다. 군중은 민사작전 중 인도주의 작전(humanitarian operation)에 투입되어 종교행사, 상담, 위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한국 최초의 군인교회와 한국 최초의 군부대 내의 예배는 조선경비대 창설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던 경비대 내의 신자 장병들이 주변의 민간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산발적으로 종교행사를 갖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sup>8</sup> 그중 잘 알려진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사례로 용산에 있던 해군 중심의 군인교회 설립이다. 1948년 늦가을부터 해군의 정달빈 목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등이 남산감리교회당을 빌려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집회에 육군과 공군의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1949년 2월 5일 용산군인교회가 생겨나 3군 군종활동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 정착하게 되었다.<sup>9</sup> 그런데 이때 해군의 정달빈 목사로 기록된 인물은 해군 제독 손원일이 초청한 인물로서 당시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다.<sup>10</sup> 한국 최초의 군인교회 목사로 군인교회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1948년 가을, 전북 군산에 주둔한 보병 제12연대 내에서 시작된 육군 최초의 군부대 내의 종교 활동이다. 당시 제1대 연대장이었던 백인기 중령과 3대대장 전창영 소령은 종교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산 일대의 민간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군부대 내 예배를 시작하였다.<sup>11</sup>

위 두 사례뿐 아니라 1949년 10월 23일에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가 철수하자 그 자리에 보병 제12연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군이 사용하던 교회를 12연대 군인교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당

시 12연대 군인교회를 담임하였던 목회자는 모두 인천지역의 민간목사들이었다.<sup>12</sup>

한국전쟁 중에는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31호로 육군본부 인사국 내에 군승과를 설치하고 군목제도가 출범하게 된다. 이때에도 보수 없는 촉탁 시대인 무보수 촉탁으로 민간성직자를 군 내에서 활동하도록 했다.<sup>13</sup> 1951년 2월 28일 1기로 입대한 군목을 시작으로 1952년 2월 24일 제3기까지 135명이 무보수 촉탁 신분으로 근무했고, 1952년 4월 15일 제4기가 입대하면서부터는 목사 안수를 받은 군목을 정식으로 ‘군목’으로 칭하고 모자에 백색 십자가를 부착하게 했다.<sup>14</sup>

이후 1952년 6월부터 모든 군목이 ‘유급군목’이 되면서 군속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문관 2-3급의 직급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군목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시기를 문관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1953년 12월 12일까지 계속되었고, 1954년 1월 12일 육본 일반명령 제9호에 의해 군종감실 설치령이 하달되어 문관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에는 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군목들을 선별하여 임관하도록 하여, 135명이 중위로부터 대령까지 계급을 부여받고 현재와 같은 정식 군종장교의 신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sup>15</sup> 그러므로 민간요소로서의 민간교회와 민간목회자로부터 군목, 혹은 군종병과로 군선교와 군종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유급군목시대, 즉 문관시대로 봄이 타당할

<sup>8</sup> 김순권, “목회학적으로 조명해 본 군대목회와 민간목회”, 『군선교신학』, 총회군선교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316.

<sup>9</sup> 오덕교, “근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서울: 쿤란출판사, 2004), 128.

<sup>10</sup> 김순권, *op.cit.*, 316.

<sup>11</sup> 육군본부, 『군종 50년사』(2003), 67-68.

<sup>12</sup> 김순권, *Ibid.*, 317.

<sup>13</sup> 1951년 2월 28일 32명의 목사와 신부가 무보수 촉탁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3월 12일에는 8명의 목사가 추가되어 장로교 24명, 감리교 10명, 성결교 4명 그리고 천주교 2명으로 구성되어 한국 군종병과의 역사를 여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

<sup>14</sup> 이때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활동하게 된 목회자는 ‘보조군목’이라 하여 청색 십자가를 사용하여 구별하였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군종행정관 혹은 군종병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sup>15</sup> 김순권, *Ibid.*, 317.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 군인교회와 군종제도의 태동기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최초의 군인교회나 군부대 내 최초의 종교활동에는 민간교회나 민간목회자가 기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제도적으로 군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후 민간교회들은 베트남 과병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으로 군인교회들을 후원하게 되었다. 1965년 당시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박사를 중심으로 '전국복음화운동'을 펼치면서 1968년에 김 총장이 조직한 '새시대복음화운동본부'를 통해 황금어장인 군부대의 복음화를 위해 각 군 참모총장과 각 군 군종감, 환경직 목사, 흥현설 목사, 강신명 목사 등이 협력하게 되었다.<sup>16</sup>

1969년 9월부터 시작된 1인 1종교 갖기 '전군신자화운동'이 1군 사령관 한신 장군에 의해 시행되어 민간교회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전방 오지의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53대의 오토바이를 기증하여 1군 산하의 군목들이 군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sup>17</sup> 전군신자화운동은 합동세례식으로 이어져 기독교는 물론 타 종교의 군선교 및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4월 11일 세종호텔에서 전군신자화운동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열렸다.<sup>18</sup> 이어서 4월 19일에 백낙준 박사의 자택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고 명칭을 '전군복음화운동'으로 정하고 위원장에 백낙준 박사, 총무에 황성수 박사를 선임하였다.<sup>19</sup> 이것이 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모체가 되어 한국 군선교를 견인하는 역할

을 하게 되었고,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직화하고 동력화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 2)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의 역사

1974년 11월 26일, 환경직 목사가 제2대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교회적으로 본격적인 군복음화운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진중예배당 건축 사업은 군선교사역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으며, 1976년 7월 21일에는 '전군신자화후원회'라는 명칭을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하였다. 한편 1981년 3월 7일 '국군중 918.1-145'에 의거 '군복음화후원회'가 기독교 군종활동지원 및 군선교를 위한 단일 창구로 인준되어 명실상부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군선교 대표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 기독교의 군선교(군종지원) 공식 단일 창구라는 법적 근거는 1985년 7월 11일 '국군중 24250-150'에 의거 재차 강조된 후 1997년 10월 27일 '국방부훈령 제572호'에 의거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군복음화후원회는 1988년 9월 11일 문화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체로 개편되면서 법인 초대 이사장에곽선희 목사가 취임한 후에 진중예배당 건축에 더욱 가속을 내었고, 전도·정책·교육·홍보·복지 등 전체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1998년 11월 13일 진중세례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를 창출하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함께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1999년 2월 9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라는 명칭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약칭 군선교연합회, 영문약칭 MEAK)로 개칭하였다.

군선교연합회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중앙본부를 비롯해 국내 16개 지회, 해외 9개 지회(미주 8개 지회, 호주 1개 지회)를 두고, 국내의 경우는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공군·해병대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지회

<sup>16</sup> 김창제, *op. cit.*, 128.

<sup>17</sup> *Ibid.*, 129.

<sup>18</sup> 김순권, *op. cit.*, 321.

<sup>19</sup> 「한국기독교공보」 1972년 4월 22일자, 김창제, *op. cit.*, 132에서 재인용.

단위 활동을 초교파 연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해외지회는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군 신교대, 교육사, 훈련단 등의 장병 진중세례식, 동절기 사랑의 온차, 군선교 교역자 파송, 군인교회 결연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선교비 등을 보내오고 있다.

### 3. 군선교와 민간요소의 역할

#### 1) 교회의 역할

교회는 최초의 군인교회와 최초의 부대 내 예배 등을 지원하고 후원한 지역교회들의 사역으로부터 현재 비전2020 회원교회로 활동하는 사역까지 군선교 민간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로교 6개 교단(고신, 기장, 대신, 백석, 통합, 합동 등)과 성결교 2개 교단(기성, 예성), 감리교, 침례교, 기하성 등 11개 교단이 군선교 후원 교단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sup>20</sup> 이들 교단들의 2012년 세례식, 위문 및 육군훈련소 신축 예배당 후원 등의 현황을 보면, 감리교가 1억 2,400만 원, 기성이 2억 100만 원, 침례교가 1억 2,800만 원, 기하성이 17억 5,700만 원, 고신이 4,000만 원, 대신이 4,400만 원, 백석이 2억 3,900만 원, 통합이 3억 8,500만 원, 합동이 4억 7,500만 원, 예성이 1,800만 원, 기장이 3,000만 원 등에 이른다.<sup>21</sup>

위 교단에 따른 군선교회원교회가 약 4,300개 교회로 이들 교회 대부

분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세례장병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sup>22</sup> 뿐만 아니라 회원교회 및 단체 교단들은 약 600명(전담자 약 380명, 비전담자 약 220명)에 달하는 군선교 교역자의 선교를 위해 직·간접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교회는 총 240개 교회 및 단체, 교단에 이르고, 연간 약 20억 원 정도를 군선교 교역자 선교비로 지원하고 있다.<sup>23</sup> 이밖에도 노회나 지회 단위로 군선교 교역자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곳도 약 20여 개 정도에 이른다.

#### 2) 단체의 역할

MEAK는 한국교회의 군선교 단일 창구로 일원화된 후 한국교회의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군선교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2012년 MEAK 사업 후원 결산 현황을 보면 진중세례식 및 건축, 교육, 복지, 정책, 출판, 장학 등 16개 사업에 총 240억 원 정도의 선교비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MEAK가 직접 모금하여 사업을 진행한 직접사업의 경우는 13%인 33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약 210억 원은 후원자가 후원금을 직접 집행 또는 전달한 후 결과사항을 MEAK에서 종합하여 행정 정리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군선교는 MEAK의 관리와 행정 관할하에 한국교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MEAK를 통해 각종 군선교사업의 영역으로 연간 약 150-250억 원 정도가 선교비로 후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up>20</sup> 11개 교단에 속한 산하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교에 군종장교 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학교명은 다음과 같다. 장신대, 호남대, 총신대, 한신대, 고신대, 안양대, 백석대, 한일장신대, 서울장신대, 대신대, 연세대, 광신대, 영남신대, 숭실대, 계명대, 한남대, 대전신대, 부산신대, 서울신대, 성결대, 목원대, 감신대, 협성대, 침신대, 한세대 등 총 25개 대학교이다.

<sup>21</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2013. 2. 21), 33-34.

<sup>22</sup> Ibid., 95-117.

<sup>23</sup> Ibid., 121-125.

〈표1〉 군선교연합회 연도별 예산 규모

연도별	총계	일반사업	건축사업	시설유지사업	자산사업	홍보사업
총계	171,524,513,808	75,524,232,230	78,671,714,374	16,480,005,550	404,356,384	444,205,270
2012	24,706,376,479	8,195,865,078	15,876,551,870	573,169,790	31,489,741	29,300,000
2011	16,624,902,147	8,290,692,012	6,982,737,090	1,282,853,545	34,819,500	33,800,000
2010	13,745,012,942	7,004,076,612	4,667,889,130	2,011,864,100	20,583,100	40,600,000
2009	12,131,430,474	6,470,427,063	4,554,937,300	1,028,335,478	45,052,863	32,677,770
2008	13,055,448,773	7,314,005,584	4,950,667,359	671,367,650	26,680,680	92,727,500
2007	14,915,328,089	5,524,307,333	7,295,916,556	1,935,863,700	42,590,500	116,650,000
2006	14,282,449,052	5,368,176,766	6,253,449,970	2,531,232,316	31,140,000	98,450,000
2005	12,535,318,554	5,914,056,554	6,554,622,000	66,640,000		
2004	12,979,592,457	6,145,727,926	5,457,121,931	1,310,742,600	66,000,000	
2003	11,326,483,752	4,225,421,521	5,594,287,240	1,475,774,991	31,000,000	
2002	9,637,726,235	3,681,346,149	5,162,601,576	757,778,510	36,000,000	
2001	9,225,529,705	3,945,005,999	3,623,178,686	1,657,345,020		
2000	6,358,915,149	3,445,123,633	1,697,753,666	1,177,037,850	39,000,000	
비고	◎ 일반사업 : 비전2020사업, 전도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일반사업, 복지사업, 정책사업, 장학사업, 출판사업, 군선교 교역자 선교비 지원 사업 ◎ 건축사업 : 예배당 및 교육관 등 시설 신축 사업 ◎ 시설유지사업 : 개축, 보수, 비품 지원 사업 ◎ 자산사업 : 기동차량 지원 사업 ◎ 홍보사업 : 군선교신문 발간 사업, 군선교 영상물제작 보급 사업 등					

※ 출처: MEAK

한편, 군선교의 환경이 변하고 사회 풍조가 바뀌고 있고 병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MEAK는 여러 사업들을 신설 혹은 통합해 왔다. 건축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의은차보내기운동, 도서보급운동 등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모범 군종목사 미국 연수, 기독교 행정관 수련회, 꿈나무청소년 비전캠프, 군선교사훈련 비전캠프를 시행하고 있고, 군종목사 성지순례를 1단계(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등)만 해오던 것을 2010년부터 2단계(교회사 유적 중심-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그리스 등)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선교신학회의 정식 학회 등록, 군종목사 및 군선교교역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국군 상담심리코칭학회(생명 존중센터)의 신설(2012년 2월 15일), 군선교연구소 개소(2013년) 등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선교 교역자에 관한 직무교육 차원에서 2007년부터 군선교교육원을 신설하여 2012년 현재 12개 기수에 590명이 수료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sup>24</sup> 이에 따라 군선교가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으로 토대를 더욱 견고히 놓을 수 있게 되었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EAK는 군종병과와 관련하여 군종장교의 특별수당신설, 각 군 군종실의 총장 직속 기능으로 존속, 병역 대체법, 대북심리전, 이단 대처 등 정책 차원에서도 타 종단과의 차별화된 책임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군종활동의 권익을 수호하였다. 특별히 육·해·공군본부 교회당 건축,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터 건축,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의 군목파송교단의 공식 후원사업, ROTC 후보생 주일예배 및 세례식,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자 연합조찬예배(매월), 비전2020실천운동, 한국교회 군선교 정책회의(분기), 금명간에 신축될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 등은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결실이다.

요즘 한국교회의 연합사역이 어려운 시점에 군선교사역을 통해 초교파 연합사역의 모델이 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열매임이 분명하다. 즉, MEAK를 구심점으로 군종목사 파송 11교단이 연합하고, 개교회가 연합하고, 지역이 연합하고, 민·군이 연합하고, 관련 유관기관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실임에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sup>24</sup> Ibid., 127.

<sup>25</sup> Ibid., 131.

한편 MEAK는 선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교회와 인접 부대 간의 원활한 선교를 위해 1985년에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지회를 필두로 국내에 16개 지회를 조직하여 지회와 지역 내 군부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회마다 근접 부대들을 지정하여 지회 산하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역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지회별 사무소를 개소하여 상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에도 9개 지회를 두고 진중세례식 참여나 뿌리 문화 캠프 등을 통해 2세들에게 역사 문화 탐방 및 뿌리 인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26</sup>

MEAK 이외에도 각 교단별로 군선교후원회(예장통합), 혹은 군선교회(예장합동) 등의 조직을 갖추고 각 교단 산하 군목들에 대한 선교 후원의 형태로 교단 내의 군선교 역량들을 결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교단별 남·여전도회연합회, 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ROTC 예비역 기독교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군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

### 3) 군선교 교역자의 역할

군선교 교역자<sup>27</sup>란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며 군선교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 교역자를 뜻한다. 현재 군인교회는 육·해·공군 합해서 약 1,004개가 있는데 현역 군목은 261명밖에 없어 특수지역을 제외하더라도 700여 교회를 섬길 교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MEAK는 민간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회를 담임하는 전담 교역자 및 설교 지원 등 상주하지 않고 지원하는 비전담교역자의 두 가지

형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8</sup> 현재 군선교 교역자는 총 632명으로 이들은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군선교 교역자는 현역 군목과 함께 군선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며, 인원이나 활동의 내용 면에서 현역 군목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종학, 군상담학, 군목회학, 비교종교학 등 군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들로 편성된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하도록 하여 현장 적응성을 높여 가고 있다.

〈표2〉 연도별 군선교 교역자 교단별 파송 인원 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	고신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대신	백성	예성	정통	통합	합동	개혁	기타
2013	362	15	61	4	•	32	12	30	32	18	•	61	56	•	41
2012	388	17	78	4	•	31	11	28	29	12	•	66	65	•	45
2011	367	14	73	4	•	30	11	27	33	14	•	56	61	•	44
2010	644	21	139	7	7	42	17	35	40	14	•	106	124	•	92
2009	676	25	117	7	7	37	17	31	•	17	42	130	118	20	108
2008	622	23	91	6	7	32	17	28	•	18	33	132	109	18	108
2007	•	•	•	•	•	•	•	•	•	•	•	•	•	•	•
2006	475	25	78	8	5	34	19	16	0	16	28	105	94	27	82
2005	684	•	•	•	•	•	•	•	•	•	•	•	•	•	•
2000	404	•	•	•	•	•	•	•	•	•	•	•	•	•	•

※ 2004-2010년: 전체교역자(전담+비전담) / 2011-2013년: 전담교역자—출처: MEAK

일반 군종활동, 즉 참모활동이나 전시군종활동 등은 군종목사를 중심으로, 선교는 군선교 교역자와 군종목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군선교의 인적 자원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민간요소의 기여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up>26</sup> Ibid., 131.

<sup>27</sup> 국방부훈령 제973호와 육군규정 191에는 '군 종교 활동 지원 민간성직자'(민간성직자)라고 표기되어 있고 약하여 '민간성직자'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MEAK에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살려 '군선교 교역자'로 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군선교 교역자'를 따르기로 한다.

<sup>28</sup> 김창제, op. cit., 161-162.

#### 4) 해외 민간요소의 역할

2003년부터 MEAK는 해외 지회 결성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9개 지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해외 지회의 경우 미국 내의 주요 도시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각국에 있는 교민사회와 교민교회를 중심으로 조국의 군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고, 군선교가 곧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 복음의 거룩한 역류 현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도 초, 당시 막 불기 시작했던 군선교의 본격적인 접화기에 대한성서공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만국성서공회와 협의하여 미화 6만 달러 상당의 성경을 특별 제작하여 군에 기증하도록 지원한 바 있는데,<sup>30</sup> 해외의 선교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한국 군선교의 모델이 해외 각국으로 확산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할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군선교의 개념을 상실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고, 군종목사들은 상담과 결혼 등 종교적 관례만을 집행하는 경우로 활동이 국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sup>31</sup>

이제 한국 군선교의 모델이 세계 군선교를 견인하고, 각국의 군선교가

<sup>29</sup> 해외 지부는 미국 내 8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뉴욕, 댈러스, 애틀랜타 등이다. 이중 가장 먼저 조직된 지부는 필라델피아 지부이다(2003. 4. 27).

<sup>30</sup> 김순권, op. cit., 322.

<sup>31</sup> 필자가 참석했던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군종감대회(2007)에서 세계 32개국에서 온 군종감과 군종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군선교가 살아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군종병과는 이슬람 군종장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캐나다와 미국도 '이맘'을 군종장교로 임관시킨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 공군부대의 교회가 신축된 이후 첫 결혼식이 동성 결혼식이었고, 그 결혼식을 군종목사가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군선교라는 개념은 미국 등 거의 모든 군종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나라들의 사회 복음화에 기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외교와 국방은 물론 ITC(정보·기술·통신)의 발전과 한류의 확산, 스포츠와 외교, 문화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의 고유 선교 모델 중 하나인 군선교가 좋은 모델이 되어 세계 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비전2020실천운동과 민간요소

### 1) 군종목사 파송 교단 연합사역

군선교연합 대표 기구인 MEAK가 군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선교 동력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목을 파송한 11개 교단 연합활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군선교교역자의 파송과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선교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육군 훈련소교회 신축 등 연합사업에도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역량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역 군종목사에 대한 선교 지원과 관리, 재교육, 군종목사 후보생 관리, 각종 법령 제정 개정 시 협조 회의 등을 통해 군선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일치에 기여하고 있다.

### 2)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sup>32</sup>의 결실로 매년

<sup>32</sup> 육군본부에서 출간한 『군종 50년사』에 따르면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의 장로교 합동 소속 이상강 군목이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포함하여 154명에게 세례를 베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당시 교육사령관 김진영 장로의 발의와 주도하에 군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세례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예하 부대 18명의 군목과 함께 전개한 세례운동이 이어졌다. 이때 교육사령관 김진영 장로는 사재를 들여 십자가 펜던트 10만 개를 제작하여 수세장병들에게 증정하도록 봉헌했다.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에는 3,700만 명이(전 국민의 75%) 성도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민족·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양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 예방, 사기 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다.<sup>33</sup>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이었는데, 1971년 21사단 66연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합동세례식을 제1기라 하고, 1990년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전개된 세례식을 제2기라 한다면, 이때로부터 전개된 비전2020실천운동은 제3기 합동세례식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제3기 합동세례식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은 그간의 세례와 군선교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자원과 조직이 다 투입된 가장 최신헌화된 운동이 되었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이필섭 장로에 의해 발의되고 기획된 비전2020운동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듬해 1998년 2월 23일, MEAK 부설기구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창립되어 제3기 합동세례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sup>34</sup>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군목 파송 10교단<sup>35</sup> 교단장과 총무가 모여 비전2020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운동을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포하였다.<sup>36</sup>

<sup>33</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21세기 기독교운동선포 매뉴얼」(2011), 10-11.

<sup>34</sup>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서울: 쿤란출판사, 2004), 204.

<sup>35</sup> 2013년 현재는 백석(장로교)교단을 포함하여 11개 교단임.

<sup>36</sup> 오덕교, op. cit., 149-150.

한편, 진중세례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세례운동의 하드웨어인 군인교회당 건축에도 힘을 기울여 제2, 3기 세례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인 1991-2000년 사이에 386동의 교회를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했다. 이는 그 이전 40년 동안에 신축하거나 개축한 교회 숫자보다 많은 것이었다.<sup>37</sup>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세례운동이 한창 무르익을 때 신축 혹은 개축한 교회당의 숫자가 전체 군인교회당의 숫자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합동세례운동은 군선교의 현장에 전에 없는 역동성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기독교 운동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교회 1,000개를 목표로 후원교회 모집을 전개했는데 2004년 초까지 1,743교회가 후원교회로, 1,372교회가 준후원교회로 등록하여 총 3,115교회가 모집 5년 만에 군선교의 민간 네트워크로 구축되는 결과를 낳았다.<sup>38</sup>

한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설치를 전후로 시작된 제3기 합동세례운동 기간인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17년간 군에서는 3,025,132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목표로 했던 연간 20만 명 세례라고 하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약 40만 명 정도가 모자라는 수치라 할 수 있겠다.<sup>39</sup> 그러나 인구의 감소로 인한 모병 인원의 감소, 타 종교의 도전 등의 여건에 비한다면 목표치의 90% 달성은 나름대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3) 군선교회원교회

회원교회라 함은 군선교에 기도와 물질, 프로그램 실천 등을 후원하기

<sup>37</sup> 주연중, Ibid., 204.

<sup>38</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 심포지엄 준비회의 자료」.

<sup>39</sup> Ibid.

로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 및 프로그램 실천을 이행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회원교회들을 중심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군세례 장병들의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교회의 수는 총 4,400개 정도이다. 회원교회들은 각 지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회에서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중앙본부의 연합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MEAK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약 4,400여 개의 회원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중 지난 15년간 100명 이상의 세례장병을 연결하여 지역교회 복음화에 참여한 교회가 2,552개 교회로 전체 회원교회의 58%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표3〉 회원교회 등록 현황

구분	합계	기감	고신	기성	기장	기하성	대신	예성	기침	통합	합동	백석	기타
회원	4,394	589	258	262	153	97	123	104	160	1,372	1,104	53	119

※ 출처: MEAK

〈표4〉 출석예정교인(군인신자) 결연 현황

구분	합계	기감	고신	기성	기장	기하성	대신	예성	기침	통합	합동	백석	기타
회원	1,357,642	142,732	85,387	73,377	46,449	34,835	44,560	36,213	54,123	437,194	372,416	9,721	20,634

※ 출처: MEAK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이와 같이 회원교회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수세장병들의 관리와 그 가족에 대한 전도 그리고 전역 후 민간교회에 정착하는 단계까지를 군선교 현장의 사역자들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 비전2020실천운동이 민간요소에 미친 영향

역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이 민간요소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하겠

다. 우선 군목과송 11개 교단이 연합사업으로 군선교를 추진하며 교단을 초월한 선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학원선교와 함께 21세기 민족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4천 개 이상의 군선교회원교회를 확보함으로써 범교회적 단일 선교 이슈를 확립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조국의 군복음화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힘을 모으는 구심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5.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

#### 1) 정책적 기여

민간교회나 MEAK 차원에서 군선교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을 마련하여 한반도 안보 환경 및 한국군 병영 환경의 변화에 연동된 실제화된 군선교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EAK 내에 군선교신학회와 한국군선교연구소,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 및 생명존중센터, 군선교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비역 군인 연합회나 예비역 군목회 등을 통해 군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인 정책 개발 및 정책적 지원활동이 있게 되면 군선교 현장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 시설의 대부분은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목적에 맞는 시설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간요소의 지원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군목과송 11개 교단 협력이나 여전도회, 남전도회 연합기구, 해외 지부 등이 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군선교에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한 후 정책을 입안하여 군종목사단 및 군선교 교역자단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sup>40</sup> Ibid.

한편, 군선교의 핵심 동력인 군종병과 신우회를 강력한 자원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현재 MEAK에서는 군선교사훈련 비전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의 중소 교회들도 연합사업으로 병사나 간부로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남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전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서울의 한 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입대 전 예비 군선교사 교육을 하기로 하고, MEAK와 인접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부대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5〉 입대 전 군선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예

시 간	주 제	강 사	비 고
08:30~09:00	등록/간식	간사	
09:00~09:30	경건회/오리엔테이션	지도목사/담당장로	
09:30~10:30	군대와 군선교 이해	육군본부 군종감실 (국방부 군종실) 교육장교	군에 대한 이해와 군선교 현황
10:30~10:50	휴식	간사	간식/환담
10:50~11:45	병 생활 안내	현역군종목사	입대부터 전역까지/병영생활 안내 및 종교생활
11:45~13:00	중식(병식체험)	지도목사	병식체험추진
13:00~13:50	군선교 영상/ 선사인 운동	군선교연합회총무	기독병사가 병영에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접근법
13:50~14:00	휴식	간사	간식/환담
14:00~14:50	위기의식과 군선교	OOO 목사	위기의식의 양상과 선교적 이해 향상
14:50~15:00	휴식	간사	
15:00~16:00	준비된 군선교사, 비람직한 군생활	군종병(현역/예비역)/ 지도목사	군선교사의 역할 실제/체험전달
16:00~16:30	군선교서약서 작성/ 폐회예배	세계선교부 OOO 목사	

※ 출처: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군선교위원회

민간요소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현역 군종목사의 전역 후 사역 지원이다. 단기 복무자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사역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군선교에 매진하는 동안에 민간교회와의 접촉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각 교단별로 혹은 MEAK 차원에서의 이른바 ‘군종목사 사역 연결 프로젝트’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군선교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사역의 길도 열리는 사역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군선교에 더욱더 소신껏 그리고 최고의 역량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예비역 군종목사들이 지속적으로 군선교에 참여하는 부수 효과도 있을 것이다.

## 2) 후원 모델 개발

군선교에 대한 민간의 후원 모델로 현재 채택되고 있는 것은 교회회원, 개인회원, 가족회원, 정기회원, 평생회원 등으로 구분하여 후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선교신문 광고 협찬, ARS 후원 등이 있는데 광고 협찬의 경우 연간 2,500만 원 정도이고, ARS 후원은 연간 6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본부의 경우 후원회원을 확보하여 교회, 개인, 단체, 가족별로 지정된 계좌 단위로 후원을 받고 있는데, 교회 회원의 경우 약 223여 개, 단체 18개, 가족 376가족인 정도이다. 지부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 지역별로 군선교사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후원금액도 미미한 실정이다.

〈표6〉 2012년도 중앙본부 후원 현황<sup>41</sup>

구분	계좌수	회원수	입금액	비고
교회회원	556	221	320,310,000	1계좌당 월 5만 원
단체회원	55	18	30,188,400	
가족회원	571	376	61,321,000	1계좌당 월 1만 원
개인회원	672	404	39,595,000	1계좌당 월 5천 원
합 계	·	1,019	451,414,400	
비 고	월 평균 후원금액 약 37,700,000원			

※ 군선교회원교회는 군세례신자 결연교회를 뜻함.

MEAK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본부를 제외한 16개 지회의 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42</sup>

〈표7〉 2012년 16개 지회 후원 현황

지회명	설립연도	정기후원회원					월평균 후원금(원)	군선교회원교회 수
		교회	단체	가족	개인	계		
중부지회	1985	62	5	282	339	688	9,107,433	285
부산지회	1988	22	2	12	29	65	2,580,906	250
대경지회	1988	28	3	0	42	73	7,227,283	414
광주지회	1991	26	1	0	0	27	1,931,083	308
동부지회	1999	39	5	67	101	212	4,267,417	166
제주지회	2000	19	0	39	58	116	2,288,084	59
전북지회	2000	38	1	47	4	90	4,025,794	377
충북지회	2000	14	0	1	60	75	1,443,681	144
울산지회	2001	8	23	2	33	66	2,233,233	72
경남지회	2001	25	0	93	170	288	2,825,942	·
강원지회	2002	13	0	0	2	15	1,396,104	·
전남지회	2002	12	3	0	4	19	1,090,833	·
강원영동지회	2002	17	0	5	55	77	2,433,317	74
충남지회	2003	29	0	25	53	107	4,234,167	
경북지회	2003	32	0	5	1	38	2,613,258	33
경인지회	2005	42	6	31	48	127	3,890,755	451
계		426	49	609	999	2,083	49,473,497	2,633

민간요소의 후원을 분석해 보면 4천여 개의 비전2020실천교회들이 후원교회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는 그 절반을 조금 웃도는 2,600여 교회만이 후원교회(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출석교인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교회라면 군선교 후원교회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단체회원의 확대도 시급하고 개인 및 가족회원은 개인적으로 부담도 크지 않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효과적인 회원 증가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역 군종목사 및 예비역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등도 개인회원(월 5천 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후원 금액 증가 이외에도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는 군종교구장이나 추기경, 혹은 기타 명망 있는 인사들이 등장하여 군선교와 포교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후원을 독려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육군훈련소 성당 신축에 이 방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3) 자매/연결 사업 활성화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실은 수세장병들이 전역 후 민간교회로 연결이 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는 전 국민의 75%가 성도인 기독교 국가이다. 법과 제도가 성경적으로 구축되는 사회의 건설이 목표이다. 그렇다면 첫째, 세례운동 자체가 밀도 있게 진행되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과정, 즉 거듭남의 표식으로서의 세례가 행해져야 한다. 현재 훈련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개종 형태의 합동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복무 중

<sup>41</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sup>42</sup>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166.

<sup>42</sup> Ibid., 219-235.

인 병사들의 합동세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sup>43</sup>

실제로 최근 MEAK에서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을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종병 및 신우들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시작 배경과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비율의 병사들이 이 운동의 실천 방안에 대한 군종병과 신우들의 역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군종목사의 경우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시작과 배경에 대해 대부분이 알고 있었는데, 주로 MEAK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62명)는 숫자보다는 ‘그렇지 않다’ (91명)라고 대답한 숫자가 높았다.

훈련소에서의 세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 이곳에서는 민간요소와 관련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최석환은 그의 논문에서 신병교육대에서의 세례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병사들이 받는 세례의 90% 가량이 신병교육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세례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이나 회심에 대한 점검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세례를 두 번 이상 받은 병사가 조사 대상자 중 세례 받은 장병의 1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sup>44</sup> 세례에 대한 각종 수치나 기록을 앞세우는 풍토도 재점검해 필요가 있다. 민간교회가 신병교육대에 세례식 지원을 할 때 인원이 적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런 풍토가 부실한 세례 현상을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임을 자성하는 기회가 필

요하다.

세례와 양육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군종목사들의 대부분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천 분야들 중에서 제자훈련 등 양육(91명), 세례장병 민간교회 결연(79명), 진중세례식(56명) 등을 우선순위로 꼽음으로 향후 군선교에 있어서 양육과 민간교회 연결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민간교회와 연결 사업이다. 현재는 회원교회의 절반 정도가 미래신자들을 소개받아 연결을 하고 있지만 전체 세례 받은 장병의 10% 미만인 1만 4천 명 정도만이 민간교회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이 10%를 밑도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대부분의 세례가 신병교육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자대, 자대에서 민간교회 간 연결에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병교육대에서 자대로 넘어오는 수세장병의 명단이 미미하고 수세장병의 자대 정착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재원의 보고에 따르면 3군단의 경우 세례장병의 자대 정착이 10%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p>45</sup> 이런 통계가 곧 왜 수세장병의 민간교회 연결이 대상자의 10%에 머물고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세장병 연결을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자대로 명단을 보내는 문제와 자대에서 전입 장병 중 해당 병사를 찾아 부대주소를 명기하여 가정과 인접 회원교회로 보내는 일을 누수 없이 해야 한다. 수많은 회원교회들이 수세장병 명단을 받아 보았지만 부대주소가 명기되지 않아 통신이

<sup>43</sup> 김창제, *op. cit.*, 212.

<sup>44</sup>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Ph. D. diss, 총신대학교, 2007), 233-235.

<sup>45</sup> 정재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점검과 군선교 전략 수립”, 27. 이 논문은 학술지 등에 게재된 바는 없으나 2012년 국군장로연합회에서 개최한 군선교 발전 세미나의 주제 발제 논문임.

불통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세례이다. 충분한 교육과 문답 그리고 회심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배푼 세례는 수세자의 실종과 재개종이라는 허무한 사례를 양산하게 된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마치 통과 의례를 치른 것처럼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충실한 세례를 통해 단 한 명의 장병이라도 자대교회와 민간교회로 연결지어 미래신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대에서의 양육이다. 자대에서 양육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명단 파악은 물론 민간교회로의 연결과 민간교회와의 공동 양육도 가능하다.

〈표8〉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sup>46</sup>

구 분	수세인원	명단수집인원	연결인원	전수조사 인원
2012년	177,110명	131,438명	108,562명	180,497명
2011년	184,320명	147,178명	127,285명	171,245명
2010년	182,614명	132,744명	108,035명	200,656명
2009년	171,435명	122,781명	104,393명	194,341명
2008년	174,550명	163,733명	104,234명	
2007년	153,225명	122,637명	105,160명	
2006년	154,808명	146,955명	89,135명	
2005년	162,260명	107,928명	93,212명	
2004년	161,825명	114,434명	100,815명	
2003년	155,767명	92,810명	68,965명	
2002년	182,230명	111,798명	110,248명	
2001년	186,959명	143,996명	102,881명	
2000년	187,156명	128,535명	96,393명	
1999년	216,080명	37,129명	30,430명	
1998년	207,951명	11,077명	8,052명	

※ 출처: MEAK

셋째로는 장병들을 전도하여 세례 주는 인원과 자대에서의 군인신자 기록 카드가 수집되는 인원수와 지역교회로 결연되는 인원수가 동일해야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47</sup> 따라서 앞으로는 대대급 이하에서의 체계적인 양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군선교 교역자가 시무하고 있는 대대급 교회도 비전2020실천운동의 열매를 맺는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군선교 교역자 후원

군선교 교역자는 현재 약 632명으로 현역 군종목사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해야 하며 연령도 65세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 가고 있다. 군종목사와의 동역자 정신을 공유하며 군중활동은 군종목사 중심으로, 선교와 목양은 군선교 교역자와 군종목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점차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

〈표9〉 군선교교역자 현황

연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전담	362명	388명	367명	370명	389명	354명	·	341명	·	·
비전담	216명	222명	223명	274명	287명	268명	·	134명	·	·
총계	578명	610명	590명	644명	676명	622명	680명	475명	684명	404명

※ 자료: MEAK 제공

그러나 군종목사에 비해 신분이나 사역 환경 그리고 장병들과 신자들의 인식 면에서 다소 어려운 조건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유 있는

<sup>46</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68.

<sup>47</sup> Ibid., 68.

사역을 하기보다는 늘 힘겨운 조건들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사역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군선교 교역자의 사역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교회가 사역의 전반을 담당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5) 군선교회원교회 관리 현황과 담임목사의 관심과 의지

군세례신자가 각 지역별 군선교회원교회로 결연되면, 회원교회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의 출석예정교인 관리 프로그램인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 프로그램’과 ‘VIP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sup>48</sup> 프로그램을 교회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매뉴얼대로 잘 적용만 하면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은 눈부시게 한국교회 성장과 다음 세대를 더 부흥케 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 성장에 새로운 에너지요 원천이 되는 동역임이 분명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MEAK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자체 분석 통계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약 30명의 사역위원들이 수도권에서 9개 교구를 편성하여 방문, 서신, 전화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해 233교회를 방문하는 등 매년 평균 200여 교회를 방문하여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 실태를 확인하고 각 교회별 맞춤형으로 리더하고 있는데, 수도권 교회 32회원교회 중 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보통(C급) 이상의 수준인 교회가 불과 301교회(36%)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교회별 담임목

사의 목회철학과 관심, 실천의지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군인교회나 군선교회원교회나 모든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의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 중의 하나가 군선교이다. 현실적으로 청년 전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담임목사라면, 이미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된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은 이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 6. 평가와 제언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담당할 분야의 사역의 형태는 다양했고 분량도 절대적이었다. 군선교의 태동 단계부터 함께한 민간요소의 기여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지고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요소의 기여 분야가 세례와 건축 그리고 세례신자 연결이라고 하는 구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례가 주로 훈련소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자대 정착률과 민간교회 연결에 있어서 저조했다는 통계는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통계는 세례가 정확하고 본질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후의 진행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각 부대 훈련소 교회와 육군훈련소 교회를 텅 비운 각오로, 그리고 세례율 ‘0’

<sup>48</sup>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 프로그램: ① 청지기 임명 ② 전도특공대 편성(조직) ③ 기도하기 ④ MP가족전도 ⑤ 편지보내기 ⑥ 선물보내기 ⑦ 심방(면회)하기 ⑧ 초청하기 ⑨ 영접하기(전역 시) ⑩ 후원하기(선교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매뉴얼 22권」(2011. 3. 24), 28.

<sup>49</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78.

(zero)가 되어도 좋다는 의지로 세례를 정확하고 복음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몇 명이 되었거나 자대 정착률과 연결률이 높아질 것이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인 성도가 75%인 기독교 국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확한 복음의 증거와 이에 따른 자연스런 세례와 양육, 연결의 과정이 굳게 형성(formation)되어 간다면 민간요소의 참여도 더욱 열기를 더할 것이다.

## 7. 결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날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영 환경도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 여성간부의 증가로 인한 군 인력구조의 변화, 기계화와 경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등 국방력의 증강,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전례 없이 폭이 큰 군 지휘구조의 변화 등은 향후 군중 활동이나 군선교도 선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긴장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이 언젠가는 제한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 선진국 군의 경우를 보면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군선교와 관련된 민간교회는 약 45천 개 교회로서 전체 한국 기독교교회의 약 7% 정도이다. 따라서 민간요소의 군선교 동력화의 개발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장병세례 운동인 것은 틀림없지만, 목적은 성도가 75%인 기독교 국가 건설이다.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사역인 것이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21세기 한국기독교운동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차제에는 우리나라를 성경에 기초한 국가로 만드는 사역과 관련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이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된 연구와 제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과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과 기여는 막대했다. 향후에도 새로운 기여 모델을 적용하여 군선교가 다시 한 번 민족 복음화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A Comment: A study on the effec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ivil elements for the Military mission-based on the Vision 2020 Movement

■ 강사문 Kang, Sa Moon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본 논문 “군(軍)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군선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검토하고 토론했어야 할 귀한 논문이다. 왜냐하면 인적·물적 등 제한된 군 구조 속에서 군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은 절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군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보를 위해 편성된 특수 조직이므로 군선교란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제 속에서 법령에 따라 군에서 허용한 4개 종교가 군 조직의 존재 목적에 반하지 않고 공존하는 가운데 각 선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선교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즉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군(軍)선교란 ① 군대(軍隊) 내에서 종교 자유가 전제(前提)되어야 하고, ② 법에 따라 허용된 종교라도 군의 존재(存在) 목적(目的)에 반(反)하지 않아야 하고, ③ 피차 공존(共存)하는 가운데 각기의 선교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한계(限界)를 지닌 특수 선교라 할 수 있다. 군이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하지만 이런 제한된 여건 속에 선교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요소(民間要素)는 절대 필요한 요소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必須)임을 알 수 있다.

민간요소란 군 밖의 조직이나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성직자 파송, 관리, 후원 등을 말하는 것인데, 군 내부에서 성직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민간 종교단체가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선교를 위해서는 민간협력은 필수 조건임을 설명한다. 본래 민간요소란 군 작전 프로그램 METT-TC의 마지막 요소인 C, 즉 civil consider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간교회 및 목회자, 종교단체, 교단, 민간 성직자 등 군선교와 연관된 모든 민간요소를 말한다고 한다. 군선교의 대상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인, 군속, 군무원과 그 가족원들이다. 그래서 저자는 군선교의 절대 필수 요건인 민간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한다.

우선 저자는 지난 60여 년간의 군선교에서 민간요소의 역사(歷史)를 점검하고, 특히 군선교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을 살펴본 후 그들의 핵심 주제인 2020운동과 민간요소의 관계를 관찰하고, 군선교를 위한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라고 한다. 본 논문은 군선교에 관련된 용어 정리, 민간요소의 역사와 그 역할, 2020운동과 민간요소 그리고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 1.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사

우선 저자는 군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민간요소는 1948년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던 정달빈 목사와 군인들과 그 관련 가족들이 남산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949년에 3군 장교들과 가족들이 합동으로 용산에 군인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1948년 전 북 군산에 주둔했던 보병 12연대에서 백인기 연대장을 비롯한 기간 장교들이 군산 일대의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군부대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1949년 10월 23일 이후에 이 보병 12연대가 인천으로 이동하였는데 마침 미군부대가 철수한 그 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거기서도 인천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군부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 후 1951년부터 1954년까지 군종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135명의 무보수 성직자가 군선교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군선교는 민간교회와 목회자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월남전 파병을 전후하여 민간교회가 군선교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며, 1972년 전 군복음화를 위한 조직과 운동이 전개되면서 전군신자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운동이 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의 모체가 된 것이다.

1974년 한경직 목사가 이 연합회의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군복음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연합회가 군복음화 후원회(1976년)로 개칭되면서 민간교회는 진중교회당 건축을 비롯하여 전도, 정책, 교육, 홍보, 복지 등 군선교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후원한 결과 진중세례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를 창출하지는 비전2020실천운동으로 승화되면서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 중에, 1999년 총회에서 이 운동의 조직 명칭을 본래 명칭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이 연합회는 중앙회를 비롯 국내외 25개 지회를

두어 지역별로 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지원활동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와 교단, MEAK, 군선교 교역자와 해외 MEAK 지부의 교회와 단체 등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현황을 서술한다.

① 현재 군선교를 위한 지원하는 교단은 개신교 11개 교단이 군선교 후원 교단연합회에 참여하여 2012년에 약 35억을 후원금으로 세례식, 위문, 육군훈련소 예배당 신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회로는 그 교단 산하 4300여 교회가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240교회와 단체가 약 600여 명의 군선교 교역자의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단별로도 군선교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고 자기 교단 나름대로 군선교 후원에 기여하고 있다. 또는 ROTC 예비역 기독교연합회 같은 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조직이 있어 군선교 후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MEAK는 군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단일화 창구로서 진중세례 및 건축, 교육, 복지, 출판, 장학 등 16개 사업에서 총 240억 원을 군선교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선교연합회는 좀 더 현실 구조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체가 겸비한 토대 위에 체계적 지속 가능한 선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교회와 교단은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선교는 초교파연합사업의 모델로 정착하게 되어 11개 교단의 연합, 개교회의 연합, 지역의 연합, 관련기관의 연합 등 민관이 연합하는 연합운동의 산실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③ 군선교 교역자의 역할을 서술한다. 군선교 교역자란 민간인 신분으

로 군인교회를 섬기며 군선교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632명의 기독교 교역자를 말한다. 현재 군인교회는 1004개 교회가 있는데 군목은 261명밖에 안 되므로 나머지 700여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군선교 교역자는 군선교를 위해 불가피한 존재들이다. 연간 20억 정도로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④ 마지막 민간요소는 해외에 있는 MEAK 지부를 통한 군선교의 후원 단체들이다. 이는 해외에 있어도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정신이 뒷받침되어 교민사회와 교민교회를 통해 조국의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다. 저자는 한국 군선교의 모델이 다른 나라 군선교에도 전수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여기서 민간요소로는 교회, 교단과 MEAK를 구분하여 다루었는데 두 조직이 다 개인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만큼 직접 간접후원으로 구분하지, 아니면 민간단체 1-2로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해외 MEAK 지부는 MEAK란에서 다루어도 될 것이고, 군선교 교역자는 교회의 후원을 받는 만큼 교회와 교단 역할에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한다.

### 3. 비전 2020 실천운동과 민간요소

여기서 민간요소는 군종복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 교역자들까지도 후원하는 각 교단과 교회의 역할을 다루고, 비전2020운동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과 그 후원교회와 비전2020운동이 민간요소에 까지 끼친 영향을 다룬다.

① 군종파송교단과 교회의 역할을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인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가 군선교 교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후원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② 1998년에 MEAK 부설기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시작된 비전2020실

천운동은 군선교에서 시작되어 온 국민의 75%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출범한 범교단적 선교운동이었다. 2020운동의 구체적 복안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5%인 3,700만 명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 비전2020운동은 모범국민 양성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애국애국운동이요, 군으로서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여망하는 바 신앙전력화운동이요, 교회로는 민족복음화로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여파로 1991-2000년 사이에 군인교회 386동이 신축되고 173동이 개축되었으며, 민간 후원교회도 2004년 초까지 1,743개 교회가 후원교회로, 1,372교회가 준후원교회로 등록하여 총 3,115개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합동세례운동도 1996-2012년에 사이에 군에서 3,025,132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초기의 목표치에는 미달되지만(약 40만 명) 약 90%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③ 군선교회원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 또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들 회원교회들을 중심으로 군에서 세례받은 세례장병들을 연결하여 비전 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후원교회 수는 4,400여 개 교회로 지회 행사에도, 중앙본부의 행사에도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이들 중 2,552개 교회가 지난 15년간 100명 이상의 세례장병들과 연결되어 지역 복음화에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후원 회원교회는 후원을 넘어 수세장병들의 관리, 그들의 가족전도, 전역 후 민간교회에 정착과 적응 단계까지 도와주는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비전2020운동의 여파로 군선교를 위해 초교파로 4천여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물론, 교단까지 협력하는 연합정신의 함양은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확원선교

와 함께 21세기 민족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선교를 위해 국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까지도 힘을 모으는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 4.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발전방향

여기서는 군선교에 있어서 정책적 개발에 민간요소가 기여할 점들과 후원금 모금에 대한 방안 제시, 군 수세자들을 회원교회에 연결하는 자매 연결 활성화 방안, 군선교 교역자들에 대한 예우 개선과 회원교회의 관리 현황과 담임 목사의 관심 등을 조명한다.

① 한반도 안보환경과 군 병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선교정책도 중·장기로 개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지닌 군선교신학회, 군선교연구소, 군상담심리코칭학회 등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역 군인연합회나 군목회를 통해 군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 정책개발 및 지원활동이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후원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한편 군선교의 핵심 동력인 군종병과 신우회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함으로 비전캠프 프로그램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군선교 관련자들을 양육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군종목사의 사역연결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여 현역 시절은 물론 예편 후에도 군선교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한다.

② 후원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교회회원, 단체회원, 가족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후원 조직을 활성화하며, 16개 지회후원 교회 수가 4천여 교회이지만 실제로 2,600여 교회(약 58%)만이 후원하는 상황이므로 후원금 확대를 위해 교계지도자들의 적극적 협력과 찬조가 요청된다고 한다. 특히 군선교회원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관심 여하에 따라 후원이 좌

우되는 것이므로 담임 목사의 각별한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③ 현재 578명의 군선교 교역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훈련이 요청된다고 한다. 군종업무는 군목이 하지만, 군선교는 군목과 군선교 교역자가 합심하여 협력하여 바람직한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선교 교역자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교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요청된다고 한다.

④ 마지막으로 군선교를 위해 군과 민간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의 수세자들이 회원교회에 잘 연결되어 양육을 받아 믿음의 신자로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군과 회원교회의 연결과제의 활성화이다. 현재까지 세례받은 자가 지난 17년간(1996-2012) 300만에 달하는데 전역 후 실제로 회원교회에 연결된 수는 1만 4천 명(1% 미만)이라고 하니 회원교회와 수세자의 연결문제는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신병교육대에서 세례 받은 자들(군 전체 세례자들의 90% 정도) 중에 10% 정도가 자대에 정착한 것과 대비된다고 하나 의문시된다. 연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진정성 확립, 즉 세례교육과 문답, 회심의 확인 등을 거친 후에 개종의 확신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준다는 것이다. 세례자 양산이나 이중 세례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수가 적어도 창조적 소수가 더 값지다. 다음은 자대에서의 양육 또는 민간회원교회와의 합동으로 양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으로서의 세례와 양육을 통한 군선교만이 실제적인 선교임을 제안한다.

결론으로서 저자는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요소의 역할이 제한될지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군선교의 회원교회는 한국 기독교 교회 수의 7%에 불과한 상태에서 회원교회만이 군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교회에 참여의 필요성과 관심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비전2020운동은 장병세례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2020운동을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시켜 성경에 기초한 한국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끝맺는다.

논찬자로서 군선교에 있어 민간역할은 막대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1998년에 시작된 비전2020운동의 최종 목표는 전 국민의 75%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운동이므로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시켜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야 함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저자의 제안은 바람직한 전망이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교회의 과제라고 보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세 가지 면으로 이 논문을 평가한다면, 첫째, 군선교를 위해서는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확인시켜 민간후원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군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군선교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전수되고 강조되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강조하면 군선교가 활성화되고 후원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들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

둘째,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3항목)과 2020운동의 민간요소(4항목)라는 항목은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것이므로 하나의 항목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개 교단과 교회, MEAK의 비전2020운동, 군선교 교역자 등을 양쪽 항목에서 두 번 언급함으로 중복의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교회도 MEAK도 다 같은 단체이므로 교회와 연합회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구별한다면 군선교의 전문성과 비전문성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요소의 역할이라는 용어보다 민간의 역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에 제시된 모델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군선교 정책도 전문성과 비전문성으로 나누어 교회나 교단이 할 것과 연합회가 할 것을 구분하여 각자가 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무조건 교회는 후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과 교단도 그들 나름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제안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후원금 모금도 저조한 것이 사실인데 뽕족한 방법이 제시된 것이 없다.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군의 수세자들과 회원교회와의 연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군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책임이 큰 것이므로 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민간교회는 이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귀한 논문으로 앞으로의 군선교의 비전을 주신 주연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An Evaluation on the Trajectory of the Vision 2020 Movement

■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Div., Th. M.)
  -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D.)
    - 예)군종목사
- MEAK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계명대학교 출강
  -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1. 들어가는 말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군장병에게 진중세례를 베풀고 양육하는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고자는 한국교회의 비전이다. 실제 비전2020실천운동의 기점인 1996년을 전후하여 제 진중교회에서 강력한 세례운동을 전개한 결과 세례를 받은 국군장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sup>1</sup> 이로써 논자를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에 힘을 기울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그저 선교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가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비전이 사명임을 고백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지금도 전국 약 4,000여 일반교회가 한국군선교연합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함으로써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 보듬기에 협력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아쉽게도 비전2020실천운동은 작금의 다변한 군내·외 선교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sup>3</sup> 군선교적 환경의 변화는 일선에서 비전2020운동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군종목사들에게는 지난한 도전이다. 그리고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꿈꾸고 협력하는

1 <표1>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장병 세례 변화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세례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영세	-	3,397	3,908	3,915	4,739	6,597	6,597	10,618	14,512	21,387	19,687
수계	-	63,580	62,865	63,118	62,136	77,570	77,570	80,607	80,539	83,317	81,542

육군본부, 『군종 50년사』 (육군본부, 2002), 587.

<sup>2</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3), 36.

<sup>3</sup> 작금 비전2020실천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지목된 것은 다종교적 상황하의 군종목사의 업무 가중, 군 구조 개편, N세대 장병 문화, 이단침투 등, 소수종교에 대한 권의 보장 요구 증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난무 등이다.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매년 정기적 심포지엄을 열고 학술 논문집인 「군선교신학」을 발간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장에서 봉착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 요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군선교신학」을 통해 발표된 논문 중 비전2020실천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문제를 살핀 대표적인 논문 몇 편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종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선교신학」1(2004), 56-97; 임성빈,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기독교 문화의 관점에서)”, 「군선교신학」1(2004), 264-289; 이규철,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 윤리적 비판”, 「군선교신학」3(2005), 66-128; 우기식, “진중에서의 소수종교정책”, 「군선교신학」4(2006), 80-104; 윤병국,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선교신학」5(2007), 113-152; 최희범,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군선교신학」6(2008), 54-70; 한생현, “비전캠프와 군선교의 활성화”, 「군선교신학」7(2009), 256-302; 박종화,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군선교신학」10(2012), 35-44.

한국교회에게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한 지 어언 20년을 바라보는 차체에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노정을 가다듬는 평가 작업은 2보 전진을 위한 효율적 숨고르기라고 사료된다. 이에 보고는 군종목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민족복음화 선교전략인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반적 추진방향이 비전2020실천운동 발족 당시에 설정한 본질적<sup>4</sup> 가치와 부합되는지 가늠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軌跡)이 민족복음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교로서의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작금의 상황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동성으로 인한 빛과 그림자를 평가해 본다. 그리고 비전2020실천운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제 정책과 방안들을 추슬러 봄으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온 민족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흥왕하기를 모색한다.

## 2.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비전2020실천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한국군 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진중세례운동이 전개되었다. 김홍태에 따르면, 제1차 진중세례운동은 1960년대 후반 거듭되는 무장공비 침투에 의해 국가안보와 군 정신무장 강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에 1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한신 대장의 주창으로 전개되었다. ‘군사력의 힘이 병사들의 정신무장에 달려 있고, 정신무장은 무엇보다 종교적 힘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신념을 주목한 한신 장군은 ‘반공(反共)을 위한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 군 구성원 전원의 신자화를 위한 군중활동 강화’를 군중참모인 한준섭 대령에게 지시하였고,<sup>5</sup> 이를 계기로 전 군종장교들이 전군신자화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전군신자화운동은 합동세례식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목은 이상강 목사(합동)로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비롯한 장병 154명이 합동세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요원의 불길같이 전군적 진중세례 불이 일어났고,<sup>6</sup> 한국교회의 각계에서 진중 합동세례식을 지원하는 손길이 날로 더해졌다.<sup>7</sup>

김홍태의 분석에 의하면, 전군신자화운동으로 신앙을 가진 장병들의 증가는 병영에서 범죄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8</sup> 전군신자화운동의 가시적 성과에 고무된 육군의 전군신자화 장려 정책은 해군과 공군에도 전파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6월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써서 전군신자화를 격려하여 이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교회는 이처럼 진중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군신자화운동을 군복음화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초교파적 연합을 도모하여 ‘군복음

<sup>4</sup> ‘조대호’에 따르면, ‘본질’ 또는 ‘본질적’이란 말은 전통적으로 ‘정의 이론’(theory of definition)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에 따르면 본질이란 어떤 것에 대한 정의 안에서 기술되는 사태를 가리킨다. 스킨라 철학자들은 본질을 ‘있음의 근거’(causa essentiali)이자 ‘앎의 근거’(causa cognoscendi)라고 불렀다. 조대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세계: 학문의 개별성과 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식의 통섭』, 최재천, 주일우 편 (서울: 도서출판이음, 2007), 22-23.

<sup>5</sup> 김홍태, “군신자화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신학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1987), 19.

김홍태에 의하면, 한신 장군은 신앙이 없는 장군이었으나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후방에서 담지한 방위성금으로 1군 산하 군종 장교들의 기동용 오토바이 53대를 구입하여 군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전군신자화운동’을 지원하였다.

화후원회’<sup>9</sup>를 발족시켜 군선교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는 목적으로 진중교회와 한국교회를 연동화시켰다.

전군신자화운동으로 불붙은 진중세례 열기는 한국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오덕교에 따르면, 진중세례가 성황을 이룬 1970년대 초 중엽 한국교회는 대규모 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sup>10</sup>한 결과 1974년경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전군신자화운동과 연계된 진중세례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80년대 초반 군에서의 선교운동은 침체를 맞았으나 한국교회는 계속

<sup>6</sup> 일례로 1971년 11월 25일 보병 제26사단에서는 ‘최세태’ 목사의 집례로 1,460명이 세례를 받았다. 12월 5일에는 제5사단에서 한준섭 군중감의 주례로 1,005명이 세례를 받았다. 1972년 3월 9일 제28사단 81 연대에서는 1,009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식에는 환경직 목사를 비롯하여 민간 목사 140명, 군목 50명, 선교사 및 외국인 30명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 26명이 참석하였다. 동년 4월 25일에는 육군 보병 20사단에서 통합 측 군목인 김태동 중령의 인도로 장교 88명, 사병 3,390명도 합 3,478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는 단회 수세 인원으로는 최고를 기록하며, 한국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아래의 표는 당시 진중세례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교회연합신보』(1972. 4. 30.), 7.

〈표2〉 연도별 진중세례 통계

연도	구분	합동세례		일반세례	계
		횟수	인원		
1971		6	4,377	2,943	7,320
1972		39	23,405	18,954	42,359
1973		43	26,803	17,880	44,683
1974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sup>7</sup> 박성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서공회는 합동세례를 받는 장병들을 위해 1972년 9월까지 46만 1천 권의 성서를 특별 제작하여 기증했다. ‘기드온 협회’는 매년 18-25만 권의 성서를 부대별로 직접 전달했으며, 아세아복음선교회 등에서는 지휘관용 성경전서 200여 권씩을 전달했다. 기독교 신문 보급도 크게 활성화되어 매주 『기독교공보』 7천여 부와 『크리스찬 신문』 2천여 부가 보급되었다. 가정문서선교회 20만 부 및 루터교 등에서 실시하는 통신 강좌가 수만 부씩 지원되었다. 환경직 목사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책자 3만 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1만 부도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다. 박성원, “군중병과의 어제와 오늘”, 『지평 문화』(1996. 10), 29.

성장함으로써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불씨를 이어나갔다.<sup>11</sup> 특히

<sup>8</sup> 김홍태의 분석에 의하면, 아래의 표는 신앙심을 가진 장병의 증가와 병영 사고 발생률 감소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홍태, op. cit., 19.

〈표3〉 연도별 신자 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 현황(육군)

연도	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사고자수
1970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표4〉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구분	유형	발생자수	군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계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sup>9</sup> 군복음화후원회는 전군신자화후원회를 모체로 한다. 전군신자화후원회는 1971년 한신 장군의 초청을 받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1군사령부를 방문한 환경직 목사의 헌신으로 태동되었다. 환경직 목사는 당시 군중감이던 한준섭 목사로부터 전군신자화운동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2년 4월 11일 4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전군신자화후원회 발기위원회를 조직했고, 동년 5월 29일 전군신자화후원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백낙준 박사를 추대했다. 이후 전군신자화후원회 2대 회장으로 환경직 목사는 적극적인 군복음화 후원 방안을 추진하던 중, 전군신자화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군신자화후원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군복음화후원회’로 그 명칭을 개칭했다(1976. 7. 21). 국방부는 1981년 3월 7일 국방부 인준(918.1-145) 지시문서를 통해 중단별 공식 후원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민간 차원의 군선교운동과 후원사역은 일원화되어야 했는데, 기독교는 4년간의 논의 끝에 군선교 후원을 위한 창구로서 ‘군복음화후원회’로 일원화했다(국군중 24250-150/85. 7. 11/국방부훈령 제 572호 제정). 1986년 12월 11일 창립된 한국군중목사단은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1987년 1월 22일 『군복음화보』를 월간으로 창간하였고, 1988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단체로 인가를 받음으로 군복음화를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군선교 전담기관이 되었다. 육군본부, op. cit., 106.

<sup>10</sup> 1973년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1974년의 ‘엑스포로’ 74, 1977년의 민족복음화대성회 등과 같은 연합 대중 집회가 열려 일반인 전도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들어 군복음화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진중교회를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을 왕성히 전개하여 군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간 것은 압권이다.<sup>12</sup>

박성원에 따르면, 제2차 진중세례운동의 발화는 1990년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한 김진영 장군(장로)의 밀알과 같은 헌신에 의해 개진되었다. 육군훈련소를 통해 병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한 김진영 장군은 훈련병의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 주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십자가 10만 개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1,000만 원을 현금하였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수많은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세례를 받는 귀한 결과를 가져왔다.<sup>13</sup>

오덕교에 의하면, 군 병영 안에서 열화와 같은 합동세례운동이 일어나자 교계에는 진중세례운동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다. 어떤 이는 신

앙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질서를 깨거나 세례의 의미를 격하시킨다고 비난하였고, 어떤 이는 진중세례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고 반대하였다. 분명 합동세례식을 통해 집단적으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체계적 양육이 없었기에 이러한 비판은 한편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인교회가 진중세례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비전2020실천운동이다.<sup>14</sup>

1996년 2월 15일, ‘군복음화후원회’는 이름하여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열화와 같이 융숭해지자 “군과 민족, 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양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모토로 하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선언했다.<sup>15</sup>

비전2020실천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육군대장이필섭 장로이다. 군선교의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한 이필섭 장로는 1996년 2월 군복음화에 대해 군목들과 논의한 후, 스가라서 3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구호 아래 매년 25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제대한 후 일반교회로 흡수되어 2020년경 대

<sup>11</sup>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은 ‘기독교교회’ (OCU)가 정치 세력화를 구축한다는 구실로써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시켜 군에서의 종교 활동을 약화시켰다. 또한 전도 운동이 종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써 진중세례운동을 중지시켰다. 진중세례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선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기독교인은 764만 명에 이르렀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우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2004), 141-142.

<sup>12</sup> 당시 군의 예산으로는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여타 군인교회를 건축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군복음화후원회는 군과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하에 사회 일반교회의 협력을 얻어 군인교회를 건축한 후 부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실제 1990년대에만 무려 546동의 군인교회가 한국교회들의 후원으로 신축되거나 개보수되었다. 한국교회가 펼친 군인교회 건축 후원 사업이 서울올림픽(1988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던 한국교회가 정체와 교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던 무렵에 일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Ibid., 144.

〈표5〉 군인교회 건축 현황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합계
신축	38	58	37	33	37	44	50	33	21	22	373
개보수	18	40	2	12	29	18	17	10	7	20	173

<sup>13</sup> 김진영 장군은 군종목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재교육의 기회와 성지 순례를 주선하였고, 육해공군 본부교회를 건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아래 통계와 같이 제2차 진중세례가 발화하도록 결정적 헌신의 본을 다하여 군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된다. 박성원, op. cit., 29.

〈표6〉 제2차 진중세례운동 시 세례 인원 통계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진중세례자(명)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sup>14</sup> 오덕교, op. cit., 148-149.

<sup>15</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교재』(2002. 5), 27.

한국인 75%인 3,7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양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sup>16</sup> 한국군종목사단은 이 비전을 적극 실천할 것을 채택하였고, 군종목사를 파송한 10개 교단장과 교단 총무들은 비전2020운동 실천결의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인했다.<sup>17</sup> 이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가 펼칠 21세기 기독교운동이요 명실상부한 민족복음화운동의 선교전략<sup>18</sup>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군복음화후원회는 한국교회를 결집시켜 한국군 병영 안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이 실제적이고 유효하게 펼쳐지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1999년 2월 9일 열린 제28차 군복음화후원회 총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Military

<sup>16</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실무담당자 교육 자료집(2000)」, 14-15.

이필섭 장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인구의 75%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는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것이므로 모든 법의 근원인 성경의 정신에 맞게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그 법에 의해 사회정의의 구현해 가야 할 것이며,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나라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전 2020을 통해서 이뤄질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비전2020의 성취를 통하여 이 땅의 통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구 5,000명당 1명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믿는 백성이 25%에서 75%로, 현재의 3배가 되어 3,3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가장 크게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2020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sup>17</sup> 당시 군목을 파송한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통합,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다.

<sup>18</sup> 민족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실천운동이 펼치는 5단계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가. 1단계: 입대 전 전도/양육

첫째, 민간교회, 대학생 선교단체와 공조한다는 전략.

둘째,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는 전략.

셋째, 군선교사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략.

나. 2단계: 입대 후 전도·세례/양육

첫째, 적극적인 진중전도와 세례를 통하여 신자를 확보하는 전략.

둘째, 진중 군인신자를 양육(성경공부)하는 전략.

다. 3단계: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이 전략은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봉투를 활용하여 군인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되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군인신자 교적카드를 작성 및 발송하고, 대대 군종병과 연대급 군종병, 기독교간부, 여전도 회원 중 실무 책임자를 임명(임명 직분: 비전2020추진 부장/차장/위원)하여 군인신자 연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 4단계: 군인신자 실천(일반)교회 연결-이 전략은 군목 파송 10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기로 등록한 교회를 비전2020운동 실천교회로 정하여 군인신자를 연결토록 한다(연결 통지서 월 1회 송부). 이 실천교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시는 구 단위, 군은 읍·면 단위에 1개 처 이상)하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나 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청장년 평균 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실천교회로 연결(전산시스템 운용)하고 일반 신칭 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한다.

마. 5단계: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신자) 관리(양육)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

- (1) 사랑의 청지기(눅 16:10)/1:1 집중 관리자 선정 및 전담 부서 조직
- (2) 사랑의 등록(계 20:15)/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3) 사랑의 기도(딤후 2:1)/1:1:1 기도 실천, 공식 집회 시 기도-기도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 그 가정을 위해서 1분(1') 이상 기도
- (4) 사랑의 가족 전도(행 1:8; 단 12:3)
- (5) 사랑의 편지(유 3)/매월 서신, 주보, 책자 등 우송
- (6) 사랑의 선물(잠 19:6)/절기별 기호품 선물 전달
- (7) 사랑의 심방(벧 2:1-4)/직접 부대 방문 심방
- (8) 사랑의 초청(요 1:46; 요일 1:3)/휴가 외박 시 교회로 초청
- (9) 사랑의 영접(눅 10:38-42)/전역 시 영접 환영 예배
- (10) 사랑의 헌금(고후 9:6)/전도, 세례(침례) 등 군선교비 후원(1명 세례 경비 후원-3천 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 실천 자료집」(1999), 75.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로 개칭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심에 서서 현역 군종목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지원하는 일과 한국교회를 군선교의 든든한 후원자로 세워 나가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였고,<sup>19</sup> 1999년 2월 26일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공동기도문’<sup>20</sup>을 채택하였다. 동년 7월 ‘제1기 군선교사 양성훈련 비전2020캠프’를 시작한 이래 평신도 군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는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00년 2월 29일에는 “군선교의 노래”가 제정되어 전국 교회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1월에는 군선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여 ‘군선교연합 월례조찬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또한 ‘민·군 연합 민족복음화 각 지역별 순회 대성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 군선교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갔으며, 군인신자 양육교재

인 「좋은 군사」를 발간하여 격오지 근무자와 군인교회 신우회의 성경공부를 돕는 교재로 보급하는 등 국군장병에 대한 문서선교 사역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2월 28일 발족한 한국군선교신학회<sup>21</sup>는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선교사역을 전개하고 다원종교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복음의 진수가 능력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매년 심포지엄 및 「군선교신학」을 발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한 ‘군장병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장병들이 솔선수범하여 복음에의 사랑을 ‘지키게 하는’ (마 28:20) 취지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독하고 힘든 장병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악성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 생활을 이루는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운동’<sup>22</sup>을 선포하여 군내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랑의온차보내기 사업, 군종목사의 성지순례 후원사업과 같은 연례적 지속 사업, 그리고 군선교정책개발(발전) 또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섬기는 귀한 사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단과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협조하여 현역 군종목사의 전적인 손길이 닿기 힘든 격오지와 대대급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군선교 교역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sup>23</sup>

<sup>19</sup> 2013년 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내지회 16곳(중부, 부산, 대경, 광주, 동부, 제주, 전북, 충북, 울산, 경남, 전남, 강원, 강원영동, 충남, 경북, 경인지회), 국외지회 8곳(필라델피아, L.A.,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지회)이 조직되어 군선교에 협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131.

<sup>20</sup>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bid., 10.

<sup>21</sup> 한국군선교신학회는 2012년 1월 5일자로 ‘한국연구재단’의 KCI국내 학술지 인용색인(<http://www.kci.go.kr/>)기관회원 가입을 하였다. Ibid., 63.

<sup>22</sup> 선사인 캠페인(선한 사마리아인, 좋은 군사) 사역 개요

1. 개념: 비전2020사역은 영혼구원 전도사역이라면, 누가복음 10장 25-37절(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과 디모데후서 2장 3-4절(선한 군사)에 근거한 선사인 캠페인은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으로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는 것.

실제 한국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의 헌신과 협력하에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는 재정은 막대하다.<sup>24</sup> 이렇듯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최선을

다해 일선 군선교 현장과 한국교회를 연결시켜 진중세례사업을 후원하고 복음의 확장을 증진시키는 컨트를 타워로서의 제 역할<sup>25</sup>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2 목적: 군대 내 사고 예방 및 올바른 병영생활을 선도
- 3 방향: 가. 21세기 한국교회 문화사역으로 전개한다.  
나. 반(反)기독교 청년을 친(親)기독교 청년으로 만든다.
- 4 대상: 1004군인교회 전체, 기독교장병
- 5 선사인 선포주일: 2012년 6월 3일. Ibid., 145.

<sup>23</sup> Ibid., 119.

군선교 교역자 기본 운영 제도는 다음과 같다.

- 1. 군선교 교역자 운영 발전 5대 정책사항:  
적임자 선발, 전문 교육(신임, 보수 교육 병합), 종합 인사 관리, 안정적인 선교비 후원, 신분 보장
  - 2. 군종목사 파송 교단별 정책 사업 발전(행정, 후원)
  - 3. 1004군인교회 사역 활성화: 군종목사+전담교역자 완전파송(정원운영제)
  - 4. 네트워크 시스템 연합운용: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군종목사 파송 교단
  - 5. 선교 활동비 지원 표준화: 선교 활동비 지원 기준액/기본 매월 100만 원×14개월 (연간 1,400만 원/유류대, 교통비, 간식비) 등.
  - 6. 활동 연한 정책 사항: 은퇴자(만 65세) 중 본인 희망 시 격오지 부대 또는 비전 2020사역을 위해 군선교연합회 책임하에 1년 단위로 만 70세까지 사역 가능함.
- 〈표7〉 군선교 교역자 현황 〈2012. 12. 31 기준 / ( )는 교육원 수료자〉

구분	전담	비전담	65세 초과자	불명	전체인원
군종목사 파송교단	고신	13(12)	4		17
	기감	94(74)	26(7)		120
	기성	3(3)	7		10
	기장		6	1	7
	기침	30(18)	11(3)	1	43
	기하성	12(9)	7(2)	1	21
	대신	29(23)	7(1)		37
	백석	31(25)	7(3)	3	109
	예성	16(14)	3(1)		20
	통합	62(47)	44(12)	3	109
합동	56(44)	43(13)	11	112	
기타	40(30)	33(4)	4	1	78
불명		1		6	7
합계	386 (299 / 7.5%)	199 (46 / 23.1%)	23	14	622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질적 헌신자인 한국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세례를 베풀기에 그리 쉽지 않은 상황<sup>26</sup>에서 아래와 같이 눈물겹도록 엄청난 세례사역 결과를 낳고 있다.<sup>27</sup>

안타까운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전략인 진중세례의 연도별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침(浮沈)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장에 힘겹고 침체에 가까운 상황에

<sup>24</sup> 2012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후원 결실 현황의 경우, 일반 사업(비전2020-진중세례, 양육/문서 선교/교육/군선교 교역자 파송/문화 및 일반 행사/복지/정책/장학/출판 사업)에 8,188,056,581원, 군인교회 신축 및 기공 사업에 15,658,850,000원, 시설 유지 사업에 605,836,794원, 자산 사업에 31,489,741원, 홍보사업에 91,201,330원, 총계 24,575,434,446원이 투입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28.

<sup>25</sup> 「군선교신학」8(2010), 걸표지 내부 참조.

<sup>26</sup> 이종윤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공 여부에 대해 군선교 기관들이 다소간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군교회 내부적인 문제점들로서 첫째,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둘째, 군인교회와 군선교회 그리고 민간교회와의 연계성이 미비하다는 지적. 셋째,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하였다는 점. 넷째, 군종목사 등 지도자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양육체제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군 외 부적인 문제점들로는 첫째, 군 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군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독교의 진중세례가 타 종교의 선교 및 포교에의 동기 부여와 거센 도전을 유발하였다는 지적. 셋째, 이단 및 소수종교가 군내 침투와 군종 파송을 추진하고 있는 점. 넷째, 여러 종교와 종단들이 군선교 과열 현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관련 기관을 배제한 군부대 장병 설문 조사로 기독교 종교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4(2006), 45.

서 새벽 이슬 같은 국군장병들에게 이 정도의 세례를 베푸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지속하는 순항 궤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세계선교사적으로나 민족복음화의 측면에서나 대단히 고무적이고 소망스러우며 다행한 일이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하고 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한국교회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집약시키는 모색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 3.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한국 기독교의 민족복음화 사명을 이룸에 있어 군선교의 중요성<sup>28</sup>은 누누이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다면 1996년 이래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비전인 비전2020실천운동이 숨 가쁘게 달려온 궤적은 어떤 가치 형국일까?

#### 1) 가치와 의의

먼저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에 담긴 가치 의의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의 본래적 특성<sup>29</sup>을 함유하면서도 민족복음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공유하는 비전으로서의

<sup>2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68.

〈표8〉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 시작 이래 전군 세례 통계

연도	'96	'97	'98	'99	'00	'01
세례인원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연도	'02	'03	'04	'05	'06	'07
세례인원	182,230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5
연도	'08	'09	'10	'11	'12	총계
세례인원	174,550	171,274	182,614	184,320	177,110	3,025,132

<sup>28</sup> 민상기에 따르면, 군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군선교는 한국선교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1993년에 들어 기독교의 전도 수가 급격히 정체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시한부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과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의 대량 배출과 수많은 개척교회의 난립, 대형교회의 기업화와 선교열의 부족, 기독교에 대한 국민 반감 형성과 사회문화의 타락, 대중 전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기독교 반감 등은 이제 기독교 전도가 한계점에 이른 것 같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군대에서는 초대교회의 베드로 전도로 3천여 명이 세례 받은 것처럼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軍)선교 현장은 정체된 민족복음화에 계속 활력을 불어넣어 마지막 민족복음화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에 중요하다.

둘째, 군선교는 한국 민족의 미래 소망이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인 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썩음을 방지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한다. 군(軍)에 입대한 젊은 엘리트 청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군선교사역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준다.

셋째, 군선교는 끝없이 사명이 부여되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군 내 어떤 군인교회에도 2년 이상 머무르는 그리스도인 병사는 없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여 끝없이 사회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선교의 지속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선교는 얼마든지 구원의 풍어를 이루는 황금어장이다.

넷째, 군선교는 가장 효율적인 선교 투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현장(field)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자라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커피한 잔, 빵 하나로 전도되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가장 어려운 여건과 환경, 힘든 훈련 속에 찾아오는 파스한 한 잔의 사랑은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와 위로 속에 결단케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군종목사, 군종병, 기독교우회의 간절한 간구는 그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복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싹을 내게 한다. 따라서 군(軍)선교는 투자에 따른 열매가 가장 효율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최고의 선교지이다(마 13:1-8).

다섯째, 군선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하는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 사상인 ‘주체사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일의 정책이나 대안도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수많은 주장과 외침은 넘치지만 실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지극히 미약하다. 그렇지만 군은 영적 훈련과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보장된 곳이기에 군선교는 조국의 젊은이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매우 유익하다. 민상기,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4(2006), 375-376.

2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의 특징은 다음 10가지이다.

첫째, 대상적인 면: 군선교의 대상은 신체와 지성 등 모든 면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우수한 젊은이들(현역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급 2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함)이다.

둘째, 기능적인 면: 군대는 순환조직 사회이다. 매년 35만 명씩 입대하고 전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이 복음 전파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한다.

셋째, 동원적인 면: 군대는 명령 계통이 철저한 곳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이 명령하면 일시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곳이다. 지휘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지휘관 1명만 전도가 된다면 그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군선교의 특징이다.

넷째, 심리적인 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 그리고 애인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 위축, 긴장된 상태이므로 선교학적으로도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심리적 상태가 되어 있다.

다섯째, 안보적인 면: 장병들이 무엇보다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중동의 6일 전쟁 당시 소국 이스라엘이 대국 아랍 연맹을 대항하여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남과 북이 대치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군(軍)선교야말로 필승의 군대로 양병하여 민족과 조국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교회 선교 역사적인 면: 연간 22만 명의 젊은 군인에게 세례를 주는 나라, 1회에 5,6천 명의 젊은이에게 세례를 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야말로 세계선교의 마지막 교두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입증하는 증거이다.

일곱째, 파급적인 면: 우리는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로마 군대로, 세계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파급 효과가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하겠다는 청사진을 한국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군(軍)선교 현장뿐이다.

여덟째, 경제적인 면: 작은 투자로 결실을 크게 맺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점점 더 증대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일반 교회에서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이겠는가? 연간 약 9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3,000명 세례신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군(軍)선교야말로 작은 투자로 확실한 결실을 맺는 경제성이 있는 선교 영역이다.

의의가 크다. 이종윤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은 20세기의 괄목할 만한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군선교운동이다. 주지의 사실인 바, 6·25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군목제도가 창설된 이래 1960년대 한신 장군에 의해 전군신자화운동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신앙전력화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에는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으면서 군복음화운동을 위해 종단별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2차 진중세레운동이 일어나고 3군 본부교회당을 건축하는 등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었다. 2000년대에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020년 3,700만의 성도, 전 국민의 75% 성도화를 목표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이 비전2020실천운동은 북한의 100만 장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자 전술이다.<sup>30</sup> 이런 점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군장병에 대한 복음화와 민족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하나님의 구원역사라는 지평에서 함께 아우르는 고백적 성사(聖事)이자 거대한 선교적 비전이라는 차원에서 큰 방점이 찍힌다.

다음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 실행 방법인 진중세례는 한 자연인

이홉째, 시간적인 면: 군(軍)선교는 일반적 시제로는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어도 군은 존재한다. 또한 신앙적인 시제로 볼 때에도 군(軍)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째, 연합적인 면: 군인교회는 교파가 없다. 또한 교단을 초월하여 군(軍)선교에 협력하고 있으며, 군선교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연합 사업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실무담당자 교육 자료집(2000)」, 23.

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고백으로서의 의미<sup>31</sup>와 함께 군이라는 ‘동질집단’ (homogeneous unit)에서 진중세례를 통해 먼저 회심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s of God)가 되어 동료 전우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신학적 의의가 강하다.

전호진에 따르면, 진중세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서는 ‘개종’이나 ‘회심’의 의미가 강한데,<sup>32</sup> 진중세례가 군대의 진영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종족운동’ (people movement)<sup>33</sup>의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

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가입함을 공적으로 선서하는 세례가 병영 안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지는 진중세례는 한 자연인으로서의 신앙적 고백을 기초로 하여 옆 전우에게도 세례를 받도록 권장하고 인도하는 성격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의 다리가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실질적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민상기의 분석에 따르면, 군선교는 장차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신앙 인구가 불교 신앙 인구를 앞질러서 한국 최대의 종교로 성장할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sup>34</sup> 실제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된 1996년 이래 2012년까

<sup>30</sup> 이종윤, *op. cit.*, 43-44.

<sup>31</sup>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의견은 다양하다. ‘루터’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그의 칭의 교리와 연결된다. 곧 우리는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성례전적으로’ 혹은 ‘성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온전히 깨끗하고 순전하게 된다. Paul Althaus,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388; ‘칼빈’에게 있어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 경험되고, 믿는 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을 확증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John T. McNeill 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303-1304; ‘폴 틸리히’ (Paul Tillich)에게 있어 세례는 ‘영적인 공동체 (spiritual community)에 참여하여 새로운 존재 (new being)가 되는 한 인간의 결단’이다.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3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217; ‘정장복’에 따르면, 세례는 세 가지 근원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사건이다. 둘째,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전이다. 셋째,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넷째, 세례는 그리스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이다.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277-280.

<sup>32</sup> 전호진,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군선교신학』5(2007), 315. 전호진에 따르면, ‘회심은 신앙의 대상인 주인을 바꾸는 것’ (change of lords)으로 보는 짐 월리스 (Jim Wallis)의 입장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개종이 될 수 있기에 군대에서 청년들이 합동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개종의 범주에 속한다.

<sup>33</sup> 선교학적 견지에서 ‘종족운동’ 이론을 체계화한 이는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이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종족운동은 동일한 집단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이 없이 집단적인 결정을 통해 다원적-개인 (multi-individual), 상호의존적 회심 (mutually interdependent)을 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결심하는 과정이다. 곧 동질집단의 원리의 결과로 연쇄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개종운동이 종족운동이다. 맥가브란에 따르면, 동일한 종족 그룹 출신의 상당수 개개인들의 집단적 결정인 종족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인 배타성이나 고립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만 비(非)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완전히 접촉하며 생존할 수 있다. 그 종족 그룹의 다른 부류들은 이 운동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주로 그 종족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교회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 집단 개종 운동은 동질성을 띤 전체 집단에 대한 유기적 접근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교회와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접근 방식이다. 맥가브란의 관점에서 볼 때, 군이라는 동일 집단을 집단 개종하기 위해 개종의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선교 전략 개발은 군선교 참여자들에게 필수적 과제로 주어진다.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2), 433.

<sup>34</sup> 민상기의 예측 전망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 17일 문화관광부가 만든 ‘도표로 본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그중 기독교 인구는 18.6%로서 인구 100명 중 11명꼴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2003년 6월 5일).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가장 많은 23.6%의 신자율을 나타내나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사뭇 다른 결과가 예측된다. 곧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불교에 비하여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불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에 비하여 많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 3,025,132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물론 여기에 통계적 오류나 다수의 허수가 상존하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세기의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열매이자 선교사적 쾌거이다. 그리고 향후 계속되는 진중세례의 결과가 누적될수록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그만큼 당겨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희망의 산실임에 틀림없다.

더불어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라는 공통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연합의 성경적 당위성<sup>35</sup>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희범의 지적에 의하면, 기독교는 단일체제의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와는 달리 개교회를 중심으로

---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앞질러서 한국 최대의 종교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거쳐 가야 하는 군은 참으로 중요한 전도 전략 요충지이다. 현재 군(軍)의 통계에 따르면 '12년을 기준으로 군(軍)의 기독교 분포는 병력 대비 73%가 종교인구이고 그중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 25만여 명이 이르고 있다 <육군본부, 「군종업무시행지침/운영계획」(2003), 59>. 결국 민족복음화회의 중추적 뿌리와 기반은 오늘의 군복음화를 통해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 민상기, op. cit., 373-374.

<sup>35</sup> '최희범'에 따르면, 교회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23),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라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그(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체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몸이며, 그 몸 안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세계의 회복을 통한 재창조의 선취 모델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교회를 통해 온 우주의 회복을 주도하신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속사적 사역의 수종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연합의 당위를 촉구하고 있다. 최희범, op. cit., 56.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생력이 강하다. 기독교의 이 같은 특성은 한국교회 부흥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도 있으나 도리어 개교회 중심주의나 무분별한 팽창주의로 변질되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질서와 통제를 넘어서는 역효과를 창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비판세력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sup>36</sup>

그런데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군장병에 대한 선교의 차원을 넘어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총력적 선교 역량의 결집 결의와 비전 공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군선교로 인해 구현되고 있는 연합은 민군연합이고 일반교회와 군인교회의 교회연합이며, 제 교단 간의 연합이고 지역주의를 넘어선 연합이며, 군선교 유관 기관의 연합이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 이만큼 한국의 제 기독교 교단들이 더불어 연합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드물 것이라 사료된다. 그만큼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종목사를 파송한 한국교회연합운동의 모범적 사례로서 분열과 개교회주의를 지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 됨을 자각하게 하며, 기독교에 대한 모든 비판세력의 공격에 대하여 공동대처는 물론 교회다움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쇠가 된다고 사료한다.

## 2) 세례 사역 평가

다음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동력인 진중세례사역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먼저 다음의 연도별 수세 장병과 일반교회와의 연결 사업 면모에 대한 통계상에 있어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sup>36</sup> Ibid., 57.

〈표9〉 연도별 주요 결실 현황(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연도 기준)<sup>37</sup>

구분	세례	명단수집	연결인원	회원교회등록	종보기도서명인원	양육무교육 교회
'98	207,951	11,077	8,052	734	-	-
'99	216,080	37,129	30,430	153	2,070	630
'00	187,156	128,535	96,393	564	19,539	831
'01	186,959	143,996	102,881	210	28,990	516
'02	182,230	111,798	110,248	82	12,050	336
'03	155,767	92,810	68,965	130	16,080	295
'04	161,825	114,434	100,815	108	8,783	682
'05	162,260	107,928	93,212	75	1,618	465
'06	154,808	146,955	89,135	244	-	437
'07	153,225	122,637	105,160	128	-	196
'08	174,550	163,733	104,234	73	-	238
'09	171,435	122,781	104,393	65	-	186
'10	182,614	132,744	108,035	42	-	146
'11	184,320	147,178	127,285	38	-	176
'12	177,110	131,438	108,526	30	-	31
총계	2,658,650	1,715,173	1,357,800	2,676	89,130	5,165

위의 통계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개설된 1998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15년간 총 2,658,650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177,219.33명이 세례를 받은 격이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수립할 당시 매해 20만 명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최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다소 희망적이다.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을 개진할 무렵 연간 37만 명의 장정이 입대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간 약 28만 명 정도의 장정이 입대를 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입대 자원이 근본적으로 감소한 국가 사회적 상황과 타 종교의 거센 포교 전략

의 강화 속에서도 매년 입대 병력 중 50% 이상의 세례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열매이다. 아마도 현 상태 수준의 세례 결과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75%가 기독교인이 되는 날이 2020년보다는 지체되더라도 언젠가는 도달하게 된다는 비전의 확실성이 더욱 살갑게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종료 시한은 2020년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온 성도가 함께 진력해야 하는 복음 사역이라는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의 민간교회와의 연결 작업에 있어 명단 수집 현황이나 연결 인원 현황을 놓고 볼 때, 1998년보다는 무려 10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또한 꽤거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민간교회 입장에서 볼 때, 세례장병의 자대 배치 받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군종목사들과 군종요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민간교회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세례장병을 잘 양육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군종목사와 군종요원에 대해서 군선교연합회 차원에서 크게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종요원들은 여타 부과된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복음화리는 거시적 사명과 목적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여 충성하는 마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례장병 파악과 양육 사역에 평신도 복음의 동역자인 기독교전우회(MCF)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현역 기독교전우회 회원들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발화 시 모범적 헌신을 다한 김진영 장군과 이 필섭 장군을 모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숭선하여 섬기는 믿음의 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종요원들 그리고 기독교전우회가 각 훈련소

<sup>3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68.

에서 진중세례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장병에 대한 명단 확보와 일반교회와의 연결 사역을 위해 다양한 방법(전입 장병 면담 시간 활용, 인사과와 부관부 협조 체제 가동, 기독 간부와 협력, 기도 어머니로서의 기독군인가족 활용, 비전 캠프 입소자에 대한 적극적 선도 등)을 총동원하여 협력하고 전개하여 준다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희망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앞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교회가 군선교연합회 회원교회로 등록하는 실적이 1998년에 비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한국교회의 외연을 넓히는 사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특히 2006년부터는 중보기도 서명인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종윤에 따르면, 기도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자 신앙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위기 중에 부르짖은 것처럼 군부대 안의 기독신자들, 군인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및 후원교회가 모두 합심 전력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일으킬 작전 중에 기도작전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작전은 없다.<sup>38</sup>

다음으로 최근 2년간 군별 세례 현황<sup>39</sup>에 있어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

<sup>38</sup>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48-49. 이종윤에 의하면, 부흥운동에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일어난 예는 한 번도 없다. 1906년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부흥운동도, 영국 웨일스 부흥운동도, 18세기와 19세기의 미국의 1, 2차 영적 대각성운동도 모두 기도운동이 그 동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매년 사순절이나 현충일(6월 6일)을 시작으로 6·25전쟁기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1004군인교회와 후원교회 그리고 기독신자들이 흥해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거나 특별히 하루를 군선교의 날로 정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안과 전국 교회가 함께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종윤은 전국적으로 비전 전파에 힘써서 22만 명의 중보기도 회원을 확보하고 비전2020실천운동 모임에서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

〈표10〉 군별 세례 인원 종합 현황

구분 / 세례 인원	'11			'12			전년 대비	
	신교대	일반부대	계	신교대	일반부대	계		
육군	1군사	26,426	2,447	28,873	23,707	2,631	26,339	-2,534
	2작사	17,952	937	18,889	13,942	1,462	15,404	-3,485
	3군사	38,025	3,536	41,561	34,851	2,825	38,676	-2,885
	국직	-	1,558	1,558	-	433	433	-1,125
	육직	79,432	476	79,908	81,757	1,432	83,189	3,281
해군	해병대	5,193	72	5,265	4,458	407	4,865	-400
	해군	3,114	315	3,429	2,674	226	2,900	-529
공군	신교대	4,398	-	4,837	4,939	365	5,304	541
	일반부대	439	-	4,837	-	-	-	-74
총계	174,979	9,341	184,320	166,328	9,781	177,110	-7,210	

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역설한다.

참고로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10대 중보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이 되기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프로그램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교역자,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량한 생활로 기독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하시며,
10. 기독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근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10〉의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되, 육직 부대의 경우는 증가했다. 이는 군차원의 부대 조정으로 인해 육군훈련소에의 입소 인원 증가와 그에 따른 세례인원 증가의 여파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열심 있는 포교 사역이 강화된 면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야전 부대에서 종교적 내지 신앙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런 점에서 야전의 진중교회에서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들의 협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서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주고자 하는 사명 의식과 분투노력하는 헌신을 정중히 요청하는 한국교회의 당부가 있음을 인지하고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각 지회를 독려하여 전후방 진중교회에서의 이삭줍기 세례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 제언

복음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복음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임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 귀하고 거룩한 사명 완수를 위해 비전 2020실천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선교운동이자 선교전략이다.

이중윤에 따르면, 이 사역의 성공적인 진척을 위해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섯 가지 과제를 인식하고 함께 마음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한다. 첫째, 우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연합을 해야 한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참회하고 불

필요한 중복은 피하며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음의 가견성(可見性)을 드러내야 한다.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지역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셋째, 복음의 절대적 명료성을 증거함으로써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복음 사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음증거자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서야 한다.<sup>40</sup>

특히 공교육이 교육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가정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며 음주 사고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의 가속화와 함께 한국교회 지도층의 교권 다툼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처량한 현실은 복음 전도의 현장을 점점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차세대 역군인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은 현 군인교회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거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감안할 때, 일선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들,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군과 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비전이자 소명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사명을 받드는 청지기로서의 사역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잘되는 부분은 지속하되 미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충하고 잘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대급 교회를 활성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아주 특별한 선교(앰플릿)」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0), 11.

<sup>39</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69.

<sup>40</sup> 이중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44.

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진중(대대) 교회별로 순회 부흥사를 파견하여 일일 부흥회를 개최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방법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 대대 교회별 집회를 통해 장병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결심한 이들에게 세례를 주며 영적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장병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예견되기에,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군선교사 사명의식 고취와 영적 자질 강화를 위한 특별 영성훈련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넉넉한 후원 채널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전군신자화로 대변되는 진중세례운동이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되어 민족복음화라는 대사명을 이룸에 있어 디딤돌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비전2020실천운동을 선포할 즈음의 기대만큼 세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한국군 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여기에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에너지와 이를 군선교 현장으로 잘 소개하고 인도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모두의 지혜와 뜨거운 헌신과 충성된 열정이 어우러져 있다. 이런 점에서 1996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빛이 강하면 어두운 그림자도 강하게 드리우는 법이기에 약간의 미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사회의 병리적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작금의 시점은 매우 안

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교회에서 매년 17만 명이상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한국교회의 각 지교회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적·정신적·도덕적 가치관을 재무장시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첩경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역자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인내와 순종으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족복음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기도한다면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한국군선교는 전군신자화운동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비전2020운동을 통해 부흥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 • 도표 목록

- 〈표 1〉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장병 세례 변화
- 〈표 2〉 연도별 진중세례 통계
- 〈표 3〉 연도별 신자 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 현황(육군)
- 〈표 4〉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 〈표 5〉 군인교회 건축 현황
- 〈표 6〉 제2차 진중세례운동 시 세례인원 통계
- 〈표 7〉 군선교 교역자 현황(2012. 12. 31 기준 / ( )는 교육원 수료자)
- 〈표 8〉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 시작 이래 전군 세례 통계
- 〈표 9〉 연도별 주요 결실 현황(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연도 기준)
- 〈표 10〉 군별 세례인원 종합 현황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ptismal Procedure: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Hon Sang Ye Sik Seo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1924)

■ 최석환 Choi, Suk Hwan

- 총신대 신학과 · 한국의국어대 영어과 졸업, 총신대 철학박사(Ph.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육군리더십센터 상담교관
  - VISION2020선교단 지도목사, 현 육군 제6군단 군종참모
- 진군교회 담임목사, 한국군종목사단 총무,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한국군상담심리교칭학회 연구위원,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장
  - 한국군선교연구소 연구위원



### 들어가는 말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는 어떠했을까?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이다. 본 소논문에서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를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

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34), 영어로 기록된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목수지법』(1919)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의 ‘예배모범’ 과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를 문헌비교분석에 의해 연구한 것을 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의의와 내용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1924)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로서,<sup>1</sup> 『목수지법』(1919),<sup>2</sup>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을<sup>3</sup> 참고하였으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였다.<sup>4</sup> 물론 주일예배 순서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례와 성찬예식이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특별하며, 임시적인 예식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sup>5</sup>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목차는 다

<sup>1</sup> 『혼상예식서』(1924)는 감리교 최초의 예식서 『미미교회강례』(1890)를 포함하여, 『예수교감리회강례』(1899), 『대강령과 규측』(1910), 『남감리회도리와 장정』(1919)보다 늦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감리교 문헌들은 거의 미국 예전서를 번역한 것이지만, 장로교 『혼상예식서』는 한국인에 의해서 집필된 한국교회 최초의 예식서이다. 한국 장로교 분열(1959) 이후 나온 최초의 장로교 예식서는 통합 교단의 『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61)이며, 그 뒤를 이어 가장 교단의 『예식서』(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1964), 합동 교단의 최초의 예식서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78)가 발행되었다.

<sup>2</sup>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穌教書會, 1919).

음과 같으며, 연구할 분야는 부록 ‘성례와 장립식’ 제1절 세례의 조례와 식이다.

- 第一章 婚禮式書
  - 一. 婚禮의條例
  - 二. 婚禮의節次
  - 三. 婚禮의服裝
- 第二章 喪禮式書
  - 一. 喪禮의條例
  - 二. 喪禮의節次
  - 三. 喪禮의服裝
- 附錄 聖禮와將立式
  - 一. 洗禮의條例와式
  - 二. 聖餐의條例와式
  - 三. 將立의條例와式<sup>6</sup>

<sup>3</sup> 『朝鮮 예수教 長老會 憲法』(京城:朝鮮耶穌教書會, 1922);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한국 장로교 최초의 독노회(1907)에서 ‘소요리문답’, ‘신조’, ‘규칙’ (1907)을 채택하였으며, 총회 조직(1912) 후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1919)을 채택하였다. 그 후 간단한 정치조례인 ‘규칙’을 폐지하고 완성된 ‘정치조례’ (1922)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信經, 小要理問答, 政治, 禮拜模範, 勸懲條例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朝鮮 예수教 長老會 憲法』(1922)이 출판되었다.

<sup>4</sup>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125. 예를 들면 상례식(喪禮式)에서 ‘하관식’은 미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의식을 보여 준다.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례” (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108-109, 374.

<sup>5</sup> Ibid.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김선두, 박문찬, 김필수, 박승봉 등 한국인 목사들로 구성된 예식위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sup>7</sup> 이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를 제12차 총회(1923)에 제출하였으며, 제13차 총회(1924)에서 통과되어 출판하게 되었다. 특히 예식위원 대표로 박승봉(朴勝鳳) 목사는 서문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예식위원으로서 혼상례식의 통례를 만들었음을 언급하였다.

“우리總會에서禮式委員을選舉하야婚喪禮式의通례를如左히調製하야通過하고이에刊行하노니惟컨디從此로一遵할通例가有하야主禮者와行禮者의間에거의서로齟齬함이無할가하노라.”<sup>8</sup>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열위원(校閱委員)들이 기록되어 있다.

“紀元後一九二四年 甲子冬에 婚喪禮式書校閱委員 梁旬伯 車相晉 等謹跋.”<sup>9</sup>

위의 글을 보면 1924년 양전백, 차상진 목사가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의 교열위원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sup>6</sup>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發行所 未詳, 1924), 1-2.

<sup>7</sup>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경성:조선예수교장로회, 1921), 128.

<sup>8</sup>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發行所 未詳, 1924), 2.

<sup>9</sup> Ibid., 76. 1925년 재판은 창문사(彰文社)에서 발행되었다.

## 2.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의 이해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성례와 장립식’ 제1절 세례의 조례와 식 제9항에는 세례에 대한 성경요절이 나와 있다. 이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9장과 제10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만의 아주 독특한 부분으로서 세례의 이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九. 洗禮에對한聖經要節

(1) 洗禮는聖經의命令이오

(마 二十八〇十八-二十) (막 十六〇十五-十六) (요 三〇二十二)

(요 四〇一-二)

(2) 洗禮는三位一體일함으로

(마 二十八〇十九) (고전 一〇十三)

(3) 洗禮는罪洗는票라

(시 五十一〇二,七) (시 一〇十六-十八) (렘 四〇十四) (겔 十六〇

九) (엡 五〇二十六) (딤후 三〇五) (벧전 三〇二十一) (고전 六〇十一)

(히 二十二 〇十六) (겔 三十六〇二十五)

(4) 洗禮는예수의死活을 습해야맞는것이라

(롬 六〇三,四) (골 二〇十二) (막 十〇三十八,九) (눅 十二〇五十)

(5) 洗禮는주의聯合爲一하는票라

(갈 三〇二十七) (고전 十二〇十三)

(6) 乳兒洗禮

(히 十六〇三十三) (二〇三十八,九) (눅 十八〇十六) (고전 七〇

十四)

(7) 불과聖神의洗禮

(마 三〇十一) (요 三〇五) (히 十九〇五,六) (고전 十二〇十三)”<sup>10</sup>

상기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에 대한 성경요절은 아래의 『위원입교인규도』(1895)<sup>11</sup>에서 제시한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생각나게 한다.

“성서에이뜻을가르친말씀이잇스니주세히보기를볼라노라

마태이십팔장십구절

마가십륙장십오절십륙절

마태삼장십일절

요한일장삼십삼절

삼장오절

스도히전팔장십이절과삼십륙절부터삼십팔절까지

구장십칠절십팔절

십장스십칠절

십륙장십스절십오절과삼십일절부터삼십삼절까지

라마륙장삼절부터오절까지

<sup>10</sup> Ibid., 17-19.

<sup>11</sup>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敎人規條)』(1895)는 평양신학교 설립자이자 한국 장로교회 창건자 중 한 사람인 마펫 선교사(Samuel Austin Moffet, 馬布三悅, 1864-1939)에 의해, 중국 산둥 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네비우스(John Livingstone Nevius, 1829-1893)의 책 Manual for Enquirer를 주로 참고하고 한국인 교사의 도움을 받아 편저한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제”(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228-230.

가라테삼장이십칠절

데다삼장오절

스도헝전이장삼십팔절브터스십일절씩지

구약창세기십칠장십칠절.”<sup>12</sup>

비교하면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세례에 대한 성경요절은 총 30개로서 구약 5개, 신약 25개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의 성경적 근거 구절은 총 16개로서 구약 1개와 신약 15개이다.<sup>13</sup>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는 『위원입교인규도』(1895)보다 약 2배 증가된 세례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약은 5배 증가하였다.<sup>14</sup> 이제 언급된 성경요절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으로서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다.

<sup>12</sup>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教書會, 1895), 18.

<sup>13</sup> 마 28:19; 막 16:15-16; 마 3:11; 요 1:33, 3:5;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1-33; 롬 6:3-5; 갈 3:27; 딤후 3:5; 행 2:38-41; 창 17:17.

<sup>14</sup> 시 51:2, 7; 사 1:16-18; 렘 4:14; 겔 16:9, 36:25.

마가복음 16장 15-16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사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믿지 못함을 꾸짖으며 하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집례를 상상케 하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 1-2절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말을 언급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는 말씀이다.

이 모든 구절을 통해 세례가 성경의 명령임을 역설한 것이다.

### 2) 삼위일체 이름의 세례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언급한 내용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비교 논리에서 제시된 구절로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씀이다.

### 3) 죄 씻는 표로서의 세례

시편 51편 2, 7절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직언한 말씀으로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

하소서……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는 말씀이다.

이사야 1장 16-18절은 죄로 가득 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권면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말씀이다.

예레미야 4장 14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예루살렘 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라는 말씀이다.

에스겔 16장 9절은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언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모습을 그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거듭남의 씻음을 강조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여덟 명을 언급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을 언급하며 주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은 바울의 회심을 전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라는 말씀이다.

에스겔 36장 25절은 이스라엘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라는 말씀이다.

#### 4) 예수의 사활(死活)을 합하여 받는 세례

로마서 6장 3-4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다.

마가복음 10장 38-39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원을 언급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다.

### 5) 주와 연합위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다.

### 6) 유아세례

사도행전 16장 33절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상황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38-39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은 어린아이를 꾸짖은 제자들을 향해 각성하도록 하신 것으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는 말씀이다.

### 7) 불과 성령의 세례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과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19장 5-6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주와 연합위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에서도 언급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례식서』(1924)에서는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매우 강조된 ‘전도와 입교로서의 세례’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3)가 매우 약하게 언급되었다. 그것도 전도나 입교 측면이 아닌 유아세례 측면에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이 한 번 언급된 것이다.

## 3.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

### 1) 유아세례 순서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 (유

아세례, 입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 모범 제9장과 제10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세례는공언히지테해야줄것도아니오하여한형편을물론하고스인이출수가업고반드시하느님의스역자로부터심을맞은그리스도교의목사라야줄지니라.이세례는혼히교회내모든회중앞해서베풀지니라.”<sup>15</sup>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목사의 세례 집례를 재천명한 이후 유아세례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유아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부모님 일인이나 양인이 다 세례를 받을 유아를 데리고 온다.

② 세례 주기 전에 목사는 아래와 같이 성례에 관한 성질과 세례식의 목적을 설명하여 훈계한다.

“이 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표이라 구약서에 아브라함의 증손이 할례를 받는 권이 있던 것과 갓치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증손의게 이 레식을 행할 권이 있느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의게 명하사 세례를 맞으라 하셨고 유아들의게 축복하사 텃국의 백성은 이와 갓다 하섯으며 복음에 허락하신 것은 성도와 밋 그 집안 에스지 밋친다 하섯고 스도들도 이와 갓치 온 집안 세례를 베푸지라 우리의 성품은 죄와 건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신의 권능으로 성결케 함을 밋아야 할지니라.”<sup>16</sup>

<sup>15</sup> 『朝鮮예수교장로會婚喪禮式書』(京城:發行所 未詳, 1924), 5-6.

<sup>16</sup> Ibid., 6-7.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조선야소교서회, 1922), 206.

③ 목사는 아래와 같이 부모를 권면하여 조심하여 부모의 직을 다하라 한다.

“부모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라칠지니 신구약성경에 가라친 우리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라칠 것이니라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가라쳐스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 주는 것이니라 그 아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이 그 아회 얹헤 충성함과 경건함의 분을 보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장성케 할지니라.”<sup>17</sup>

④ 목사가 유아의 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묻는 서약을 한다.

“①그대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맞고 성신의 은혜로 식롭게 되어야 할 줄 아나뇨 ②그대는 이 은혜를 위하여 하느님의 언약에 허락하신 것을 바라며 자기구원 얻기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갓치 이 아회 구원 얻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밋는 중에서 바라나뇨 ③그대가 지금 완전히 이아회를 하느님의 밋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근한 분을 이 아회 얹헤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회와 갓치 기도하며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라치며 하느님의 주시는 힘으로 진력하여 이 은혜를 주의 권고와 교훈에서 장성케 하기를 허락하나뇨.”<sup>18</sup>

<sup>17</sup> Ibid., 8.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1922), 207.

<sup>18</sup> Ibid., 9-10.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5;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07-208.

⑤ 목사가 세례식을 행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 다음과 같은 문구로 세례를 준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심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불노그  
 9히 머리에도말(塗抹)할지니라.”<sup>19</sup>

## 2)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후 입교 시스템 구축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 (유아세례, 입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10장을 참조하여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우의 자녀로 유세(乳洗)를 받은 아히는 교회권고와 치리하에 있고 요리문답과 스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송케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뉘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오 성년이 된 후에는 나면서 얻은 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교우되는 것을 기억케 하고 반드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 하며 증거하고 성찬 참여할 원하는 마음이 나게 할지니라.”<sup>20</sup>

한국초기 장로교의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을 정리하자면 첫째,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이다. 상기한 세 가지를 모두 읽고 암송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도방법(祈禱方法)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삶 속에

기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이다.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신에 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론(教會論)이다. 성년이 된 후에 출생하면서 얻은 특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우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이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증거하고, 성찬 참여의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세자(乳洗兒)는 성장하여 당회 허락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때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공식선언한 후에 입교하게 하고, 출생 시부터 교회에 특수한 관계가 있던 것을 표하여 깨닫도록 설명한다.

이러한 유세자교육 후 유세자는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후 입교를 한다. 즉 유세자교육 후 입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세자의 입교 시 목사의 설명과 선언문구는 다음과 같다.

“유세를 받음으로 출생시부터 교인이 되고 약도의 허락으로 후사가 되며 아시에 그 부모의 엄중한 빚서로 하나님의 바른자들은 당회가 그의 신앙과 주의 몸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하여야 함한 줄노 인정하여 쓴즉 모모(호명)는 지금부터 믿음의 권속 중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책임의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할지니라.”<sup>21</sup>

## 3) 어린 입교 순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 (유

<sup>19</sup> Ibid., 10.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5;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08.

<sup>20</sup> Ibid., 11-12. 다음을 참조하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09-210.

<sup>21</sup> Ibid., 12-13. 다음을 참조하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11.

아세례, 입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10장을 참조하여 입교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가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제10장과 달리 유세자 입교식과 어른 입교식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는 유세자 입교 순서를 부록 1절 7항에서 언급하지만, 어른 입교 순서는 8항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은 제10장 1조부터 5조까지 유세자 입교와 어른 입교를 혼합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1922) 예배모범 ‘제10장 입교예식’에 의하면 혼합된 순서는 회중 앞에 기립,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어른 세례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유아세례, 입교)는 유세자 입교를 별도로 설명한 후, 어른 입교 순서를 회중 앞에 기립,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어른 세례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른 입교대상자는 학습인(學習人)이나 교우 중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지원한 자이다. 이때 당회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께 순종하며 충성된 신앙의 형편의 유무를 문답하여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목사가 교회 앞에 공식으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세례를 준다. 어른 입교 순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 받을 자가 회중에 기립한 후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오기를 원하는 자는 당회가 공식으로 그의 밝은 은혜와 믿은 증거를 인정한 후에 입교케 하는 고로 지금 모스시(호명)에게 덕하여 몇 가지 서약도례를 무른 후에 주님의 세우신 레법도로 세례를 주어 갓치 성도된 것을 환영하며 감스히 녀이노라 이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침과 주와 연합하는 표요 인쳐 증거하는 것이라 이후로는 그덕들이 더욱 신중히 하여 하나님과 교회로 더부러 체결한 언약을 준수할 줄노 아노라.”<sup>23</sup>

② 어른 세례대상자에게 목사가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①그덕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로를 밋을 만한 자 인디 그의 크신 준비하심에서 구원 엿을 것 외에 소망이 업는 자인 줄 아노노 ②그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으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밋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갓치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뿐이신 줄노 알고 그를 밋으며 그의게만 의지하노노 ③그덕들이 지금 성신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여 그 교훈도로 힘써 힘하며 모든 죄길을 바리고 보이신 분도로 경건한 심활을 하기로 작명하노노 ④그덕들이 이 교회의 헌법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비호하며 의무와 책임을 담당하기로 허락 하나노.”<sup>24</sup>

<sup>22</sup>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5-77.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의 예배모범 제10장 5조 1항은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2항은 어른 세례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3항은 양군(兩群) 대상자들에게 동일(同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sup>23</sup>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 14.

③ 문답을 통해 어른 세례대상자가 다 승낙한 후에 목사가 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목사가 기도하고 마친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시(성명)여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심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sup>25</sup>

#### 4.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들의 세례식 순서 비교분석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들인 광안련의 『목수지법』(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9장,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를 비교해 볼 때 목사의 기도의 횟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수지법』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이지만,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문답(서약), 기도, 세례, 기도의 순이다. 즉 예배모범 제9장 5조 4항에는 문답(서약) 후 ‘기도’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는 예고, 세례식의 목적 설명과 권면, 문답(서약), 기도, 세례의 순서로서, 서약 전 기도와 세례 후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 『목회학』(1936)에 의하면 서약 전 기도는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Coram Deo) 기립하여 있음을 각오하게 하는 것이며, 세례 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있던 그들을 하

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인 것이다.<sup>26</sup>

결론적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는 『목수지법』보다 1회,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보다 2회 기도의 순서가 감소되었다.

이미 언급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가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제10장과 달리 유세자 입교식과 어른 입교식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본 연구자가 『목수지법』(1919)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의 ‘예배모범’과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를 문헌비교분석법에 의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sup>24</sup> Ibid., 15-16.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6-77;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12-213.

<sup>25</sup> Ibid., 16.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7;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14.

<sup>26</sup> 광안련의 『목회학』(1936)에서는 서약 전 기도와 세례 후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誓約의 뜻을 解釋한 後에 牧師前뿐 아니라 하나님의 眼前임을 覺悟케 하는 祈禱가 있고 施洗하고 다시 하나님께 付託하는 祈禱가 있을 것이다.” 광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사회, 1936), 138.

〈표1〉 3대 초기 문헌 비교분석에 따른 세례식 순서

문헌명	『목사 지법(牧師之法)』 (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1919)(1922) 예배모범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 (1924)
유아 세례 순서	1. 당회의 세례 전 부모문답 2. 착석 3. 목사의 설명 (세례식 의의, 부모의 직임과 본분 맹세의 뜻) 4. 기도 5. 기립 후 문답(서약) 6. 세례 7. 기도	1. 착석 2. 목사의 설명 (세례식 의의) 3. 기도 4. 기립 후 문답(서약) 5. 기도 6. 세례 7. 기도	1. 부모의 예고(豫告) 2. 목사의 설명(說明) 3. 목사의 권면(勸勉) 4. 세례 서약(誓約) 5. 축복하는 기도(祈禱) 6. 세례(洗禮)
어른 세례 순서		1.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 이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1924)와 동일함. 2. 기립 3.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4.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5. 문답 6.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7.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세례집례 8. 기도	1. 기립(起立) 2. 목사의 설명(說明) 3. 문답(問答) 4. 세례(洗禮) 5. 기도(祈禱)
유세자 입교식 순서	1. 예배모범 규측대로 어른 세례와 입교 예식을 시행함.		1.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 이수 1)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 2) 기도방법(祈禱方法) 3)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 4) 신애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 5) 교회론(教會論) 6)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 2. 당회의 문답 3. 자신의 신앙을 선언 4. 목사의 입교 설명 5. 목사의 입교 선언

### 나가는 말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 이기에 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는 『위원입교인규도』(1895)보다 약 2배 증가된 세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약은 다섯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서는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매우 강조된 ‘전도와 입교로서의 세례’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3)가 매우 약하게 언급되었으며, 전도나 입교 측면이 아닌 유아세례 측면에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이 한 번 언급된 것은 비전 2020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자로서는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에 있어서 『목사 지법』보다 1회,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보다 2회 기도의 순서가 감소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기도의 순서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가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삼위일체 이름의 세례, 죄 씻는 표로서의 세례, 예수의 사활(死活)을 합하여 받는 세례, 주와 연합일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 유아세례, 물과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1004동의 군인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인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독송(讀誦), 기도방법,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 신애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 교회론, 입교식과 성찬식은 유세자교육 후 입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서,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인 대한민국 1004동의 군인교회가, 세례대상자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to the Service for God and Neighbors

■ 강사문 Kang, Sa Moon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구약성경에서 섬기다는 뜻을 가진 ‘아바드’란 동사의 의미는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시중드는 것으로 신약의 ‘디아코니아’와 대응하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디아코니아란 용어가 구약 후기 생활권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개인적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남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수고하고 시중드는 일을 뜻하는 신약성경적 의미와 일치한다.<sup>1</sup> 구약성경에 아바드란 말은 동사로 289회 사용되었고, 명사로 799회 사용된다.<sup>2</sup> 구약성경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많은 빈도수는 시편과 예언서에 나타난다.<sup>3</sup> 아바드의 명사 형태인 ‘에베드’(섬기는 자)는 시편에 57회, 이사야에 40회, 예레미야에 32회 나타나고, 그리고 ‘아바

<sup>1</sup>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Diakonia)”, 『디아코니아 심포지엄 자료집』 (1995. 11. 2), 17.

드’(섬기다)가 동사로서 예레미야에 27회, 시편에 8회와 읍기와 전도서에 각각 3회씩 나타난다.

그런데 이 아바드란 동사가 구약성경의 헬라이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무려 21종류의 다양한 어휘로 번역되고 있다.<sup>4</sup> 신약의 디아코니아란 어휘도 23가지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sup>5</sup>

70인역에 나타난 빈도수에 따라 5종류의 동사를 보면 ① ‘아바드’란 동사는 ‘중으로 섬기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δωλειν*)라는 의미(114회)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다. ② ‘하나님께 예배드린다’(*λατρευειν*)는 뜻으로 75회 사용되고, ③ ‘실행하다’(*εργαζεσθαι*)라는 뜻으로 37회 번역되고, ④ ‘행한다’(*ποιειν*)라는 뜻으로 22회 번역되고 있다. ⑤ ‘신하가 왕을 공적으로 섬긴다’(*δεδιτομυρδευειν*)라는 뜻으로 13회 사용된다. 명사로는 ①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δουλος*)로 314회 번역되고, ② ‘짧은 종’을 의미하는 ‘파이스’(*παις*)로 336회 번역되고, ③ ‘종’(*servant*)을 의미하는 ‘제라폰’(*θεραπων*)으로 42회 번역되고 있다.<sup>6</sup>

우리말에서도 ‘섬기다’ 또는 ‘봉사한다’는 말은 ①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②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것, ③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up>7</sup> 따라서 위의 사

<sup>2</sup> Abraham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Bible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2nd Edition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LTD., 1993), 817-822.

<sup>3</sup> H. Ringgren, “רבב”,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86), hrsg. von G. J. Botterweck et al. Band. V, cols. 987-997. 이후부터는 TWAT로 약칭함.

<sup>4</sup> E. C. Dos Santos, An Expanded Hebrew Index for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Jerusalem: Baptist House, no date), 148.

<sup>5</sup>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13-14.

<sup>6</sup> Ringgren, “רבב”, TWAT, Bd. V, cols. 987-988.

전적 의미가 말하는 바 ‘섬기다, 봉사한다’는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섬김의 의미를 찾아보고 섬김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을 라르슈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알아본다.

### 1. 섬김—봉사(아바드)의 이론과 의미

구약에서 ‘섬기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란 말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섬김의 의미와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섬김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고, 섬김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까지 포함되고, 더욱이 땅도 아바드(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창 2:5, 3:23, 4:2, 12; 삼하 9:10; 잠 12:11, 28:19; 속 13:5 등). 따라서 섬김의 범주는 폭이 넓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과 자연까지가 섬김의 대상이다.

구약의 섬김의 의미인 ‘아바드’란 말은 구약에서 사용된 대로, 또 70 인역에서 번역된 대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 섬김이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일하는 것

섬김의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보수 또는 무보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은 처음에는 무보수로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라반을 섬겼고, 후에는 라헬과 보수를 위해서 7년간 또 그를 섬겼다(창 29-30 장).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이집트의 바로를 섬겼다(출 1:14). 성읍에 속한 땅을 기는 일(하아브두후)도 성읍을 섬기는 일(하오베

드 하이르)로 표현된다(겔 48:18-19).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일, 즉 성전봉사를 뜻하기도 한다(민 3:8, 4:23, 27, 7:5, 8:22).

#### 2) 섬김이란 사랑의 실천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신 4:37), 다윗을 사랑하시고(삼하 12:24), 의인을 사랑하신 것(시 146:8)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사랑의 실천행위를 섬김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한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신 4:37-4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써,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까지를 사랑하고 돌보게 된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신명기 6장 4-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 즉 한 분 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마 22:37-38; 막 12:29-30; 눅 10:27-28).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sup>7</sup> 이희승 편저, “봉사”,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1564.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웃과 자연 사랑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자연 사랑으로 구체화, 또는 현실화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요일 4:20).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도 둘째로 큰 계명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셨다. 그러므로 이웃·자연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는 말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시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외자의 공통된 명칭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떠돌이 객이다. 가난한 자는 향존하기 때문에(신 15:11; 요 12:8) 구약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빈자들을 직접 돌보시고 건져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 그래서 시편 10편 14절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오제르)”로,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 35:10)로 묘사되고 있다. 시편 40편 17절에서도 가난한 시인은 아뢰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도음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한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자(오제르)이다. 하나님이 오제르로서 시편에 4회, 율기와 역대상에 각각 한 번 나타난다.<sup>8</sup> 즉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것을 명령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15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고 명하신다. 시편 82편 3-4절에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변호해 주고 가련한 자와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고 분부하신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한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는 “제7년에 묵은 땅에서 걷은 곡식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한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가난한 자를 철저하게 돌보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돌보아 주는 봉사자가 될 것을 명하신다. 그의 백성은 계약에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했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마 26:11). 이 말씀과 같이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돌보아 주어도 가난은 끊이지 않고 항상 반복되고 있으니 가난의 숙명론에 빠질

<sup>8</sup> 시 10:14, 30:11, 118:7; 율 29:12; 대상 12:18.

우려가 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자연적인 가난보다는 억압이나 압제에 의한 인위적인 가난, 즉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오는 비극적 가난을 뜻한다. 이 비극적 가난을 극복하는 길은 비극적 가난을 초래한 요인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하여(to challenge the poor) 비극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을 숙명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가난을 영성화해야 한다. 가난을 영성화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난한 자(to be the poor)가 되는 일이다.<sup>9</sup> 예수님도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고후 8:9).

### 3) 섬김이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암 5:15). 온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왜냐하면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은 계약의 백성, 즉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함이 성경의 교훈이다.

피차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의무이다. 우선 소외된 이웃을 섬기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함을 뜻한다. 자기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는 섬기지 않

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이요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이다. 신약에서 디아코니아가 직분 또는 직책으로 번역되듯이 ‘아바드’란 뜻도 사도로서의 사도직, 교사로서의 교사직과 같은 말은 바 책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 셈이다. 그래서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령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 땅을 보수로 받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겔 29:19-20).

여기서 섬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된 일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과하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므로(아바드)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에게 이집트 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렘 25:9, 27:6). 이스라엘의 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작정된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 일이 신비스럽고 기이하다는 것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람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라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사 28:21).

<sup>9</sup> 레슬리 호프,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요섭 역 (나눔사, 1992), 213-215.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137.

섬김은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만일……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렘 38:17-18)고 하였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고 섬길 것을 권면한 것이다. 예레미야의 언급은 매국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방인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달리아도 같은 의도로 그의 부하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면했다(왕하 25:24). 당사자들에게 헤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일 때는 그것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사야 40-55장에는 익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해된다.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로 들려 쓰임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도구로서 사용됨을 의미한다(사 44:28). 흑자는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흑자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자로 소명을 받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사 42:6-7).

#### 4) 섬김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종하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종하는 행위는 주로 제의 본문 속에 나타난다. 출애굽을 하려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다(출 3:12, 4:23, 7:16).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신 28:47; 시 100:2). 또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섬김이란 말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같은 어원이다. 영어의 service란 말이 히브리어의 ‘아바드’, 즉 ‘예배드린다’는 말에서 유래되고 있다.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없는 자를 도울 때 보다

더 공손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롬 12:1)이 곧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말과 어휘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고 한다.<sup>10</sup> 왜냐하면 섬김은 하나님의 기본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지상과제이다.

한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고, 이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신 29:24-26). 하나님께 복종하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섬김이다(출 21:6).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며, 결국 이방족속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렘 5:19, 17:4). 왜냐하면 이런 이방 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이다(신 28:48).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삿 3:8)과 모압(삿 3:14)과 암몬(삿 9:28)의 지배를 받은 것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 5)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이다. 곧 복음 전파와 구원사역도 섬기는 일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

<sup>10</sup>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18.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는 자”로 묘사되며,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다시 예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 6) 섬김이란 인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피조물까지도 섬기는 일

섬김이란 인간관계에서 인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까지도 섬기는 폭넓은 행위를 말한다. 창세기 2장 5절에 의하면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땅을 갈고 섬길(아바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섬기는 자’로 명령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아담의 임무는 동산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기본 임무는 자연을 살피고 청지기과 같이 돌보는 것이라는 뜻이다. 아바드란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하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 정원사처럼 잘 가꾸고 관리하라는 말이다. 이런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생태계의 혼란과 자연질서 교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다.

## 2. 섬김의 현장

### 1) 라르슈 공동체의 섬김과 발 씻김

여기서는 섬김의 현장으로서 주어진 라르슈 공동체의 설립 목적과 섬김의 현장을 소개한 글 “봉사의 스캔들”을 간추려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라르슈 공동체는 1964년 프랑스 트로슬리에 장 바니에가 세운 섬김의

공동체이다. 상승욕구에 따라 성장하여 프랑스의 최고 지식인으로 정착한 저자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진리를 깨닫고 장애인, 노인, 실직자 등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을 나누기 위해 설립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두 사람의 장애인과 같이 출발한 이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발견한다. 저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소 험악한 요양원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두 장애인들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자 시작한 것이 라르슈 공동체이다.

라르슈 공동체에서는 봉사자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이 봉사자들은 함께 사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 삶을 나눈다.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한테는 분명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라르슈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와 상반되는 경우를 발견한다.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라르슈 공동체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다루며, 우리 안에 내재된 파괴력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 가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 우리 모두는 서로 더욱 깊이 연대하며 우정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우리 자신을 담아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힘과 마음도 달혀 버린다.

라르슈 공동체 생활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인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바탕으로 한다. 관계란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신뢰하는 데서 시작됨을 깨닫고 있다. 친교는 서로 신뢰하며 존경을 나누는 자리이고, 겸손·개방성·연약함·재능·재산은 물론 가난함과 한계까지도 서로 나누게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만의 아름다움, 고유함, 마음속에 숨어 있는 빛,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새 희망을 주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 거절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셨다(눅 14:12-14).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발을 씻어 주는 행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든 것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내적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는 라르슈 공동체에서 실제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트로슬리에서 발 씻김 예식을 행하는 성목요일에 우리는 온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음식을 나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저마다 자신의 과거, 특히 지난해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둥글게 앉아 침묵 가운데 기도한다. 찬송가를 부른 후, 공동체 지도자는 요한복음 13장 1-17절을 봉독한다. 그런 다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 준다.

먼저 발 씻김을 받은 사람, 곧 섬김을 받은 사람은 발을 씻어 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들은 침묵하며 기도한다. 이어서 공동체 지도자가 앉으면 방금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 준다. 이 행위는 둥그렇게 모여 앉은 모든 이가 서로의 발을 모두 씻어 줄 때까지 계속된다. 봉사자가 장애인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장애를 지닌 사람이 봉사자의 발을 씻

어 주는 데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예식은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몸짓으로 사람들 사이에 깊은 현존과 친교를 이룬다.

교파를 초월한 라르슈 공동체와 믿음과 친교에서 발을 씻어 주는 예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우리는 초교파적 종교 행위의 의미를 깨달아 살고 있음을 느낀다. 발 씻김 예식이 어떻게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비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다.

## 2)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씻김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해지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전까지는 매우 강한 사람처럼 보이신 예수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저주와 버림을 받은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위대한 메시아처럼 보였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유월절 축제가 다가왔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에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낮아지셔서 적대자들이 오히려 승리한 것만 같았다. 나약함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은 그의 성육신으로의 탄생부터 시작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예수님의 변민과 수난, 십자가형과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

요한복음 13장은 매우 엄숙하게 시작된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요 13:3-4).

이 말씀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나(막 1:7),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몸을 굽히셨다.

우리는 작고 가난해지신 예수님 앞에 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를 내려가 맨 끝자리, 곧 종이나 노예의 자리를 취하신다. 엄숙했던 유월절 식사 도중 예수님이 일어나 겹옷을 벗으셨을 때 놀라던 제자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았을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걸까?”

신약성경을 보면 겹옷과 속옷에 대한 말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집 안에 편안하게 있을 때 이 속옷을 입지만 외출할 때나 손님에 맞을 때는 겹옷을 입었다. 하지만 노예들은 겹옷을 입지 않고 속옷이나 작업복만 입었다. 옷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을 드러낸다. 옷은 정체성과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아무 위엄이나 권위가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겹옷을 벗으신 이 행위에는 깊은 내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겹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1, 15, 17, 18절에서 ‘내놓는다’와 ‘얻는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시 얻으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겹옷을 벗으신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을 뜻한다. 예수님은 겹옷을 벗으시듯이 자신의 존재는 물론 어떤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마저 훌가분하게 벗어 버리시고 친구로서 등장하신다.

삶을 끝마칠 무렵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옷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가면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의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모습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겹옷을 벗으시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신다. 그것은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내리막길을 취하여 자신의 영광을 숨기시는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삼위일체적 마음과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무한하고 초월적이며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유한한 운명과 한계를 지닌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은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을 친구, 즉 온 인류에게 사랑받는 분으로 알리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화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상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 자신의 겹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나누는 친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쪽으로 밀어내심을 의미한다(요 15:15).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요 13:4-5). 그러나 제자들은 거부한다. 어찌면 우리 역시 이처럼 거부할지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빨거나 집 안을 청소해 주신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입장을 취하시면서도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신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도록 내맡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친구가 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무언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래

서 출신 성분·자질·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 주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죄만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고통에 이르는 사랑의 길이다. 이 길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며 친구들을 향한 철저한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내신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담긴 예기치 못했던 힘과 엄숙함 앞에 베드로는 굴복한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자신을 연다. 예수님과 결별하는 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친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다(요 13:9-1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요 13:12-17).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각자에 대한 당신 사랑을 표현하시며, 겸손한 봉사가 당신 메시지의 핵심임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도록 내맡겨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역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이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동하라고 당부하신다.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단언하신다(요 13: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참 행복은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다. 참 행복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누가복음 6장 20-2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너희가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 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인, 절뚝거리는 사람과 눈먼 사람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까이 계신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려면, 곧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다정하려면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 그분의 몸과 피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없이는 그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 3) 발을 씻어 주는 행위의 의미

예수님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발 씻김은 오로지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이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비전, 온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 주신다. 발 씻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요약해 준다. 행동은 말보다 더욱 큰 소리로 말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마 18:1-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

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며, 지도자는 종 이 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자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주어진다. 각 사람은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이들이 사랑을 끌어들이 빛을 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지금 여기 이 땅 위에 현존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참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지상 교회를 위해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요 스캔들이다. 그들은 이 행위를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철저한 패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인간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신 예수님은 그 폭력을 온유와 용서로 바꾸신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문을 여신다. 그분은 당신이 진정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 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인간이 보기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라며 당신 손수 보여 주신 본보기를 따를 것을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통해 사랑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친구로 삼으신 제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이미 한 여인의 눈물과(눅 7:36-50)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져온 값비싼 순 나드 향유로(요 12:1-8) 당신의 발을 씻게 하셨다. 그분은 분명 이 행위에 담긴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려고 하셨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저마다 예수께 발을 내어드린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친밀감을 나누고 있음을 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아니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과 용서를 상징한다. 물은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선하게 만들며 생명을 가져다준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아래로부터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주인이나 윗사람처럼 높은 곳에서 용서하는 분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마음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표시로 그들의 발에 있는 때를 씻어 주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후에 배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으시며 미리 그를 용서해 주신다. 또한 제자들의 권위에 대한 남용을 씻어내시고, 권력을 얻어 위대해지려는 욕망을 정화시키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착한 목자의 자질을 묘사하시면서, 착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하신다.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사명뿐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이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종종 커다란 능력과 확신에 차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순종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도록 도우셨을 뿐이다. 예

수님은 공생애 동안 지니셨던 권위를 부인하거나 버리시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며 확고하고 분명하게 권위를 행사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치에서 또 하나의 길, 곧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새로운 겸손과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길을 보여 주신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취하여 한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논리이다. 당신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해지신다(빌 2장).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을 향해 사랑과 연민의 몸짓을 보이신 예수님은 더욱 가난해지신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울부짖으신다. 전능하신 분이 무력해지신다. 예수님은 종이나 노예처럼 되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신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그들 안에 숨어 계신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 세상의 맨 밑바닥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는다. 지도자들이 가난할 때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 제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구하려 들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하다.

#### 4) 드러난 베드로와 유다의 본래의 마음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와 정반대되는 두 명의 주인공, 바로 베드로와 유다가 있다.

#### (1) 베드로의 혼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려는 모습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있었고, 맨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의 자리는 누구나 기댈 수 있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왠지 강해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메시아가 그런 모습을 하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베드로는 무너지고 만다. 하인이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한다. 베드로는 반항한다. 예수님이 그를 배반하셨기 때문이다. “종이나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독하도록 스스로를 내놓는 메시아라니! 이걸 너무 부조리해! 스캔들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 6:54-56).

이것은 5천 명을 먹이신 후 군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신 말씀이다. 군중은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발상에 충격을 받고 분개한다! 모두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신다면 베드로 역시 종처럼 작고 연약한 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고 그 중심

에 연약한 이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곧 새로운 사회를 세우라고 요청 받은 것이다. 베드로는 종 가운데 으뜸가는 종이 된 것이다.

## (2) 유다의 배반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동안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긴장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유다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랑의 친교를 이루라고 부르시는, 나약하고 온화하고 무력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 수 없다. 그는 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힘을 나눠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베드로 역시 같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더욱 확고하게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이 사랑과 친교를 이루라고 초대하셨을 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담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과 친교에 대한 유다의 반발은 그의 내면에 심리적이고 영적인 장벽이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선택에서 필수로 마음을 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부르심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발 씻김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과 같이 하나의 신비이다. 예수님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겹옷을 벗어 버리라고, 참 자아를 감추고 있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세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라고 당신 친구들을 초대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복음의 어리석음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며 용서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신다. 또한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요 복이라고 단언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의 발을 씻어 주는 것, 또 누군가 우리의 발을 씻어 주도록 내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표시이다. 이것은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찾기 위해 내리막길을 취하고 싶다는 표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ACT(수용전념치료) 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The Introduction of ACT: With the Christianity

■ 김동연 Kim, Dong Yeon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Th. 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M. A.)
  - 육군 리더십 센터 상담학교관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들어가면서

“주여,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변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묵상(명상: 이후 묵상으로 표기)치료가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는데, 묵상치료가 41.4%, 인지행동치료가 68.8%, 정신역동이나 정신분석이 35.4%로 나타난다. 이것은 미국에서 인지행동치료가 대세이고, 묵상치료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내에서는 아

직 이런 조사연구가 없다. 하지만 최근에 역시 묵상치료가 점차로 관심 받고 있는 소개의 단계에 있다고 본다. 수용 및 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의 경우도 국내에 소개되는 단계에 있고, 번역서나 소개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ACT를 소개하고, 특히 그 주요기법으로 사용되는 마음챙김(mindfulness: 이후 ‘마음챙김’으로 표기)이 어떻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CT는 행동치료의 역사에서 보면 행동치료, 인지치료에 이어서 나타난 제3세대에 해당된다. 제1세대는 1950년대에 활성화된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정서를 학습으로 설명하면서 강화나 체계적 둔감법과 같은 이완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인지치료는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자극과 반응의 조건화보다는 주로 사고작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동사고와 비합리적인 신념을 발견하여 그것을 수정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1990년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제3세대는 동양의 묵상기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병리적인 측면을 요소보다는 전체, 분석보다는 통찰적 문맥을 강조한 점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이후 ACT로 표기)는 최근 10여 년 전부터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제3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접근법들 중 하나이다. 행동치료의 동향은 크게 3세대로 구분될 수 있다.<sup>1</sup>

헤이스(Hayes), 루오마(Luoma), 본드(Bond), 마스다(Masuda), 릴리스(Lil-

<sup>1</sup> S. C. Hayes, V. M. Föllette & M. M. Linehan, *Mindfulness and Acceptance: Expanding the Cognitive-Behavioral Tra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4), 12.

lis, 2006)는 전통적인 행동치료를 제1세대로, 전통적 인지치료와 인지·행동치료(CBT)를 제2세대로 그리고 알아차림 명상에 기반을 두는 접근법들을 ‘제3세대’로 언급하고 있다. 제1세대의 행동주의가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간의 사적 사건들(private events)은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제2세대의 인지치료는 행동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사적 사건들을 인지과정과 같은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고, 그 인지과정의 왜곡을 치료 목표로 삼는다.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경험하기보다는 변화에 역점을 두고,<sup>2</sup>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의 전략에서는 불안을 통제하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생각을 바꾸려는 치료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전략은 불안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불안에 대한 통제나 회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문제의 본질로 본다.<sup>3</sup> 이런 점에서 제3세대의 행동치료에서는 통제보다는 수용, 학습보다는 묵상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한다.

최근에 이런 제3세대에 해당되는 MBSR이나 MBCT 및 DBT 등 묵상에 기반을 둔 행동치료 프로그램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반면, 인지행동치료의 제3세대에 속하는 알아차림 스트레스 관리(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

py), ACT 등과 같은 치료법들은 행동과학에 기초한 마음챙김 기반의 치료(mindfulness-based therapy)로서 경험을 수용하고 현실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마음챙김을 사용한 접근법들은 요가, 명상, 선 등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현대에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ACT는 지난 15년간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불안,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강박증, 분열증, 경계선 성격장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만성통증, 중독회복, 금연, 당뇨병 등의 다양한 치료에 사용되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수용 및 전념치료(ACT)에 한정해서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묵상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방식으로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독교와 만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수용전념치료(ACT) 개괄

ACT는 제목의 의미처럼 수용(acceptance: 이후로 ‘수용’이라고 표기)과 전념(commitment)을 강조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식이다. ACT는 주로 공황발작, 광장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강박증, 범불안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험적인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적응적 행동이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적인 상황도 아닌데 과민하게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사 그런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탕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삶에 대해서 대부분 융통성이 없고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쉽게 위축되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높다.

<sup>2</sup> 문현미,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2006), 27-31.

<sup>3</sup> G. H. Eifert & J. P. Forsyth,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for Anxiety Disorders: A Practitioner Treatment Guide to Using Mindfulness, Acceptance, and Values-Based Behavior Change Strategie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2005), 92-102.

그래서 ACT는 불안의 병리적 증상을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려 하거나 혹은 도피와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불안으로부터의 회피는 매우 성공적인 전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에 더욱 고착시켜서 불안 자체로부터 더욱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닥쳐올 상황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상상과 회피행동을 해보지만, 이런 걱정행동은 그 자체로 불안을 더욱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병리적인 증상을 부정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환자나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ACT는 먼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게 하고, 둘째는 현재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실행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는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크게 3단계의 목표를 제시한다.<sup>4</sup> 제1단계는 사고와 감정을 받아들이기(accept thoughts and feelings)이다. 이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것, 특히 원치 않는 불안, 고통, 죄책감, 부적절감 등을 갈등하거나 저항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단계에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choose directions)이다. 현재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가치 있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제3단계에서는 행동을 취하는 것(take action)이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자신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수용’, ‘가치선택’ 그리고 ‘행동’이 ACT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핵심 과제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가치선택과 행동변화는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CT의 핵심 목표는 ‘목상에 의한 수용’과 ‘가치선택에 따른 행동변화’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런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술로서 구체적으로 6가지의 중요한 과제, 육각형(hexaflex) 모델을 제시한다. ‘목상에 의한 수용’의 과정은 수용, 탈융합(defusion), 문맥으로서의 자아(self as context) 등 3가지의 전략이 제시되고, ‘가치선택에 따른 행동변화’는 현재에 접촉하기(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 가치탐색(values), 행동전념(committed action) 등 3가지가 예시된다.<sup>5</sup>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현재의 접촉, 수용, 가치탐색을 할 수 있고, 제2단계에서는 탈융합, 행동전념, 문맥으로서의 자아를 탐구할 수 있다. 이것은 ACT의 핵심적인 6가지 접근방식이다. 제1단계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목상(명상: 마음챙김에 의한 수용과정(acceptance process))으로 이해한다면, 제2단계는 전념(commitment)에 의한 행동변화(behavior change processes)의 과정이다. 전자가 목상적 측면에 가깝다면, 후자는 보다 행동적 측면에 근접한다. 이들의 주요 치료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첫째, 먼저 회피로부터 수용 전략을 살펴보면, ACT에서는 내담자나 환자의 병리적 특징을 불안이나 걱정으로부터 회피나 통제로 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감정적인 통제나 회피의 패턴, 방식을 탐색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수용을 학습시킨다.

예를 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상처받았던 장면을 생각하고 싶지 않기에 강박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많은 행동들을 한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그것에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X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미 벌써 X에 주의를 두고 더욱 X를 불러

<sup>4</sup> Ibid., 77-82.

<sup>5</sup> S. C. Hayes & K. D. Strosahl, ed., A Practical Guide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Inc., 2004), 31-58.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sup>6</sup> 그 어떤 X를 회피하려는 걱정이나 상상이 오하려 함정, 덮이 되어서 더욱 그곳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갇힌 사람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욱 안으로 파고드는 형국이 된다. 열심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그는 더욱 경직되고, 더욱 근심이 늘어나고, 더욱 불안해진다.

여기서 ‘웅덩이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수용’을 권한다. 수용은 불안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담자나 환자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회피와 통제의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불안과 회피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자각하게 한다. 이것을 ‘창조적 절망’(creative hopelessness)이라고 한다. 창조적인 절망은 웅덩이 갇힌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방법을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담 초기에 중요한 기술이다. 내담자는 창조적인 절망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을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융합으로부터 탈융합(defusion)의 전략이다. 대부분 불안을 가진 내담자는 불안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이유나 변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정말로 가치 있고 필요한 활동을 회피하는데, 이때 그들은 필요 없는 이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닳하게 된다. 이것은 주로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와 인지적인 혼란(cognitive fusion)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들은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ACT에서는 사건과의 관계, 혹은 문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특히 이런 문맥이론에서 보면, 인지치료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

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알아차림(마음챙김과 탈융합)의 전략이다. 이것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회피와 언어적인 규칙에서 비롯된 인지적 혼란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울증환자가 “내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좋은 일이야”<sup>7</sup>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은 인지적 융합을 잘 보여 준다. 여기서 분리되는 사건상황에 개입된 개인적인 경험맥락을 분명하게 자각함으로부터 분리, 벗어남이 생겨난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의 경험에 대해서 둔감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임을 자각하게 된다.

셋째는 개념적 자아로부터 문맥으로서의 자아(self as context)에 대한 자각이다. 문맥으로서의 자아란 개념화된 자아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화된 자아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자아개념이다. 나는 전문가이다, 나는 바보다, 나는 희생자에 불과하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등과 같이 언어적인 개념에 의해서 파악된 자아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응되거나 형성된 까닭에 유용하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불안감을 안겨다 준다. 반면에 문맥적인 자아는 고착되고 굳어진 지식에 의해서 파악된 자아가 아니라 문맥에 의해서 매우 융통성이 있는 자아로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자아를 말한다. 문맥적 자아는 저기보다는 여기, 과거나 미래보다는 지금을 강조하는 자아의식을 말한다.

넷째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현재에 접촉하기(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이다. 이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환자나 내담자의 정서가 대부분 시간을 과거나 미래의 경험에 집착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현재’에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본다. ACT에서는 개념화된 과거나 미래로부터 현재로 되돌아오고, 현재에서 의미 있는 행동, 활동을

<sup>6</sup> S. C. Hayes, op. cit., 121-129.

<sup>7</sup> Ibid., 12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삶이란 그것이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현재에 발생된 사건이고, 이 현재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임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이런 자각은 환자나 내담자로 하여금 미래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삶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 알아차림 목상을 통해서 현재에 머물러서 충분히 경험을 느끼고, 설사 불편한 감정일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그 자체로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가치결여로부터 가치탐색(values)이다. 여기서 가치는 매우 일상적인 의미이다. 이를테면 친구가 영화를 보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볼지를 걱정하다가 결국은 포기한다고 할 때, 가치탐색을 할 수가 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이 문제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내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면서 실질적으로 희생되고,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탐색한다.

여섯째는 충동적 반응으로부터 행동전념(committed action)이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삶의 나침반을 설정하였으면, 그것들의 장애들을 잘 통찰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생각과 행동을 구분한다. 생각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행동은 실질적으로 불안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설거지와 같은 매우 일상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숙제와 같은 학습 활동이나 아니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포함한다.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털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6가지 주요 치료적 전략은 결국은 목상에 의한 수용과 가치 선택을 통한 행동변화로 요약된다. 이때 목상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6가지의 치료적인 전략에서 목상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과정이다. 그러면 ACT에서 목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3. 마음챙김(Mindfulness)

일반적으로 마음챙김은 팔리어 사티(sati)의 영어 번역어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마음챙김은 sati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집중목상인 사마타(samatha)나 통찰목상으로 분류되는 비파싸나(vipassana)의 의미로 사용할 만큼 매우 융통성 있고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심리치료자들은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고 창조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만큼 마음챙김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므로 불교적인 수행론적 관점과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마음챙김’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일단 마음챙김은 불교의 sati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sati의 번역어는 기억, 알아차림, 주의집중, 마음챙김 등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단 sati의 개념을 선구적으로 심리치료에 적용한 존 카바트 진(John Kabat-Zinn)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는 ‘마음챙김’이란 개념을 ‘주의력의 조절’과 불교 수행의 ‘팔정도’(八正道)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마지막으로 법의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조작적인 정의로서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판단 없이, 주의를 두는 자각(awareness)”으로 규정한다.<sup>8</sup> 또한 최근에 논의된 불

교학자 존 던(John Dunne)의 정의를 중시한다. 여기에 따르면 ‘마음챙김’의 구성요소로서 기억과 재생을 의미하는 sati, 철저한 앎과 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삼파자나(sampajanna), 방일하지 않음이나 주의 깊음을 의미하는 아파마다(appamada)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마음챙김’은 단순히 sati의 번역어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존 카바트 진에게 ‘마음챙김’은 팔정도와 같이 불교 수행의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심리치료자들은 ‘마음챙김’을 Medit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마음챙김’을 일차적으로는 ‘묵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넓은 의미로서 사용된 ‘mindfulness therapy’<sup>9</sup>라는 경우는 미술치료나 인지치료처럼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묵상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수행이나 심리치료에서 기술적 의미로서 sati의 번역으로 ‘마음챙김’이 사용된 경우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반면에 대상에 머문 상태를 의미하는 samatha 수행은 ‘집중묵상’으로, 대상의 변화를 지켜보는 vipassana 수행은 ‘통찰묵상’으로 번역한다.

ACT에서는 직접적인 묵상의 도구로서 주로 ‘알아차림’(마음챙김)과 ‘문맥으로서 자아’(self as context)라는 두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맥적 자아론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마음챙김 연습으로 건포도 먹기 →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묵상 → 호흡묵상 연습 → 생각과 느낌 알아차림 연습 등의 순서로 묵상훈련을 실시한다.<sup>10</sup> 여기서 사용되는 건포도 먹기묵상,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묵상, 호흡

묵상 연습 등은 MBSR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생각과 느낌 알아차림 연습은 MBCT에서 ‘3분 묵상’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DBT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음챙김을 전통적으로 불교묵상에서 사용하는 마음의 평화, 선정이나 심리적 현상에 대한 통찰, 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ACT에서는 ‘마음챙김’을 ‘자각’(awareness)과 판단 없는 ‘수용’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6가지 주요 치료전략인 육각형(hexaflex) 모델에 연결시킨다. 이를테면 과거 경험에 붙잡힌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에 접촉을 하게 하거나, 개념적인 자아에서 문맥적인 자아를 경험하게 하거나, 언어적인 인식에서 탈융합(defusion)과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음챙김 연습을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 ACT에서의 가장 핵심 되는 치료전략은 결국 ‘마음챙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마음챙김 연습이 직접적으로 가장 잘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에 접촉하기(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의 전략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그 묵상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음챙김 연습은 현재의 특정한 경험 대상에 주의를 두는 자각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의는 개념적인 이해를 벗어나 경험 대상에 의도적으로 머물러서 그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호흡묵상을 하는 수행자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다가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관점은 ‘현재’라는 시점이다. 대부분 우리는 과거

<sup>8</sup> F. Didonna, ed., *Clinical Handbook of Mindfulness*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2009), 11-23.

<sup>9</sup> *Ibid.*, 24.

<sup>10</sup> R. D. Zettle, *Act for Depression: A Clinician Guide to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Treating Depression* (Oakland: New Harbinger, 2007), 140-157.

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몰두하거나 혹은 몰들어 현재를 놓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환자나 내담자의 고통은 바로 과거의 특정한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ACT의 목표는 개인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 생각 등과 싸우는 것을 내려놓고, 살아 있는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념화되고 경직된 자기로부터 보다 유연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마음챙김’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에 의식을 두고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새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느낌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자각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풍부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일차적으로는 일어나는 현재의 경험을 그 자체로 알아차리고, 다음으로는 그 현재에 머물고, 마지막으로 그 순간의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sup>11</sup> 이런 훈련이 없으면 다른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가슴의 어떤 감정에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쉽게 노출된 환자나 내담자에게는 구조화된 훈련이 필요하다.<sup>12</sup>

대표적인 구조화된 마음챙김 연습은 ‘강물의 나뭇잎’이란 연습이다. 이것은 생각을 바라보게 하는 연습으로, 눈을 감고 시작을 한다. 내담자

는 강둑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본다. 강물 위에는 나뭇잎이 떠내려간다고 상상하기를 요청받는다. 그리고 치료자는 환자에게 떠내려가는 나뭇잎 하나하나에 생각을 조용하게 두라고 말한다. 만약 내담자가 생각에 걸려 있다거나 생각을 관찰할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가는 것을 안다면, 내담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곧 생각을 나뭇잎 위에 두는 것에 되돌아오고, 강물에 그것들이 흘러감을 허용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관찰하는 연습이다. 치료자는 다음과 같이 내담자를 안내한다.

숨을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얼마간 보다 깊게 호흡을 하시고, 점차로 평소대로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춤]

자, 이제 당신이 어떤 들판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풀도 있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푸른 하늘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여러 종류의 구름이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춤]

자, 이제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요술처럼 구름에 묻혀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낱말이나 이미지로서 구름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구름 자체는 당신 생각의 이미지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일어나는 각각의 생각을 구름에 묻고 그것들이 조용히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름의 이미지를 놓쳤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 판단하지 말고 단지 조용하게 누워 있는 자신의 등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생각들을 구름에 묻으면서, 그럼 이제 나는 조용하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 연습을 해보세요. 단지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써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에, 혹은 그 위에 두도록 하세요. [잠깐 멈춤]

<sup>11</sup> 인경, 『염지관묵상』 (서울: 묵상상담연구원, 2005), 120.

<sup>12</sup> J. B. Luoma, S. C. Hayes & R. D. Walser, Learning ACT: A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kills training manual for therapist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2007), 214-221.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생각을 놓치거나 당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당신의 등 쪽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춤]

자, 이제 당신이 누워 있는 들판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sup>13</sup>

이것은 구름에 생각을 떠나보내는 연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이 생각을 나뭇잎에 실어서 강물에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발생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으로, 요점은 구름이나 나뭇잎처럼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연습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습이다. 우선적으로 강물과 나뭇잎, 혹은 하늘과 구름을 떠올려야 하고, 다음에는 생각을 자각하여 그것을 나뭇잎이나 구름에 붙여야 하는데, 바로 이 단계가 어렵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은 대부분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구름이나 나뭇잎에 가지고 가기 전에 소멸되어 선명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오히려 그냥 생각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마음챙김 연습이 아닌가 한다. 설사 생각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생각을 알아차리면 곧 호흡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CT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 기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생각을 구름이나 나뭇잎에 붙이려는 노력이 상당히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까닭에 실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 4. 주요 치료기법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개인적인 자아(self)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통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자존감(self-esteem)이 낮은 까닭에 자아를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나는 실패자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바보야’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자아관을 보다 융통성이 있는 성공적이고 낙천적인 수준으로 건설하는 것, 그래서 ‘나는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성공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다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심리치료의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불교심리학에서는 무아(無我)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아의 강화가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약한 자아와 강한 자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한 자아는 사실 약한 자아를 기반으로 성립되고, 약한 자아 역시 강한 자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한쪽의 강화는 결국 역설적으로 다른 쪽을 잉태한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없다. 높은 자존감은 역설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는 약한 자아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ACT에서 자아를 개념적 자아(self as concept), 과정의 자아(self as process), 문맥적 자아(self as context) 3종류로 분류한다.<sup>14</sup> 혹은 개념적 자아는 내용으로서 자아(self as content), 과정적 자아는 현재의 자기-자각(ongoing self-awareness), 마지막으로 문맥적 자아는 관찰하는 자아

<sup>13</sup> Ibid., 146.

<sup>14</sup> J. V. Ciarrochi, A. Bailey & S. C. Hayes, A CBT Practitioner's Guide to ACT: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2008), 69-70.

(observing self) 혹은 관점의 자아(self as perspective)로 부르기도 한다.<sup>15</sup>

개념적 자아는 '나는 감정색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혹은 '나는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다' 와 같이 기질, 가치, 습관,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개념화된 자아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 의해서 드러난다. 자존감을 바로 개념적 자아와 관련된다. 치료자가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내담자에게 강조하면, 환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확인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다. 높은 자존감이 기준이 되어 낮은 자존감을 배제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인지적인 오류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ACT는 치료의 목표를 개념적 자아보다는 과정의 자아나 문맥적 자아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과정적 자아' 는 내적인 경험을 관찰하고 순간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혹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 혹은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와 같은 것이 과정으로서의 자아이다.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 혹은 내적인 경험으로 그대로 묘사하게 한다. 과정의 자아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마음챙김 연습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다. 판단하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훈련은 바로 과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문맥적 자아란, 개념이나 내용으로서의 자아와 과정으로

서의 자아를 모두 포괄하는, 이는 것을 아는 어떤 위치나 관점을 의미한다. 이것의 이론적 기초는 관계구조이론(relational frame theory)에서 온다.<sup>16</sup> 쉽게 말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문맥이란 낱말의 의미를 결정하는 전후 관계를 말한다. '말' 이란 낱말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낱말 자체보다는 그 낱말이 관계하는 문맥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독립된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적인 교설로는 '인연(因緣)이나 '연기(緣起)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ACT에서는 대개 이것을 체스보드에 비유하곤 한다. 감정색과 하얀색의 체스가 있고, 이들은 보드 위에서 게임을 한다. 하지만 보드 자체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검은색의 체스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하얀색의 체스도 아니다. 그러면서 보드는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판 자체로서 문맥이다. 문맥적 자아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장소' 를 제공한다. 이런 문맥적인 자아로 인하여 개념적 자아와 과정적인 자아가 유지된다. 문맥적 자아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수용과 탈융합에 나아가는 길목이 된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자아는 불교 전통과 비교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유사한 교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유식불교에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에 상응한 것처럼 보인다. 개념적 자아는 집착된 자아로서 대상을 개념화하거나 영속적인 특질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적 자아는 의타기성과 연결된다. 이것은 인식과 대상의 상호관계에서 알아차림은 발생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마지막의 문맥적 자아는 무아와 상통한 의미로<sup>17</sup> 근본적인 바탕, 장소로서의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원만한 성격을 가진 점에서 원성실성이라

<sup>15</sup> M. P. Twohig & S. C., Hayes, ACT Verbatim for Depression & Anxiety: Annotated Transcripts for Learning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2008), 213-221.

<sup>16</sup> S. C. Hayes, V. M. Follette & M. M. Linehan, op. cit., 34-42.

<sup>17</sup> Ibid., 139.

고 말할 수가 있다.

이들은 상담상황에서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내담자가 개념적 자아에 집착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의 경험에 접촉하게 하여 과정적 자아를 자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안전한 공간으로서 무아를 의미하는 문맥적 자아를 깨닫게 도와준다. 이들은 유식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새끼줄 비유로 보면,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집착경험을 나타내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뱀이 아니고 새끼줄임을 현재에서 자각하는 것은 의타기성(依他起性)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진실경험의 순서를 가진다.<sup>18</sup> 이것을 ACT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유식불교에서 집착경험에서 관계경험으로 그리고 진실경험의 과정으로 흐르듯이, ACT에서는 개념적 자아에서 과정적 자아로 그리고 문맥적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개념적인 자아에 집착하여 고통을 받기에 곧장 무아의 문맥적 자아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집착된 개념적 자아의 내용을 인식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에서 경험한 과정적 자아에 접촉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문맥적 자아에 이르게 하는 상담절차이다.

한편으로 세 개의 자아에 대한 접근법에는 각 단계마다 다른 방식이 요청된다. 개념적 자아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관점이기에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것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반면에 과정적 자아는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서 현재에 접촉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 문맥적 자아는 체스게임과 같은 비유법을 활용한 간화선과 같은 문답법이 유용하다.

간화선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라든지 혹은 ‘무엇이 나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물론 이런 질문이 반드시 간화선의 방식이라고 하기

엔 무리가 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질을 나타내는 질문인 까닭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ACT에서는 문맥적 자아로서 대답한다.<sup>19</sup> 이것은 대개가 체스게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 이것의 문답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상담자:** 여기에 체스보드가 있습니다. 체스는 하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이들 체스는 왕이 있고 여왕이 있고 귀족도 있고, 성주도 있고, 병사들도 있습니다. 하얀색의 체스는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 느낌이나 좋은 기억들입니다. 반면에 검정색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느낌들이나 기억들입니다. 이들은 보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당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담자:** 그래요. 마치 나 자신과 같아요. 나는 지금 내부에서 늘 전쟁 중입니다.

**상담자:** 검정색 기사가 공격합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입니다.” 그러자 하얀색 여왕이 “나는 나의 아이들을 잘 돌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검정색 귀족이 “실제로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자 하얀색의 기사가 “나는 떠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검정색의 여왕은 “아니, 너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 결국은 다시 돌아올걸” 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내담자:** 그래요. 맞아요. 정확하게 나의 이야기예요. 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 전쟁은 계속될 것만 같아요.<sup>20</sup>

**상담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과 싸워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체스가 아닐 가능성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쟁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 비유에서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보드

<sup>18</sup> 인경, “불교영성과 묵상치료”, 『묵상치료연구』 (서울: 한국묵상치료학회, 2007), 29-30.

<sup>19</sup> J. B. Luoma, S. C. Hayes & R. D. Walser, op. cit., 109.

<sup>20</sup> Ibid., 198.

위의 체스와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내답자:** 체스?

**상답자:**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동시에 체스일 수가 있죠?

당신은 당신의 차를 가졌지만, 차가 당신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당신은 누구이죠?

**내답자:** 게임하는 사람?

**상답자:** 우리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게임하는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당신이 체스를 움직이려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게임하는 사람 이외에 무엇일 수가 있죠?

**내답자:** 보드?

**상답자:** 네, 맞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드가 없이는 체스들은 체스로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보드는 체스를 가지고 있고, 체스가 체스일 수 있도록 그 문맥을 제공합니다. 이상한 질문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내답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답자:** 그래요. 만약 당신이 보드가 된다면, 당신은 전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체스가 된다면 그 전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sup>21</sup>

여기서의 비유적인 문답은 매우 중요한 시점을 제공하여 준다. 여기서 환자나 내답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든지 혹은 ‘무엇이 나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그런 생각과 느낌의 근거가 되는 바탕 자체(自體)를 묻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간화선의 창시자로 알려진 대혜종고의 문답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이다. 이때는 체스게임이 아니고 바둑이 등장한다. 이참정과 조대

체는 자주 만나 바둑을 두는데, 대혜가 이 사실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바둑이 흑백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나아가, 바둑판을 다 흐트러뜨리고 한 수를 놓는다면 어디에 놓을 것인지를 묻는다.<sup>22</sup> 이것은 체스 게임의 비유와 너무나 닮은꼴이다. 바둑알은 느낌이나 생각 혹은 기억들이다. 이것들은 서로 엉키어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으로 나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나인가?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일시에 쓸어버리고 한 점을 놓는다면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런 맥락적 자아의 개념은 선문답이 가지는 심리치료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5. 기독교적 접근

앞서 소개했듯이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란 제3세대 인지심리학이라 알려져 있다. 인지행동주의 상담학의 1세대는 스키너(B. F. Skinner)를 중심한 행동주의 심리학, 2세대는 엘리스(A. Ellis), 벡(Aron Beck) 등을 중심한 인지심리학을 의미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문제를 이루는 행동과 생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 1세대, 2세대 인지심리학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제3세대 인지심리학자들은 문제를 이루는 행동이나 생각의 교정보다 이런 문제행동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여 보라고 권한다. 이들에게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감정 공포증’(emotion phobia)이라고 해석된다.<sup>23</sup>

예를 들어, 발표 불안과 같은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sup>22</sup> Ibid., 77-83.

<sup>23</sup> Jason B. Luoma, Steven C. Hayes & Robyn D. Walser, 『수용전념치료 배우기』, 영희, 유은승 외 1명 역 (서울: 학지사, 2011), 127.

<sup>21</sup> R. D. Zettle, op. cit., 150.

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난 자신, 부끄러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거리를 두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피하고 싶은 감정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좀 부끄럽고 떨리지만 내가 이해하고 아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둘러싸던 불안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수용전념치료의 전반부 과제, ‘수용’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표 불안에 떠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만들까? 이에 대한 답이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면서, 수용전념치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을 찾는 것이다.<sup>24</sup>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이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감정-수치감, 불안감, 우울 등-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전념치료의 후반부 과제인 ‘전념, 헌신, 투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발표를 할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인생의 필연적인 목적이 있어서이다. 즉,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높이고 싶거나, 회사에서 맡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켜 더 좋은 승진 기회를 갖기 위해서일 수 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떨리지만, 꼭 전해 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삶에 꼭 붙들고 싶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이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불안하지만, 때로는 무력하거나 우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무서워하는 그 행

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전념치료에서 ‘전념하는 행동’은 보통 ‘자신의 문제 행동’이 된다. 공황장애 환자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 죽을 만큼 겁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꼭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은 뒤에는 외출을 강행하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 환자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가 하늘을 찌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새로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이번에 또 실패하면 난 정말 끝장인데’ 하는 성공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또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수용전념치료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고통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느껴지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괴로움=고통+통제의 노력’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sup>25</sup>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면 참을 만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이는 만큼 괴로움의 크기도 더해진다.<sup>26</sup>

그렇다면 수용전념치료를 기독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이 한계를 가진 죄인임이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 평생을 걸고 하고 싶은 나

<sup>24</sup> 김주환,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 2010), 47.

<sup>25</sup> Frank L. Gardner & Zella E. Moore, 『명상을 통한 수행역량개발: 마음챙김 수용전념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2011), 78-84.

<sup>26</sup> Robert D. Zettle, 『우울증을 위한 ACT: 우울증 치료에 활용하는 수용전념치료 지침서』 (서울: 학지사, 2013), 31-37.

의 소명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자신이 진정으로 경험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담기법이 이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겪어 보는 것이다. 단,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힘들어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일반 수용전념치료 가들에게 이 부분은 전혀 설명될 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부분이다).

셋째, 자신의 삶의 가치, 즉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군인, 주부, 학생, 선생, 전도사, 목사, 사모,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아들, 딸, 사위인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일까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듣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충성되게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람들, 즉 우리 장병들을 위해 묵묵히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도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아니,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소명을 맡기신 우리들과 함께 친히 능력을 더하시며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 6. 마치며

현재 육군 군종병과에서는 수용전념치료(ACT)를 기반으로 한 ‘비전캠프

프 3세대’를 출시예정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관련 내용들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일은 무척 기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오는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의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육군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군종병과가, 또한 그 안에 군종목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ACT는 목상을 수용 및 판단 없는 자각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는 불안장애를 가진 장병들에게 맞추어진 조작적 정의가 될 것이다. 군에서 불안장애를 겪는 장병들은 불안을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CT에서는 이런 목상에 기반하여 회피 → 수용, 융합 → 탈융합, 개념적 자아 → 문맥적 자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 현재에 접촉하기, 가치결여 → 가치선택, 충동적 반응 → 선택행동으로의 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제1단계로서 수용, 탈융합, 문맥으로서의 자아와 제2단계로서 현재의 접촉, 가치탐색, 행동전념으로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룬다.

이런 과정 가운데 목상과 직접 관련된 기법은 마음챙김과 기능적 문맥 이론이 채택된다. 마음챙김은 먹기목상, 걷기목상을 포함하고, 특히 생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강물의 나뭇잎이나 하늘의 구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구조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문맥적 자아(self as context)는 개념적 자아, 과정적 자아, 문맥적 자아를 순차적으로 통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위의 내용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반기를 들고 그것에 반감을 가진 채로 알아보지도 않는다. 참 어리석은 연구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ACT에서 말하는 수용부분이 흡사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용납과 용서와 연결되고, 전념부분은 부활을 통한 새 삶의 시작에 비유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도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 Theological Problems in Korea Churches

■ 안명준 Ahn, Myung Jun

- 합동신학대학원(M. 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 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 M.)
  - 남아공 University of Pretoria(Ph. 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현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다. 80년대의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교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큰 도시의 대형교회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소형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모습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이후에도 그 분명한 대안을 갖지 못하면서 더욱더 흔들리고 있다.<sup>1</sup>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크게 두드러진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 내용의 범위는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

결책은 다루지 않았다.

## 2.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신문사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sup>2</sup> 물론 미국이었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문제점으로 삼는 주된 것들은 지나친 교회성장주의, 목회자들의 세속화와 탈선 그리고 윤리의식의 실종이었다.<sup>3</sup>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문제점들 가운데 먼저 극단적 이원론을 다루려고 한다.

### 1) 극단적 이원론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로 먼저 극단적 이원론을 들 수 있다. 이원론

(dualism)은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실재를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손봉호 교수는 이원론에 대한 정의로 “일반적으로 현실 전체, 혹은 어떤 특정한 현실의 근본적인 기원을 서로 동등한 두 가지의 원칙에서 찾으려는 견해를 말한다”고 한다.<sup>4</sup>

이원론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동양학자 토머스 하이드(Thomas Hyde)가 『고대 페르시아인의 종교의 역사』(Historia religionis Veterum Persarum, 1700)라는 책에서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영구히 대립하는 종교체계를 이 말로 부른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형태는 플라톤의 이데아계(영지계)와 감성계(현상계)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작품 『티마이오스』(Timaeus)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

<sup>1</sup> 참고로 안명준, “주 5일 근무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 「크리스천투데이 신문」 11월 9일, <[http://www.chtoday.com/new/template/news\\_view.htm?code=oc&id=158](http://www.chtoday.com/new/template/news_view.htm?code=oc&id=158)>.

<sup>2</sup> “목회자 ‘지나친 성장주의’ 갱신대상 1호:종교 개혁절 교회갱신 설문조사 68% 응답. 미주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교회성장주의’를 꼽아 관심을 모은다. 이는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최근 종교개혁 484주년을 맞아 미주교회 목회자 1백 명을 대상으로 교회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68%가 ‘지나친 교회성장주의’를 교회갱신 목록 제1호로 꼽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목회자의 세속화와 성직자 탈선 등과 같은 ‘목회자 자질 문제’ (18%)였으며, 그다음은 ‘윤리의식의 실종’ (14%)이었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5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목회자의 각성과 개혁’ (37%)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단에서 안수조건 및 기준 강화’, ‘대형교회주의 지양’, ‘평신도 바로 세우기’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목회자들에게 설문한 내용은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점들은 무엇인가?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이었으며 서부와 동부의 목회자들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 대상을 뽑았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51375>>에서 인용, 2013-5-2.

<sup>3</sup>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참고로 기독교신문 취재팀 편, 『한국교회의 허와 실』 1, 2, 3 (서울: 쿤란출판사, 1993);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8);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http://www.socialethics.org>>. 여기서 강원돈 교수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근본주의, 물량적 성공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사회윤리 문제와 선교의 과제에 대해 단편 정치적 신학,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실로부터 유리된 신학적 담론형성에서 교회의 에큐메니칼한 현존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본다. 손봉호, 홍치모, 김영우, “종교개혁과 현 한국교회개혁의 방향”, 『홍신대보』 2001년 11월 8일(화) 제242호, <<http://csdb.net/all.htm>>; 채수일, “한국교회에 대한 신학적 비판”,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월레포럼』 (2001. 6. 25), <<http://www.minjungtheology.net/forum/f2001-06-csi.htm>>.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말한다. “오늘 한국교회의 개혁이 문제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에 관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구와 제도로서의 교회에 관계된 것이다. 성직자와 신자의 각종 스캔들에 서부터 지도층 인사들의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각종 신학교의 난립과 명분 없는 교파 분열, 재산권과 교권을 중심으로 한 다툼, 대형교회의 세습, 교회의 양극화 등은 당사자의 개인적 비리를 넘어 기독교와 한국교회 자체의 이미지는 물론 종교로서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로서의 한국교회의 문제로서는 천미 반공주의, 정치·경제 권력과의 유착, 교회 안의 성차별과 성폭력, 권위주의적 성직자 중심주의, 대형교회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무분별하고 전두적인 해외선교 행태 등이 비판의 표적에 들어올 것이다.”

<sup>4</sup> 손봉호, “이원론”, 『신학사전』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1984).

다. 이 책은 우주론에 대한 요약으로, 그는 세상이 데미우르고스(Demiurge)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며, 혼돈된 물질 위에 형상의 패턴을 인쇄했다고 한다. 플라톤은 주장하기를 학문은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 항상 변하는 것,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진실이 될 수 없으며,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고 참된 것의 하나의 복사요, 하나의 상(像)이라고 한다.<sup>5</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플라톤의 사상이 유한과 무한의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ite and the infinite)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서구의 철학사를 흘러서 교부들과 츠빙글리, 칼빈,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칼 바르트에서 변증신학으로 꽃을 피운다.<sup>6</sup> 플라톤은 이원론 사상을 설명하기를, 보이는 것들은 복사나 유사한 것이지, 그 자체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All visible things are the copy and likeness, not the eternal things themselves, *Timaeus* 29c).

결국 플라톤은 철저한 이원론(실제와 현상, 이데아와 감각적인 대상, 이성과 지각, 영혼과 육신)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필로를 통하여 클레멘트, 오리겐<sup>7</sup> 그리고 어거스틴<sup>8</sup>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은 영

혼의 불멸성을 주장하는데, 후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해석적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교부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성경을 알레고리 방법으로 해석했다.<sup>9</sup>

서구 철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정신과 물체에 대한 이해에서 이원론이 철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에서 나타난다. 기독교의 여러 개념들이 이원론적 대립의 구도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 육과 영 그리고 하나님과 나라와 세상 나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여 기독교를 이원론의 종교라고 볼 수는 없다. 손봉호 교수는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은 이원론의 유혹을 물리치는 강한 무기라고 말한다.<sup>10</sup>

초기 한국교회는 경건하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건전한 신학과 경건한 신앙을 받게 되었다.<sup>11</sup> 그들을 통하여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배출되면서 한국교회는 일제의 핍박과 6·25전쟁의 아픔을 이겨내었다. 80년대 한국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해 교회는 물질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격동기의 시련 과정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민족적 고통과 정치적 억압의 시대에 이 세상과 내세라는 도식의 이원론으로 빠져들었고, 경제적 풍성함과 사회적·윤리적 자유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교회와 이 세상이라는 도식의 이원론으로 빠져들었다.

전자의 구도에서는 기도와 기도원 그리고 치료의 은사와 신비주의의

<sup>5</sup> "He pointed out that science cannot be accurately true since it deals with the temporal, the finite, the forever changing, never with the eternal. But yet the visible world is a copy, an image, of what is eternal and true."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Introduction," in *Timaeus*, *The Collected Dialogu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151.

<sup>6</sup> 유한과 무한(infinite, unlimited) 관계를 말한 내용은 *Philebus* 15b-17b.

<sup>7</sup> 문제가 되는 그의 성자의 종속론적 삼위일체, 영혼의 선재, 우주적 타락, 성육신 교리 등은 모두 플라톤의 영향이다.

<sup>8</sup>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플라톤의 영향도 제법 크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해석, 지식의 궁극 목표는 지복이라고 하는 가르침, 이데아들과 영원한 진리들은 항존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신적 정신에 의한 조명이라는 설명 등에서 플라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sup>9</sup>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3-35.

<sup>10</sup> 손봉호, "이원론".

<sup>11</sup> 참고로 박응규, "일제하 한국교회의 종말론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 논총』 제2집(2000), 183; 이덕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6호; 장동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논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6호.

강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자의 구도에서는 지상 교회 내에서 특별은총의 충만함을 강조하였고, 일반은총의 영역으로서의 세상에서는 특별은혜의 적용이 미약하였다. 전자의 경우 초월적이며 종말론적 이원론이 강했지만, 후자는 점차적으로 영역적 이원론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결국 수직적 신앙의 형태에서 수평적인 신앙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의 개인의 구원을 중시한 보수적인 신앙과 사회구원을 주장한 진보적 신앙이 구원을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 하는 그 방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교회가 외형적 모습을 중시하며 그 숫자적으로 많은 성장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목회신학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극단적 이원론적 사고의 수정 없이는 참된 목회나 성도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교회는 극단적 이원론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현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 천국인 장소로 인식하고 기독교인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를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강조한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즉 성도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지역교회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sup>12</sup>

## 2)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현상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현상이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모습을 많은 면에서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키프리안은 성례전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유형적 조직체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기초석을 놓았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그리고 주교로부터 분리되는 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라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와 논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특히 예정론의 입장에서 교회를 택함 받은 자들의 단체,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참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갖춘 성도의 무리로 생각하였다. 중세시대에 교회와 국가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두 권세로 보았으며, 교회를 더 상위에 두었다. 후에 그레고리 2세는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로마 교회의 교황의 권위를 더 강화시켰다. 성직자들은 평신도와 분리된 계급으로 주장하였다. 그들만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교회 안에서 실행하였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조직화된 교회를 강조하였다. 결국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있어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큰 역할을 둬으로써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직자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그들은 교회 사역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권위를 가졌고, 말씀의 권위보다는 전통

<sup>12</sup> 한국교회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참고로 홍성국, “현대 한국 기독교회의 이중성”, 『복음과 신학』4(2001), 9-28; 신현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 문제”, 『복음과 신학』4(2001), 63-84.

<sup>13</sup> 윌리엄 워커,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7), 63.

<sup>14</sup> 폴 스티븐스, 『21 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 IVP, 2001), 52.

과 기구적인 제도 그리고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독재적이며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맡고 있다.<sup>15</sup> 지나친 카리스마의 남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그런 지도자들의 권위는 로마 교황의 권세와 견줄 만하다. 이런 목회자들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권위는 사라지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소멸할 것이다. 한스 쾨링은 성령은 로마 교회와 사제들에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16</sup>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위가 앞세워진 유행교회에서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사는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권위, 즉 복음의 권위를 바르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권위적이며 독재적인 목회자들은 교회의 내면적이며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외형적인 요소와 조직과 행정 등 제도적인 요소들을 강조한다. 외형적인 요소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행위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행위와 외형적인 노력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개혁자들의 정신과는 달리 인간의 외형적 행위에 대한 강조가 심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중세의 로마 교회를 연상케 한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식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때문이었다. 그의 신학의 중심사상인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ficit)라는 주장은 로마 가톨릭 신학의 핵심이 되었

다. 그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회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으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후에 공로사상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구원을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이런 인간의 열심과 봉사를 강조함으로써 그런 외형적인 요소들을 신앙의 열매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속의 문화와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인위적인 교회의 행사와 외형적인 행위의 표출을 벗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권을 주장함으로써 비역사적이며 비성경적인 교황권의 강화로 인하여 개혁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후계 문제는 교회론의 심각한 변질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베드로의 후계권을 신학적으로 비판하였던 개혁자들의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

### 3) 교회의 외형적 대형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로 교회의 외형적 대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모든 대형교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큰 교회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성례전과 치리를 바르게 시행하며, 평신도에 대한 철저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이룩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세속적이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외형적으로 대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 왔다. 말씀의 굳건한 기초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관심 없이 거대한 외형적 조직체로서 있는 대형교회의 모습은 미

<sup>15</sup> 장성우, “1992년 이후의 한국교회 권위적 구조의 문제점 분석비판-체제이론의 Feedback을 중심으로”, <<http://www.kccs.pe.kr/thesis09.htm>>.

<sup>16</sup> 에드먼트 클라우니, 『교회』 (서울: IVP, 1998), 63.

대 한국 개신교의 장래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은 여러 모양으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이 모습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대형교회의 출현은 먼저 목회자들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 목회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 목표를 둔 것이다. 특히 로버트 슈러(Robert Schuller)의 영향으로 성장한 어떤 초대형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의 꿈이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성장이라는 새로운 신화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교회성장이론의 대가인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이론 역시 한국교회의 대형화에 이론적 영향을 주었다.<sup>17</sup> 이런 영향들은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교회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면보다는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면에 더 많은 강조를 두게 되어 결국 초대형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대형화는 결국 미국의 상업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이 스며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한국 초대 교회의 순수했던 모습과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올바른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대형교회로 인하여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다름 아닌 주변의 소형교회들이다. 대형교회는 주변의 소형교회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대형교회는 카리스마적인 당회장과 함께 최신의 모든 시설을 갖

추며, 교회 프로그램의 풍성함, 전문 교육자를 통한 봉사 그리고 교회 버스 운영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끌어 모았다. 이런 결과가 나약한 교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많은 초년의 교역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희망을 꺾어 버리게 하였고,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성에 크게 손상을 입혔다. 따라서 대형교회의 출현으로 한국교회의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왔으며,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수천 명의 장로와 권사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는 초대형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기존의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급급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겸허하게 욕심을 버리고 모든 교회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 모두는 기존의 대형교회를 검증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대형교회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실한 과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유기체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성도들이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교회에 대한 책임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와 봉사 그리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장으로 삼아야 한다.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사회에서 명예와 권위를 입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뜻을 실현하는 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 4) 개교회주의

한국교회는 그 저변에 개교회주의라는 사상으로 교회의 성장 신화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지나친 잘못된 개교회주의를 해체하고 기독교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었다.

<sup>17</sup> 한국교회의 성장위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은 참고로 Myung Jun Ahn, "Current Theological Issues in Korea," Theological Forum Reformed Ecumenical Council, vol. 26(1998), 23-26. 인터넷 참고는 <<http://www.gospelcom.net/rec/TFDec98.html>>,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참고로 전호진, "한국교회의 성장과 해외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자료 인용 <<http://user.chollian.net/~ikch0102>>.

개교회주의란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로서 보편성과 통일성 그리고 우주적인 참된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유형적 교회로서 지교회의 외형적 성장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네비우스 방법의 부정적인 면이 바로 개교회주의를 낳았다고 한다.<sup>18</sup> 초기 한국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런 네비우스 방법은 개교회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면은 물론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만의 독립과 성장이 지상명령이나 되는 듯 지나치게 될 때 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개교회주의는 잘못된 교과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교단의 강조와 타 교단에 대한 지나친 경쟁으로 기독교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 이런 문제는 노회나 총회에서 타 교단과의 교회의 통일과 협력을 이룩하지 못한 결과이다.<sup>19</sup>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과의 벽이 높아서 그 누구도 그것을 허물지 못할 정도이다.

이런 개교회주의는 자신의 교회만을 성장시키려는 세속적 사고에 집착할 때 더욱더 심해진다. 교인 숫자만 많고, 건물을 크게 짓고, 헌금이 풍성한 그런 교회관을 목표로 할 때 발생한다. 이런 교회관으로 성장한 교회는 총회나 어떤 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의 큰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런 교회는 기존의 교회의 법을 어기고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사상에는 교회의 종말론적이며 보편적 교회관이 사라지게 된다.

<sup>18</sup>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sup>19</sup> 김남식은 교회의 일치성 부족과 경제적인 면에 너무 집착한 점을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약점으로 지적한다. 김남식 그리고 간하배, 『한국장로교 신학사상사 특별좌담회』 (서울:베다니, 1997), 176.

개교회주의의 심각한 원인 중에 근본적인 것은 지나친 무자격 목회자의 과잉 배출이다. 현 한국과 미국의 각 교단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하는 신학생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나라의 젊은 종교인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나라가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활동과 봉사를 한창 할 나이에 비생산적이며 정적인 삶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많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같이 승려가 많은 나라가 대표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개교회주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개교회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주위의 주님의 형제 교회들을 같은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보며, 교회의 통일성과 협력을 파괴시킨다. 그 결과 이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며, 기독교가 감당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의 피로 탄생한 기독교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둘째, 지나친 개교회주의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 극단으로 흐를 때에 이단이 되기 쉽다. 특히 개교회주의 속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교회에 미칠 때는 이미 노회와 총회 그리고 교계의 올바른 조언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과거에 이단들이 어떻게 거대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하면 이런 개교회주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개교회주의는 성도들을 교회에만 묶어 놓아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봉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에 한정되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지 못하고 지역적이며 현세적이며 형태적으로 흐르게 한다. 개교회주의적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오직 개교회에만 국한되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등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김동호 목사는 한 일간지에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사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인도 생겼지요. 건실한 사회인,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교회의 역할을 집중해야 합니다.”<sup>20</sup> 그의 말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교회주의에 묶여 사회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 5) 한국교회의 무속적 요소들

현재 21세기의 한국사회는 무속으로 어울려진 희귀한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계적인 예술인 백남준의 예술이 샤머니즘(Shamanism)과 통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sup>21</sup> 우리 사회는 무속이 마치 미풍양속인 것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우리의 시선을 속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국제회의 및 제 의식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샤머니즘 국제대회에서 학자들이 샤먼 유산의 마지막 발견이 한국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한국의 샤머니즘 보존을 위한 연구가 심도 있게 발표되었다.<sup>22</sup>

과거 역사 속에서 무속으로 종교화된 한민족의 삶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입고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사

회단체들의 행사에서 진혼굿이 자연스럽게 수행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일간지들이 미신을 조장하는 무속광고를 여과 없이 자유롭게 싣는다. 심지어 휴대전화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무속인들의 활동은 어떤 상담자보다도 인기가 대단하다. 서울 강남의 어떤 동네는 무속왕국으로서, 심지어 신세대까지 무속인들이 공략하는 모습이 마스크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무속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미신을 타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하며, 참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샤머니즘에서 샤먼이란 말은 시베리아의 퉁그스족의 언어인 saman(주술사)에서 유래했는데 무녀, 예언자 및 의사를 뜻한다. 만주족의 살만과 인도의 sramana(산스크리트어로 ‘승려’)는 동일 계열의 어원으로 알려졌다. 샤먼의 역할은 병마를 축출하고 재난과 불행을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결국 현재적인 실리 본위의 원시적 종교 형태이다.

한국 무속의 기원이 언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오랜 고대사회 때부터 한민족의 주요한 신앙형태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자들에 의하면 국조 단군이 무당이라는 설도 있다. 무속이 문헌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로서, 김대문에 의하면 신라 2대 왕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왕호(王號)이자 무칭(巫稱)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백제, 고려의 왕들이 무당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한민족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무속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때 멸종한 듯하다가 최근에 한국의 불황과 직업의 불안정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과 특히 신세대 젊은이들 속에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

<sup>20</sup> 「중앙일보」 2002년 1월 10일.

<sup>21</sup> 「동아일보」 2002년 3월 21일. 기사 제목 “백남준 예술세계는 샤머니즘과 통한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n=200203210331&main=1>). “첨단 미디어아트는 한국의 원초적인 샤머니즘과 통한다. 비디오아트와 같은 미디어아트는 가상과 현실 사이에 새로운 교류의 공간을 마련한다. 샤머니즘에서 무당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 저승과 이승, 초월 공간과 현실 공간을 매개하는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한다. 백남준(사진)의 비디오아트도 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sup>22</sup> 「샤먼 유산의 발견」, Unpublished Pape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년.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로 Mircea Eliade, *Shama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가 유익.

<sup>23</sup> 샤머니즘, 『두산백과사전』.

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속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이런 무속적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sup>24</sup> 이런 요소는 전도에서 나타난다. 전도에 있어서 기독교를 기복적인 종교로 오해시켜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마치 기독교가 물질적인 축복을 제공하는 샤머니즘적 종교로 인식되기 쉽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이웃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호의 무속적인 위험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과 정비례한다는 믿음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살고 내 영혼이 매사에 잘된다는 의미로 오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신앙은 현세 중심적 기복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축복을 강조하는 신앙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영혼의 투쟁,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가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영적이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한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와 샤머니즘적 형태를 혼동한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주로 성령은 병을 고치며 신비한 은사를 제공하는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분으로만 이해한다. 병든 자를 고치는 무당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병 고치는 일에만 제한시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오

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제한은 성령의 충만함이 인격적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사회를 위한 봉사로 이어지는 것을 망각하게 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복적 신앙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배경은 목회자가 건전한 신학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원한다.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물질적 드림이나 봉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자신을 위하여 임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가깝다.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자연에 속한 물질을 드린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수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이요, 제물을 통하여 현세에서 복을 얻으려는 무속적 기복신앙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일이다.

## 6) 목회자의 윤리의식 실종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기도 그리고 설교와 심방을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존경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면에 쓰기 민망할 정도로 목회자의 윤리적 붕괴를 맞고 있다.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최고의 윤리적 종교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지도자로서 윤리의 모범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최근 언론이 나타난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목회자 윤리의식 실종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 부천에서 자신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사는 이웃집들에 방

<sup>24</sup> 한국교회와 무속에 관한 연구로 신경하, “무속 현상에 대한 목회적 대응”, 『기독교 사상』 12월(1996), 61-68; 노치준, “한국 기독교와 기복신앙”, 『전통과 현대』 가을호(1998), 134-151.

화를 저지른 목회자가 있었으며, 일반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어 노름에서 번 돈을 주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손을 자동차 바퀴로 밟은 목회자가 있었고, 산업금융채권 위조단을 만들어서 개척교회를 세우며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한 모 신학교의 부학장이 있었으며, 몇몇 목회자들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돈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기들의 공동체에 속한 한 목회자의 아내를 집단 살해하고 오랫동안 시신을 부활시키려고 소동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으며, 평소 지역주민에게 존경받고 참신했던 목회자가 빚을 갚기 위해 외설적인 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 윤리의식 실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먼저 목회자 윤리의식 실종의 심각성은 바로 성적 타락에서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감각의 시대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감각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으로 감각적 성의 드러남이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결혼 전 성 경험은 해마다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 국내 모 대학 학생들의 순결의식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혼전 순결을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욕이 강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조사에서 보듯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성 윤리는 무너지고 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인생을 쾌락적으로 즐기고 보자는 사고가 만연하고 있다. 많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작위로 수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공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성적인 탈선의 문제에 대해 이제 목회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여성상담소에 따르면 19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51건이었으며, 이중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46건으로

나타났다.<sup>25</sup>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년 통계에서도 성직자 관련 성폭력 신고 건은 모두 32건이었다.<sup>26</sup> 하지만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는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회자의 이성문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성문제로 교회에서 사임을 강요당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적 타락은 목회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성 개방 시대에 목회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 그리고 철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가 한국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미국의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역시 교역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27</sup> 최근의 한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어느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는 연 1억 정도의 십일조를 교회에 헌금한다고 한다.<sup>28</sup> 요즘 한국의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조용히 사임하는 조건으로 또는 퇴임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협상하는 실정이다.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목회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교회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자기가 사용하고 심지어 성도들의 헌금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무슨 협의회 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하는 명예의 타이틀에 목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 명예의 직함보다는 섬기는 리더로서, 봉사하는 종으로서,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의 추천과 자신의 헌신된 마음으로

<sup>25</sup> <<http://www.8275.org/article/>>.

<sup>26</sup> <<http://www.sisters.or.kr/>>.

<sup>27</sup> Richard C. Gamble, "Reformed Theology and its Relevance to Evangelical Theology", Unpublished Pap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vangelical Theology,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001), 44.

<sup>28</sup> 「동아일보」 2001년 6월 7일.

로 그런 일을 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명예가 걸린 일에 서로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그것도 돈을 뿌리며 상대 후보와 깨끗하지 못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에 이기려는 현상은 목회자의 윤리에 심각한 병리가 있는 것이다. 최근 어떤 교단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총회장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학자들이 오래전에 주장해 왔던 것으로 한국교회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사건이다.<sup>29</sup>

최근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목회자들 역시 개교회에서 지나친 자신의 카리스마를 강조하지 말고 평신도에 대한 배려와 그들이 개교회에서 받은 바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왕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손봉호 교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목에 힘을 너무 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은 분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윤리에 대하여 몇 가지의 좋은 조언을 한국교회에 남겼다.<sup>30</sup>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맹에 의하여 공식으로 결정된 목회자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목

회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가르침은 위선이요, 성도들의 성화와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된다.”

### 3.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극복을 위한 과제

한국교회는 잘못된 극단적 이원론의 세계관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분리되어 내세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임을 교회에서 주장해야 한다.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화의 변혁자로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을 말해야 한다.<sup>31</sup>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며, 오직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맹목적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참된 기능과 평신도들의 은사에 맞는 교회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의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형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시와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약화되어 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사

<sup>29</sup> 「국민일보」 2002년 1월 3일.

<sup>30</sup> 손봉호 교수가 제안하는 목회자 윤리강령, 「디지털 성결」 제316호 2001년 3월 10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으며, 감정적이고 야비하고 저속한 말을 하지 말며, 일 처리를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으로 하며, 편견, 편애, 과장, 왜곡을 피해야 한다. 소득과 소비에 있어 절제하고 검소하며, 자격 없이 명예, 지위, 권리의 획득을 시도하지 않으며, 가정에 충실하고 이성문제로 어떤 오해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호와 취미 활동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으며, 타 종교인에 공정하고 예의를 지키고, 공익을 위한 사회적 활동은 하지만 파당적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http://www.kehnews.co.kr/news/2001/316/인물손봉호.htm>>.

<sup>31</sup>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1986).

량과 기도,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개교회주의는 기독교의 연합성과 통일성을 간과하여 지나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잘못된 개교회주의 사고를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고의 실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적용과 성령이 하나로 매는 역사를 통하여 새롭고 건전하게 성숙해질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머니즘의 요소들을 스스로 버릴 때가 되었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기복적 물질의 풍성함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기복적인 강조는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축복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또 현세 중심적 구원의 축복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지, 현세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목회자 윤리에 대한 의식을 먼저 새롭게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목회자는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나치게 비성경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하며, 주의 종으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영성뿐만 아니라 전 인격의 수양도 필요하다. 복음 전파에 헌신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윤리가 무너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윤리 회복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 4. 결론

한국교회의 여러 신학적 문제점은 다양한 한국적 상황에서 형성되었

다. 또 현대의 세속적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철을 많이 닳아 가는 현상은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실시되며, 신학과 목회가 성경으로 검증 받아 참된 교회를 위한 올바른 신학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은 이제 그 극복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Biblical Perspective and Christian Attitude  
Regarding the Economic Crisis

■ 김성봉 Kim, Sung Bong

- 대신총회신학대학 교수
-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 1. 우리 사고의 전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때로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권위가 서로 엇갈리며 만나게 될 때에 자칫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권위를 그 근거로 인정하고 그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제반 권위들을 배타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각각의 권위들을 나름대로 인정하되, 그 궁극적인 권위의 근거를 성경에다 두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1)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라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문자대로 인용하고 적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에는 성경 특유의 해석 원리가 있고, 그 해석 원리에 따라 해석된 결과들을 우리의 생각과 삶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리켜 성경 중심이라 일컫는다. 성경 중심의 자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뿐 아니라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성도가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다.

### 2) 교회/하나님의 백성 중심의 역사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실 때에 교회/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대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상대하셔서 전 애굽을 다루셨으며(창 41장 이하), 요나를 상대하셔서 그 배와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루셨으며(욘 1장), 또한 다니엘을 상대하셔서 전 바벨론을 다루셨다(단 1-6장). 그리고 바울을 상대하셔서 배에 탔던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과 죄수들을 다루셨다(행 27장). 눈을 들어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이러한 면을 너무나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 지구상에서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의 역사를 그들을 중심으로 엮어내셨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담당자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요나 때문에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보아야 하겠다는 말이다.<sup>1</sup>

## 2.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

이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교회에 허락된 기회를 잘못 쓴 데 대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라고 보여진다.

### 1)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때 말하는 '기회'란 물질적 풍요, 건강, 지위 등 이 세상에서 남달리 받은 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제대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와 질적으로 다르다.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일단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면 그만이다. 받은 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전통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그분의 관심에 따라서 쓰는 일이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받은 기회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때로는 잘못 쓴 결과에 따른 책임이 중하여서 차라리 그런 기회를 받지 않

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때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면서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그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에 받을 징계까지도 미리 경고하심으로 더욱 경성하여 그 기회를 제대로 쓰도록 하셨다. 예를 들어,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잘 지켜 살도록 주신 것이다.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도록 권고하신 많은 말씀들<sup>2</sup>도 그 기회를 주신 목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은 그 기회를 받은 자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표현들이다.<sup>3</sup>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기회를 받아놓고도 그 기회를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고 되묻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에 그 받은 기회를 심판거리로 만들게 되고 말 것이다.

<sup>2</sup>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신 15:7-11).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신 24:14-22).

<sup>1</sup> 조용훈 교수는 “IMF 시대의 한국교회의 윤리적 과제”(『기상』 471호, 98년 3월호)란 글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대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문제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야 할 것을 권하면서 “우리의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실패가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필자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를 말하고 싶다.

## 2)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 기회를 자기 관심대로만 써 버리는 성도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주신 분의 관심에 따라서 제대로 쓰는 일이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관심대로 써 버린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취하였던 자세와 행동들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호 13:6).

<sup>3</sup>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얻게 하시며……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0-13).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신 8:11-20).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신 28:47-48).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신 32:15).

## 3) 기회를 거두시고, 차압된 기회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중의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이다. 에스겔서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구구절절 그려져 있다. 풍요를 구가하던 그 백성을 내몰아 기근과 궁핍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당하게 하며 심지어 전쟁을 당하여 죽게까지 만드시는 목적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sup>4</sup> 그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겔 20:26).

풍요와 여유 속에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것을 빈곤과 궁핍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 3. 자본주의의 발전에 끼친 칼빈주의의 긍정적인 영향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합리적인 종교생활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은 효력이 있는 신앙을 갖자면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특히 경제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리적인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직업과 노동은 이 생활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간주되었다.<sup>5</sup> 이러한 자세의 기반과 근거를 형성한 칼빈의 가르침과 칼빈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미쳤을 긍정적인

<sup>4</sup> 겔 67과 그 관주.

영향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앙에 근거한 금욕주의

양창삼은 칼빈의 경제생활윤리로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현세를 경멸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극단을 피하는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데,<sup>5</sup>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근대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 자기부정의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

그에 의하면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적 삶의 전제는 자기부정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의 미덕을 갖추어야 하며, 교만, 허영심, 탐욕, 방탕, 쾌락, 방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부정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순종을 가르치며 결국 구원의 영적 기쁨과 소망을 준다. 부와 명예를 얻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형통하는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릴 때 오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때 십자가를 허용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오만을 방해하고 진압하신다고 한다.

#### (2)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현세를 경멸하지 않음

칼빈은 우리가 현세를 과대평가하여 부와 권력과 명예의 외적 광채에

눈이 어두워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것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그 때문에 세상살이를 싫어한다든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 (3) 극단을 피하는 생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버려서도 안 되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 세상에 살되 성경의 교훈을 좇아 세상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한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진정한 감사로 남용을 억제하여야 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며, 궁핍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 2) 돈과 노동과 임금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되살림

비엘러에 의하면, 칼빈은 최초로 물질생활이 구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리라고 이해하였다.<sup>7</sup> 칼빈은 신앙과 세상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세속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의 기독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었으며, 신앙생활은 중세적인 태도로 재물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 전체의 물질생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신앙의 지평으로부터 배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생활의 종이 된다. 이처럼 물질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자 정신과 물질을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고대 기독교 전통은 깨어졌다.

<sup>5</sup> 양창삼, 『기독교와 현대사회』(1997), 244.

<sup>6</sup> Ibid., 256 이하.

<sup>7</sup>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10.

물질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킨 칼빈의 입장은 청교도 사회의 경제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제 관계는 만물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던 상황으로부터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음화와 선교는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두 가지는 경제생활을 회복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조건이다. 이처럼 한때 교회의 멸시를 받았던 경제생활을 칼빈이 회복시킴에 따라 청교도 사회의 발전에 주목할 만한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은 분명하다.<sup>8</sup>

#### (1)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돈

칼빈은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친다. 돈은 이러한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과 그의 동료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돈은 단순히 공리주의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명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돈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저주의 표시이다. 즉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의 소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은총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에겐 저주의 표시이다.<sup>9</sup>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양면적으로 시험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를 진실로 믿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일부러

돈이 부족한 상황 속에 빠뜨리시며, 또한 하나님은 풍요, 번영, 단순한 위로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sup>10</sup>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읽어내신다.<sup>11</sup>

#### (2) 노동과 임금

노동의 원리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그의 선조들에 비하면 혁신적인 것이었다. 중세 신학자들은 중세의 기독교 교리에 부응하여 노동을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세속적 의무로 생각했다. 그러나 칼빈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엄격히 연관시켰다. 그는 복음이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인간의 활동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정신적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칼빈주의적 이념을 계승한 사회가 발흥하여 발전되기에 이르렀다.<sup>12</sup>

노동에 비하여 임금은 칼빈이 직접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적정한 봉급의 문제를 논의할 때 가설적인 자연법에서 출발한 하나의 규범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임금이 하나님의 무상의 보수라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그 문제를 직접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했다. 봉급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권위를 부여받은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감안해서 책정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sup>13</sup>

이처럼 칼빈이 돈과 노동의 기능을 되살려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인간들이 노동을 통해 돈 버는 일을 이상화한

<sup>8</sup> Ibid.

<sup>9</sup> Ibid., 56.

<sup>10</sup> Ibid., 57.

<sup>11</sup> 리처드 포스터,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역 (서울:두란노, 1995)이 참고할 만하다.

<sup>12</sup> 비엘러, op. cit., 84.

<sup>13</sup> Ibid., 91-92.

것까지 칼빈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칼빈은 돈과 노동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 3)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경제관

비엘러에 의하면 칼빈의 경제관은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한다.<sup>14</sup> 개인과 사회를 함께 보는 경제관을 제시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주었다. 칼빈은 개인의 경제적 책임과 국가의 통제가 균형을 이룰 때라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재적인 통찰이다. 복음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인간의 개인생활을 완전히 꽃피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칼빈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그는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유대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경제생활에 적극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만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애매모호함을 인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만 개인의 권익만을 보호하면 조화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칼빈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두 극 사이에서 항상 새로운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부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말하면서 질서가 상실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일방이 희생되면서 다른 일방이 재산을 획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산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5</sup>

<sup>14</sup> Ibid., 50.

<sup>15</sup> Ibid., 73.

#### (1)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관심

다음의 인용문들은 칼빈의 경제 및 사회사상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개인과 사회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그의 균형 잡힌 경제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상의 물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들의 권리는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물품을 탐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견디어 내야 한다. 우리가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 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악한 욕망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sup>16</sup>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직하게 일해야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sup>17</sup>

#### (2) 인간들 사이의 재산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이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재산의 불균형 현상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은 끊임없는 재산의 재분배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

<sup>16</sup> Ibid., 113.

<sup>17</sup> Ibid., 113-114.

다. 이러한 재분배는 더 부유한 자들로부터 더 가난한 자들에게로 향한 것이다.<sup>18</sup> 이런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특히 사회적 삶은 부단한 상품의 교환이요 인간의 상호보완적 삶과 의무적 연대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sup>19</sup>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부의 순환에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사심 없는 선물이 전달되는 것을 유발시킨다.<sup>20</sup>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또 평등한 태도를 서로 갖추으로써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자나 지나치게 적게 소유한 자가 없기를 원하신다.”<sup>21</sup>

이처럼 모든 회원들 사이에서 물품을 상호 교환하는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칼빈은 집사제도를 새롭게 설립하였다.<sup>22</sup> 집사들의 의무는 공동체의 회원들 사이에서 재산이 상통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 영적 단결력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 4) 상업 그리고 은행

칼빈은 교역과 상업이 사회 안에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 차지하는 섭리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해 낸 최초의 신학자이다.<sup>23</sup> 칼빈은 사회 활동에 내포된 몇 가지 위험들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남용하거나 과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업이 지닌 하나

님의 섭리로서의 역할과 본래적 권위를 강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직한 계약, 계량 기구의 정확성, 상업윤리, 독과점에 대한 경고 등은 오늘날도 현대 경제학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다.<sup>24</sup>

화폐경제에 대한 칼빈의 경제사상은 가장 명료하며 또한 가장 혁명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한다.<sup>25</sup> 칼빈은 이자대부의 원리를 구체화시켰는데, 이 원리는 신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며 경제생활을 크게 촉진시킨 것이라고 한다.<sup>26</sup> 또한 칼빈이 성경 안에서 발견한 경제의 원리들은 현대 경제학의 효시가 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경제적 현실을 매우 명료한 안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이 이자 또는 고리대금업에 관해 말할 때에는 산업 대부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27</sup> 또한 칼빈은 돈이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라고 확언한다.<sup>28</sup> 그러면서도 그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성의 모습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sup>29</sup> 칼빈은 당대의 경제학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이자율이 생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모든 이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지불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sup>30</sup>

이처럼 칼빈이 신앙세계에서 이자 대부를 허용한 것은 역사상 큰 전환점을 형성했다. 칼빈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과 통제를 가했던 것과 더불어 그의 후계자들은 몇 가지 유보조항을 더 마련했는

<sup>18</sup> Ibid., 58.

<sup>19</sup> Ibid., 58-59.

<sup>20</sup> Ibid., 59. 우리는 여기에서 칼빈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대한 주석에서 밝힌 바 있는 ‘만나 분배의 원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sup>21</sup> Ibid., 68.

<sup>22</sup> Ibid., 69.

<sup>23</sup> Ibid., 96.

<sup>24</sup> Ibid.

<sup>25</sup> Ibid., 97.

<sup>26</sup> Ibid., 100.

<sup>27</sup> Ibid., 101.

<sup>28</sup> Ibid.

<sup>29</sup> Ibid., 102.

<sup>30</sup> Ibid., 103.

데, 이 조항들이 그들의 정신을 보여 준다.<sup>31</sup>

#### 4. 교회와 경제생활

##### 1) 교회의 수입

교회의 수입은 주로 헌금에 의존한다. 헌금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에 의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헌금 중에서도 특별히 십일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신약교회 시대에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십일조를 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쟁고 가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누가 구원의 문제를 십일조와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 땅에 건전한 종교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권장할 것이 십일조라고 말하고 싶다. 십일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현이다. 쉼여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일에 십일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적절한 기준으로 십일조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의 수입이 주로 십일조에 의존하지만 그럼에도 헌금 이외의 수입원이 있을 수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수익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교회가 합법적인 수익 수단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 헌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지라도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혹 그 용도에 따라 면세조치가 있을 때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유관 기관에서 장학이나 선교나 구제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청교도 설교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그 영향력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시도가 '청교도 재산 관리인'(feoffees)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 일은 위원회 혹은 협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1626년에 시작되어 윌리엄 구지와 리처드 십스에 의해 인도되었다. 평신도가 토지를 구입하고 청교도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그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위원회는 12명의 재산관리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목사, 법률가, 시민 각각 네 명씩이었다. 그들은 7년 만에 약 6천 파운드를 모금해서 그것으로 열세 군데의 땅을 구입했으며, 그들은 '복음의 보다 광범위한 전파를 위해 도시들과 시골 여기저기에 있는 시장 마을들에 강력한 목회자들을 심고자' 했다.<sup>32</sup>

##### 2) 교회의 지출

교회의 재정은 주로 헌금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요하게 된다. 때문에 교회에서의 재정 지출은 투명하고 공의로워야 한다. 그런 면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수증 처리를 확실시 하며 회계장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교회의 지출은 일차적으로 목회자의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평균 수입을 조금 웃도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목회자의 생활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성도들과는 동떨어지게 사는 듯이 여겨져도 안 되었고, 너무 적게 책정되어 궁하게 보여도 좋지 않다. 목회자에게 따르는 경제적 궁핍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sup>31</sup> Ibid., 103-104.

<sup>32</sup> 피터 톤, 『청교도와 칼빈주의』, 양낙홍 역 (서울:CLC, 2009), 43.

종교개혁 이후 취리히에서 수도원들이 폐쇄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새롭게 개신교 목사의 신분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나타난 문제는 당연히 목회자 가정의 경제적 부양이었다. 당시 취리히 교회의 재산은 불링거가 교회 의장으로 선출될 때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충분치 못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 때문에 당시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목회자로 부름 받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이 거의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엄격한 학문과정을 밟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교회의 봉사자가 되더라도 그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었다.<sup>33</sup>

시대정신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목회자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어디까지나 사례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과세 문제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종래에 주장되었던 사례로서의 의미가 이미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공교회적인 면을 더 나타내려면 목회자의 생활비가 최소한 노회 단위로 목회하는 교회의 위치나 규모를 초월하여 어느 정도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아니하다. 적어도 총회적으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노회적으로 목사 고시를 치러서 목사로서 안수 받은 경우에는 총회와 노회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최저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시대적 배경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교개혁 당시의

불링거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자. 그는 교회와 수도원의 자선기금을 목회자들을 위한 학교의 개선과 함께 일반 어린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와 라틴어 학교들을 개선 확대시키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취리히 학교들의 새로운 준비는 그 사회의 개혁주의 신앙정신에 부합된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권위와 인권의식을 발전시키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신장 속에서 그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단순히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제도 개선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켰으며, 농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가난한 친척들을 돌보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도로개공사 같은 일자리 창출이나 수공업 관련 직업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있도록 도왔다. 그 밖에도 공공기금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땀감이나 옷 그리고 집세를 보조하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시민들에게 자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한 가난과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공동체 의식을 고무시켰다고 한다.<sup>34</sup>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교회의 경제적 활동의 폭이 훨씬 줄어들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의 때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보장 제도이다. 정상적인 수입이 있을 때에 매월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한 성도에게는 그가 실직이 되어 경제적 어

<sup>33</sup> K. J. Rueetschi, Bullinger, der Schulpolitiker, in Der Nachfolger Heinrich Bullinger (1504-1575), S. 69. 박상봉, “취리히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사역”, 5(미간 논문)에서 재인용.

<sup>34</sup> 사회적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 불링거는 다양한 글들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상기할 수 있다: “새로운 이자법”(Eine neue Zinsordnung, 1534),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Zur Armenfuersorge, 1558), “고리대금업에 대한 조치”(Massnahme gegen den Wucher, 1568), “가난 극복을 위한 제안”(Vorschlag zur Bekaempfung von Armut, 1572). 박상봉, “취리히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사역”, 6(미간 논문)에서 재인용.

려움을 당할 때 최소한 그가 평소에 한 십일조에 준하는 금액을 구제비로 되돌려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인 구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겠지만……. 구약에서 언급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배려는 오늘날 교회가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구제의 폭이라 생각한다. 일차적으로는 교회 내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 밖 인근 주민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위협받을 때에 출산에 대한 장려의 뜻으로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일도 교회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같은 교회공동체에 속한 어느 가정의 자녀도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누리는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업을 지속하는 일이라든가, 재능을 개발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웃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복지와 관련된 일들은 교회가 성경의 정신에 따라 먼저 개척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그 좋은 결과를 사회가 보고 좋게 여겨서 국가적인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신앙적 대처방안

### 1) 경제문제에만 마음 쓰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

우리는 이런 형편을 당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경제문제에만 쏟기 쉬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의 근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며, 하나님도 나아진 것이 없게 되는 셈이다.<sup>35</sup>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그것을 붙들고 씨름

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본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는 이 기회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금식과 철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크고 많은 것을 받아내는 데만 온통 우리의 관심을 쏟았을 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들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철야하고 금식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환경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우리는 실직과 공황의 불안에 떨며, 실제로 배고픔과 혈벗음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배고프다고 보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고평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 2) 기회를 잘못 쓴 데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마음 자세, 영적 실력을 길러야 함

풍요의 기회를 차압당하게 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떠나가는 풍요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일반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다.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든지, 일부를 거두어

<sup>35</sup> 박충구 교수도 “IMF 위기에 직면한 교회의 사회윤리적 과제” (『기상』 471호, 98년 3월호)란 제목의 글에서 “나는 이 IMF 시대에 우리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대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가치가 붕괴할 때, 인간을 지키고 참된 의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더욱 강한 교회가 요청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그는 “경제적 번영이 다시 찾아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해도 좋은가?”라고 묻고는, “그렇지 않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종교인들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IMF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시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밑 빠진 독 같은 우리에게 풍요를 쏟아 부어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신의 심판거리만 장만하지 않겠는가?

떠나가는 기회를 부여잡으려고 허우적거리기보다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소원과 관심에 따라서 살기를 결심하며, 그 결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sup>36</sup>

### 3) 다시 기회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세라도 회복하게 되면 인생으로서는 그다지 손해가 아님을 알아야 함

많은 경우에 기회를 차압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를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한다. 회개만 하면 그 기회를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 기회를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되돌려 받는 데 마음을 쓴다면 그 역시 바른 회개라고 말하기 어렵다.

<sup>36</sup> 박충구 교수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고질적 병폐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였다: a. 한국교회에 깊이 몰들어 있는 편가르기 문화 b. 물질만능주의의 수용 c. 자기도취 d. 진실한 지도자의 부재(상계서)

손인웅 목사도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a. 신학교육 개혁과 신학교 난립을 정비함으로써 지도자 양성을 바르게 해야 하며, b. 한국교회의 목표를 성장지상주의에서 성숙을 통한 성장으로 바꾸어야 하며, c. 교회의 구조와 제도와 의식과 선교방법 등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해야 하며, d. 교회운영의 민주화와 교회예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성도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야 하며, e. 평신도들의 자원을 개발해서 선교와 봉사의 자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하며, f. 한국교회가 미래사회에 기여해야 할 역할들을 정립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기상』 471호, 98년 3월호)

그 기회를 되돌려 주시고 아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다. 그 때문에 기회를 되돌려 받고 아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도로서 힘쓸 일은 오직 회개에 전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기회를 되돌려 받는 것만 은혜인 것은 아니다. 다시 기회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요, 바른 마음 자세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작지 않은 은혜이다.<sup>37</sup>

### 4) 성도를 멸하시기보다 성도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징계일진대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와 감격을 드려야 함

성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7-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10절)이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10절)이라고 하였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성도로 살면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8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나라”(11절)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비록 가혹하고 견디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징계라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달게 받아야 하겠는가! 온 세상이 다 운다고 성도들마저 울어야 하겠는가? 이제 이 같은 내면을 본 성도들은 지금 처지에서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sup>37</sup> 조용훈 교수는 IMF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 a. 회개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b.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c.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d. 새로운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등이다(상계서).

‘버려두심’ (롬 1:24, 26, 28)으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니 감사하고, 간섭하셔서 새롭게 빚어 가시니 더욱 감사하다. 시선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좀 더 잘 먹고 잘사는 문제에 대하여는 초연하게 된다.

### 5) 성경적 삶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야 함

처음부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어야 마땅하지만, 한발 뒤늦게 후회하고 고치는 것이 인간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인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겠다. 그럼 어떤 것이 성경적 삶의 원리인가?

(1)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여야 하겠다.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교훈 서신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 6:6)라고 하였다.

(2) 받은 기회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신 분을 자랑하여야 하겠다.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중하면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하였는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자각을 가진 성도로서는 헛된 자랑을 버려야 하겠다. 이 같은 정신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

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렘 9:23-24).

(3) 받은 기회를 자신의 관심에 따라 쓰지 말고 주신 분의 관심에 따라 쓰야 하겠다.

우리는 여태껏 내 손에 가진 것을 거의 내 맘대로 다 써버렸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비록 내 손에 주어졌으나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며, 나는 단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청지기는 제 맘대로 쓰는 자가 아니다.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쓰는 자이다. 우리에게 이 정신이 분명히 세워져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될 때 비로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이해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만 되면 먹고 마시는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남들보다 더 받은 기회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하겠다.

이제까지는 남들보다 더 받은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세우며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고, 또 그러한 자세를 당연시 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며 살아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5-27).

이러한 정신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그때로부터도 천여 년 전에 솔로몬의 아들을 자문하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갈파하였던 정신이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왕상 12:7).

## 6. 기대

###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아야 함

징계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동시에 시련이기도 한데, 징계에 목적이 있듯이 시련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무슨 목적인가? 앞서 살았던 성도 옅은 시련의 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순금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도의 내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 선생이 말한 인내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인내나 연단 같은 것이 아닌가?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2-3)라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라고 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거치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야 하겠다.

### 2)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

풍요와 안일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성도다운 모습을 빈궁과 곤란 속에서 다시 찾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으며, 이 같은 성숙을 어찌 가볍게 여기겠는가! 지나치게 비대한 재벌들이 제대로 내실을 갖추지 못하여 오늘의 경제난국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일면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그 같은 논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리라 생각한다. 대형교회의 그늘 아래 안주하며 제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성도인 양 행세하던 성도들도 차제에는 정신을 차려 제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건실한 신앙 수준을 갖춘 중소 규모의 교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3) 이 같은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 또한 주시기를 간구함

아무췌록 우리 국민들 모두 이 난국을 잘 감당하여 예비하신 성숙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빈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1545-1598)<sup>1)</sup>

Sacred Hero, Admiral Yi Sun-shin(1545-1598) Read Through the  
Lens of “Yahweh’ s Holy War” in the Hebrew Bible

■ 김진섭 Kim, Jin Sup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B.A.)
- 고려신학대학원(M.Div.)
- 미국 Covenant 신학대학원(구약학 전공, Th.M.)
- 미국 Dropsie 대학원(고대근동학 전공, M.A., Ph.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
-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 들어가면서

1591년 일본 전국을 평정한 도요토미(豊臣秀吉)가 7년간의 임진왜란(1592-1598) 동안 조선에 투입한 왜군이 약 20만 명이었고, 제1진 고시니(小西行長) 부대가 부산(1592. 4. 14)을 침공한 이래 서울(5. 2), 평양(6. 13)을 위협하는 파죽지세의 북상에 조선은 거의 무방비상태였으나, 결국 11개월 만에 병력의 65.8%를 상실하고 전면 철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별히

제2차 침공(정유재란, 1596-1597)에 약 14만 1천5백 명과 수군 600여 척에 조선 병력은 약 3만뿐이었던 위기를 고려해 볼 때, 본 논고는 한국사에 가장 암울하고 위대한 시기에 일본이 약 7년 동안 23번 한국을 침략하였고 한국의 지상군은 패전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신비롭고 탁월한 인격과 삶의 모본으로 육군 15년과 함께 특별히 수군 7년의 군 생활 중에 23회 해전에 전승(全勝)한 ‘세계사에 최상의 명장’ 이요,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의 생애(1545. 4. 28-1598. 12. 16)를 히브리성경<sup>2)</sup>을 중심으로 “여호와와의 전쟁신학”<sup>3)</sup>이란 안경<sup>4)</sup>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충무공<sup>5)</sup> 이순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의 ‘어떻게’란 단어에는 우리가 어떤 ‘안경’(관점, perspective)을 끼고 이순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복잡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한 시대로 끝날 수 없는 그 신비한 인격과 공헌에 대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성웅 이순신을 어떤 안경을 끼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은 최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sup>6)</sup>

첫째, 이순신 자신의 일기에 근거하여, 자신의 평전을 첨가한 남천우의 『평역 이순신 자서전』(미다스북스, 2007)과 노승석의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동아일보사, 2006)이 있다.

<sup>1)</sup> 본 논고는 지난 2005년 봄에 다시 불거진 ‘독도’와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말미암아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인의 ‘끓는 냄비’ 근성에 의해 일시적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동기와, 때를 같이 하여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KBS1TV 매주 토-일 밤 9시30분)이 100회 방영을 목표로 2004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2005년 5월 15일에 제74회를 맞으면서 시청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연합신문」, 2005년 5월 25일 7월 5일까지 7회 연속 게재된 김진섭, “성경으로 보는 성웅 이순신”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둘째, 이순신의 병법에 관하여, 7가지 병법 원리(병력집중, 화력집중, 주도권 확보, 정보획득, 지리이용, 만전, 선승구전(先勝求戰))를 연구한 임원빈의 『이순신 병법을 논한다』(신서원, 2005)와 손자병법과 이순신 연구의 독보적 존재인 예비역대령이자 신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노병천의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21세기군사연구소, 2005)와 『이순신대학 불쾌학과: 명량

대첩』(책발, 2011)을 추천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사실보다는 문학적 형상화에 힘입은 장편소설로서, 1908년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발표한(5월 2일-8월 18일) 『리순신전』부터 북한의 장편소설인 김현규의 『리순신 장군』(북한문예출판사, 1990)과 김훈의 2권으로 집필되어 남한 인구 4,500만 명 중 1,000만 명에 가까운 독자를 확보한 『칼의 노래』(생각의나무, 2003)를 거쳐, 텔레비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100부작)의 대본으로 전 8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집필된

<sup>2</sup> 구약성경을 '히브리 성경' (Hebrew Bible)이라 표현하는 국제적 관행을 이 논고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한글의 '문화어' (Kulturwort)로 고정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란 표현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1) 오리겐(185-284)이 '구약' 과 '신약' 을 각각 '구약성경' 과 '신약성경' 과 동일시하여, 구약성경은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의 정경이며, 신약성경은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정경이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고, (2) 따라서 렘 31: 31-34에 유일하게 사용된 '새 언약' (베리트 하다샤)이 일차적으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여, 31절("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이 지적하는 기존한 옛 언약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마치 부정과 불륜으로 결혼언약 증거가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각기 차례대로 멸망되었지만 다시 미래의 통일된 이스라엘로 부활되어 그들에게 주실(겔 37:1-14, 15-28) '새 출발', '새 관계'로서의 '새 언약' 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신약교회에게만 주신 것으로 알레고리 해석을 해왔으며, (3) '새 언약' 을 헬라어 70인 역본이 '디아세케 카이네' 로 번역한 것은 '언약' 이란 단어인 '순세케' 가 안고 있는 '동위' (순) 조약의 문제점보다는 차라리 '유언' (디아세케)이란 의미지만(히 9:16-22 참조), 어디까지나 일방적(디아) 계약임을 강조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된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하고 라틴어 성경이 testamentum(유언)으로 잘못 번역한 것을 영어성경이 그대로 사용하여(Testament)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4) 한국어로 성경을 가리키는 관행이 순서대로 '구약성경' 이 아니라 '신구약성경' 이 되어, 마치 성경을 읽는 방식("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는다")이나, 선호도("구약보다 신약을 선호한다": 따라서 교회 출석 시 신약성경만 달랑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나, 내용상의 우월("신약이 구약보다 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우월하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류호준, "예레미야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해설", 『성경의 구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황창기 교수 교회(古稀) 기념 논문집』, 한국동남성경연구원 편 (서울:그리심, 2012), 173-194, 특히 182-185; 김진섭,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회복과 성령님의 사역: 이사야 44:1-5를 중심으로", 『성경의 구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43-172, 특히 146-153.

<sup>3</sup> 출판연대를 따른 구약성경의 전쟁신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조.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atrick D. Mille Jr., The Divine Warrior in Early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 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Millard C. Lind, Yahweh Is a Warrior: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Schottsdale, PA: Herald, 1980); Peter C.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기독교와 전쟁문제』, 김갑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Carola Kloos, Yahweh's Combat with the Sea (Leiden, London: E. J. Brill, 1986);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W 177; Berlin: Gruyter, 1989); Tremper Longman III and Daniel G. Reid, God Is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거룩한 용사』, 성종현 역 (서울: 솔로몬, 1996); Harold Wayne Ballard, The Divine Warrior Motif in the Psalms (North Richland Hills, TX: Bibal Dissertation Series, 1999); Richard Nysse, "Yahweh is a Warrior," Word and World 7 (1989), 192-201; Herzog Chaim and Gichon Mordechai, Battles of the Bible (London Stackpole Books, Pennsylvania, 1997); John A. Wood, Perspectives on War in the Bible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John Day, God's Conflict with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Brad Kelle, Ancient Israel at War 853-586 BC (Essential Histories 67: London: Osprey Publishing, 2007); Heath A. Thomas, Jeremy Evans and Paul Copen eds. Holy War in the Bible: Christian Morality and an Old Testament Proble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 한글 저서로서는 윤용진, 『여호와와 전쟁신학』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0); 노병천, 『성경의 전쟁사』 (서울: 줌은문, 1997); 『하나님 병법』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성경적 승리학』 (서울: 양서각, 2006);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서울: 대서, 2008).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황금가지, 2004)이 있다.

넷째, 장편서사시(epic)로서 민족 최대의 위기였던 이순신의 임진왜란 7년 전쟁(1592-1598)과 유사한, '생존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민족 수난의 위기 시대인 6·25남침(1950-1953) 동안 임진왜란 360주기에 맞춰 '지성'(至誠)을 이순신의 정신적 기저로 이해한 김용호의 『남해찬가』(해동문화사, 1952)가 있다. 그리고 벼슬 없는 자가 타율적 강요에 의한 형벌(선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출정명령에 대한 불복종)로서 군대를 따라 전쟁에 가는 표면적 고통의 '백의종군'과 원균의 모함과 아들과 어머니의 죽음 같은 내면적 고통의 '백의종군'을 이순신의 정신적 기저로 삼고, 이순신을 선험적인 '하나님 의식'을 가진 신앙인으로 보아 그의 구국일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연유한다고 노래하는 목사요 신학교수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시상을 전개한 한국문학 최대의 장편 서사시인 김성영의 『백의종군』(창조문예사, 1978년 초판의 2010년 완전개정)이 있다.

흥미롭게도 2004년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첫째, 국가흥망의 위기 속에서 지도층이 중심을 잃고 표류할 때에도 흔들림 없는 애국심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신념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구습을 완전히 타파하여 철저한 준비와 개혁 의지로 부하들을 이끌던 이순신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지도자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시대의 무한 국가정쟁과 경제전쟁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칠전량(1597. 7. 16) 전투에서 대패하여 단 12척의 배만 남긴 참담한 현실과 설상가상으로 수군을 없애겠다는 조정의 위협천만한 공포 앞에서 '상유십이'(尙有十二, "오허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외치며, 13척의 배로 130여 척 적선의 섬멸을 부하장병에게 엄명하며 격려하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반드시 죽으려하면 곧 사는 것이요, 반드시 살려 하면 곧 죽는 것이다"), '일부당정족구천부'(一夫當 逕 足 懼 千 夫, "한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천 사내를 떨게 하기에 족하다")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셋째, 당쟁과 국론분열, 무지한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은 순한 인재들의 결집을 방해하여 임진왜란을 자초했다는 역사적 정황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유사점이 많아 과거의 역사로 오늘의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sup>4</sup>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의 출간이 던진 성경해석학의 긍정적 파장으로서는 다양한 '관점'을 따른 성경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개괄적인 논의를 위해 Vern S. Poythress,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Philipsburg: P & R Publishing, 1987)와 동일 저자의 *Science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of Scientific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Foundations of Contemporary Interpretation v. 6; Grand Rapids: Zondervan, 1988)을 보라. Poythress는 전통적 서구신학이 주로 죄책(guilt)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의미로 오랫동안 구조화되어 온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에서 벗어나, 이제 현대 세속주의자들의 관심사인 '삶의 의미'와 관련된 '가족신학'(familial theology)이나, 제3세계의 부족문화의 주관심사인 '악령의 세력을 이기는 법' 등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면서 이런 연구는 로마서 7장, 시편 23편, 사무엘상 17장 등의 알려진 본문의 새로운 진리 발견이 가능하다고 결론 맺는다(그의 책, 160-161). 구약성경의 경우, (1) '구약의 성령님'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김진섭, "구약의 성령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성령: 그 말씀』(서울: 두란노, 2010, 4월호), 22-41; (2) '구약의 치유신학'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Michael L. Brown, *Israel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김진섭 역, 『구약의 치유신학 개론』(서울: 대서, 2010); (3) '구약의 신현(theophany)'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Jeffrey J. Niehaus,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김진섭 역, 『시내 산의 하나님』(서울: 이레서원, 2009); (4) '구약의 선교신학'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김진섭, '구약의 선교학적 읽기', 『기독교신학저널』(2005 봄), 7-34; '구약의 선교학적 읽기(2)', 『기독교신학저널』(2005 가을), 23-62.

<sup>5</sup> 순국 후 45년이 지나 인조 21년(1643)에 익호(諡號)를 '충무'(忠武)라 불렀다.

<sup>6</sup> 필자는 이순신 연구방법론에 대해 해군사관학교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최영호, "이순신 '장편서사시'의 문학적 의미-김용호의 『남해찬가』와 김성영의 『백의종군』을 중심으로", 김성영, 『백의종군』(서울: 창조문예사, 1978, 2010 완전개정), 430-501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

주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결코 패배한 전쟁이 아니며 침략자 일본의 의지를 꺾고 조국을 지킨 승리의 전쟁이며,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에 상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일사각오로 승리한 이순신은 오늘 의 한국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기획 의도는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인 성삼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점에서의 역사해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필자는 이 논고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적 안경을 끼고 이순신을 조명한 노병천과 김성영의 작품들을 참조하면서,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을 끼고 성웅 이순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영도하는 해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대첩(1592. 5. 7)을 시작으로, 그 유명한 한산대첩(1592. 7. 8)과 결정적 승리인 명량대첩(1597. 9. 16) 및 패주하는 일본 해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노량 일대의 관음포(현 남해대교)에서 이순신 장군이 순직하는 노량대첩(1598. 11. 19)에 이르는 4대 대첩을 오늘의 한국과 한국 교회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특별한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후론하겠지만, 임진왜란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이며, 오늘의 한국을 가능케 한 명량(울돌목)해전(1597. 9. 16)에 대하여 지난 400년간 잘못 해석되어 온 허와 실을 최고의 군사전략가다운 ‘철저성과 정확성’으로 각종 문헌, 해상지도, 사진, 도면, 통계, 수치, 이론, 병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병법임을 드러낸 노병천의 공헌은 크다.<sup>7</sup> 동시에 순국 전날(음력 11월 18일) 밤 배 위에서 드린 장군의 최후 기도인 ‘차수약제 사랑무감’ (此讐若除 死郎無憾,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도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겯세마네 동산의 기도나,<sup>8</sup> 장군이 남긴 최

후의 한 마디인 ‘전방급 신물언아사’ (戰方急 慎勿言我死,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하나인 “다 이루었다”와 연계하는 김성영의 영적 통찰은<sup>9</sup> 흥미롭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고에서 히브리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는 이순신을 고찰하여,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이전인지라,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의 3중 노예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엡 2:1-3) 한국을 세계선교 사명을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반은총적 역사가 성웅 이순신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피므로, 하물며 21세기를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회복해야 할 인격적 성화의 증거와 역사적 복음정신과 남북통일과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선교 사명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1.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와의 전쟁신학

익명의 한 노르웨이 통계학자는 지난 5,560년 동안에 무려 14,530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연평균 2.6회의 전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전쟁의 현실을 보면,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에서 1945년에서 1990년까지 2,304주 가운데 단 3주만이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0</sup>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역사적 진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무려 130여 개의 전쟁<sup>11</sup>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삼상 17:47; 대하

<sup>8</sup> 김성영, 『백의종군』, 368-369, 399-400.

<sup>9</sup> Ibid., 375, 401.

<sup>10</sup> 노병천,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서울:대서, 2008), 13-14.

<sup>7</sup> 노병천, “5 명량대첩”, 『이순신』, 107-248.

20:15),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진리를 증언한다.<sup>12</sup>

성경 1,189장 전체는 하나님의 우주·인간 창조(창 1-2장), 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 하나님의 새 우주·인간 완성(계 21-22장)에 대한 메타 내러티브이다.

### 1) 하나님의 우주·인간 창조 내러티브(창 1-2장)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왕국의 심장부인 신전·왕궁의 '지적 설계' 도면("그가 창조하시니라"의 히브리어 '바라'는 '잘라서 모양을 내다'가 그 기본 의미이다)을 따른 건축 진행과정에서 목표를 향해 일하시며, 그것을 계획대로 하루 단위('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째 날이니라')의 부분 검사필증("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으로 마침내 완성하시고("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안식하시며("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결과에 복 주시며 만족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신전·왕궁의 실례로서, 그 성전의 관리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왕·선지자·제사장으로서 묘사되며, 그 왕국 건설에 관련된 노동·안식·결혼이란 문화적 제도가 소개된다.

<sup>11</sup> Ibid., 32. 노병천은 이 책에서 성경에 나타난 130여 개의 전쟁 중에서 전략과 리더십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 10개를 엄선하였다: (1) 족장시대의 전쟁인 싯딤 골짜기 전쟁, 아브람의 단 전쟁 (2) 출애굽 시대의 전쟁인 르비딤 전쟁, 호르마 전쟁 (3) 가나안 정복 시대의 전쟁인 여리고 성 전쟁, 아이 성 전쟁 (4) 사사 시대의 전쟁인 드보라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 (5) 왕국 시대의 전쟁인 다윗의 전쟁, 여호사밧의 전쟁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전략과 리더십을 논하고 있다.

<sup>12</sup> 참조. 삼상 2:10, 14:6; 대하 14:11, 20:15; 시 33:16-22, 44:6-7; 전 9:11; 호 1:7; 속 46.

성경은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헷사마임 베하아레쯔, '그 하늘들과 그 땅')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우주창조의 대명제와 요약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2:3) "천지('그 하늘들과 그 땅')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2:1)는 결론 부분(2:1-3)으로 반복 마무리된다. 여기 '만물' (췌바암)은 '그들의(암) 군대(짜바)'란 뜻으로, '그들'이란 대명사는 앞에 사용된 '천지'를 가리킨다. '천지'는 오늘날의 '우주'를 가리키는 고대근동의 관용어로서, 수메르어 '안-키 (하늘-땅), 아카드어 '샤무 우 에르 췌투' (하늘들과 땅), 히브리어 '헷사마임 베하아레쯔'가 그 의미 동등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성경 초두의 우주창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만군(萬軍)의 하나님/여호와' (아도나이/엘로헤 췌바오트)이 표현은 삼상 1:3에서 말 4:3까지 274회 사용)께서 하나님 은혜왕국의 건설·보존·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군대이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다(시 24:10).

창세기 1:1-2:3의 우주창조 기사의 자매편 격인 하나님 찬양시(시 8편: 19:1-6, 29편, 65:9-13, 104편; 암 4:13; 5:8-9; 9:5-6)는 다시금 군대로서의 우주는 대 합창 군악단으로 묘사된다. 밤하늘을 단장하시는 성령님 안에서(시 33:6; 사 40:13, 26), '하늘의 군대' (삿 5:20; 시 33:6; 사 40:26; 느 9:6)인 별들의 '합창' (욥 38:7; 시 148:3; 눅 2:13)을 듣는다. 현대 물리화학의 이론이 빛-소리-열의 자유전환을 설명하거나, 일등별로부터 팔등별의 한밤의 하늘은 팔도 화음계의 웅장한 대 자연 교향곡을 만끽하게 한다. 계명성 사탄의 타락(비교: 사 14:12-15; 겔 28:13-15)과 인간의 타락(참조: 우주에 가장 결박치 않은 죄인에 대한 시 104:35) 아래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롬 8:22)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구원의 은총을 우주와 함께 합창하는 것이다. 또한 천지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적 삶을 판단하는 증인으로 심판대에 등장한다(신 4:26, 32:1; 사 1:2; 미 6:2; 시 50:4).

## 2) 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내러티브(창 3장-계 20장)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창 2:16-17)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범죄-타락-사망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왕 노릇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롬 5:12)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동시에, '아담 언약' (창 3:15)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계획의 '최초 복음' (proto-evangelium)이 어떻게 구원-성화-영생으로 성취되어 갔는지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원수 관계를 내가 설정한다"(베에바 이쉬트)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계획은 '뱀과 여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그리고 여자의 씨와 뱀 자체 사이의 3중 원수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왕국과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의 원수관계로 대치 발전하여 온 인류역사 전체를 조망한다.

### (1) 뱀과 여자의 원수관계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고 넘어갔기 때문이요(창 3:15; 고후 11:3; 딤후 2:14), 구속역사의 중심점인 '그' (후)는 '여자의 씨'로 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그 여자' (하잇사)는 하와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정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귀하게 사용된 모든 여성들을 가리키며,<sup>14</sup> '여자의 씨인 그'의 출생을 막는 사탄과의 원수관계라는 긴장과 갈등의 맥락에서 성경의 모든 여성 인물사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sup>13</sup>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 (구나이)라 부르신 것은(요 2:4, 19:26) 유례 없는 독특한 사용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아내(고전 7:16; 비교: 복수형 '구나이케스', 엡 5:22, 24; 골 3:18; 뱀전 3:1)나 일반 여성(마 15:28; 눅 13:12, 22:57; 요 4:21, 8:10; 20:13, 15)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sup>14</sup> 창세기 3장 20절의 '모든 산 자의 어머니'와 디모테전서 2:15의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문은 '개인과 전체' (corporeal Personality)라는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된다.

### (2)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의 원수관계

'너' (앗타)가 지칭하는 존재가 뱀 배후의 마귀임을 보여 준다. 구속역사의 시작부터 벌써 '너의 씨'인 가인이 '그녀의 씨'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왔으며(요일 3:12), 악한 자는 곧 마귀임을 알 수 있다.<sup>15</sup> 육신적으로는 둘 다 하와의 씨였으나, 영적으로 가인은 생래적 죄인이요(롬 5:12), '떨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롬 9:22)이며, 그와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연인이요(창 4:11-24; 엡 2:15-16), '독사, 악한 자, 마귀의 자식'이었다(마 3:7, 13:38, 23:33; 눅 3:7; 요 8:44; 요일 3:10).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요(마 23:35; 히 11:4), '영광 받기로 예비 된 공홀의 그릇'이며(롬 9:23),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 후손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중생인이요(창 4:25-26, 12:8; 롬 10:8-15), 천국과 하나님의 자식이다(마 13:38; 롬 8:14-17; 요일 3:10).

이 삼중 원수관계의 중심점에 여자의 임신과 출산이 놓여 있어, 하나님의 은혜왕국 건설을 위한 자녀 출산의 복과 '여자의 씨'와 '뱀의 씨'의 대결이란 긴장을 동시에 보여 준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리하여 마귀의 씨로서의 가인의 후손과 여자의 씨로서의 아벨·셋 후손의 원수관계의 양대 구도 어느 하나에 속하여서, 타락하는 자는 그대로 타락하고, 구원받는 자는 그대로 구원받는(계 22:11)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역사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롬 9장 참조).<sup>16</sup>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실체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 인물의 평가는 그들의 덕행을 칭송하는 행위 구원적 교훈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본

<sup>15</sup> "악한 자" (포내로스)란 단어는 신약에 27회 사용되는 바, 요한일서에서는 모두 사탄을 가리키는 별칭이다(요일 2:13-14, 3:12, 5:18-19; 비교: 마 6:13, 12:35, 13:19, 38; 요 17:15; 엡 6:16; 살후 3:3). 흥미로운 것은 '원수' (에크쓰로스) 역시 사탄을 지칭한다(마 13:39; 눅 10:18-19).

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적으로 산송장 같은 마귀의 씨, 가인의 후손 같은 그들을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아벨·셋의 후손으로 선택하여(엡 2:1-10), 그들의 모든 연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 (롬 5:20-21)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다(엡 1:3, 6, 14).<sup>17</sup>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건설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결혼제도(창 2:24-25)는 항존적인 창조규례(creation ordinance)이다. 한 개인의 육신적 자녀가 영적으로 가인 계통과 아벨·셋 계통 중 어느 후손이 되는가의 질문은 현

<sup>16</sup> 가인 계열과 아벨·셋 계열의 투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들(시 73:1; 마 6:32; 롬 9:6-13 등), 선민과 이방인, 예루살렘(시온)과 바벨론(사 21:9; 렘 51장, 단 1:1; 스후 2:7; 미 4:10; 뵤전 5:13; 계 14:8, 17:5, 18 등), ‘하나님, 빛의 왕국, 자녀’와 대조된 ‘사탄, 어두움의 왕국, 자녀’ : 순종하는 자식(뵤전 1:14)과 대조된 불순종의 아들들(엡 2:2, 5:6; 딛 3:3) 등의 용어들과 ‘악한 자, 원수’ 개념과 관련된 모든 연개어(collocation)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예: 짜르, 쵸레르, 소내, 콤, 라사 등).

구약에 5회 사용된 ‘원수관계’ [에바: 창 3:15; 민 35:21(2회); 겔 25:15, 35:5; 참조. 에크쓰라: 눅 23:12; 롬 8:7; 갈 5:10; 엡 2:14, 16]라는 단어는 283회 사용된 동사 아야브(‘미워하다’)에서 파생한 것이다. 동사 아야브의 기본형(Qal) 분사인 오예브(‘원수’)는 282회 사용되는 바, 이스라엘의 원수(126회),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 개인의 원수(48회; 그중 다윗이 25회) 및 여호와의 원수(25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임을 밝히는 본문들과(출 15:6, 9; 삼상 30:26; 삼하 12:14 등), 이스라엘의 총사령관(Divine Warrior)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장 서서(홍해(출 14:21), 요단 강(수 3:16), 기손 강(삿 5:20)), 그 원수들과 싸우시는 ‘여호와와의 전쟁’ (출 15:3, 4; 민 10:35; 시 24:8; 사 42:13; 스후 3:17) 및 ‘진멸’ (헤렐, 신 7:26, 13:17; 수 6:17, 7:1, 11, 12, 15, 22:20; 삼상 15:21; 대상 2:7 등) 신학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sup>17</sup> 중생자의 신분의 근본 변화를 요약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포테……눈 데; 롬 11:30; 엡 5:8; 뵤전 2:10)을 참조하라. 비교: ‘전에는, 이제는’ (갈 1:23; 뵤전 2:25); ‘전에는’ (엡 2:3; 뵤전 1:13; 딛 3:3); ‘이제는’ (롬 6:19, 21, 22, 7:6; 갈 2:20, 4:9; 엡 2:13; 골 3:8).

실적으로 중생한 신자의 불신 결혼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항존적인 문화제도(cultural institution)인 결혼을 재천명하실 때(마 19:3-9), 아담 하와가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한 선악과의 불순종에 뒤따른 결과에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 것처럼, 결혼 역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올바른 결혼(마 19:6; 참조: 잠 19:14)과 “마음의 완약”으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 (마 19:8) 불신 결혼 사이에서 “자기 뜻대로” (고전 7:39, 쉐레이) 선택하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긴장을 본다. 히브리어에 남편, 아내란 단어가 따로 없고, 남자(이쉬)가 곧 남편으로, 여자(잇사)가 곧 아내로, 각각 문맥에 따라 번역되는 것은(창 3:6, 12, 16 등), 범죄 이전의 아담-하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상의 본보기임을 증명한다.

아담 하와의 범죄가 전 우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중에는 바로 결혼제도도 포함된다. 인류의 타락 후에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탄 왕국의 건설과 하나님의 은혜왕국 건설의 원수관계를 가인의 계통과 아벨·셋 계통으로 나누어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아벨-셋 후손)이 사람의 딸들(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창 6:2) 불신 잡혼은 노아 홍수심판의 화근이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으신 이방 결혼과 일부다처제의 선택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서조차도 중대한 문제였다(갈 4:22-31; 창 24:3, 37, 26:34-35, 28:6, 8).

불신 결혼이 이스라엘의 구원역사에 끼친 결정적인 악영향에 대하여, 가나안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역사적으로 유입된 경로를 밝히는 사사시대 초기에서부터 구약역사를 마감하는 포로 후시대에 이르기까지(스 9:1-2; 느 10:30) 구약의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사시대(주전 1360-1050년) 310년 역사에 반복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삿 2:11, 3:7, 12, 4:1, 6:1, 10:6, 13:1)의 실체는 사사시대 초기부터(주전 1360-50년) 가나안 7족속 사이에 ‘거하며’ (야샤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며' (라카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나탄) 이방 (불신) 결혼이 발단이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마귀적 문화 종교의 영향이 가정에 유입되어,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삿 3:5-6, 10:6). 모든 부귀, 영화, 지력, 신앙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정치적 이유로 행한 국제적 불신 결혼들이 그의 딸로를 비참하게 만든 원인임을 성경은 상당한 지면에서 분명히 지적하며(왕상 11:1-13), 불신 결혼 때문에 당한 비참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회개했던 삼손과는(삿 16:28-31; 히 11:32) 대조적으로, 결국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인물의 '신앙의 명예 전당' (hall of fame in faith)의 명단에서도 빠져 버리게 되었다! 바른 신앙의 결혼 교육이 이단·사이비 문제의 직·간접적 해결책 중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뱀)의 씨'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면, 뱀의 '씨'는 육신적이 아닌 영적 후손의 의미이다. 따라서 마귀의 '사자들' (앙겔로이)<sup>18</sup>인 '악령, 귀신들'이라 부르는 타락한 천사들 역시 마귀의 씨로 볼 수 있고(눅 10:17-20; 엡 6:12; 계 12:7-9),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같은 논리로 여자의 후손을 돕는 의미에서(마 18:10; 눅 22:43; 히 1:14) 여자의 씨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영원한 우주적 경륜 속에서 그의 은혜의 왕국 건설에 사탄의 왕국의 건설을 허용하면서, 천상에서의 영적 전투와(단 10:2, 13; 계 12:7-9) 지상에서의 영적 전투가(엡 6:10-20) 맞물린 성경의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모든 인류 문화와 종교 역사를 조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신약에서 불신 결혼을 금하며(고전 7:39; 고후 6:14-18), 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엡 6:4; 딤후 3:15), 결혼을 준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후 3:15), 결혼을 준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 (3) 너(뱀)와 그(여자의 씨)의 원수관계

뱀과 여자의 원수관계에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의 원수관계로 확장하여, 이제는 '너와 그'의 대표적 단독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다.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Septuagint)에서 그를 가리키는 '씨' (스페르마)란 중성 명사를 받는 대명사 '그'를 중성(아우토) 대신에 남성(아우토스)을 사용한 것도 같은 이해이다. 제롬(Jerome)의 라틴 별게이트(Vulgate)에서는 여성 대명사(ipsa)로 번역하고, 이 전통을 따라 "오직 성경대로" (Sola Scriptura)를 주창한 종교개혁 초두부터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의 걸작품으로 번역된 성경에서(Rheims-Douay Bible, 1582년), 용감하게도 '마리아'로 변경되었다('she' shall crush thy head, and thou shalt lie in wait for 'her' feet). 이것이 성당에 발견되는 마리아가 뱀을 발로 밟는 조각의 유래이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의 약속이 마침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느" (참조. 히 2:14) 성취로 나타난 것이다. 이 원수관계는 각각 치명타를 가하려는 동일 목적에서<sup>19</sup> 뱀은 그의 발꿈치를(비교: 창 25:26; 시 56:6), 그(메시아)는 뱀의 머리를(비교: 수 20:22-25; 삼하 22:39; 시 91:13, 110:6) 각각 공격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원시)복음이라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사탄이 치명적으로 공격한 바로 그 십자가가 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고전 15:25; 히 2:14) '승리의

<sup>18</sup> 신약에 81회 사용된 '사자들'은 인간 심부름꾼(눅 7:24, 9:52; 약 2:25), 마귀의 사자들(마 25:41; 뱀후 2:4 유 6 계 12:7, 9) 외의 73회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들, 즉 거룩한 천사들을 가리킨다(예: 눅 12:8-9, 15:10).

<sup>19</sup> 대명사 그(후)와 너(앗타)가 대조되며, "상하게 하다" (슈프)는 그(메시아)와 뱀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된다.

십자가'(골 2:14-15)가 되었기 때문이요,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 권세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롬 16:20). 이 최초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향한 점진적 구속역사의 출발점이다.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 건설에 일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사 59:1-8) 및 전적 무능(사 59:9-16상)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홀려넘치신'(휘페르페릿세우오, 롬 5:21) 은혜의 왕국 건설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제한적·불가항력적·영단번적 인류 구속의 역사(사 59:16하-21)로서,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매체'(수단의 특정성)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구원을 '목표'(목적의 보편성)로(창 12:3, "네 안에서 [베개] 땅의 모든 족속들(콜 미슈와호트 하이다마)이 복을 얻을 것이라"; 계 7:9-12) 긴장과 기대 속에 엮여져 간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여자의 후손'(하나님의 왕국)과 '뱀의 후손'(사탄의 왕국) 간의 '원수관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언약을 준수할 경우 이스라엘을 위하여(for Israel) 대적자들과 앞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은 홍해(출 14:21), 아말렉 전쟁(출 17:8-16), 요단 강(수 3:16), 가나안 남방 연합전선(수 10:9-11, 12-15; 비교. 21:44), 기손 강(삿 5:19-21),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동맹군과의 전쟁(삿 7:18-22),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대하 20:21-23)과, 동시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against Israel) 싸우시는 '징계의 하나님'(언약케-민 10:35; 삼상 4:1-5:12)이 되셔서, 이방 대적들(민 14:43의 호르마 전쟁)이나 한재, 기근, 열병 등의 자연 재해(사 24:1-13; 미 1:3-4; 함 3:6, 8; 나 1:2-6)를 그 군대로 사용하신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을 향한 광야여정을 '하나님의 군대'(출 6:26, 7:4, 12:41; 민 10:14, 18, 22, 25)의 '전투대열'(하무쉬; 출 13:18; 민 32:17; 수 1:14, 4:12; 참조. 본래 이 단어는 '5'(하메쉬)의 파생어로서, "앞, 뒤, 중앙, 좌, 우"의 5방향의 전투대열을 보여 준대를 갖춘 가나안 땅의 정복 '원정'(military

campaign)으로 이해한다.<sup>20</sup>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민 14:22) 출애굽 세대는 진멸당하였으나(민 11-25장), 광야 차세대의 병역 인구조사와(민 26장) 광야 38년 반의 방황-진멸 여정을(비교: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탐까지 1년 반이 걸렸다) 가나안 정복-승리 원정으로 재해석한다(민 33장).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건너라'(아바르; 수 1:1-5:12), 정복하고 '가져라'(라카흐/라카드; 수 5:13-12:34), 분배하고 '나누라'(할라크; 수 13-21장), 지키는 '섬기고 지키라'(아바드……사마르; 수 22-24장) 군대의 모습이다. 에베소서에서 그려진 6개의 교회상(왕국시민, 영적 가족, 한 새사람, 성전, 몸, 부부)의 결론 역시 영적 군대이다(엡 6:10-20). 십자가로 승리하신 총사령관 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전쟁의 게릴라 소탕 전투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즐기는 것이다. 그 무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전신갑주이며, 오늘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엡 6:10)고 주 예수님은 돌격명령(battle-cry)을 내리신다. 사탄 왕국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성령님의 강력'(고후 10:4-6; 마 12:28)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는 완성의 그날까지, '일당천 이당만'(신 32:30)의 개선가를 합창하는 것이다.

우주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자연현상의 위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주에 생명력과 형체를 부여하신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물론 교회사 전반에 걸쳐 지금도 '기이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신약(마 1장-계 20장)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세가 시작되고(히 1:2),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과 '땅 끝까지'

<sup>20</sup> 출애굽 세대 인구조사 후에 광야 여정의 그들을 가나안 거민을 진멸할 군대로 묘사하는 민수기에 '군대'(싸바)란 단어가 모세오경 90회 중 77회 사용된다.

‘모든 열방’에의 성장을 통하여 사탄의 ‘건고한 진이 파괴되고’(고후 10:4), 마침내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 즉 영원한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계 20:10, 15)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확신한다. 말세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계 22: 11)는 인간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양극화 현상, 하나님의 은혜왕국과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의 첨예한 대치를 체득하고 있다.

### 3) 하나님의 새 우주-인간 완성 내러티브(계 21-22장)

하나님의 새 우주-인간 완성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된다. 타락과 구속이 뒤엉킨 인류역사에서 쓰라리게 맛보던 것들-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해와 달, 밤, 등불; 눈물, 병, 사망, 애곡; 불신자, 불경건자, 불의한 자, 공포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개 같은 자, 거짓말쟁이; 속된 것, 가증한 일, 저주-은 다 없어지고, “태초에……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창 1:1, 31)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계 21:11, 23)을 완성하여, 모든 피조물이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합창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하나님의 전쟁신학의 올바른 관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본다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에 진행되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승패가 결정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전쟁관과, 모든 전쟁의 원인과 그 전략·전술을 성경이 명시하는 하나님의 병법과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것이다.

## 2.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세 가지 방식<sup>21)</sup>

### 1) 하나님의 직접개입

사람의 역할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기적이거나 이적이거나 기사나 표적의 형태로 보인다. 실례를 본다면, 출애굽 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사건(출 14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참조. 시 46:10);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완승함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대하 20:15, 17);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잇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 2) 하나님의 간접개입(deus ex machina)

겉으로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숨긴 채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브람이 단 전쟁(창 14:1-16)에서 북방 네 왕들에게 사로잡혀 간 조카 롯의 보고를 접한 후 즉시 집안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하여 그 왕들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나 전략은 전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를 나누어 야밤 기습 전략을 감행한 아브람 스스로의 결단과 추격 작전으로써 모든 것을 아브람이 주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행동력을 주신 것

<sup>21)</sup> 노병천,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서울:대서, 2008), 35-40.

이다.

에스더서 역시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하만의 멸망한 주도하에 유대인 대학살의 큰 위기에 직면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 반전을 이루어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출생의 통로를 계승한 역사적 부림절 사건의 배후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간접개입 방식이다. 이런 간접개입 방식 때에는 사람의 모습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를 위해 승전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처럼(삼상 15:12)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 쉽다. 아브람은 개선 후에 이것을 깨닫고 즉시 십일조로 그 신앙을 고백하였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전쟁에 개입하고 계신다. 8·15광복과 6·25전쟁이나, 이라크 전쟁과 같은 세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역사와 전쟁의 주관자로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을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개입 방식은 종종 무시되곤 한다.

### 3) 하나님의 동역개입(Synergy)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서로 분담되어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적 지침을 주시면,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짜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나님이 전면에서 나서서 직접 싸워 주시기도 하고(직접개입), 그 가운데 사람도 열심히 싸우기도 한다(간접개입).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동맹군과 전쟁을 했을 때(삿 7장),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전략은 기드온의 몫이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3대로 나누어 야밤에 적진을 기습 공격하는 이러한 전략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이 만든 것이다(삿 7:16-17).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정복 역시 하나님의 구체적 전략 지시와 여호수아와 온 백성의 전적 신뢰와 순종에 기인하였고(수 6장), 그 후에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으로 야기된 남방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그러했다(수 10장).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전력을 다하여 예루살렘 동맹군들과 싸웠지만(7, 9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을 추격하고 쳐 죽이셨으며(10절),<sup>22</sup>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으며" (11절), 태양과 달을 멈추어 밤새도록 초자연 조명탄을 사용해서(1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4절)는 결정적 승리를 주신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직접개입 방식은 표적과 기사의 형태를 보인다. 하나님의 간접개입 방식은 오직 사람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동역개입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기적이 연합된 형태로 보인다. 전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적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이다. 눈에 보이는 적은 보이는 형태와 조건에 따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루기 쉽고, 세상의 육적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적과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다루기 어렵고 본질적인 적은 보이지 않는 적으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sup>23</sup> 대체로 영적 전쟁의 차원이 바로 이렇다. 성경에 나타난 130여 전쟁이나 세계사 속의 보이는 전쟁들의 이면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sup>22</sup> 한글개역이나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기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왜냐하면 원문에 '여호수아'는 없는 단어이며, 문맥상 여호와가 이 문장 전체 동작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는 원리를 따라,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 건설을 파괴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육적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는 수순이 적용될 수 있다.<sup>24</sup>

또한 구약과 제2성전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사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귀신 축출의 실례들을 통해 복음서 전반에 나타난 사탄을 대항한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치유 사역, 사탄 축출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도래시키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 3. 여호와의 전쟁신학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일본이 만 7년 동안 23번 한국을 침략하여 한국의 지상군이 패전하는 임진왜란의 절박한 상황에서, 육군 15년과 수군 7년의 군 생활 22년 중에 4대 대첩인 옥포대첩(1592. 5. 7),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던 한산대첩(1592. 7. 8), 불과 13척으로 130여 척을 처치한 명량대첩(1597. 9. 16), 노량대첩(1598. 11. 19)을 비롯한 23회 해전에 전승(全勝)한 이순신 장군은 풍전등화

같은 정세 속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적 호국의 영웅이 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특별 은총적 섭리요, 히브리 성경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for Israel) 싸우시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against Israel)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신학’ (Divine Warrior)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 민족사 5천 년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만 7년간의 임진왜란에 초점을 맞추고, 23회 해전 중에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던 한산도 해전(1592. 7. 8)보다는 불과 13척으로 130여 척을 상대했던 명량해전(1597. 9. 16)을 최고 압권으로 선택하여, 지난 400년간 답습된 기존해석의 근간을 뒤엎는 새 해석을 노병천은 집중적으로 시도한다.<sup>26</sup> 가장 극적인 명량대첩의 경우, 하루 네 차례 전류(轉流) 시간대의 관점에서 역류 속에 이동해 온 일본 전선이 아침 7-8시경 울돌목 출구를 통과할 때 막 순류로 바뀌어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으나, 우수영 포구 안에 정박한 몇 척 안 되는 이순신의 전선을 보는 순간 조급한 욕심으

<sup>23</sup> 노병천, Ibid., 40, n. 42. “손자병법 제6 허실 편에 보면, ‘지어무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최상의 군의 형태는 그 형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무형을 만들면 공격하는 자가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하는 자가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스텔스(F-117) 폭격기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이라크 상공에 나타나서 막강한 화력을 퍼부었다.”

<sup>24</sup> 사탄을 그 우두머리로 하는 ‘정사와 권세’ (엡 6:12)의 21세기 실체는 ‘이슬람교’임을 밝히고 있는 영국 웨일스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한글역본인 홍성철, 『사도 바울-그의 정사와 권세』 (서울:은혜출판사, 2007)를 보라.

<sup>25</sup> 참조. 예수님의 전 사역을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는 평가를 세계 신학계로부터 받은 유상섭 박사의 1996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Yoo, Sang-sub,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the Gadarene Demoniac Story (Matthew 8:28-34) (Seoul: Solomon Press, 1999).

<sup>26</sup> 노병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14. 노병천에 따르면, 명량대첩의 승리요인에 대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분석은 “천혜의 길목 울돌목(명량)에서 불과 13척의 전선으로 일자진(一字陣)을 펼쳐 무려 130여 척이나 되는 일본 전선을 맞아 울돌목의 조류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 일시에 일본 전선을 격파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일본 수군의 기습공격을 당한 아군의 모든 전략은 뒤죽박죽이 되어 “처음부터 울돌목에서 싸우지 못했으며(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좁은 목을 중심으로 일자진도 펼치지 못했으며(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최초 접전의 몇 시간 동안은 조류나 소용돌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개, pp. 135-136] 전투를 했다” (p. 15)는 저자의 해석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전쟁신학’의 ‘동역개입 (synergy) 방식의 관점에서 탁월한 통찰이다.

로 손쉽게 양도 앞바다로 진입했기에 기습을 당한 이순신의 전선은 역류 속에 고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 순류로 바뀌면서 유리해진 이순신이 가하는 총공세와 강한 역류에 밀린 일본 전선은 "마치 좁은 병 안으로 빨려 들듯이"<sup>27</sup> 울돌목 안으로 흡인되면서 뒤따라 진입 중인 동료 전선들과 뒤엉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초래하였고, 최대치의 조류가 되는 오후 4시에는 그 전체가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130여 회의 전쟁기사를 통하여 인류역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삼상 17:47; 대하 20:15), 모든 우주만상은 '전쟁의 용사' (출 15:3; 시 24:8)이신 하나님의 '군대' 라면, 명량대첩에서의 기적적 승전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병법' 이 있었음을 기브온 전쟁과 연계하여 생각하게 된다.<sup>28</sup> 우리 민족사 5천 년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만 7년간의 임진왜란에 초점을 맞추고, 23회 해전 중에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던 한산도 해전(1592. 7.8)보다는 불과 13척으로 130여 척을 상대했던 명량해전(1597. 9. 16)을 최고 압권으로 선택하여, 지난 400년간 답습된 기존해석의 근간을 뒤엎는 새 해석을 집중적으로 시도한다. 명량해전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하나님의 전쟁' 이요, 절묘한 역류-순류의 전류 시간대는 '하나님의 무기' 였다고 고백할 뿐이다. 따라서 이순신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늘의 벼락'<sup>29</sup> 같은 축복이요, '구원자' (모쉬아; 사 3:9, 15에서 영적 암흑기에 사사의 별칭)이며, "꺼져 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sup>27</sup> Ibid., 200.

<sup>28</sup> 앞서 각주 22에서 살핀 대로, 기브온 전쟁(수 10:10-11)의 주어는 '여호와' 이시며, 따라서 한글개역의 '여호수아가' 는 원문에 없는 오역이며, 하나님의 우박이 이스라엘의 칼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였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기사에 나타난 전략·전술 분석을 위해 노병천, 『하나님 병법』, 60-134와 『구약 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153-202를 보라.

진 사명자' 요,<sup>30</sup> 명량해전은 '구원의 해전'<sup>31</sup>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히브리 성경의 전쟁신학의 안경으로 본다면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편 90편의 표제)가 추구한 바로 그 덕목이었으며, 사람 중의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적 인품이었다.

### 1) 꿈의 사람 이순신

성웅 이순신은 '꿈의 사람' 이었다.<sup>32</sup> 『난중일기』에 무려 40회에 걸쳐 꿈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국운을 좌우하는 명량대첩 3일 전(1597. 9. 13)의 '이상한 꿈' 에 뒤이어 전야(9. 15)에는 "이날 밤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고 가르쳐 주었다" (是夜神人夢告曰如此則大捷如此則取敗云)고 밝힌다. 여기 '신인' 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신인' 이란 표현 자체는 성경이 증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 이신 주 예수님

<sup>29</sup> 노병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19. '벼락' 의 히브리어 '바라크' 는 가나안 하술 왕 야빈의 20년 압제에서 여선지자 겸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 '바라' (사 4장; 히 11:32-34)의 동일 단어이다. 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군대를 쳐부수고 야빈 왕을 진멸해 40년의 태평을 가져온 배후에는 드보라-바라-야엘(헤벨의 아내)로 이어지는 용사들과 함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사 5:20-21) 라는 드보라-바라의 승전가가 밝히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인 '별들' 과 '기손 강' 역시 동역(synergy)한 여호와의 전쟁임을 연계시킨다.

<sup>30</sup> Ibid., 257.

<sup>31</sup> Ibid., 17.

<sup>32</sup> Ibid., 121-123.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에 의해 복음증거의 박해를 받던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꿈’ (헬리어 ‘호라마’는 영어의 ‘vision’으로 번역됨)에 권면하시는 장면(행 18:9)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순신은 중대사가 있기 전에는 어김없이 꿈을 꾸었으니, 곧 전라좌수사 임명(1591. 2. 13)이나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1593. 8. 1)이 있기 전, 또한 셋째 아들 면(菡)이 명량해전의 복수로 가도 기요사마가 보낸 50명의 특공대와 맞서 고향 아산에서 전사하는 당일(1597. 10. 14) 새벽 2시가 그 사례이다.

잠과 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일반은혜이지만(욥 33:15; 시 73:20; 전 5:3, 7; 사 29:8), 역사의 분기점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혜로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사례를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순신이 꿈에 만난 ‘신인’ (神人)은 누구인가라는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지면 관계상 상론할 수 없으나, 그랄 왕 아비멜렉(창 20:6), 수감 중인 바로의 두 신하(창 40:5), 두 차례의 바로(창 41:1, 5), 미디안 병사(삿 7:13), 두 차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단 2:1, 4:5), 동방박사(마 2:12)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꿈에 ‘시달린’ (파스코, 마 27:19) 빌라도 아내 등의 불신자들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 특별한 일반은혜의 꿈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결정적인 명량대첩(9. 16)에서 배의 손실은 전혀 없고 단지 전사 2명과 경상자 3명뿐인 기적에 대하여 당일의 『난중일기』는 “적선 31 척을 쳐부수자, 적선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天幸)이다”라고 모든 승리의 공을 하늘에 돌리는 겸손의 배후에는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과의 연상(聯想)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그는 참으로 ‘진인사 대천명’ [盡人事 待天命, “사람이 일(최선)을 다한 후 천명을 기다린다”]<sup>34</sup>과 ‘모사재인 성사재천’ (謀事在人

成事在天, “일의 피함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이름은 하늘에 있다”)<sup>35</sup>의 자세로 하늘을 우리러본 영(靈)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다음과 같은 신앙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9);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잠 16: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등이다.

## 2) 기도의 사람 이순신

해군사관학교가 소장한 서천기원도(誓天祈願圖)의 삽화와 함께 『난중일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전쟁이 된 노량해전 전날(1598. 11. 18), “자정에 배 위에 올라 손을 씻고 무릎을 꿇어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도다’ [차수약제 사랑무감 (此誓若除 死郎無憾)]라고 기도했다”는 이순신의 말형 이희신의 차남 이분(李芬)의 「행록」은 노병천이 밝힌 대로,<sup>36</sup> 통제영의 문서정리로 숙부를 돕던 32세의 이분의 「행록」에 숙부 이순신의 신화적 영웅성을 부각시키려는 과장된 표현이 많은 점을 미루어 좀 더 세밀한 고증이 필요한 듯하지만, “여러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순신은 항상 기도하는 영(靈)적 사람이었다.”<sup>37</sup>

<sup>34</sup> Ibid., 122.

<sup>35</sup> Ibid., 225.

<sup>36</sup> Ibid., 182-185.

<sup>33</sup> Ibid., 151.

여기서 이순신의 기도는 성령님의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겠다. '종교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미래의 불안과 현재의 역경과 과거의 죄책감으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다(왕상 18:25-29; 욥 1:5). 고대근동의 기도는 수메르어로 '슈 일라' (Šu-íla, '손들어올린')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어올리는 풍습으로 보존되었다(시 28:2; 141:2; 담전 2:8,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유대인들은 '잇두르' (siddur, 혹은 seder; '순서')라는 기도집(Siddur Tefilah, '기도의 순서')을 따라 하루 3회[사하리트(Shaharit)-일출부터 4시간 동안, 민하(Minḥa)-일출 6½시간 이후, 마아리브(Maariv)-일몰 1½시간 이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시 55:17; 단 6:10; Berakhot 26b에 따른 기원-아브라함의 아침기도(창 19:27)], 이삭의 황혼기도(창 24: 63), 야콥의 저녁기도(창 28: 10)], 모슬렘 역시 '살라트' (salat)라는 기도집을 따라 매일 5회(새벽, 정오, 오후 중간, 황혼, 밤) 정결 예식과 함께 메카의 카아바(Kába)를 향해 이맘(imam, 기도 인도자)을 따라 '알라후 아크바르' (allahu akbar, "알라 신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반복하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as-salamu alaikum, "그대들에게 평화를")로 끝맺는다. 불교도의 새벽 예불이나 네팔인의 기도 팽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된 기도로서 외식적 중언부언의 기도(시 109:7; 잠 28:9; 사 1:15; 마 6:5-7; 눅 18:9-12), 정욕 기도(약 4:3), 회개 없는 기도(사 1:15-17; 미 3:4; 막 11:25-26; 대조, 시 32:1-6; 대하 7:14)를 지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 성령님 '안에서' (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프로스)" 드리는 기도(엡 2:18)가 아닌 것은 모두 방향이 틀린 잘못된 기도이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있는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히 5:7),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며(마 26:41),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마 26:39; 비교,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신 예수님;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행 20: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이다(계 2:10)) 기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가?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300승의 병거를 몰고 오는 세라에 대항할 58만 명의 '용감한 정예병' (깃보레 하일; 대하 14:7)을 가졌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유명한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하 14:11) 하였더니,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대하 14:13)는 세계전쟁사의 단일 전투에 최대 사상자수를 기록하는 완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전히 이순신의 23회 해전의 전승 배후에 어떤 기도생활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 3) 믿음의 사람 이순신

23번 해전에 완승하기까지 홀로 그 외롭고 무거운 전쟁을 짊어지고 "항상 하늘(天)을 바라보았던"<sup>38</sup>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sup>37</sup> Ibid., 242.

<sup>38</sup> Ibid., 10.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268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부산을 향한 지 11일 만에 칠전량 전투(1597. 7. 16)에서 대패 전사하고, 배설이 끌고 온 단 12척의 배가 파죽(2. 6), 하옥(3. 4), 백의중군(4.1-8.3)의 고난 속에 처한 이순신에게 주어진 참담한 선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군으로 일본군과 싸울 수 없다면 육지에 와서 싸우라"는 8월 7일자 왕의 유서(諭書)를 받고,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장계(狀啓) 속에 담긴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란 고백은 그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압권이다.

9월의 거센 북풍의 추위에 여름옷으로 고생하는 약 2,000명 정도의 병사들에게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적선의 섬멸을 당부하는 다음과 같은 짧은 연설(9. 15)은 그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여 주는 금상첨화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즉사, 일부당경 죽구천부' [必死則生 必生則死 一夫當選足懼千夫; 반드시 죽으려 하면 곧 사는 것이요, 반드시 살려 하면 곧 죽는 것이며, 한 사내가 길목(비교. 울돌목 출구)을 지키면 천 사내를 떨게 하기에 죽하더라 했으니, 이것은 모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sup>39</sup>

이순신의 '상유십이' 고백은 현실을 '알고도' (비교. 롬 4:19) 인정하고 직면하고 돌파하는 '강하고 담대한' (비교. 수 1:6-9) 믿음으로서,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그중에서 가나안 정탐과 정복에 시위된 갈렙의 믿음을 생각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주전 2091년; 창 12:1-3) 이후 애굽 노예살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주전 1446년 3/4월; 출 12:41), 1년 4개월 후 가나안 최남단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

착한다(주전 1445년 6/7월; 민 13:20, 26). 가나안 정탐 40일 후(민 13:25), 간담을 녹이는 절망적 보고(민 13:21-23)를 들은 출애굽세대의 철야 통곡과 원망의 불신앙은 그 후 38년 6개월을 광야에서 매일 평균 85명꼴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들이 믿은 대로' (막 11:23-24 참조)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민 14:38), 지파별 땅 분배(수 13-21장) 역시 갈렙으로 시작(수 14:6-15)하여 여호수아로 끝맺는(수 19:49-51) 복을 누렸다.

여기 회중의 불평과 절망의 아우성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 모기소리 만한 갈렙의 신앙고백을 들어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 13:30).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민 13:33 참조) 그들은 우리의 '뱀' (레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조. 민 14:7-9).

그 후 45년이 지나(수 14:7, 10), 85세가 된 노익장 갈렙의 점입가경의 신앙고백을 들어보라. "이제 보소서(베아트타 힌네)……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즉, 거인 족)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수 14:10-12).

어떤 암담한 현실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과 갈렙이 보여 주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도

<sup>39</sup> Ibid., 118.

전과 격려를 누려야 할 것이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전 11: 5-6)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7,487개)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고후 1:20; 비교. 빌 4:13) 기적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결의는 바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눅 17:33; 비교. 마 10:39, 16:25; 막 8:35; 요 12:24-25; 고전 15:36)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요 12:32-33; 롬 6:8; 뱀전 2:24) 그분의 실천이다. 이것이 기독교회사가 말하는 고난의 피와 순교의 원리, 즉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비교. ‘이 칼을 들고 참수대로, 이 밧줄을 들고 교수대로’) (눅 14:26-27)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다.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 요삼 2절)의 후유증으로 ‘십자가 없는 먼류관’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향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 4:12)는 바울 사도의 순교신학은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제 ‘일부당경 죽구천부’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보자. 이 경구(警句)는 저자가 밝히는 대로(249쪽) 「오자병법」 논장(論將) 편의 ‘십부소수 천부불과’ (十夫所守千夫不過, “열 사내가 자리를 지키면 천 사내가 지나지 못할 것이요”)와 려사(勵士) 편의 ‘시이일인투명 죽구천부’ (是以一人投命 足懼千夫, “한 사람이 생명을 던진다면 천 사내를 두렵게 하기에 족하다”)의 독자적인 병합으로, 이순신의 문무를 겸한 병법이론과 실제의 경지는 물론 울돌목 출구를 이용한 ‘일당천’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병법을 보여 준다.

한국현대사에 그린 베레 100명과 주먹치기를 해도 이긴다는 각오로 만든 중앙정보부첩보대의 구호 ‘일당백’도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일당천 이당만’이라는 기적의 공식을 소개한

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신 32:30; 비교. 레 26:28; 사 30:7).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수 23:10).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실증을 보자. 성령님이 삼손을 ‘관통’(좃라호)하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천 명을 죽일 수 있었다(삿 15:14-16). 기드온 300명 용사가 ‘무수한 메뚜기, 낙타, 해안 모래 같은’ (삿 7:12)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기습 자중지란으로 ‘12만 명’, 추격으로 ‘만 5천 명’ (삿 8:10) 모두를 격퇴한 것은(일당 450명),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겁악한 미디안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삿 6:16)는 약속과 여러 표징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기드온 “을 옷 입히시는” (라베사 에트; 삿 6:34)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잡은 병사 하나만 데리고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의 모래 같은 병사’ (삼상 13:5)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 향한 정면 돌파를 감행하여 그 진중에 ‘하나님의 떨림’ (헤르다트 엘로힘; 삼상 14:15)이 있음도 “여호와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삼상 14:6)는 담대한 하나님 신뢰에 근거한다.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 4명의 흔들거리는 걸음을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 (왕하 7: 6-7)로 증폭시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신 것이다(신 28:7).

본래 ‘믿음’(faith; 라틴어 fides에서 유래)이란 자신을 믿는 ‘신념’(confidence)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trust)와 충성(loyalty)’으로 웹스터(Webster) 사전은 정의한다. 신념은 절대적인 확신과 보장이 없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시 62:3) 같은 것이라면, 올바른 믿

음은 '약속을 맹세로써 보증하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의 하나님'(히 6:13-20)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비록 없을지라도'(합 3:16-19),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단 3:16-18), '나를 죽이실지라도'(욥 13:15),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히 13:8), '늘 신실하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딤후 2:13)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고전 10:31), '깨든지 자든지'(살전 5:10), '살든지 죽든지'(롬 14:8; 고후 5:9; 빌 1:21), '뱀사에'(골 1:10), '주 예수님을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지 증명하는'(엡 5:10) 고난과 순교의 삶을 열망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히 11:38) '믿음의 은사'(고전 12:9)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인 것이다.

본래 구약성경에 '믿음'(에무나)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을 '믿다'(아펜)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믿음)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義)란 자신이 무화과 잎으로 엮은 '얇가리개'(하고르; 창 3:7) 같은 능동적인 의가 결코 아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는 다 여성의 '생리대'(베게드 잇딤, '주기들의 옷'; 사 64:5)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양의 '가죽으로 손수 지어 입혀 주시는'(창 3:21; 비교. 죽임 당한 어린 양, 계 13:8) 수동적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대 최상의 명령인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복음이며,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요 16:9)가 가장 악질의 죄임을 천명하는 이유이다.

'믿음'(에무나)은 또한 그것을 소유한 자를 믿을 만하다는, '신실, 충성'이란 뜻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신 32:4; 사 25:1; 시 33:4 등)과 '충성된 사람'(잠 28:20), 오실 메시아의 '신실'(사 11:5)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믿다'(피스투오)에서 파생한 '믿음'

(피스티스) 역시 '신실, 충성'의 뜻을 가져(비교. 피스토스, '충성스런, 신실한'),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히 3:5-6), 그리스도인의 신실과 충성(고전 4:2; 계 2:10)에 사용된다.

#### 4) 충성의 사람

'믿음'이란 히브리어(에무나)와 헬라어(피스티스)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 객체로서의 '하나님을 믿음'은 곧 주체로서의 '믿음직한 자아'를 만듦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큰' 믿음(마 15:28), '담대한' 믿음(히 10:35; 요일 5:14), '건고한' 믿음(롬 4:20; 참조. 행 14:22, 16:5; 고전 8:9; 롬 15:1), '온전한' 믿음(히 10:22; 참조. 딤후 1:13, 2:2),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히 11:38)의 소유자는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하는'(계 2:10, 13; 참조. 빌 2:8, 30; 롬 16:4; 히 11:35-37) 충성의 사람이었다.

충성의 사람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누구에게나 시종여일 '충성된 자로 들김'(고전 4:2 원문, 피스토스 티스 휴레쎬이)을 요구한다. 그는 남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치 않을 정도로 자책 받지 않으려는 양심의 사람이며(고전 4:3),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않는'(고전 4:5) 주전(主前)의식, 종말론적 의식의 소유자이다. 믿음의 사람 이순신의 인격에 면면히 흐르는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그가 비록 성령님의 일반은총 아래 산 자였지만 이러한 특성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충무공전서』 9권에 '장부출세 용즉효사이충 불용즉경야족의(丈夫出世 用則效死以忠 不用則耕野足矣,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에) 사용이 되면 죽도록 충성할 것이요, 사용이 되지 못하면 밭을 갈아도 족하니라")는 그의 인생관이 드러난다.

그는 투옥(1회), 파직(3회), 백의종군(2회), 무수한 죽을 고비와 노랑해전의 전사에 이르도록 끝까지 군에 남아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행

20: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계 2:10)이며,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살전 2:5) '사명은 진실한 것' 입을 묵묵히 실행하는 충성의 사람이었다. 정유재란 시 조정의 부산포 출동 명령을 받고 '항명'이라는 위협한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장을 중시하여 초탐선과 망군으로 6일을 지체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임금과 백성과 나라를 사랑함에 있었던 것이다.<sup>40</sup>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로 투옥되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서울 금부의 감옥에 있을 때, 뇌물로 석방을 권하는 조카 이분(李芬)에게 '사생유명 사당사의(死生有命 死堂死矣, "생사는 천명에 있으니 죽어야 하면 죽을 뿐이다")'라고 꾸짖었다. 그가 백의중군 신세일 때 삼도 수군의 전멸 소식과 함께 도원수 권율이 찾아와 대책과 비방을 요청할 때, "직책이나 계급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는 투철한 사명감"의 사람이었다.<sup>41</sup>

명량해전에서 단 13척으로 왜군 전선 130여 척을 물리친 세계해전 최대 기적에 대한 조정의 평가가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는 데 불과했다"<sup>42</sup> 정도이며, 고작 은전 20냥과 병사 1만 명에게 함께 나눠 준 '면사(免死) 첩 정도였을지라도 그는 "결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고 ("대중의 박수도 의식하지 않고"<sup>43</sup>), 그저 말은 바에 목숨을 바쳐 묵묵히 충성할 따름이었다."<sup>44</sup> 그는 "스스로가 영웅이기를 거부했다……결정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것은 결정적인 것을 위해 모두 포기했

다. 그의 마음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었다. 이순신은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면 ("선조와 당쟁, 일본군의 중심축에 끼어"<sup>45</sup>) 어떤 고초도 감내할 수 있었다."<sup>46</sup>

오늘의 우리 조국의 국내외적 현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충성의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왕국 확장과 조국 대한민국과 동족을 동시에 사랑하는(롬 9:1-2 참조) 믿음과 실천의 사람을 필요로 하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다.

'사명은 진실하며' (고후 6:3; 살전 2:5),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 (행 20: 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계 2:10),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생관이요 사명의식이다.

## 나가면서

히브리 성경의 전쟁신학이라는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에 대한 본 논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가 제기한 『우리 역사 5천 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주적 시각으로 본 우리 민족사』(서울: 바다출판사, 2000)에서 더 나아가, 보다 신본주의 입장에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본론 초두에서도 살폈지만(참조. 1.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신학), 신본주의란 하나의 '대하(大河) 이야기' (meta-narrative)인 성경의 구조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를 중심한 창조사관으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1189장으로 구성되어 '태초에'로 시작

<sup>40</sup> Ibid., 33-40

<sup>41</sup> Ibid., 68.

<sup>42</sup> Ibid., 154.

<sup>43</sup> Ibid., 254.

<sup>44</sup> Ibid., 155.

<sup>45</sup> Ibid., 155.

<sup>46</sup> Ibid., 238.

하여 '아멘'으로 끝나는 신구약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란, 비록 인간은 '계속해서 더럽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계 22:11) 절망적인 존재임을 폭로하는 동시에, 태초부터 종말을 아시고 주장하시는(사 46:10; 계 22:13) 주권자 하나님의 소망 넘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창세기 1, 2, 3장이 계시록 22, 21, 20장과 내용적으로 각각 교차대구(chiasm)를 이룸도 우연이 아니다. 올바른 역사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 창조(창 1-2장)－인간타락과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하나님의 완성(계 21-22장)이란 구속사적, 언약적, 종말론적인 창조사관을 전제하는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창조-재창조; 창 1-2장), 주로 말미암고(섭리-성화; 창 3장-계 20장), 주에게로 돌아감이라(심판-영화; 계 21-22장).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이라는 성부-성자-성령(3위1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교리의 빛 아래서 우리 역사 5천 년을 해석해야 함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다.

21세기에 이르러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세계의 약 260여 국가, 24,000 종족, 71.5억 인구, 6,912언어의 배후에는 '한 구음과 언어'로부터(창 11:1) 70개 국가로 '홀으신' (창 11:8, 10장의 70 열국 도표) 하나님의 '구원적 심판'이 존재한다. 즉 바벨론 '지구라트'(ziggurat)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 정상신전과 기저신전을 층계로 연결하는 인공적 산을 가리킨다.<sup>47</sup> 주전 460년경 바벨론을 방문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바벨론 지구라트를 나선형 층계를 가진 91.44m의 정방형 8층탑으로 보고한다; 창 28장 12절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술람)의 실체는 지구라트 '층계' (아카드어, 심밀투, simmiltu)로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는 인간의 교만과 자멸 반역에 대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인간의 문화적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그렇다! 75세의 절망적인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창 13:16, 28:14), '하늘의 별같이' (창 15:5, 22:17, 26:4), '바다의 모래같이' (창 22:17, 32:12)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권적 하나님은 215년의 긴장과 기대의 세월 속에 단지 70명(창 46:27; 대조. 430년 애굽 종살이 동안 약 200만 명의 폭발적 증가)만 허락하신다. 이 '70'이란 숫자의 신학적 의미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신 32:8)라는 모세의 노래에서 분명해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 (출 19:5-6)로서 온 열국을 대표하며, 세계복음화의 기수로 부름 받은 것이다.

신약 오순절에 15개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의 방언으로 제각기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알 아듣게 하시고, 핍박의 강풍을 타고 성령님의 불덩어리들이 다시 '흠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행 8:1, 4, 11:19) 바벨론 지구라트의 종말론적 구원사건이다. 이제 영적 유대인이요(롬 2:29),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보물 된 백성' (벧전 2:9)인 그리스도인들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양받은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설교에서 확증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26-

<sup>47</sup> 지구라트는 십자가 구원을 향한 단식의 기다림이란 시각에서 고찰한 김진섭, "십자가와 지구랏: 성경과 고대근동학의 문화종교 정책적 만남", 『구약논단』 16(2004), 161-214를 보라.

30; 참조.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설교인 14:15, 17).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의 개성, 그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혈통과 연대와 거주를 정하신 주권적 삼위일체 하나님 체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폴 틸리히의 유명한 명제인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면, 주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에 전래되기 이전의 한국문화와 전통종교들(무속신앙, 도교, 불교와 유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문화·종교 변혁과 개혁의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파괴 오염되었지만, 성령님의 일반은총 아래 악을 억제하며 선을 장려하며, 예술·문화·종교적 활동을 허용하심도 깨달아야 한다. 마침내 성령님의 특별은혜로 치유 정화된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문화와 신앙은 그 본연의 문화·선교적 명령(창 1:27-28)을 수행하여 '성경한국, 기도한국, 선교한국'이란 자랑스러운 세계사적 평가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성웅 이순신(1545-1598)은 분명히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첫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1832. 7. 25.)<sup>48</sup> 및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1885. 4. 5) 수 세기 전에 살았던 불신자이다. 성경은 주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의 특징에 대한 수많은 진단 목록(예: 마 15:19(7개), 롬 1:28-32(21개); 고전 6:9-10(10개); 갈 5:19-21(15개); 골 3:5-9(12개); 살전 4:4-8(2개); 딤후 3:1-5(20개))과 그 풍성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참담한 현실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원한

이순신의 삶은 이러한 타락과 부패와 무능의 죄악상으로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비록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반은총'(special common grace) 속에서 조국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그의 생애 배후에 드러난 비전, 기도, 믿음, 충성, 겸손 등은 주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닮고 전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물며' [유대인 랍비들이 즐긴 칼 바호메르(qal wahomer, 여자적으로 '가벼움과 역칭'이란 뜻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예증으로 '하물며'라는 역칭에 빠진 자처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논증법; 은 4:11; 마 6:30, 7:11; 눅 18:7; 히 9:14]의 논증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비전, 기도, 믿음, 충성, 겸손의 소유자로 통일한국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던지는 성령님의 '일반은총의 특별은총화'의 탁월한 실례가 될 것이다.

세계 71.5억의 인류 가운데 우리 7천2백만 한민족만이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민족이라는 고난과 반목의 반세기를 지나고 있고, 북한의 짓밟힌 인권과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로서 3대를 세습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대립을 안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복음과 애국의 양면을 전수해야 할 한국교회가 성웅 이순신에 대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데 이 줄기가 조금이라도 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날 전 세계교회가 "성경기독교, 기도기독교, 선교기독교"로 칭송하는 120년 역사의 한국교회가 평양 장태현교회의 회개와 부흥(1907. 1. 15)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 가운데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로서 약 180개국의 750만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인 174개국에 파송된 2만 7천 명의 한인선교사들의 현장과, 세계에서 가장 '무공해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되는 북한의 추정된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매년 20만 명의 세례자를 목표로 하는 2020비전과 사명의

<sup>48</sup> 한국 기독교 전래사의 기원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귀츨라프(Karl Gutzlaff, 1803-1851)를 그 원년으로 삼아 53년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에 대하여, 참조. 오현기, "조선 최초 선교사 칼 귀츨라프", Now and Here (VIP Magazine of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vol. 8 (2013 여름), 10-21.

국내 군선교 현장을 비롯한 약 6만 개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려는’ 회개와 부흥의 몸부림을 계속하면서, 인류역사의 3중 원수관계가 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의 시각에서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성웅 이순신이 보여준 위대한 공헌을 통하여, 하물며 더욱 진정한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닮고 전하려는 우리 모두의 삶에 더욱 선한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A Martyr, Pastor Park, Yeon Se: the Step of a National Movement

■ 김수진 목사 Kim, S●● Jin

- 개신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교회사연구원 원장,
  - CCK 기독교문화제발굴 보전본부장
  - 한국기독교성지순례선교회 전문위원장
  - 광나루문인회/한국목양문인회 회장 역임
- 『코리아의 선각자 서재필』 등 90여 권의 저서 집필
- 찬송가 작사/새찬송가 577장



### 1. 머리말

박연세(朴淵世) 목사는 목포 양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제강점기 말엽 대동아전쟁에 정면으로 반대하다가 천황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감방에서 동사(凍死)한 순교자이다. 물론 이 무렵 한국교회와 민족을 지키다가 순국 순교한 분들이 많지만 박연세 목사의 대구형무소 옥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이도 많지 않고, 아는 이들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 전남지방의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1997년) 박연세 목사 순교자기념탑과 함께 양동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한 일이

있었으나, 심지어 그가 시무했던 전북 익산시의 고현교회에서조차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별로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 논고는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그의 신앙과 삶이 우리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시사점을 살피는데 주안점을 둔다.

## 2. 목포 양동교회 설립 배경과 로터 선교사 첫 순교

### 1) 이수정의 도일과 개종

호남지방에 기독교가 전파되기는 189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남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에 의해서 1893년 11월 첫 출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이 호남지방에 입국하게 된 배경은 1882년 6월 임오군란(壬午軍亂)이다. 임오군란은 명성황후의 미신적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는 산신령에게 제물을 많이 공양하면 백성이 잘살 것이라 믿고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 이 일로 군인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돌이 혼합된 곡식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은 곡식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밥을 지으려고 하니 쌀 속에 너무나 많은 돌, 자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해야 한다면서 궁궐을 습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전라도 옥과 출신 이수정(李樹廷)은 곧 궁궐에 뛰어 들어가 명성황후를 구출해 준 일이 있었다.

조선국 이수정이 작년 1882년(明治 15년) 내란이 일어날 때 왕비(王妃)를 옹호하여 천고만란(千苦萬亂)을 겪은 후 촌에 숨겨 두었는데 난이 평정된 후 논공행상을 할 때 친구 민영익(閔泳翊)과 논의하고 당원 수 명과 함께 혹은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있는 곳으로 가고 혹은 일본에 왔는데 이수정은 그중

수령(首領)으로 전년까지 선략장군(宣略將軍)이었으나 지금은 그 관직을 사임하고 일본의 농학과 법률을 연구하며 또한 조운(漕運)과 우편 운영을 실시시킬기 위하여 동지 5, 6명을 데리고 왔다.<sup>1</sup>

이수정은 1882년 10월 메이지마루(明治丸)인 일본 화물선에 승선하여 자신의 절친한 친구 안종수(安宗洙)의 소개로 일본의 평신도 지도자이며 농학자인 츠다 센(津田 仙)을 도쿄(東京)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상면하게 되었다. 원래 이수정은 양반 가문에서 출생하였기에 한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때 이수정은 츠다를 만났다. 그는 과거 한국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춘 지도자였다.

지금으로부터 千餘年前에 귀국에서 論語를 보내주어 우리를 가르친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객(異客) 매우 기뻐하며 희색이 滿面했는데 그때 찌다 씨는 또 말하기를 그런데 孔子의 빛은 등불(燈火)과 같아서 우리나라 전체 어두운 길에 다 비칠 수 없으나(불가능하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쪽 하늘(東天)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밝은 해(旭日衝天 혹은 旭日昇天)가 있으며, 공자의 등불은 아무 필요가 없다한즉 이국(異國)의 나그네(異客)는 매우 이상하고 괴이(怪異)하게 생각되어 그 연고(事由)를 물은즉 찌다가 여기 대답하기를 곁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을 쓴 족자를 보면서 옛날 論語를 보낸 은혜의 보답을 등불보다 더 밝은 햇빛(日光)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족물(簇物)을 드릴 뜻을 표시하며, 異國의 손님이 이 글을 읽어 보고 감계 무량하여 한없이 기뻐하였다.<sup>2</sup>

<sup>1</sup> 오윤태, 『선구자 이수정편』 (서울: 혜선출판사, 1983), 31.

<sup>2</sup> Ibid., 46-47.

츠다는 이수정에게 공자의 등불보다 더 밝은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면 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 신약성경을 선물로 주었다. 이수정은 성경을 숙소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였다. 원래 이수정은 전주 이씨로 대대로 왕족의 가문이라 하여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때 이수정은 양반들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족보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이수정은 츠다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겠다고는 말을 전하였고, 그는 소다(長田時行) 목사를 소개받아 개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는 츠다의 안내로 1882년 12월 25일 도쿄 제일교회를 방문하고는 세례를 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이수정은 소다 목사의 도움으로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노월정교회(露月町教會, 현재는 시마교회=芝教會)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수정은 야스가와(安川亨) 목사에게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질문하여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 후 신자 되기를 결심하고, 1883년 4월 29일 주일 노월정교회에서 존 녹스(John Knox) 목사의 입회하에 야스가와 목사가 세례문답을 했는데 너무도 대답이 명확하고 틀림이 없어서 시취한 목사나 입회한 목사가 다 놀랐고, 세례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세례 받을 만한 자격자로서 장엄한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처음 베푸는 한국 사람의 세례식인 동시에 한국개신교에 선구자가 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역할을 할 사람의 세례식전인 만큼 선교사들과 일본 기독교 신자 및 지도자들의 정신을 긴장케 했던 것이다.<sup>3</sup>

## 2) 이수정의 선교사 유치운동

이수정은 세례를 받은 후부터 고국에 하루속히 기독교가 전해지기를 바랐다. 이미 일본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본이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 병원이 있으며, 미션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가 양성된 사실을 친히 보게 되었다. 이미 그는 미국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Loomis) 선교사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 유치운동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이수정의 업적 가운데 둘째로 큰 공적은 선교사의 초래(招來)운동이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미국 선교부에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883년 12월 13일부로 이수정은 *The Missionary Review*를 통해 미국교회에 1차로 했으며, 1884년 녹스의 이름으로 “조선의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호소한 편지가 외국 선교지(宣教誌)에 실려 결국 많은 미국 신학생들이 읽게 되었다.<sup>4</sup>

이수정이 보낸 서신이 미국 선교잡지에 소개되자 미국 뉴욕의 맥 윌리엄슨이라는 젊은 실업가가 이 소식을 접하고 5천 달러를 선교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중 절반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약속을 하였다.

## 3) 선교사 내한

이때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는 활기를 띠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료선교사 알렌(Dr. H. N. Allen, M.D.)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1884년 9월 20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의료선교사 알렌은 기독교

<sup>3</sup> The Korean Mission Field (July, 1937), 140.

<sup>4</sup> The Missionary Review Vol. VII(1884), 145-146. Rijiutei's Appell Missionary Yokohama Dec. 13. 1883.

선교사로서 한국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 후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는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를 파송케 되었으며,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에서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1884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요코하마에 상륙하였다. 때마침 일본 주재 미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와 일본 주재 루미스 미 북장로교 선교사의 영접을 받고 일본에 상륙하였다. 이때 이수정은 한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모아 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배편이 마련되어 1884년 3월 31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들은 항해하는 갑판에 올라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미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던 일본 요코하마, 나가사키는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지만 부산은 첫인상부터 무슨 벌집 같은 자그마한 집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거리는 전혀 정돈이 안 되어 있었다. 여기에 어른이고 아이들도 할 것 없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오후 3시까지 모이라는 선장의 말에 따라 부산항에 모여서 다시 목적지인 인천 제물포항을 향해 출발하게 됐다.<sup>5</sup>

선장의 말대로 부산항에 도착하여 다시 4월 3일 승선을 하였다. 일행을 태운 배는 인천 제물포를 향하여 열심히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따라 비가 서서히 오더니 여기에 북풍이 불어와 항해하는 데 여간 어렵지 않았다. 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만 그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이들은 그해 4월 5일 부활절이었기에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일찍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려고 하였지만 비바람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기는 힘이 들 것 같았다.<sup>6</sup>

결국 이들은 부활절 오후 3시경에 주한 선교사 알렌의 안내를 받으면서 인천 제물포항에 하선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사건으로 보수파 민영익 등이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에는 제한을 받을 것 같고, 또 언제 우정국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아펜젤러 부인이 때마침 임신 중이어서 아펜젤러 부부는 서울 입성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다이부츠(大佛) 호텔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미국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다.

조선의 국내 사정이 좋지 않으니 1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어학 훈련을 받고 국내 사정이 호전되면 그때 돌아와서 교육 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sup>7</sup>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2주간 인천에 머물다가 다시 일본 나가사키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본 막부 정권의 실력자였던 도쿠가와(德川家康)가 철저히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막부정권은 고닌구미(五人組)를 조직하고 천주교 신자를 색출하여 배교하지 않는 자는 전부 나가사키 사형장으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처형시켰다. 나가사키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던 아펜젤러 부부는 순교를 각오하고 1885년 6월에 입국을 하고 8월에 정

<sup>5</sup>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서울: 콤팩출판사, 2002), 86.

<sup>6</sup> Ibid., 88.

<sup>7</sup> Appenzeller, Letter (April. 8. 1885), Inchun, Korea.

동에 배재학당을 설립하였다.

이미 입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렌이 운영하는 광혜원에서 조선인을 모아 놓고 의학 강의를 하면서 알렌을 돕고 있다가 자신도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선교사의 길을 독자적으로 걷겠다고 결심을 하고 1886년 2월 경신학당(또는 예수학당)을 설립하고 고아원 겸 학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시 정동 자신의 집에서 1887년 9월에 정동장로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그의 선교사역이 시작된 지 어언 6년이 지나게 되었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안식년을 맞이하던 1891년 9월 일시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 4) 미 남장로교 선교사 유치운동

##### (1) 언더우드 선교사 안식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을 하였지만 안식을 하는 것도 잊은 채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고 한국 선교 현황 보고 강연을 부탁받았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를 하였다. 신학교에서 보고강연을 잘하면 한국에 지원할 선교사가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을 하였다. 이때 미국 남장로교 소속 신학생 테이트(L. B. Tate)에게 깊은 관심을 심어 주었다. 다시 언더우드는 1891년 10월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모이는 미국신학생해외전도연합회가 주관하는 곳에 강사로 가게 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선교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었으며, 이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 윤치호라는 사람이 밴더빌트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다. 윤치호 역시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강연을 하였다. 이들의 강연을 들었던 이 모임에서 맥코믹 신학생 테이트와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 신학생인 존슨(C. Johnson)과 레인놀즈(W. D. Reynolds)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신청을 하였다.<sup>8</sup>

이들은 큰 기대를 갖고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를 찾아갔지만 해외 선교부의 책임자는 한국은 알지도 못하며 현재 그리스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거절하였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소식을 듣고 미국 남장로교회 구역을 순회하면서 보고강연회를 가졌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개교회마다 호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헌금까지 내놓은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헌금 500달러를 내놓게 되었으며, 이에 감동이 되었던 언더우드의 형인 존 언더우드 장로가 2,000달러, 그 외 동료들의 협조로 모두 3,000달러가 준비되었다. 이처럼 선교기금이 마련되자 이를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현금 함으로 이에 힘을 얻었던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7명의 지원자를 받아 1892년 7월 7일 선발대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송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최초의 세 명의 선교사가 정해진 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네 명의 여성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면 테이트, 메티 테이트(M. Tate) 남편, 데이비스(Miss L. Davis) 여선교사, 전킨(W. M. Junkin), 레이번(M. Leyburn) 선교사 부부, 레인놀즈(W. D. Reynolds), 볼링(P. Bolling) 선교사 부부였다.<sup>9</sup>

이들의 환송예배는 한국선교의 성공을 비는 예배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선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이들 7인의 선발대 선교사들은 1892년 11월 서울에 도착하여 서대문밖 프랑스 대사관 옆에 자리를 잡고 어학 훈련을 받았다.

<sup>8</sup> J. T. Brown, Mission To Korea (FCUS: Atlanta USA, 1962), 19

<sup>9</sup> Ibid., 22

## (2) 호남선교 7인 선발대

이들은 선교구역인 호남지방을 배정받고 1893년 6월 전라도 전주에 전주교회를 설립하였다. 다시 1894년에는 드루(Dr. A. D. Drew, 유대모) 선교사와 벨(E. Bell) 선교사, 오웬(Dr. C. C. Owen) 선교사, 해리슨(W. B. Harrison, 하위럼) 선교사들이 차례로 호남선교로 내한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에는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가 군산선교부를 설치하고 군산교회를 설립하였다.

1897년 2월에는 벨 선교사와 해리슨 선교사가 전남 내륙지방인 나주에 선교부를 설치하려고 선교부지와 기거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였지만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목포가 개항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가 목포에 내려가 초분(草墳)이 있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목포선교부를 개설하고 양동교회를 설립하였다.

## 5) 목포 양동교회 출발

### (1) 목포 양동교회 설립과 배유지 선교사

벨 선교사 부부와 오웬 의료 선교사 부부가 초분을 정돈하고 그 자리에 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전남지방의 최초의 교회였다. 벨 선교사를 가리켜 배유지 선교사라 부르고, 오웬 선교사를 오웬 선교사라 불렀다. 배유지 선교사는 주로 내륙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오웬 선교사는 의사이면서 목사였기에 목포진료소를 개설하면서 주로 목포 앞바다에 널려 있는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육지로는 해남, 강진, 장흥, 고흥지방까지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선교사가 목포에 들어와 선교운동을 개시하기는 꽤 오랜 시기에 속한다.

현 무안군 이로면에는 천주교가 창립되어 메이지 31년 전 봄에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가을에는 개항이 되었는데 약 반년 앞섰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 배유지(Eugene Bell)는 조선인 변창연을 파견하여 서울에서 목포에 오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선교에 종사하게 되었다. 배유지 선교사는 목포에 온 이래에 그 머나먼 목포에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오직 구령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다음 해인 메이지 31년 가을에 만복동(현 양동 86번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도소, 현재 유서백 선교사의 저택 겸 선교사 주택을 건축하였다.<sup>10</sup>

목포는 개항이 되면서 일본과 중국 상해를 왕래하는 무역선이 다녔으며, 이 일로 목포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목포로 옮겨 오고 있었다. 그래서 배유지 선교사는 자신의 조사인 변창연에게 교회를 맡기고 내륙지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나주지방과 영광지방, 장성지방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여기에 목포선교부는 1902년에는 정명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03년에는 영흥학교를 각기 설립하였다. 남편인 배유지 선교사는 날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차룻테가 얼마나 귀엽게 말하는지 말씀드렸던가요. 그 아이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어제는 그 아이가 강충강충 뛰어와서 얼굴을 비비면서 '맘무, 왁! 업어 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sup>11</sup>

<sup>10</sup> 목포부사편찬위원회, 『목포부사』, (전남: 목포부사편찬위원회, 1930), 439.

<sup>11</sup> Lottie, Letter To Mother (Nov. 14, 1900).

배유지 선교사 부인 로티 여사는 두 딸을 낳아서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키우고 있었다.

## (2) 배유지 선교사 부인 첫 순교

배유지 선교사는 1901년 4월 12일 전주에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협의 회로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전주를 향해 갔다. 목포지방 사경회라도 하는 날이면 부인 로티 선교사가 강사로 나가 한국어로 한국인 여성을 교육시키는 일을 감탄할 정도로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리고 있었다. 배유지 선교사는 회의 도중 부인 로티가 그 딸을 버두고 급성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가장 빠른 시일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산항에서 목포를 향해 가는 배를 찾았다. 마침 군산에서 일본상선이 목포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배로 목포에 도착하였지만 부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으며, 두 딸은 엄마 품에 안겨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다.

배유지 선교사 부인 로티 여선교사의 죽음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촉매제가 되었다. 로티 여선교사는 한결같이 성경대로 살다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서는 한국 첫 순교자인 로티 선교사의 장례식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 주관으로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서울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양화진에는 1900년 광혜원 원장인 헤론 의료 선교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편 목포에서는 신도들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로티 선교사의 위대한 순교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로티 기념교회

당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때 양동제일교회 교인들은 부지런히 헌금하여 돌집으로 교회 신축을 하고 목포의 선교기지를 더욱 든든하게 확보하고 나섰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념교회당을 완공했던 양동제일교회는 1903년 완공을 하고 200여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발전을 하였으며, 로티 선교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로티 위더스폰 벨 기념교회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 3. 목포 양동교회 박연세 목사와 두 번째 순교

### 1) 중일전쟁과 신사참배 결의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이룬 이후 총독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1931년 중국 동북부지방 삼성(혹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을 침략하고 만주국을 설립하였다. 이 만주국의 통치는 일본 관동군이 맡았으며, 만주국의 수도를 장춘(長春)으로 정하고 신경(新京)이라 불렀다. 말이 만주국이지, 모든 통치는 일본 관동군 사령부가 맡았다. 그 넓은 대지를 단숨에 삼킨 일본은 중국 본토를 그대로 둘 리가 없었다. 그들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상해를 점령하고 당시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남경을 침략하여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하면서 그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 군인들은 남경(南京)의 선량한 양민을 240만 명이나 학살한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이처럼 1931년 만주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으로, 아시아는 유색인이 차지해야 한다면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부르짖으면서 아시아에서 모든 백인을 추방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중일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일제는 한국교회에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미명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섰다. 당시 독일 히틀러

와 이탈리아의 무솔소리니, 일본 이렇게 3국 동맹을 맺었기에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 교황청에 압력을 가하여 조선 천주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1936년 5월 당시 뭇소리니 지배하의 이탈리아 내에 있던 로마 교황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사에 참배해도 좋다는 훈령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당하였다.<sup>12</sup>

로마 교황청의 신사참배가 한국 천주교에 하달되자 한국 천주교에서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알고 전국 신자들에게 알리고 역시 한국 천주교 지도부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신사참배를 행하였다. 다시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양주삼 총리사의 주재하에 간부들을 소집하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연전(年前) 총독부 학무국에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조회한 바를 인쇄 배부한 일이 있거니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잘 인식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고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던지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반이나 구애됨이 추호도 없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sup>13</sup>

이러한 내용을 모든 교파들에게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였으며,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양주삼 총리사의 명령으로 개교회에까지 전달하였다. 이 일로 한국 천주교와 한국 감리교회가 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한국 장로

교회라고 해서 그냥 뇌들 일본이 아니었다. 그동안 한국 장로교회를 신사참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기독교대회 의장 도미다(富田滿) 목사가 수시로 한국을 왕래하면서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였다. 한반도에서 가장 교세가 큰 한국 장로교회의 27개 노회 중 19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상황이었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일제는 1937년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될 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날치기 식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원래 회의법상 반대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반대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찬성표만 묻자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때 총대원들 사이에는 고등계 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한부선 선교사는 총회장의 사회가 불법이라고 항의를 하였지만 고등계 형사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신사참배 결의안이 통과되자 서기 광진근 목사는 미리 작성해 온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我等은 神社가 宗教가 아니요, 基督教의 敎理에 위반되지 않는 本意를 理解하고 神社參拜가 愛國的 國家儀式임을 自覺하며 神社參拜를 率先 勵行하고 追리 國民精神 總動員에 參加하여 非常時局下에 銃後皇國國民으로서의 赤誠을 다하기로 期함.<sup>14</sup>

이처럼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총회는 부회장 김길창 목사와 임원, 각 노회장들이 평양신사에 참배를 하고 속회를 계속하였다. 이 일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해 왔던 한국 장로교회까지 굴복하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개교회에서도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국민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sup>12</sup> 「大阪毎日新聞」(1936. 8. 2).

<sup>13</sup>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78), 187.

<sup>14</sup>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7회 회의록」(경성: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1938), 9.

시작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1939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내에 국민총동원정신연맹(國民總動員精神聯盟)을 조직하고 이사장에 총회 종교교육부 총무 정인과 목사가 맡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독려를 하였다.

## 2) 천황신제와 일본신사

일본에서 언제부터 천황이란 말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일본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에서는 왕을 황제(皇帝)라 불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황제보다 더 높은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하던 중 천황(天皇)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천황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도교(道敎)에서 온 말로 우주 지배자를 천황대제(天皇大帝)라고 부른 데서 연유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7세기 초 중국 수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수나라의 황제(皇帝)와 대등한 말로 도교의 천황대제란 단어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따서 천황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오가미(大王), 즉 대왕(大王)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후 일본은 황국사관(皇國史觀)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면서 천황의 역사를 거짓으로 기술하게 되었다.<sup>15</sup>

이러한 사관은 잘못된 사관이다. 일본의 실제적인 천황은 3세기 말 15대 응신천황(應神天皇)부터이다. 이때 즉위했던 응신천황은 규슈 지방이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즉위하고 천황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사학자들은 확실치 않다고 말한다. 천황이 실제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기는 9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정치는 귀족과 무사(武士, 사무라이)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이들은 천황으로부터 대권을 부

여받았다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일본 국내에서는 성(城)을 중심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일로 자연히 천황은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천황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의 왕인(王仁) 박사가 전해 준 유교 문화와 한자의 문자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었지만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은 없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도 힘이 들었다.

이 무렵 에도(江戸=현 東京)에서 도쿠가와(德川家康) 장군이 이끈 막부정권(幕府政權)은 일본을 장악하고 교토(京都)에 있는 천황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1867년부터 정권이 몰락하면서 교토에 있는 메이지(明治) 천황이 정권을 장악하고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東京)로 천도(遷都)하였다. 1889년 일본제국 헌법이 발표되면서 일본 천황의 권력은 막강하여졌다.

제1조 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므로 침략할 수 없다.<sup>16</sup>

이처럼 일본제국 헌법은 신성불가침 조항으로 천황 자체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권위의 절대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천황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가 곧 법이었고, 그의 자리를 헌법에 못 박아 놓았기에 천황을 가리켜 현인신(現人神), 즉 천황은 살아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일본제국 헌법은 천황을 신으로 받들고 천황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천황의 이름으로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전쟁보상금으로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하고 곧바로 대북신사(台北神社)를 신축하고 대만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 신인 아마데라스오미가미(天祖大神)

<sup>15</sup> 일본 서기(書記)에 의하면 주전 660년에 신무천황(神武天皇=진무텐노)이 일본의 최초의 천황으로 즉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村上重良, 『天皇과 天皇制』(東京:東洋出版社, 1988), 74.

<sup>16</sup> 「일본제국헌법」 1.3조.

와 메이지텐노(明治天皇) 위폐가 안장된 곳에 참배를 하게 하였다. 역시 1905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승리하자 러시아 영토 사할린 섬 절반을 보상으로 받고 가라후토(華太)라 부르며, 이곳 역시 가라후토 신사를 만들고 일본 천황을 숭앙하도록 하였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치욕의 날인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조약을 공포하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였다. 이미 일본인 마을에는 신사를 설치하였으며, 1912년에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신축하고 1922년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그 후 일제는 각도 도청소재지(道廳所在地)에 신사를 설치하고 매월 1일과 15일은 신사참배(神社參拜)일로 정하고 한국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하였다.

### 3) 일본 천황신과 싸운 박연세 목사

일제는 천황의 명령이라면서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滿洲國)을 신설하였다. 말이 만주국이지 이미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항일운동을 하는 한국 독립군을 섬멸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 후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곧이어 장로교 총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결의토록 하였다.

이미 총회가 결의했던 내용대로 잘 순응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중일전쟁을 성전(聖戰)이라 말하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지교회 담임목사에게 하달하였다. 일제는 1942년 7월 7일 중일전쟁 5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날 주일 예배 시 기념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박연세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목포지방은 그날따라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다. 아직도 한 더위가 오려고 하면 보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해 7월은 더없이 무더운 날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다. 그 무더운 7월 7일 주일,

목포 시내에 살고 있던 양동교회 교인들은 박연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어서 더위도 잊은 채 한국인들의 손으로 건축되었다는 돌집 예배당에 모여와 초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고등계 형사(高等係 刑事)들도 그 자리에 버티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미 총독부 학무국의 명령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중일전쟁 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있었다. 박연세 목사는 몹시 고민을 하였다. 그는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달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위가 있었다. 그는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이미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었던 일제는 1942년부터 한국 청년들에게도 천황군(天皇軍)으로 지원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이 감사해서 서울 승동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 여기에 여성단체들도 애국금차회를 조직하고 황군징집을 위해서 기독교 여성들이 앞장서기도 했다. 여기 회장은 김복유, 간사는 김활란, 송금선, 고헌경, 방신영, 손정규, 유각경, 차사백 등이었다.

1942년 5월 18일 오후 8시 경성 인사정 중앙예배당에서 감리교단 경성교구 주최로 부인 강연회를 열고 징병제 실시에 대한 부인들의 인식을 계몽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분의 강연으로 만당(萬堂)한 청중이 감격 중에 성황리에 마쳤다.<sup>17</sup>

이러한 일은 비단 여성들만 행한 것이 아니었다. 역시 1942년 8월 9일 주일 8시에 종로구 인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승동교회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유력한 목사들이 모여 천황의 은혜로 조선반도 청년들도 천황군(天

<sup>17</sup> 「기독교신문」(1942. 6. 3).

皇軍)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었다고 하면서 800여 명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관계로 천황군이 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였다. 한국교회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제1계명을 어기고 천황을 숭앙하면서 조선 청년들은 매일같이 전선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조선반도의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목포 양동교회에서도 중일전쟁 5주년을 맞이해서 천황군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천황군 승리를 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박연세 목사는 그와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였다. 어느덧 양동교회는 아래층 마룻바닥과 약간 높은 다락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렇게 무덤덤 초여름이었지만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비장한 모습으로 박연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재판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소화(昭和) 17년(1942년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 필자주 중일전쟁) 기념일을 당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동일 정오까지 전기 양동교회에서 목포부 죽교리 124번지 마쯔다(필자주, 한국인으로서 창씨개명, 松田昇)외 40여 명의 교인에게 설교 할 때 “오늘은 지나사변 제 5주년 기념일인 바, 일본은 세로히 또 미, 영을 상대로 하는 대동아전쟁(필자주,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과 소련과 교전 중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약육강식(弱肉強食) 전쟁이다” 등의 말을 함부로 하여 대동아전쟁의 숭고한 목적을 비방하는 듯한 언사를 함으로써 시국에 대한 조언비어(造言飛語)하고…….<sup>18</sup>

<sup>18</sup> 昭和 19年 2月 17日 박연세 목사 지방법원 판결문.

박연세 목사는 대동아전쟁을 약육강식의 전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지켜보던 일본 고등계 형사는 그의 설교 내용을 듣는 순간 몇 번이고 중단하고 싶었지만 많은 교인들이 박연세 목사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교인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열심히 메모를 하였다. 훗날 이 교회의 예배시간에 참석했던 교인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대질 심문을 하였다. 두 번째의 검거 사유는 천황 숭배에 대한 문제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제5회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소화 17년(1942년 8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경까지 사이에 판시한 교회에서 대성동 김태균(金泰均), 죽동 김동만(金東萬) 등 3, 40명에 대하여 설교 중 신사참배 문제와 신관(神觀)에 여담이 나왔을 때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천황을 제일 숭배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한다는 뜻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sup>19</sup>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사상에 위배되는 처사이므로 박연세 목사는 과감하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여기 설교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김태균, 김동만은 일제 경찰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갖고 박연세 목사를 제거하는데 한몫을 하고 나섰다. 이 일로 이들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일제가 특별히 대우하여 경제적인 도움으로 사업에 번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박연세 목사에게는 일본제국주의 법에 의해 형량이 내려졌다.

<sup>19</sup> Ibid.

법률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소위 중 제1의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한 점은 조선 임시 보안령 제20조에, 제2 정치에 관한 불온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점은 보안법 제7조에, 제3의 천황폐하에 대한 불경의 소위가 있는 점은 형법 74조 1항에 각각 해당하는 바, 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제42조에 의해 죄의 형별 명칭을 변경하며 이는 형법 제45조 각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적용 동법 47조 본문 제10조에 의하여 제1 중한 불경죄의 형에 병합 가중한 형기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미결 구류 일수 중 90일을 우 분형에 삽입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 18년(1943)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고이오(越尾鎮男)

조선총독부 판사 하마구치(濱口松世)

조선총독부 판사 가다야마(方山順元, 필자주, 한국인 방순원).<sup>20</sup>

박연세 목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일본인 고이오, 하마구치와 여기에 한국인 방순원 등의 판결에 의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때 박연세 목사는 신앙의 양심상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을 취했지만 이렇게 형을 확정시킴으로 이곳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는 판단 아래 그는 항소를 하게 되었다. 이미 박연세 목사가 목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자 당시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의 의장이었던 조승제 목사가 목포 양동교회의 청빙을 받고 시무를 하게 되었다. 조승제 목사는 함경도 출신으로 일본 감리교 계통 학교인 아오야마(靑山) 학원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sup>20</sup> 소화 18년 “1943년” 10월 18일 박연세 재판 기록.

열심히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전라남도 지방의 어머니 교회인 양동교회에 부임하였다. 조승제 목사는 친일적인 인사로서 마지막에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을 설립하는 데도 공을 남길 만큼 악역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연세 목사는 정들었던 목포 양동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목포형무소에 있는 동안 교인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사식과 영치금을 넣어 주기도 하였다. 교회 내에서 새로 부임한 조승제 목사를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들은 마쭈다, 김동만(창씨개명은 히가시 東萬總), 김태균 등이었다. 그러나 박연세 목사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역자로 불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었다.

#### 4) 박연세 목사 순교

지방감찰청에서 항소했던 박연세 목사는 목포형무소를 떠나 대구형무소로 이감하게 되었다. 대구지방은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몹시 추운 지역으로서 사상범들은 거의가 대구형무소에 수감을 시켰다. 대구형무소에 이감되었던 박연세 목사는 대구복심검정찰청(현 고등검찰청)에 출두되어 이미 목포지방 검찰청에서 작성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목포 지방감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서류를 그대로 놓고 재심을 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는 천황폐하를 제일 존경해야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존경한다”는 뜻의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두렵게도 지존(至尊=천황)에 대하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위에 있는 듯한 언사를 함부로 함으로써 불경(不敬)의 행위를 한 자이다.<sup>21</sup>

<sup>21</sup> 소화 19년 “1944년” 1월 20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목포 양동교회 교인 중 검사의 증인으로 마쓰다(松田昇)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김동만(金東萬)의 증인 진술을 받고 1944년 2월 17일 대구복심원에서는 10월의 형을 확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추운 대구형무소에서 사상범이라 하여 독방에서 옥살이를 하던 중 1944년 2월 25일 그만 동사(凍死)하고 말았다.

그가 동사하자 때마침 그의 제자가 목회하고 있던 대구 남문교회 서남동 목사에게 그의 동사 사실을 알렸고, 서남동 목사는 즉시 대구형무소로 달려갔다.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은 모은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서남동 목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하였다. 일단 시신을 인수했던 서남동 목사는 대구형무소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곳에 가서 따뜻한 물을 적시어 시신을 편 다음 목포로 연락을 하고 직접 입관하여 열차 편으로 목포까지 가게 되었다.

서남동 목사는 박연세 목사의 유족들에게 대구에서 동사하게 된 배경을 소상하게 알려 주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박연세 목사의 사상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천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말에 놀라 죽일 결심을 하고 간수부장(현 교도관)이 독방에 있는 박연세 목사 감방에 들어가 마루 짝을 한 칸씩 비워 두고 뜯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 감방에 찬물을 방바닥에 흘러내리게 하여 결국 감방은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박연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구형무소에서 장엄한 순교를 하였다.

#### 4. 박연세 목사와 3·1운동

##### 1) 박연세 목사와 군산 영명학교

박연세는 1883년 김제군 용지면 신사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전킨(전위림) 선교사의

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게 되었으며, 박연세는 1902년 전킨 선교사가 설립한 군산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보통과와 고등과를 이수했던 박연세는 김제군 백구면 유강리에 김해 김씨 문중에서 운영하는 신광학당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유강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부친에게 전도했던 전킨 선교사, 군산 영명학교 설립자인 전킨 선교사가 1904년 4월 전주에서 선교활동으로 인한 과로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다. 이러한 관계로 박연세는 전킨 선교사를 직접 만난 일은 없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하여 군산 영명학교와 남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 2) 익산 남전리교회와 3·1운동

이러한 소식을 접했던 박연세는 전킨 선교사의 뒤통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굳게 다짐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가 설립했던 전북 익산군 오산면 남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전킨 선교사의 밀알의 사상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 일로 남전리교회는 후에 민족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기도 하였다. 실질적으로 이 교회 청년이면서 군산 영명학교 수학교사였던 문용기(文容基)는 익산지방 3·1운동의 주모자가 되어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양팔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문용기는 기독교 신자로서 전라도 군산항 교사였다. 마침 4월 초순 이리역에는 1만여 남녀 군중이 모여 독립운동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일제의 수비병들은 급히 출동하여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검을 휘두르고 발포를 하였다. 그러나 용기는 태연자약하게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외병은 태극기를 잡고 있는 용기의 오른팔을 칼로 내리쳤다. 그러나 용기는 굴하지 않고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붙들고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자 외병들은 용기의 왼쪽 팔도 내리쳤다. 두 팔을 내리찍힌 용기는 그래도 용기

를 내어 몸으로써 태극기를 받치고 서서 군중들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재촉하였다. 무자비한 외병은 칼을 들어 용기의 심장을 찢빛으로 물들여 놓고 말았다. 용기는 쓰러지면서도 “여러분이어, 여러분이어, 나는 죽어 지하에서라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돕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었다.<sup>22</sup>

이리 독립운동 사건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도 영원히 남길 사건이 되었다. 문용기는 목포에 있는 왓킨스 중학교(현 영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산 영명학교(현, 군산제일고등학교) 수학교사로 활동을 하였다. 그가 졸업했던 왓킨스 중학교는 배유지 선교사가 1903년에 설립한 학교였으며, 박연세 목사는 양동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영흥학교 채플과 성경과목을 가르친 일이 있었고, 문용기와는 군산 영명학교 교사로 있을 때 자주 만난 일이 있었다.

### 3) 박연세 목사와 3·1운동

박연세는 군산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국사와 한문을 담당했던 교사였으며, 군산 구암교회 시무장로이기도 하였다. 그가 군산지방의 3·1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된 동기는 군산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했던 제자 김병수라는 학생과 연관이 있다. 김병수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약국에 근무하고 있던 이갑성(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의 연락을 받고 군산에서도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해서 김병수는 2월 26일에 군산 영명학교에 찾아와 은사 박연세 장로를 만나게 되었다.

김병수는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독립선언서 99매를 내놓고 군산에서도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

다. 그의 뜻을 알았던 교사 박연세는 즉시 남학생들을 자신의 방에 불러 모아 놓고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박연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은 군산에서도 3·1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섰다. 먼저 박연세는 교사인 이두열(李斗烈), 김수영(金洙英), 고석주(高錫柱), 성정현(宋正憲) 등과 의논을 하였으며, 다시 이러한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재학생 중 조옥초(趙玉肖)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접선을 하였다.

박연세와 이두열 등의 교사들은 조옥초, 전세중(田世鐘), 김영후(金永厚), 송기옥(宋基玉) 양기철, 전세중, 김영후, 이도준, 홍천경, 고준상, 유복섭, 오한길, 강규언, 강인성 등을 기숙사에 불러 놓고 밤새도록 함께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이 일은 다시 확산되어 멜본딘 여학교와 그리고 군산 구암병원에 있는 사무원인 양기준, 유한중, 김창윤, 양성도, 안경태, 홍원경, 임병율, 이진규, 김준실, 송기주, 이재근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군산개복교회와 구암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합세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6일 군산 장날을 기해서 만세를 부르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본 경찰이 하루 전날인 3월 5일 영명학교를 급습하고 주모자인 박연세를 비롯해서 10명을 체포해 갔다. 이러한 광경을 보았던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 학생들이 학교 비상종을 울리면서 운동장에 모여 “우리도 같이 잡아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때 일경들은 총을 들고 위협 사격을 가했지만 학생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계속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구암병원 사무원들과 학생들이 군산 시가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시내에 진입하자 군산보통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어느덧 500여 명이 모여 들면서 계속 군산경찰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군산경찰서 앞으로 향해 시위하는 군중에 놀란 군산경찰서에서는 이

<sup>22</sup> 朴殷植, 『朝鮮獨立運動之血死』(東京:平凡社,昭和48), 119.

리(현 익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헌병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위 군중들은 이리 헌병대가 착검을 하고 군중을 향해 위협을 가하였지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해 나갔고, 이중 일본 헌병대에 의해서 46명이 구속되었다.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던 이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조서를 받고 고문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일본 헌병대가 우리를 구속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였다.

여기에 군산 보통학교 학생들은 자극을 받고 학생 중 70여 명이 자퇴서를 일본 교장 앞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완전 소각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군산 시민과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에 3월 30일 밤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등불 행진을 벌였고, 구속자들의 전면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월 31일 검속된 사람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공소하여 형량이 많이 감소되었다. 당시 영명학교 전문부 학생 강문호(康文昊)는 대구 북심원에서 “남의 나라 뺏은 강도들이 제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웬 말이야”고 하여 1년 6월 형량을 올려 선고받았다.<sup>23</sup>

군산지방의 3·1운동 주모자로 낙인이 찍혔던 박연세 교사는 사전 모의 및 배후 조종자로 몰려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그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에서 2년의 선고를 받고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 외에 같이 참여했던 1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역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여기에 서울과 군산, 이리를 오가면서 연

락을 취했던 김병수는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았다.<sup>24</sup>

## 5. 박연세 장로 신학교 진학과 목회

### 1) 박연세 장로 신학교 진학

박연세는 군산지방의 주모자라 하여 2년의 형을 받고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교사로서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출감 후 평양에 있는 장로회신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선친이 설립했던 구암교회 장로로 시무 중 3·1운동에 가담하여 비록 옥살이를 하였지만 출감 후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면서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 당시 평양에 있는 평양장로회신학교는 4개(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에서 연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선교부에서 파송한 교수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박연세 장로가 평양장로회신학교(일명 평양신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3·1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출감 후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에 모이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새벽기도회에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일로 박연세도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 틈에 끼여 기도하면서 수업을 받았다. 이때 신학교의 수업과정은 3년이었기에 박연세도 다른 신학생과 함께 목회에 필요한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1925년 3월에 제18회 졸업생으로 25명이 졸업을 하였다. 군산에서 평양을 오르내리면서 3년간 공부한다는 것은 보통 소명의식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구형무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했

<sup>23</sup> 『제주선교70년사』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8), 45.

<sup>24</sup> 群山地方 3·1運動裁判記録.

던 것을 지키고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장을 들고 교문을 나섰다.

## 2) 첫 목회지

박연세 장로는 전북노회 추천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였기에 졸업하자 곧 전북노회 소속으로 돌아왔다. 이미 신학교는 3월에 졸업을 하였기에 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회 임사부에서 그를 청빙한 서류를 검사한 후 가을노회에서 전북노회 군산동 북부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임사부에 현의되었다.

동련교회와 고현교회에서 박연세 씨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옵기 5월 3일에 장립하였사오며……. <sup>25</sup>

황등 동련교회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에 있었고, 고현교회는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는 목사가 귀한 때인지라 박연세 목사는 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황등 동련교회와 익산 고현교회를 오가면서 목회를 하였다. 익산 고현교회는 익산 시내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농경사회였기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박연세 목사는 두 가난한 교회를 오가면서 설교도 하고 또 때로는 심방도 해야 하는 등 바쁜 초년병 목회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두 교회가 다 부흥 성장하였다. 비록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실력이 어느덧 전남 목포지방까지 알려져 전남지방에서 제일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양동교회의 청빙을 받고 1927년 1월 전북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부임을 하게 되었다.

역시 박연세 목사의 영력을 알았던 목포 양동교회 교인들은 그를 대대

적으로 환영을 하였지만 정들었던 박연세 목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두 교회는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연세 목사나 두 교회 교인들은 그의 사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목포로 보내기로 하였다. 목포 양동교회는 과거 3·1운동 당시 목포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관계로 박연세 목사의 부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 6. 목포에 부임한 박연세 목사

박연세 목사가 부임할 무렵 목포지방에는 교회가 양동교회 하나뿐이었다. 그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동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죽동교회를 분립해 주었으며, 다시 연동교회를 분립해 주었다. 그리고 박연세 목사는 목포선교부가 철수하자 선교부에서 운영했던 달 성경학교와 사경회를 인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여기에 목포에는 선교부가 설립한 두 남녀 미션 학교가 있었던 관계로 두 학교의 채플과 성경과목을 가르치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여기에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모두 철수해 버렸다. 이 일로 사경회나 달 성경학교 개설 문제는 항상 박연세 목사의 몫이었다. 그리고 두 미션 학교는 일본 경찰이 적산이라 하여 목포 영흥학교는 신안군 암태면 지주인 문재인 씨가 학교를 인수하여 목포 문태중학교라고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목포 정명여학교는 목포시가 인수하여 목포여자상업학교로 변경을 하고 문을 열었다.

이미 그는 목포에 와서 양동교회 창설자인 배유지 선교사 부인이 순교한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일본 천황신과 함께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그는 목포를 떠나 1944년 2월 25일 시신으로 돌아와야 하는 슬픈 일을 만나게 되었다.

<sup>25</sup>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제17회 회록」(1925), 19.

한국 장로교회는 1943년 5월에 해산을 당하고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을 만들면서 교단 본부에 통리는 채필근(佐川彌近) 목사, 부통리는 김응순(新森一雄) 목사였다. 총회는 의장에 조승제(趙村昇濟) 목사, 부의장에 김진수(金城珍洙), 서기에 김종대(金子鍾大) 목사였다. 바로 조승제 목사는 의장으로서 박연세 목사가 목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철저하게 일본 천황을 숭앙하면서 목회를 하였다. 전남교구(노회를 교구로 불렀음)로 이명 오면서 전남교구장을 역임하였다.

여기에 목포 양동교회에서 개척했던 목포 연동교회에서는 이남규 목사가 목회를 하였다. 그런데 이남규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하여 전남교구장인 조승제 목사로부터 목사 면직을 당하고 목회지를 잃고 낙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인 1945년 8월 15일이 되자 조승제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으며, 이때 목포 연동교회에서 면직을 당했던 이남규 목사가 이 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그 후 조승제 목사는 일부 친일에 함께 협력했던 교인들과 함께 목포 시내 일본인 적산 여관을 인수하여 목포 남부교회를 설립하여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그 후 그는 무안읍교회로 이동하여 목회를 하였다. 그는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 아들 조홍래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아버지 조승제 목사의 친일행각을 아들이 대신 사죄하였다. 그 후 그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계속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조홍래 목사의 아들인 조진영 목사는 2003년 7월 서울 향린교회에서 부임하여 8·15광복절 기념주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조승제 목사의 죄과를 용서해 달라고 참회의 설교를 했다고 일간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앞으로 일제에 철저하게 협력했던 친일의 역사들에 대하여 스스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 7. 맺는말

박연세 목사가 순교하기 이전 군산 영명학교는 3·1운동 주동자로 몰려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산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박연세 등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박연세는 군산지방 3·1운동 책임자라 하여 대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였으며, 석방 후에는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배우고, 졸업 후 전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익산 고현교회와 황등 동련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927년 목포 양동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다. 그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유달산 산정에 올라가 민족의 해방을 외치기도 하였으며, 변절해 가는 한국교회에 순전한 신앙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었다.

옥사를 당했던 그의 시신은 목포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87년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로 국가가 최고의 훈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목포공동묘지에 있던 그의 시신은 1990년 대전 국립묘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서편에 안장되었다.

영원히 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어 믿음의 선진들이 남기고 간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A Critical Study of the Arab States from Political Perspectives  
Since the Arab Spring of 2011

■ 전호진 Jeon, Ho Jin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석사
  - 풀러 신학교 선교학박사
  - 웨일스 대학교 철학박사
-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총장



2011년 2월은 수많은 아랍 국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교가 국교이거나 국가의 공식 종교로서 다른 종교는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당한다. 우리나라나 서구 등 선진국들은 종교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유엔인권헌장 18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슬람교 국가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종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선택(communal decision)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공산주의가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라면, 이슬람은 개인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집단적 종교이다. 이러

한 가치관이나 교리는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없다.

현대 국제정치는 종교를 떠나서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와 정치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문명충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충돌은 사실 종교충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랍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리고 있으며, 중동과 경제, 학술, 종교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한국인 무슬림 3만 5천 명, 외국인 무슬림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추산).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병을 함으로 중동국가에 우리 군이 처음 파견되어 군대가 국제화를 경험하였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함으로 군대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특히 한국군대는 세 종교 간에 약간의 갈등과 경쟁이 있지만 비교적 평화적 공존을 하는 모범적 국가로 자부할 수 있다. 극단적 종교집단이 종교적 목소리를 높이면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중동의 현실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년 8개월 전 아랍 대부분의 국가에서 백성들이 배고픔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봉기하였다. 그러나 독재와 부정부패의 권력자들이 물러나자 의외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집단들이 준비나한 듯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무서운 독재자로, 부패 집단으로 백성들로부터 규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설 조니 오웰의 『1984년』을 연상한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나니 더 무서운 독재자가 등장한다. 이집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시리아 내전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군이 철수한 이라크는 매월 1,000명씩 종파 간의 테러로 죽어간다. 우리는 남의 종교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

으로 볼 때 아랍은 종교와 지도자를 잘못 만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한 일본학자도 아랍 제국의 정치체제는 “비민주주의 체제에 속하고, 더 분석하면 권위주의 체제가 특징”이라고 하였다.<sup>1</sup> 이러한 비민주주의 국가에 아랍의 데모나 혁명이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정치나 경제가 후진국 국가들의 모범적 국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 1. 아랍 스프링: SNS의 위력

아랍 스프링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서비스의 덕분이라고 말한다. 소셜 네트워크 하면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말한다.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를 이루지만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매개체 노릇을 한다. 매스미디어 전문가 야마모토 타츠야는 인도네시아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인터넷을 통제한다.<sup>2</sup> 그럼에도 아랍에서 인터넷은 민중 봉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체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튀니지 봉기에 불을 붙인 것은 한 여대생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우연히 한 청년이 경찰에게 매 맞다가 죽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서 기인하였다. 그것이 페이스북에 전달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여학생은 자신이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알 자지라 방송 기자에게 고백하였다.

소셜 네트워크는 국경이 없다. 서구 학자들은 인터넷이나 소셜 네

트워크가 인권,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반드시 유익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

튀니지에서 경찰에게 맞아 죽은 청년은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med Bouazizi)로, 거리에서 채소장사를 하였다. 그는 대학원 졸업생이지만 직업이 없었다. 2010년 12월 17일 한 여자 경찰관이 그에게서 장사를 못하게 채소를 빼앗아 갔다. 그래서 항의하자 여자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화가 난 그는 휘발유를 몸에 끼얹어 자살하였다. 그때 근처 아파트 2층에 사는 여학생이 이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그것은 요원의 불길처럼 아랍을 휩쓸고 말았다. 그 휘발유가 ‘아랍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트위터 혁명이라고도 한다. 재스민 혁명이라고도 한다. 재스민은 튀니지의 국화이다.

이슬람에서 자폭 테러는 죄가 아니라 도리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는 다. 그러나 그 청년의 자살은 분명히 죄다. 그는 튀니지 백성들의 분노와 좌절감에 불을 지른 셈이다. 23년간 통치한 대통령 벤 알리(Zine al-Abidine Ben Ali)는 사우디로 도망가고 말았다. 데모대들은 이어서 구정권의 권력자들을 축출하였다. 그들의 슬로건은 “그들은 우리의 돈을 훔쳤다” 였다.

필자는 튀니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중동을 여행하였다. 튀니지 혁명이 일어난 이틀 후에 카이로에서 중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여성 정치학 교수로부터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 여교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래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튀니지에서는 일어났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데모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3일 후 데모가 일어났고 무바라크는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이집트 봉기도 튀니지와 너무나 유사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

<sup>1</sup> 山本達也,『アラブ諸國の情報統制』(慶應義塾大學出版, 2011), 25.

<sup>2</sup> 山本達也,『アラブ諸國の情報統制』(慶應義塾大學出版, 2011), 1-4.

한 청년의 분신 자살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고 말았다. 프랑스 작가 벤 줄렌은 『아랍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저서에서 아랍 청년들에게 혁명기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당지도자나 야당 정치가 선동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라고 말한다.

## 2. 청년 혁명?

아랍 스프링을 청년 혁명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의 분노가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아랍 연구자들은 아랍의 청년들에게는 ‘혁명기’가 없다고 말한다. 속된 표현으로 “해봤자 그게 그게다”라는 식의 개념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룻밤의 무정부보다 수백 년에 걸친 억압이 더 낫다”는 아랍 속담도 인용한다. 2012년 말 「타임」지 특별 부록은 아랍 청년들의 마음에는 혁명정신이 없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억지로 모른 채하였다.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가 50년대와 60년대 데모를 해서 독재자를 추방하였지만 새로 등장한 지도자들 역시 다 독재자로 군림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집트 무바라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런데 분노가 폭발하였다. 카이로 타하히르 광장의 청년 데모대는 빵, 자유, 정의를 달라고 외쳤다. 먼저는 빵이었다.

아랍의 청년 문화가 혁명을 주도하였다.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권력자들의 부패도 크게 작용하였다. 권력자들이 많은 국가채산을 훔쳐 외국에 빼돌린 것에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서구에 무려 69백만 불의 재산을 빼돌렸고, 무바라크 가족들의 재산은 7백조 달러라고

한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프랑스, 스위스에 엄청난 재산을 숨긴 것이 탄로났다. 이것들은 드러난 은익재산에 불과하다.<sup>3</sup>

카이로 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청년문화를 인터넷 세대, 페이스북 세대, 이적세대라고 정의하였다. 아랍 청년들 5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54%가 TV 뉴스를 접한다. 그런데 67%의 청년들이 생활비를 걱정하고, 30%의 청년들은 가능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경제적 한계를 느끼고, 정치에 대하여는 공포를 느낀다. 이것을 정치 공포증이라고 한다. 돈을 벌어 보았자 식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무려 30%에서 50%를 넘는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식비부담이 아주 적은 나라로 6-15%로 본다. 22개 아랍 국가 전체 인구 3억 5천만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 인구는 60%인데 실업률이 무려 40%나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 밑에 산 지 오래된다. 결혼은 사치스러운 언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절망에서 탈출을 약속하는 급진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데올로기가 인기가 있다.<sup>4</sup>

중동의 30세 미만 인구를 나라별로 분석하면 모로코는 57%(4천만 인구 중), 리비아 59%(6.4백만), 튀니지 52%(10.5백만), 이집트 60%(81.1백만), 요르단 68%(6.2백만), 사우디 57%(27.4백만), 예멘 75%(24.1백만), 시리아 65%(20.4백만), 이라크 70%(31.7백만), 바레인 50%(1.3백만)이다. 파리드 자카리아에 의하면 중동 인구 60%가 30대 이하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루는 정치 형태는 집단적 억압과 집단적 뇌물공세로 단정한다.

그러나 일부 아랍 국가들은 청년들이 일하기를 기피하여 부득이 외국 노동자를 수입한다. 사우디는 정부가 20세까지는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주는 ‘석유복지국가’이다. 그러나 20세가 넘으면 일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일하지 않아 실업률이 높다. 요르단이나 아랍 에미리트, 카

<sup>3</sup> Vivienne Walt, “The hunt for Arab dictators’ hidden loot,” TIME, July 18, 2011: 40-41.

<sup>4</sup> “The New Middle East: After the Arab Spring, a different world unfolds,” TIME, March 10, 2011: 15.

타르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랍 국가의 실업자 통계는 서구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랍 국가에서 청년들은 과거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저항이나 데모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슬람에서는 정치가에 대한 저항은 곧 알라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데모는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한다. 그래서 체념이 청년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랍 스프링에서 청년들은 용감하게 일어섰다.

### 3. 데모의 직접적 동기와 간접적 동기

우리는 아랍 스프링을 봉기로 해석한다. 그러면 봉기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가? 학자들이나 정치 기자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도화선은 인터넷 혹은 SNS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부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2009년 이란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란의 데모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셋째, 청년실업이 특히 큰 원인이 되었다. 아랍 스프링은 빵을 달라는 데서 시작하였다.

넷째, 장기독재와 부정부패이다. 이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다섯째, 언론의 자유, 인권유린 등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한 데 대한 불만이 컸다. 복종을 너무 강요당하였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내부로부터 민주화 요구가 있었다.

여섯째, 외부로부터 압력이다. 특히 미국은 친미의 아랍 국가를 가까이하면서도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에 민주화 도미노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지적해야 한다. 아랍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 아랍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등국민이라고 자부한다. 사우디에서 한국회사에 음식을 납품하는 한 한국인 청년이 함께 일하는 사우디 청년에게 “너희들은 일등국민이라면 한국인은 특등국민”이라고 조크하였다고 한다. 이슬람이 최고 종교이므로 이슬람을 낳은 나라는 최고라는 자부심, 돈이 많다는 자부심이 작용하는 것 같다.

### 자존심이 강한 무슬림 세계

사람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잘못된 자존심은 교만이 된다. 이슬람교 세계는 자존심이 강하다. 아랍 국가는 반미감정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랍 청년들 70%는 미국에 가려고 하며, 많은 아랍 사람들이 미국과 서구로 갔고, 또 가려고 미국대사관에 줄을 선다.

아랍 국가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우월감이 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념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자 이슬람교 지도자인 호메이니는 이미 오래전에 이슬람이 서구문명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슬람 문명이 더 우월한 이유는 서구문명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다. 서구는 오직 한 가지 차원, 곧 물질세계만 생각한다. 서구는 무엇보다도 항상 부(wealth), 과학, 군사 및 기술에서 진보만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논리에서는 진보는 다른 차원을 고려한다. 이슬람은 과학, 정의, 공공복지, 경제, 국제관계, 정치, 기도 등 모든 문제에서 영적 차원, 즉 신적인 차원을 더 중시한다.”<sup>5</sup>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세속적, 물질적 종교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자유주의 기독교가 영적 차원보다는 현세적 물질세계에 더 관심을 두었

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세속주의를 더 부추겼다.

이념적으로 아랍 국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2차 대전 이후 대부분 아랍 국가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더 가까이하여 경제는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였다.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로 아랍을 지원하였던 공산국가들의 몰락은 아랍 국가에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도리어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아랍 국가들은 큰 석유소비국인 서구나 미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과 자기들 국가의 독재권력의 지지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랍 스프링은 반서구·반미 감정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만이 참 종교이고, 기독교나 유대교는 신이 계시한 진리를 왜곡하였다고 믿는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conversio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교로 돌아선 것을 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복귀(revert)라고 말한다. 태초에 이슬람이라는 참 종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만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은 복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번 케냐 백화점 테러에 영국인 백인 여자가 테러리스트로 가담하여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서양 언론은 그녀가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고 말하자 무슬림들은 복귀라고 강조하였다.<sup>6</sup>

<sup>5</sup> Akbar Ganji, "Who Is Ali Khamenei?" i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3: 38-40.

<sup>6</sup> Khadij Magardie, "Converts in search of a cause?" *The Phnom Penh Post*, September 30, 2013: 17.

한 이슬람 전문가에 의하면 중동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기술의 진출은 중동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고 말한다. 중동이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상지로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 비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 한국이 기술과 경제에서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두 나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란이나 다른 중동 국가에 발전소가 고장이 나면 한전기술자들이 고쳐 주어야 한다.

#### 4. 아랍 스프링 이후 선거

튀니지의 한 청년의 분신자살은 아주 빠르게 이웃 나라로 확산되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자들이 물러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큰소리를 치면서 독재를 하고 부정축재를 많이 한 카다피는 데모를 한 사람들에게 죽고 말았다. 아랍 스프링 이후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가 치러졌다. 백성들이 오랜만에 자기들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하였다. 봄이 온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 무르시가 대통령이 되어 백성들은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1년 만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개입으로 권좌에서 내려앉았다. 무슬림 형제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그들의 죄상이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야말로 그들의 권력은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혁명이 일어난 아랍의 많은 나라들은 도리어 겨울바람이 불고 있다. 동구는 자유화 물결 이후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랍 스프링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랍 지식인 아미지 비사라(Azimi Bishara)는 아랍 스프링을 1950년대 이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겨울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아랍 지식인들은 아랍 스프링 전에는 한 사람의 카다피만 있었는데, 지금은 "카다피가 백 명이나 된다"고 자조한다.

2012년 「타임」지 특별부록지 「The New Middle East: After the Arab Spring, a different world unfolds」(새로운 중동: 아랍 혁명 이후 다른 세계가 열리다)는 아랍 봉기는 몇몇 독재자만 하야시킨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서로를 보는 눈을 바꾸었다고 분석한다. 현재 아랍의 사태를 『1984년』년에 빚대기도 한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짐승들이 힘을 뭉쳐 폭군 짐승을 몰아내고 나니 더 무서운 ‘큰 형님’ (Big Brother)이 등장하여 독재를 한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세트 존스는 독재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로 나가게 된다는 학설과, 독재자를 무너뜨리던 자유가 온다는 학설이 중동에서는 아직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sup>7</sup>

## 5. 아랍의 불확실한 미래

이집트에서 데모가 한창일 때 많은 이집트 시민들은 미래를 더 염려하였다. 그 우려는 적중하였다. 독재자들은 야당을 키우지 않아 정권을 이양받을 만한 지도자도, 조직도, 돈도 없었다. 다만 이슬람 정당이 유일하게 준비된 야당이였다. 그러나 이슬람 정당은 민주주의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에서처럼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과 경험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왔지 공정한 국민 투표의 산물이 아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투표는 대체적으로 힘 있는 지도자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표로 동의해 주는 요식행위일 때가 많다. 그래서 항상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란 선거가 대표적인 것이다.

<sup>7</sup> Seth G. Jones, “The Mirage of the Arab Spring: Deal With the Region You Have, Not the Region You Wan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60.

특히 이슬람 국가의 헌법은 민주화를 어렵게 한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의 헌법에서 이슬람은 국교이다. “이슬람은 법의 근원이다”라고 명시한다. 정치는 종교의 하부구조이다. 이란은 이슬람 최고지도자가 국가가 결정한 법이 알라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할 정도로 대통령 위에 군림한다. 그러면서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것은 상호호순을 드러낸다. 즉 신권을 앞세운 비민주주의이다.

## 6. 시리아 내전

아랍 스프링 이후 가장 불행하게 된 나라는 시리아이다. 시리아 역시 2년 9개월 전 한 작은 도시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소리쳤다. 그것이 시리아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군대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아사드 대통령은 독재자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 알라위라는 이단으로 취급되는 아사드는 항상 수니파 무슬림들의 저항을 받아 왔다. 1983년 아버지 아사드 때 한 도시에서 수니파가 강경 데모를 하자 탱크와 비행기로 무자비하게 진압, 적어도 20만 명 이상 죽었다.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이미 10만 명 이상 죽었고 난민이 수백만을 넘는다. 나라가 정부군과 반군으로 이미 반토막 났다. 시리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0일 시리아 외무부 장관의 유엔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그의 유엔 연설을 요약하면(BBC news) 다음과 같다.

- 1) 시리아는 내전(civil war)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다. 83개국에서 알 카에다 테러분자들이 왔다.
- 2) 화약무기는 이웃 국가들이 알 카에다에게 제공했다.
- 3) 테러리스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 4) 유엔은 화약무기 조사를 마치지 않았다. 시리아는 유엔 결의를 존중

한다.

5) 이스라엘은 67년 시리아의 영토 골란 고원을 점령하였다. 돌려주어야 한다.

6)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시리아 내전은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교 종교 간의 내전이라고 말한다. 즉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리전이라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시아파의 이라크와 이란은 아사드를 경제와 군사무기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반면 반군들은 대부분 수니파이며 알 카에다 등 강경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시리아를 강성 이슬람 국가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열심히 반군을 돕고 있다.

서방과 미국이 반인륜적 살상을 하는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반군을 돕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반군이 집권한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더 무서운 반민주, 비인권적인 이슬람 정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반군들 역시 무자비한 살상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거나 죽이고 있다.

## 7. 무슬림 형제단의 득세

무슬림 형제단은 1920년대 이집트에서 등장한 일종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슬람교만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자부한다. 이슬람 국가들이 서구에 비하여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철저한 알라의 계시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철저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를 거부한다.<sup>8</sup>

프랑스 지식인 벤 줄렌은 저서 『아랍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에서 무슬

림 형제단은 패배한 것으로 말한다.<sup>9</sup>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덕을 챙긴 집단이다. 지금도 아랍의 미래는 이들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조직이 현대 이슬람 원리주의의 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란의 와중에 이들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일부 이슬람 강경파들이 창녀촌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무슬림 사회에서 매춘은 안 된다”고 외치자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켰다.

무슬림 형제단들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집트에서 데모가 한창일 때 사태를 관망하던 알 카에다가 2월 21일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주화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테러만이 아랍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온 알 카에다가 그동안 이집트의 비폭력 시위에 침묵했었다. 알 카에다의 2인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민주정부는 태생적으로 반종교적이다”라며 이집트는 그동안 소홀히 한 이슬람의 가치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출간하는 신문 「사다 알말라함」(전쟁의 메아리)은 사설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튀니지는 속히 신의 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이 제1당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바라크 시절에도 20% 인구의 지지를 받았던 제일 강한 야당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념, 조직, 정치 경험에다가 한동안 인기마저 있었다.

<sup>8</sup> 이 주제에 대하여는 필자의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서울: SFC, 2002)를 참조할 것.

<sup>9</sup> 타하랄·벤=젤룬, 『アラブの春は終わらない』, 齊藤可津子 訳 (2011), 9-10.

## 8. 성과 속이 대결하는 아랍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정치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이슬람교 내부의 분열만 더 가속화되었다. 분열을 요약하면, 1)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것이 더 깊어졌다. 2) 나라마다 성과 속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3)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다. 4)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와 형제단을 반대하는 국가 간의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는 이집트가 무슬림 형제단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때 많은 원조를 하였으나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하면서 원조를 중단하였다. 지금은 다시 원조를 재개하였다. 5) 아랍 국가들은 주로 다인종 국가이다. 그러나 아랍 스프링 이후 한 나라 안에서도 인종갈등과 지역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리비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랍 스프링 이후 이슬람 내부가 분열함에도 불구하고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인들은 국가의 정체성보다 무슬림의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가진다고 한 이슬람 전문가가 분석하였다. 그래엄 베너맨(Graeme Benneman)은 2012년 로이터 통신과의 대화에서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세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아랍인이라는 민족주의보다는 자신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랍의 봄 이전까지만 해도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아랍 민족의 집단적 생존과 번영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전체 아랍인 중 극소수에 불과했던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아랍의 봄으로 인해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시아파, 드루즈교, 알라위파 등 분리주의 이슬람 교파도 수니파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생존이 어렵다. 최근 중동의

변화는 과거의 아랍 민족주의를 벗어나 보다 더 확실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유독 최근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진화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sup>10</sup>

그의 분석은 정확하다. 아랍 세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들이 원하는 이슬람 국가는 호메이니 식이나 탈레반 식의 강경 신정주의 국가가 아닌 세속적 이슬람 국가이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랍과 중동국가에서는 이슬람 신정국가를 주장하는 강경 무슬림 세력과 세속주의자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속주의자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철저히 배격한다. 너무 율법주의적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은 같은 무슬림이지만 싫다는 것이다. 2004년 요르단 정부는 “Amman Message”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이슬람은 평화와 사랑과 관용의 종교이며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폭력을 권장하고 테러를 제도화하는 종교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아랍 국가도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명 이후 요르단 정부는 바로 이슬람 과격주의의 테러를 맞고 말았다.

온건 튀니지 야당 지도자 초크리 발레이드는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암살당한 것으로 백성들은 생각한다. 그 일 이후 프랑스 내무장관 마누엘 발은 암살을 이슬람주의적 파시즘(Islamist fascism)이라고 비난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튀니지 주재 프랑스 대사를 불러 프랑스가 튀니지에 내정간섭을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프랑스 장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보에 확신을 가진 것 같다. 흥미롭게도 이슬람적 운동은 권력

<sup>10</sup> <http://blogs.reuters.com/great-debate/2012/10/11/the-key-to-understanding-the-arab-spring>

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근본교리의 한 부분이다. 하나의 사상학파로서 무슬림 형제단은 파쇼주의가 강하여 배타성을 가진다. 형제단의 어느 개인도 자기의 견해를 말할 수 없다. 반대자는 추방당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이 집단은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슬림 형제단이 파쇼주의라는 것은 프랑스 대사의 주장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완전한 현실이다. 어떤 범아랍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랍 국가를 후퇴시키려는 국제적 음모로 본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윤리와 복장을 강요하여 세속주의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인구 1천만 명 중 98%가 무슬림인 리비아에 서구식 자유가 이미 유행하였었다. 해수욕장에서 여자들은 비키니를 입고 슈퍼에서 술이 판매되고 바에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혁명의 요란한 후유증으로 나라가 무리하게 탈세속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한다. 전 튀니지 민주여성단체 회장 체리프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계한다. 일부 대규모 데모대들은 “모스크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가 정치를 망쳤고, 정치가 종교를 망쳤다”고 외쳤다. 르네상스라는 이슬람 정치운동단체는 한 폴란드 신부가 죽은 것을 애도하였고, 말레이지나 터키식 관용과 온건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단체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과 가깝지만 튀니지에 이슬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너무 자유에 취하여 자유를 잃을 수 있다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통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혁주의자가 외친다.

이러한 종교적 충돌은 튀니지, 이집트 등 다른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이란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였다. 사우디의 종교경찰은 대단히 무섭다. 과거에는 기도시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이란에서는 남자들이 반소매로 팔을 노출하여도 경찰이 뒤에

서 매질을 하였다고 한다. 터키도 지금 데모가 계속되고 있다. 수상 엘도간은 터키를 온건하면서도 철저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많은 군 장성들과 언론인들을 구속하였다. 인권단체가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의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의 상황은 이 사실을 반영한다. 현재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이나 투르크멘인, 기타 소수파에게 요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형편이 과거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 때보다 더 못하다고 대답한다. 그들에 대한 위협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와 다를 바 없으며, 소수파 및 소수민족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에 오히려 더 잘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아랍 국가도 동일하다.

아랍 스프링 이후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도리어 크게 감소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반미감정이 강한 중동에서 아랍 스프링은 더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대체로 독재, 부패정권인 무바라크 같은 정치권력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다음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관계를 논한다면 과거 중동국가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워 북한과 외교 관계가 더 강하였다. 일부 아랍 지식인들은 한국은 미국 편이라고 싫어한다.

## 결론

아랍 스프링의 결과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아랍 세계는 현재 분열의 조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이라고 말한다. 이집트의 경우 이슬람 원리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세속 편이다.

북아프리카도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도리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아랍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 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많은 석유가 도리어 '석유의 저주'가 되고 있다. 소수의 권력자가 석유의 부를 독식하고 있다.

서구나 아시아에서 혁명이 서서히 민주화로 발전한 도식이 아랍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신의 이름을 내세운 신권정치가 민주주의를 추방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를 물리치고 나니 새로운 독재가 등장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들이 혁명을 하이재킹(공중납치)하였다고 외친다. 이집트는 강성 이슬람 국가를 외치는 무슬림 형제단을 세속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및 군부가 하나가 되어 물리쳤다. 기독교도 세속주의와 한편이 된 셈이다. 그러나 무르시를 퇴출시킨 군부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아랍의 젊은이들은 세속주의적 이슬람 국가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더 분노한다. 이들은 과거 이슬람을 잘 믿었을 때 황금시대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슬람에 기초한 황금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다. 아랍이 실패한 것은 참 이슬람을 버리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더 강하게 벌써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 그동안 이슬람 학교는 청년들에게 이것을 주입시켰다. 반면 더 많은 청년들은 세속주의와 이슬람의 조화를 원한다. 이 갈등이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al Proposal of Military Counselling

■ 김상만 Kim, Sang Man

-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센터 선임연구원
- WCC 한국준비위원회 국내협력국장



### 1. 들어가는 말

#### 1) 연구의 동기

24시간 함께 지내는 선임병들에게 갖은 괴롭힘을 당하고 힘에 겨워 부모님께 유서를 적어 놓고 죽으려는 장병의 눈을 본 적이 있는가? 늦은 밤 어두운 면회실 문을 굳게 잠그고 면도칼로 손목을 자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군복 입은 장병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50도가 넘는 매섭게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서 매달 평균 100명씩 죽어 가는 전장에서 “목사님!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라며 죽음 뒤를 생각하며 절박하게 몸을 떨며 울부짖는 병사를 본 적이 있는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장병들의 가슴 아픈 현실은 지금도 병영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장병을

생각할 때 드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누가 군상담을 해야 하는가? 군에서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이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어떤 심리치료방법이 더 적절하게 위기에 처한 장병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작지만 의미 있는 답을 찾고자 함이 이 글을 적게 된 동기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상담에 대한 개인의 경험적 차원과 학문적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군상담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군상담의 정의, 군상담사 자격, 상담대상자, 군상담에 꼭 필요한 이론 등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군상담의 발전적 제안으로 몇 가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군상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론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광범위한 상담 영역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지역적인 관점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에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길 소망한다.

## 2. 군상담의 이해

### 1) 군상담의 정의

군상담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군상담 이론서들이 출판되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완일은 군상담이란 “군대장면에서 상담 교육을 받은 상관이 부하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조력활동을 통해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과정”<sup>1</sup>이라고 정의한다. 또 군상담은 “군장병과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의 환경, 인적 자원 및 문화

의 독특성의 바탕 위에 개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및 문제 예방 능력을 확산하여 군을 21세기 인재육성의 핵심기관으로 정착시켜 군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sup>2</sup>이라고 한다. 손영철은 군상담이란 “군대에서 상담의 기술을 가진 상담자가 효과적인 임무분담 후, 내담자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내담자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또한 내담자가 앞으로 만날 다른 문제들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길러 주는 과정”<sup>3</sup>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군상담은 “전문적 상담교육을 받은 군상담전문가, 군상담실무자에 의해 내담자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발견·자아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촉진하는 과정”<sup>4</sup>이라고 한다.

위 정의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동시에 군상담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군상담의 정의라고 본다. 다만 현 군상담이 펼쳐지고 있는 군 현실을 볼 때 좀 더 현실적 차원에서의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 처한 장병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해서 도움을 받아 위기의 상황을 넘기는 일만이 군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상담의 현실은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2) 군상담사

“상담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내담자를 위해 상담이 있는가? 아니다.

<sup>1</sup> 김완일, 『군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6), 16.

<sup>2</sup> 한국군상담학회, 『군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군상담학회, 2009), 21.

<sup>3</sup> 손영철, 『군상담 이렇게 합니다』 (서울: 시그마프레스), 12.

<sup>4</sup> 권일남, 임재호, 『군상담심리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11), 23-24.

상담은 상담자를 위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담에 있어서 상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아니, 상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군상담도 마찬가지이다. 군상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사 자체가 가진 역량과 비중은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상담사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김완일은 전문적 자질로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 상담방법에 대한 숙달, 상담경험 및 훈련 그리고 인간적 자질로 치료적 도구로서의 상담자, 본보기로서의 상담자라고 한다.<sup>5</sup> 인간적 자질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삶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sup>6</sup>을 든다. 개인적 자질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자신에 대한 각성, 용기, 창조적 태도, 끈기, 유머 감각<sup>7</sup>을 말하기도 한다. 또 권일남은 군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건으로 1)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2) 어떤 유형의 내담자가 와도 응대할 준비, 3) 상담자 자신의 성격, 장단점,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 4) 자신에 대해 과장, 자랑, 숨기지 않아야 하고, 5)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진심어린 애정, 인간존중 7)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때론 단호한 자세, 8) 비밀준수의 의무, 9) 부대 내 내담자에 대한 인사상의 보호장치<sup>8</sup> 등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군상담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와 더불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장병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대부분 자살을 시도한 이들은 재차

비슷한 일을 겪을 때나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살을 재시도한다는 통계로 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과연 군상담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3) 군상담 대상

권일남은 군상담 대상을 1) 군간부상담-장교, 부사관, 군무원, 2) 병사 상담-병사 대상, 3) 군가족 상담-군가족(자녀 포함)<sup>9</sup>이라고 한다. 권일남의 분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병사의 문제를 단순히 병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간부와 가족까지로 확대해서 본다는 것이다. 군상담사가 돌보아야 할 영역이 장병만이 아니고 간부와 가족까지라는 차원에서 군상담을 이해해야 한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일,이등병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이지만, 병영생활이 주는 요소는 중요하다. 선 임병과 간부와의 관계, 간부와 가족과의 관계가 ‘나비효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병사들은 적어도 서너 개 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찾아올 때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다. 한두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면 자살시도는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 군상담구조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간부를 넘어 가족까지 상담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 구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 구조 안에 있으면서 군 구조를 뛰어넘어 가족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조직이어야 한다.

<sup>5</sup> 김완일, *op. cit.*, 16-21.

<sup>6</sup> *Ibid.*, 21-22.

<sup>7</sup> 한국군상담학회, *op. cit.*, 28.

<sup>8</sup> 권일남, 임재호, *op. cit.*, 58-62.

<sup>9</sup> *Ibid.*, 24.

#### 4) 군상담의 역사

역사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있지만, 군 상담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안남기는 최초의 군상담 기관이 박기영 목사이고,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상담기법, 집단상담, 의사소통기법을 가르쳤다고 한다.<sup>10</sup> 이어서 1990년부터 시작된 군상담은 1) 사고예방과 관련된 예방상담, 2)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3)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단을 통한 사고예방, 4) 건강한 시민육성을 위한 치유상담, 5) 상담활동의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sup>11</sup>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사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때 현 군상담은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적어도 그동안 군상담이 군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쌓인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고민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5) 군상담 이론

상담이론은 상담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상담은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명칭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무려 400가지가 된다고 한다.<sup>12</sup> 그렇다면 군상담을 가장 잘 답을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적어도 군상담을 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1) 발달심리학과 이상심리학

“감기와 사랑과 발달 이슈는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먼저

발달심리학 이해가 필요하다. “적어도 열 번 이상 발달심리학을 읽고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라”는 것처럼 정상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상심리를 공부한다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달리할 수 있다.

##### (2)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놓고”라는 노래가 나오면 장병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좀 더 그들의 마음에 다가서면 눈물 속에 숨겨진 진짜의 문제는 어머니 문제보다 아버지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어야 할 권력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군이라는 권력 구조에 노출되었을 때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 대상관계이론이고, 가족치료이다.

##### (3)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개인의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개인이 가진 문제를 들여다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마치 축구 재방송을 보듯이 심층의 문제를 예견하는 힘이 생긴다. 적어도 이런 경험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군상담은 집단상담이 효과적이다.<sup>13</sup> 짧은 시간에 많은 내담자를 만나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 주는 데 도움이 된다.<sup>14</sup>

##### (4) 예술심리치료학

예술치료의 영역에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이 속한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군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론이다.<sup>15</sup>

<sup>10</sup> 안남기, “군종상담의 역사와 방향성 제언”, 『육군본부 군종감실 군종지』(2006), 109.

<sup>11</sup> Ibid., 110-125.

<sup>12</sup>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서울:학지사, 2012), 4.

<sup>13</sup> 한국군상담학회, 『군집단상담』(서울:한국군상담학회, 2009), 9-27.

<sup>14</sup> 김상만, “전장에서 비전캠프”, 『육군본부 군종감실 군종지』(2005), 27-36.

### (5) 체계이론과 전인건강

상담자가 처음 내담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 중 하나가 '자원체크'이다. 내담자가 가진 치료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군상담은 치료적 자원이 풍부하다. 복무부적응 장병을 둘러싼 치료적 자원의 벽이 두텁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다. 특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자원을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체계이론과 전인건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3. 발전적 제안

이제까지 군상담의 정의, 군상담사, 군상담의 대상, 군상담의 역사, 군상담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군상담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군상담은 경우에 따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장병의 입장에서 군상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누가 그런 병사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가 물어야 한다. 극단적 결단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줄 수 있는가? 군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군상담은 종교적이어야 한다. 군에 종교적 자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에 직면한 장병들에게 축복이다. 종교적 자원은 인간 내면보다 더 깊

숙한 문제까지 관여한다. 종교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간은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영적이기 때문이다. 군성직자는 가장 잘 갖추어진 조직이다. 이를 활용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 안에 있는 성직자를 최대한 군상담의 영역에 나오도록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상담은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단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군성직자가 해야 한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만약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문적인 상담훈련이 된 성직자가 해야 한다. 군성직을 수행하다가 전역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기 군상담관을 선발할 때 군성직자 출신에게 특혜를 주었다. 하지만 최근 선발기준에는 어디에서도 종교적 영역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이 안타까움이고,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sup>15</sup> Ibid., 36.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0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 최우수작

##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 군종목사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The Strategies and Mission of the Military Evangelization on  
Soldier Human Rights

- Centering around the Education on Human Rights for Chaplain Cadet -

■ 신중훈 Shin, Jong Hoon

- 한일장신대학교 신대원
- 군산성암교회 전도사



### 제1장 들어가며

#### 1. 연구목적과 동향

‘징병’된 장병<sup>1</sup>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sup>2</sup>담론 차원에서 “과연 국방부(군종부)와 종교계(개신교)는 어떤 시각과 내용으로 주어진 책임성을 감당

<sup>1</sup>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 4조 제2항).

하고 있는가?”로부터 발견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04년 11월 발표한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결과 요약을 보면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sup>3</sup>

“군은 장병 인권보장체계의 선진화가 본연의 임무수행 역량의 강화에 순기능적임을 인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되, 군의 기본가치/질서를 도외시한 주장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함.”

아울러 군 개혁, 군사문화의 민주화, 군에서의 인권보장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제기된 것 또한 사실이다.<sup>4</sup> 그렇다면 우선 교단총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이러한 현안을 두고 어떤 고민과 정책적 내용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지만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된 군문화<sup>5</sup>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반추해 보면 일련의 군부대 총기사고, 구타, 자살, 성폭행, 언어폭력, 인격권 무시, 사생활 침해, 탈영, 집단

<sup>2</sup> 법률용어사전(2007)에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한편 안경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기본권과 인권은 비슷한 말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는 개념상 구분된다. 기본권이란 한 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반면 인권이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서울: 들레개출판사, 2009), 105.

<sup>3</sup> 이계수의 2004년 연구논문인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161을 참고함.

<sup>4</sup> Ibid., 162.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이 사법개혁위원회를 거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2005년 상반기의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등 군 고위지휘관 70여 명은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개혁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들림 등의 사건사고는 이미 병사와 병사 사이, 병사와 간부 사이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참극(慘劇)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구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여 대증요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선제적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난제(難題)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라도 군종부 군종목사후보생(이하 후보생)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병영밀착형’ 군선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즉 임관 전 6년 동안 교단총회 혹은 연합회는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무적 차원에서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의 보편성 논의와 기대효과의 유의함을 인식하여 시행령·규칙 및 정책적 개선대책 완비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상의 기본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기존 연구업적을 토대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후보생들의 인권교육을 거시적·미시적 담론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예컨대 성서의 가르침과 사회과학적 인식차원에서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초하에서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한 후, 후보생들의 임관 이전 단계에서 각 교단총회, 출신대학교, 연합회가 지속 가능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입체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모델)을 제시했다. 끝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군선교 패러다임의 전환과 전략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sup>5</sup> 군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직화된 폭력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급적 질서로 조직되고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곳이 군대이다. 김용현 공저 외, 『군대윤리』 (서울: 백산출판사, 2011), 67. 하지만 문제는 평시 상황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군선교에 관련된 학위논문 발표는 1982년부터 이루어졌고, 1984-1989년에도 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1-2012년까지 매년 서너 편씩 꾸준히 한국연구재단에 등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까지 학위논문 총 편수는 41편(석사 36편/박사 5편)에 불과하다.<sup>6</sup> 물론 국내학술기사, 월간잡지, 군선교신문 등을 통한 기고문 형식의 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91년대 이후부터 논문의 주제는 신학적 해설에서 종합적인 실천연구로 외연을 확대하여 변모를 거듭하였다.

한편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선교신학」 제1-10권 소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향후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과 대책이 실천적 과제로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장병들의 건전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생명윤리, 자살, 이단종파,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적 소수자,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게 응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종목사 임관 이전 단계인 후보생 시절, 즉 장병 인권에 대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인권교육을 교단총회, 연합회, 출신대학교 차원에서 통합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후보생들의 인권감수성 교육, 장병 인권침해 예방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종부가 대처할 수 있는 협력적 기동력과 신속한 대응방식 및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기반 교육·정책은 군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직결되는 주제인 동시에 군 무형전력인 사기와 군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장병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피해자의 수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군종목사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함양은 임관 전 단계인 후보생 때부터 집중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선교 전략차원에서

<sup>6</sup> 국회도서관 사이트, <<http://dl.nanet.go.kr/SearchList.do>>.

군종목사후보생 인권교육 연구논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2. 연구범위와 기대효과

본 연구의 시기적 고찰 범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노무현)와 실용정부(이명박)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 기조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sup>7</sup> 이를테면 국가주도형 모델과 시장경 제주도형 모델은 곧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양분된다. 이는 중앙부처인 국방부·여성복지부 정책운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며, 그 영향은 국민들의 인권감수성까지도 자극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간적 연구범위는 11개 각 교단총회, 11개 신학대학교, 연합회로 국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후보생의 인권교육 이론과 실무 프로그램 제반을 모색하되, 각 교단총회와 연합회가 외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임상목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인권이란 거대담론을 신학적 관념론과 사회과학적 정책론으로 구분하여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천부인권사상과 근대화 이후 법제도적 인권 규범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시킬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특히 보편적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된 병영문화를 인권이란 대승적 방어기제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분단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대한민국 국방의무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군이란 특수성 때문에 야기된 장병 인권침해 사례는 속수무책으로 고착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미리부터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화두로서 인권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임관 전 후보생들이 새로운 교육모델을 체득하여 문제의 해법을 주어진 메뉴얼에 따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실무중심의 경험과 훈련은 곧 군복음화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무례한 복음이 아닌 쌍방향적이며 전 인격적인 회복의 시금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집단지성(we-think)이란 용어가 일반대중 속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복음화란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영역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군선교의 역동성을 제고(提高)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방성을 전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향후 시안에 따라 기민하게 선교전략을 구상·진개함에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제2장 인권의 개념과 이해

### 1. 성서적 맥락에서 신학의 근거

‘인권’이란 용어와 문법은 근대적 개념이다.<sup>8</sup> 이는 계급투쟁과 민족문제 등과 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항거했던 민중들의 몸부림 속에서 발현된 성과물이다. 따라서 성서에 비취진 인권의 흔적을 조명할 때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고대 작품에서 읽어내는 역행적 관점의 도치를 감안해야 한다. 인권개념은 구약성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원칙들이 교회, 이슬람교 사원, 도시국가 등 어느 곳을 중심으로 표현되었건 간에 처음에는 의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가 훗날 권리의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

<sup>7</sup> 외교·통일·국방 분야 및 경제·사회 분야에 있어 노무현 정부 어젠다는 대체적으로 타협형인 반면, 이명박 정부는 갈등형으로 분석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 “노무현, 이명박의 어젠다 정치: 갈등과 통합의 딜레마”, 『역사비평』 봄호 (서울: 역사비평사, 2012), 84.

를테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권으로 발전했으며, ‘훔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권으로 진화한 것이다.<sup>9</sup>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여 그분의 형상(창 1:26-27, 5:1-3)에 따라 창조됨을 강조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망의 권세와 죄로 인해 제한된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사람 간의 정의로운 삶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sup>10</sup>

한편 구약의 토라(Thora) 안에는 계명과 율법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계약법전과 신명기는 십계명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민자의 권리, 경제적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문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위협에 처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령을 제정하고 있으며(신 15:11),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기본적 생존권도 변호한다(신 24:19). 아울러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사회적 외침과 저항으로써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

<sup>8</sup> 서양에서 인권 개념은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발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자연권(natural right)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권 대신 천부인권으로 널리 쓰인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천부인권과 관련하여 절대자로서 자연이 법을 규정한다고 이해했지만, 근대 초기 서유럽의 철학자들은 절대자를 기독교의 신과 동일시했고, 한자 문화권의 학자들은 절대자를 하늘과 동일시했다. 최현, 『인권』 (서울: 책세상, 2008), 13.

<sup>9</sup>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서울: 길, 2008), 58.

<sup>10</sup>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서울: 복코리아, 2011), 79. 한편 차정식 교수는 “성서적 인권상은 바로 그 ‘무자비함’과 ‘무궁무진함’ 사이에 명백하면서 신학적 딜레마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거나 겸손히 간청되는 것이지 스스로 당연한 권리인 양 주장하거나 쟁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그의 저서 『하나님 나라의 향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117에서 언급하였다.

는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한 아합 왕에 대한 엘리야의 고발이다(왕상 21장). 또한 아모스는 여러 민족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 전쟁 행위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암 1:3 이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른 민족과 함께 해방시킨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암 9:7). 따라서 선택적 민족의 우월감을 비판하면서 고대 유대교 전통의 평등성의 한 측면을 부각시켰다.<sup>11</sup> 일부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점을 들어 “이스라엘이 명예나 특권 때문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응답하곤 한다.<sup>12</sup>

아울러 예수는 산상설교를 통해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과하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리 왔다고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마 5:17-18). 이는 예수가 전통 유대교의 계명과 율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올바른 가치 지향점을 찾는 것을 자신의 숙명적 사명으로 보았던 것이다. 예수는 당시 유대교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sup>13</sup> 그래서 예수는 아래와 같이 설교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마 22:37-39).

예수에게 인권선언의 백미이자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란 꼬리표를 붙여 줄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다.

<sup>11</sup> 고대 유대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과는 다르게 귀족과 평민 사이에 법적 차별성을 두지 않았다. 당대의 유대법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진전시켜 유대인과 이방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성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정과 법을 실천하면 살 것이라고 명시한다(레 18:5).

<sup>12</sup>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서울: 길, 2008), 59.

<sup>13</sup> Ibid., 81.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레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28).

예수의 이 선언은 안식을 유대인의 종교적·민족적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어록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가 응수하면서 제시한 결론구이다.<sup>14</sup> 예수는 지나친 부의 축적과 권력자들의 횡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막 10:2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9).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애정과 저항은 페루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스(Gustavo Gutierrez)에서 볼 수 있듯 그리스도교 사상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

결국 성서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또한 인간을 위한 인권의 거대담론과 근거는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과 반역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론적 용서와 돌봄이다.

<sup>14</sup>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향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122.

## 2.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인권의 이해

사회과학자는 도덕적·윤리적 개념인 인권을 단지 법률가의 전문적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정치학은 국익과 국가경쟁력에만 관심을 갖는 현실주의적 이론담론에 몰두하고 있었다. 일부는 민족분쟁, 사회 불평등, 집단학살, 젠더, 기후문제 등이 발생하고 표면화가 되면서 인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sup>15</sup> 그러나 이 또한 번두리 주제일 뿐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배담론은 아닌 의제라고 보았다. 그 결과 사회과학은 인권을 대체적으로 무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 반면 ‘대안 세계화’를 추구하는 국제 네트워크 사회운동세력은 정치적·군사적 담론의 확대안보 개념에 반대하여 ‘인간주권’이라고 하는 휴머니즘 개념을 강화시켜 나갔다. ‘인간주권’ 개념은 1994년 UNDP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고, 이후 이 개념은 UN의 여타 조직(UNICEF, FAO, WHO, UNHCR)에 의해 채택되었다.

최근에는 사회학과 인류학이 인권 연구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지구화된 경제가 인권 보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점차 많은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초국적 사회운동으로서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sup>16</sup> 인권 개념이 사회과학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sup>15</sup>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협하는 국가안보개념 대(對) 인간주권 및 사회경제권리 차원에서 볼 때, 대안 세계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세력은 정치적·군사적 담론의 확대안보 개념을 반대하고, ‘인간주권’이라는 규범적 개념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한다. ‘인간주권’ 개념은 1994년 UNDP에 의해서 최초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이 개념은 UN의 여타 조직(UNICEF, FAO, WHO, UNHCR)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인간주권은 군사적 개입 혹은 물리적 보호에 의해서가 아닌 법치국가, 인권보호, 참여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만 작동한다. 심창학·강수택, 『사회정책과 인권: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관점과 영역』 (서울: 오름출판사, 2011), 31-32.

<sup>16</sup> 마이클 프리먼, 『인권이론과 실천』, 김철효 역 (서울: 아르케, 2006), 23.

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미국인류학회(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집행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초안 당시 UN인권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성명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sup>17</sup> 하지만 인권에 대한 과학적 사유 체계가 빈약했던 과학자 집단에서 인권이란 문법과 방법론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언급할 자격조차 없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이해와 논의구조의 간격을 법률이 좁혀 주었다. 비록 법률은 원칙적이고 규범적이지만 실제적인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 또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석되며,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 이는 인권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을 사회과학 내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사회학은 법률 연구를 통해 인권에 관한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이다.<sup>18</sup> 철학과 법학이라는 높은 곳에 있는 인권 개념은 해석적 사회과학을 통해 그 권리의 보호가 실제로 필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니체(Nietzsche)는 윤리적 이상주의자들을 “현실로부터 떠나는 이민”이라고 표현했다. 인권의 사회과학이 해야 할 일은 인권지지자들을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다.<sup>19</sup>

### 제3장 장병 인권실태와 사례

#### 1. 복무 부적응 실태

〈표1〉 복무 부적응 집단의 군 생활 어려움 인식 정도<sup>20</sup>

척도	부적응 집단		적응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6	5.8	114	13.6	120	12.8
2. 거의 없다	2	1.9	157	18.8	159	16.9
3. 별로 없다	10	9.7	226	27.0	236	25.1
4. 약간 있다	38	36.9	261	31.2	299	31.8
5. 상당히 있다	29	28.2	63	7.5	92	9.8
6. 매우 많다	18	17.5	14	1.7	32	3.4
전체	103	100.0	83.5	99.8	938	99.8

〈표1〉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의 45.0%는 병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3.2%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장병 10명 중 1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sup>17</sup> Ibid., 112.

<sup>18</sup> Ibid., 112.

<sup>19</sup> Ibid., 138.

<sup>20</sup>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40.

〈표2〉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sup>21</sup>

	부적응 집단 (N=103)	적응 집단 (N=837)	전 체 (N=940)
부당명령 및 처벌	29	199	228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47	290	337
열악한 근무환경	18	265	283
사생활 보장 어려움	17	153	170
보직 불만족	15	60	75
고된 훈련	30	124	154
선임병과의 갈등	49	242	291
비자발적 입대	10	153	163
가정문제	12	117	129
여자친구문제	9	154	163
제대 후 진로 부담	22	344	366
성격문제	16	166	182
많은 압기 및 교육	7	63	70
성문제	4	22	26
총계	285	2,352	2,637

〈표2〉의 원인은 선임병을 ‘갑’으로 후임병을 ‘을’로 인식한 후, 계급적 권위와 기득권을 이용하여 구타, 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합법화시킨 데 있다. 악순환의 지속성은 곧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야기되어, 결국 심리적·신체적 부적응 증세를 촉발시켜 제대 후 진로 부담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 2. 인권침해 사례

### 1) 구타와 폭력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플러스에 맡겨 2005

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주요 대학 21곳 1-5년차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여론조사 결과, 조사 시점 기준 5년 내 군 전역자의 60%가 군에서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병영 안 인권에 대해 부족하다 49.8%, 적당하다 34.2%, 충분하다 15.8%로 응답했고, 특히 ‘부족하다’로 응답한 49.8% 가운데 14.8%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예비역 1년차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34.1%여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sup>22</sup>

### 2)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군복무를 힘들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2008년 국방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병들은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유형으로 언어폭력(38.64%), 구타 및 가혹행위(17.02%), 사생활침해(14.47%), 차별(12.93%)을 들고 있으나 언어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12.56%, ‘전혀 없다’ 82.84% 등으로 언어폭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71%가 언어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자주 있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답변을 신뢰할 때 언어폭력이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은 2.09%, ‘다소 심각’하다는 의견은 12.56%로 나타난다.<sup>23</sup>

### 3) 성폭력

2008년 국방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매우 자주 있다’ 2.14%, ‘자주 있다’ 12.20%로 14.34%가 성

<sup>21</sup> Ibid., 52

<sup>22</sup>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법학」 제42호(2010), 248.

<sup>23</sup> Ibid., 250, 재인용.

추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이를 목격한 것은 ‘매우 자주 있다’ 1.91%, ‘자주 있다’ 10.38%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5.49%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를 듣거나 본 경우 전체의 24.7%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가 ‘듣거나 본’ 경우를 묻는 반면 국방연구원의 연구는 ‘목적’ 한 경우를 묻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성추행/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두 연구 사이의 성폭력 경험 여부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sup>24</sup>

## 제4장 군종목사후보생 인권교육

### 1. 인권교육의 교육목표

인권교육의 교육방법론은 군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에 따른 교육적 목표에 밀접한 연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 목표로 함축되어 있다. 첫째, 군대라는 특수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제도적 지적 토대를 형성한다. 인권교육은 후보생뿐만 아니라 장병과 간부 간의 쌍방향식 기본 교육을 통해 숙지해야 할 최소한의 지식 전수인 것이다. 둘째, 인권의 감수성(sense of human rights)을 한층 고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 주지 못하는 의식화교육 수준이라면 용두사미에 불과한 반쪽짜리 성공사례일 뿐이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후보생 및 병사와 간부가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실효성 여부는 지식과 정보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의 방법론은 위의 두 가지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본다.

### 2. 인권교육의 방법론

인권교육의 지적·법률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방법론과 다르지 않다. 다만 기타 학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력과 결단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폐쇄된 강의실에서 강의하기보다 조금은 다른 방법론을 제시할 때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실무 체험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래는 그러한 몇 가지 방법론을 기초 단계부터 다지기 단계까지 제시하였다.

#### 1) 인권교재 개발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인권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우선 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한 군선교 차원에서 장병 인권에 관한 급선무 혹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인권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생의 인권교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첫째, 헌법상 기본적 권리,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장병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군인복무기본법,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

<sup>24</sup> Ibid., 251. 재인용.

요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교단 차원의 인권활동, 비정부기구(NGO)의 군 인권 보고서를 수집한 후, 후보생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조할 것인가를 이전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인권보고서 자료를 근간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셋째, 성서적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한층 부각시켜 인권이라고 하는 신학적 인권교재를 제작한다. 예컨대 친구약 및 기타 문헌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재가 요구된다.

## 2) 시청각교육의 개발과 활성화

인권 관련 대중(독립)영화, 미술작품, 음악, 역할연극, 뮤지컬을 권장하여 학습자의 오감을 자극한다면 장병 인권교육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시청각기자재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화된 다양한 콘텐츠 교육자료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홍보원, 군인권센터, 국회도서관, 대학교 부설기관, 기타 연구소, 대중매체(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열람·복사·대여·시청·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즉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 3) 이해관계자와의 만남 강화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공존한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上命下服) 식 수직관계에서 벌어진 반복된 사건사고는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군 수뇌부 및 지휘관이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을 군종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고 가정할 때, 후보생들은 이론적 신학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실천적 신학 실무체계

로 전환하여 매뉴얼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역장병 혹은 예비역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으로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후보생들의 임관 시기가 다가올수록 최대한 실무 중심의 ‘당사자 인터뷰’ 및 ‘외부특강’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4) 실무 중심의 ‘융합적’ 임상교육 모델 찾기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최대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는 전담 실무자 혹은 사회단체 활동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생 실무교육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밀폐된 강의실이 아닌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기존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실무자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는 장병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정책적 논의구조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임상목회교육 및 임상법학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최근 후보생 실무교육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우리 식만의 융합적’ 임상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보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후보생이 군종목사가 되어 군부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당사자의 심정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이나 위임이라는 차선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방임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군종목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이처럼 철저한 후보생 실무교육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모의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임상목회교육’ 과 ‘임상법학교육’ 을 융합시켜 집대성할 수 있다고 본다.

### (1)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1953년 ‘목회임상교육전국협의회’ (National Conference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에서는 CP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PE란 신학도나 목사로 하여금 병원, 교도소, 또는 다른 임상기관과 같은 적절한 센터에서 교차 전문적인 지도자와 협력해서 자격을 갖춘 원목감독의 개인적인 감독 아래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패스트럴 케어(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를 학습하는 기회이다.”<sup>25</sup>

임상목회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은 목회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훈련하는 것이다.<sup>26</sup> 예컨대 그 목적은 목사, 신학생,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이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 있는 인간문서’ (질병, 사고, 위기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와 만나서 그들을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고, 영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sup>27</sup> 즉 목회실천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상목회교육은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미국은 임상목회교육을 한 차례 이상 이수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성립된다. 미국임상목회교육협회(ACPE)가 운영하는 교육과정만 연간 7,000개 정도가 된다.<sup>28</sup> 국내는 2001년 협회가 발족했고, 서울세브란

스병원에서 처음으로 임상목회교육 과정을 시작해 현재는 고려대학병원의 안암병원 한은자 목사, 대구 동산의료원 장황호 목사, 충남대병원 장경희 목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신학교 중에서 임상목회교육을 개설한 곳은 연세대의 유영권 교수, 이화여대, 한신대의 정태기 교수, 감신대의 이기춘 교수, 장신대의 오성춘 교수, 서울신학대, 천주교회의 미리암 신부 등이다. 그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1단위(400시간) 프로그램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하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 임상법학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

하버드 로스쿨이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중시하는 교육의 중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률전문가로서의 가능과 가치관, 윤리관을 확실히 몸에 익히도록 한다. 법의 이론 및 원칙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의 습득도 중시한다. 예를 들면 고용 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에서는 현실의 법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률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정책론으로 나타난다.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법률 지식이 단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방법인데, 예컨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경우라면 학생을 직접 검찰청에 파견하여 검사의 역할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이다. 바른 교육목표, 적절한 양의 일, 질 좋은 감독에 의해 순수 학문적인 분야와는 다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sup>29</sup>

한편 임상법학의 다양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략 10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은 후보생 실무교육의 타당성과 적합성

<sup>25</sup> 유영권 외 공저, 『한국 임상목회교육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40에서 재인용.

<sup>26</sup>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교육방법론으로서 논의되는 임상법학이 인권법에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차원에서 임상법학이 활용되었다. 법학교육에서 임상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으로서, 임상법학을 ‘클리니컬 리걸 에듀케이션’ (Clinical Legal Education)이라고 한다.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파주: 한울출판사, 2012), 32-33.

<sup>27</sup> 유영권 외 공저, Ibid., 12.

<sup>28</sup> 황세원, “강대상 꿈꾸는 자, 병상을 품어라”, 『국민일보』 2010. 10. 2, 21면.

<sup>29</sup> 박찬운 교수의 2007년 연구논문인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8을 참고함.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5가지로 간추려 적용해 보았다.

A 유형: 학내에 법률사무소(legal clinic)를 개설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정 종류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건을 수입하여 소송대리까지 담당한다. 학생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의 감독하에 직접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사건 수입에도 관여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 사무를 익힌다.

B 유형: 모의재판

C 유형: 변호사 업무의 기본 기능을(인터뷰, 법률상담, 증언 녹취, 교섭 등)을 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모의 연습한다.

D 유형: 특정 분야의 이론 과목에서 현실의 사건을 소재로 하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거래 내용의 교섭 등을 모의 훈련케 한다.

E 유형: NGO 등 공익단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실습한다.

미국의 유명 로스쿨은 통상 위의 과정 중 하나 내지 둘에 특징을 가지면서 법률 실무교육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하버드 로스쿨은 첫 번째 유형의 실무교육에 강한데, 그곳은 보스턴의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로스쿨 직영의 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일반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인권교육 구체화 작업

국방부가 실시한 2012년도 장병 종교전수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63만여 명의 장병 중 33만 명(52%)이 종교를 가졌으며, 그중에 기독교는 약 18만여 명(55.4%)인 것으로 발표되었다.<sup>30</sup> 아울러 군선교 현황을 보면, 한국교회는 군인교회 1,004개, 군종목사 267명, 교역자 약 370명(전담자), 군목 파송 교단 11개, 회원교회 약 4,000개, 연간 군선교비 약 150억 원 등 막대

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재원을 투입시켰다. 하지만 2008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 75명, 군사고로 인한 사망 82명,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무려 1천여 명에 이르며 해마다 1,000여 명의 장병이 탈영하였다.<sup>31</sup> 이 부분에서 예장(통합측) 군농어촌선교부 서광욱 목사는 군선교의 현실과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일회성으로 끝내는 행사 중심의 진중세례식은 자칫 복음이 값싼 은혜로 폄하될 수 있다. 아울러 실적위주, 또는 전시성 행사를 지양(止揚)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선한 행위가 진정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군종목사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표적 인 군선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sup>32</sup>

따라서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학습 및 다양한 사례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역할<sup>33</sup>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별부설기구 사역 강화 차원에서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생명존중센터) 및 상담센터운영은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따른 고충을 조금

<sup>30</sup> 임성국, “국방부 장병 종교 전수조사, 기독교인 18만여 명”, 「기독교포」 2013. 1. 4. 인터넷판.

<sup>31</sup> 정원철, “병사의 군 부적응 및 적응력 향상 관련 국내 연구동향의 개관”, 「청소년학연구」 제18권(2011), 23.

<sup>32</sup> 박재찬, “낮은 자세로 현장 누비며 소통에 힘쓸 터”, 「국민일보」 2013. 2. 13. 30면.

<sup>33</sup> 제28회 후보생수련회, 16년차 후보생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1개 각 교단(기감, 기성, 기침, 기하, 고신, 대신, 백석, 통합, 합동, 예성, 기장)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기 혹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체교육과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각 교단별 군종사관후보생 교육사업 및 일반사업 예산은 통합, 기감, 고신, 기성만 책정되어 있다. 국방부는 임관 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역시 좋은 군사 만들기과 건강한 병영 만들기(사고예방, 악습관 행 끊기 등)를 위해 장병들의 고질적인 전근대적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이다.<sup>34</sup> 이러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후보생들이 임관 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각 노회 및 개교회가 군종목사후보생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식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sup>35</sup>

둘째, 각 교단 총회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교단 총회에는 인권부서 내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인권부서와 군선교부는 군복음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로 후보생을 양육해야 한다. 물론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실무자가 있기도 하지만 비전문가들도 책임자 혹은 실무자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교단총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신학자, 평신도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sup>36</sup> 한편 총회장이나 인권위원장이 주요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명서나 담화문을 발표한다면 그것 역시 인권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각 교단총회는 출신 대학교에 따라서 본교의 교과목 중 개론(총론) 차원에서 문화인류학, 인권법, 사회학, 복지학, 헌법, 상담학, 심리학, 윤리학,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교육 등을 필히 이수하거나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신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사회과학

이라고 하는 구조주의를 두루 섭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단총회와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결단이 요구된다.

## 제5장 나가며: 향후 과제

장병 인권침해 및 부적응자를 둘러싼 이슈와 갈등, 대립의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이다. 더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인권이란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장병 인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 확장성과 발전성은 어느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안 채택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안건 상정조차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본고는 단순논법으로 성급하게 접근할 수 없는 주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결책이 될 만한 모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놓고 전문분야의 학자들을 통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제시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끝으로, 아래의 과제들은 향후 군선교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인식변화(인권 감수성) 시도, 개방된 협력적 네트워크 혹은 거버넌스 구축, 실무형 임상교육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장병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군 생활이 편할수록 군 기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죽도록 고생해야 한다”는 국방의무 강조론 혹은 “과거에 비해 현재의 군 생활이 좋아졌다”는 식

<sup>34</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서울: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9.

<sup>35</sup> 2013년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의 ‘군장병심리상담사’ 수업료는 <군장병심리상담사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1급(일반 100만 원/연신원 40만 원), 2급(일반 80만 원/연신원 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sup>36</sup> 정중훈, 『기독교 사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62.

의 상대적 개선론이 그것이다. 결코 장병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 권리 보장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그렇다면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괄적 측면에서 운용할 것이며, 또한 각론 차원에서 인권교육과 홍보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무엇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둘째, 협력적 네트워크 시대에서 후보생을 둘러싼 주변 조직체인 각 교단총회, 연합회, 군종부, 시민사회단체, 부대인근 지역교회 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통합과 공생을 통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며, 동시에 각기 조직체가 그동안 숙성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아울러 재정지원과 후원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선행되지 않고 각개전투 식으로 장병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신뢰 프로세스 구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후보생 교육뿐만 아니라 장병들 돌봄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항구적 네트워크 재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방적 만남의 정례화 그리고 어떤 어젠더 세팅(agenda setting: 의제설정)과 내용으로 협력(협조)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상목회교육과 임상법학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접목시킨 새로운 임상 프로그램 마련으로 후보생들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무경험이 있는 군인, 교수, 의사, 활동가를 주축으로 TF팀과 한국군선교연구소(한국교회 군선교 싱크뱅크)가 공동으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상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군종목사후보생(71기)수련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전체 응답자 13명 중 6명은 선발 후 6년간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인 '군부대 실습체험, 사병생활체험, 자살방지 교육, 전인격심층상담 교육, 비폭

력운동 및 회복적 정의 교육'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지평은 연합회의 기본 핵심사업 및 방향성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0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 우수작

##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A Study of Mass Conversion,  
Mass Baptism and Mass Oath in Military

■ 강찬영 Kang, Chan Young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Th. M.)
- 육군 제53사단 총렬교회 담임목사



###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군선교 현장에서 세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군선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진중세례’ 일 것이다. 하지만 진중세례운동이 가지고 있는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종종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소 불편하지만 피해 갈 수 없는 물음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군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각 부대의 군인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훈련소에서 시행되는 대대적인 집단세례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다고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시비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세례이든 물을 수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면 이는 유

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했던가? 유효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군선교 현장의 현실과 논리가 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선교 방법론으로서의 진중세례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세례의 정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군선교를 위한 세례운동에 헌신한 사역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오히려 그러한 노력과 고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사실 집단개종(세례)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선교현장에서는 이를 하나의 방법론, 아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논리에서 군선교 현장에서의 진중세례를 집단개종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면적 유사성의 이면에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회사에 나타난 집단개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클로비스(Clovis)의 개종과 19세기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달리트(Dalit)<sup>1</sup> 집단개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중세례 문제를 살피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진중서약식과 이와 연계된 세례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한국군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

<sup>1</sup> 인도 신분제도하의 불가촉천민(untouchable)을 가리키는 말.

서 시행되었다. 이때 당시 연대장이었던 유정목 대령이 연대군목이었던 이상강 군종목사에게 장병 153명과 함께 세례를 받아 각 마스크에 크게 보도되게 되었다. 곧이어 1971년 11월 25일에 보병 26사단에서 1,460명의 합동세례식이 거행되고, 12월 5일에 5사단의 장병 1,005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듬해 1972년 3월 9일에는 28사단 81연대에서 장교 47명을 포함하여 총 1,009명이 세례를 받았고, 4월 25일에는 20사단에서 3,478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2차 진중세례식 운동은 1990년 논산훈련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사령관이던 김진영 중장에 의해 발의되고 주도되었으며 군신앙, 전력강화를 위해 세례운동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사재로 마련한 십자가 목걸이 10만 개를 제작하여 봉헌함으로써 운동이 전개되었다.<sup>2</sup> 제2차 진중세례운동의 결과 1992년에는 85,000명, 1993년에는 128,000명, 1994년에는 130,000명, 1995년에는 186,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1997년 4월 19일에는 한 번에 7,2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 기네스 기록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단일 최대인원 기록은 물론이고, 한국군선교의 세례운동은 지금도 반복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다.<sup>3</sup> 이는 군선교의 명확한 전략과 군사역자들의 헌신, 한국교회의 물질·영적 지원을 통해 이룩해낸 놀라운 결과이다.

<sup>2</sup>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1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3), 200-204.

<sup>3</sup> 2012년 연무대군인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연병장에서 진행된 진중세례식에서는 창군 이래 최대 인원인 9,014명이 세례식에 참여했고, 70%가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는 한국기록원(원장: 김덕은)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세례식에 참석한 훈련병의 인원수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최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고, 나아가서는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함이었다. “연무대군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합동세례식 참관기”, 『기독교공보』(서울) 2851호 2012. 5. 26.

사도행전의 역사에 비견될 만한 진중세례운동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sup>4</sup> 선교학자 맥가브란(McGavran)에 의하면, 집단개종이란 선교역사에 자주 등장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회심의 중심을 이루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sup>5</sup> 사실 이런 관점에서 진중세례를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설명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인가에 대해 비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sup>6</sup>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

<sup>4</sup> 장승권, “세례를 통한 군선교 전략연구: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3), 68-72. 정두영, “종족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군선교신학』2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sup>5</sup> 도널드 맥가브란,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93), 431-433. 맥가브란은 그의 다른 책 『하나님의 선교전략』에서 이러한 집단개종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종족운동은 기독교운동과 더불어 수십만 개의 마을들에 뿌리박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기독교회를 생성한다. 둘째로 종족운동은 자연스럽게 토착화하는 이점이 있다. 셋째, 종족운동에서 ‘교회의 자발적인 팽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넷째, 종족운동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종족운동은 기독교인이 되는 건전한 본보기를 마련해 준다. 도널드 맥가브란,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20-123.

<sup>6</sup> 남송현은 진중세례운동을 집단개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비판을 전개한다. 특히 그는 진중세례식에 참석했던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은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세례가 신앙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은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세례가 전략적인 선교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진중세례식은 성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송현, “Vision 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 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7).

나는 유사성만으로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집단개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러한 문제 분석을 위해 클로비스의 회심과 집단개종, 인도의 달리트 집단개종운동을 진중세례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클로비스의 개종과 진중세례

#### 1) 클로비스의 개종

클로비스(Clovis)는 5세기 말경에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옛 서로마 지역에 권력의 공백상태가 전개되고 있었다.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등의 게르만족이 옛 서로마의 영토를 분할했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리아 지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크족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클로비스는 기독교인이었던 부르고뉴의 공주 클로틸다(Clotilda)와 결혼한다. 그는 기독교 공주와 결혼을 했으나 알라마니족과의 돌비아크 전투에서 크게 패할 위험에 빠지기까지 이교신앙을 고집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기독교만 믿겠다고 맹세하게 된다.<sup>7</sup> 이 전투에서 승리한 클로비스는 496년 크리스마스에 자신이 맹세한 대로 3,000명의 전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의 개종은 백성들의 집단개종

<sup>7</sup> 그레고리우스 주교가 남긴 『프랑크족의 역사』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클로틸드(클로비스의 아내)가 살아 계신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당신께 희망을 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 콕비, 『세계 교회사 여행: 고대, 중세편』, 노성기, 이종혁 역 (서울:가톨릭출판사, 2012), 395.

으로 이어진다.<sup>8</sup>

그들의 회심이 진지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클로비스가 공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은 교회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현대의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크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이 지역은 스페인에 정착한 고트족을 위한 선교기지가 되었다. 이교도의 국가였던 프랑크 왕국이 로마 교회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종한 클로비스는 자신의 왕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전통보다는 로마와의 공통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크 부족을 통치하면서 갈리아-로마 귀족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프랑크족의 다른 분파 및 게르만 왕국들이 차지하고 있던 갈리아 게르마니아 지역에 대한 그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그는 특히 당시 유행하던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정통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집권 초기 그는 아리우스파로의 개종을 고민했다. 다른 게르만 왕국과의 협조라는 현실적인 면이나 왕을 신성시한다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아리우스가 매력적이었다.<sup>9</sup> 하지만 그는 정통파로 개종했고, 그의 판단은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이 되었다.

#### 2) 클로비스 개종의 특징

클로비스가 개종했던 당시 역사적 정황은 매우 복잡했다.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갈리아-로마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한 여러 민족들의 충돌이 격렬한 시기였다. 당시 많은 게르만족들도 개종했지만, 대부분이 아리우스파로의 개종이었다. 그들을 아리우스파 신앙으로 개종시킨 선교사는 야만족 출신의 울필라스(Ulfilas)였고, 아리우스파는 신학적 성격보다는 교회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었다. 즉, 그들은 정통파 로마 교회를 인정하

<sup>8</sup> 루스 터커,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6), 47.

지 않았고, 로마에 상응할 만한 교회 조직을 두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리우스파 교회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야만족들은 회심한 후에도 로마를 통한 중앙집권적 특징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다.<sup>10</sup> 이는 정통교리의 입장에서 있던 로마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안정된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서로마제국 안으로 침입해 온 아리우스파로 인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클로비스의 개종은 아리우스파가 아닌 정통파로의 개종이었다. 이는 갈리아-로마인 주교들과 귀족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갈리아 전체 지배의 발판을 마련하여 서방세계에 프랑크 왕국의 권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서로마의 후계자로서 동로마와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그의 개종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적인 목적의 개종

물론 콘스탄티나나 클로비스의 개종을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권면과 랭스의 주교 레미기우스의 편지,<sup>11</sup> 그가 큰 감명을 받은 성 마르티누스 축제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sup>12</sup> 하지만 클로비스의 개종, 특히 그가 아리우스파가 아닌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분명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다른 게르만족들의 틈바구니 속

에서 프랑크족의 부흥을 위해 분명 기능해 보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아리우스파로 개종했다면, 지금 프랑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루스 터커는 노만 칸토(Norman Cantor)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그는 만약에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독일과 프랑스 지방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로마가 손잡는다면 그의 정복 사업을 손쉽게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의 개종과 관련하여 전설 같은 극적인 얘기들만 나열하거나, 힘의 논리와 자신의 야망만을 쫓은 결과라고 단정짓는 양극단을 피해야 하겠지만 그의 개종이 정치적인 목적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 (2) 집단성과 지속성을 가진 개종

클로비스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부하 3,000명과 함께 집단세례를 받는다. 그 후 프랑크족의 개종은 이어진다. 물론 야만적인 프랑크족들이 이교사상을 버리고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한 7세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sup>13</sup>

클로비스의 개종과 세례는 집단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 클로비스는 왕이었고, 그 시대의 군주의 개종은 집단개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동개종을 낳았다. 그의 왕국은 계속 성장했고, 집단개종의 영향은 그의 왕국의 세력이 커져 가면서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프랑스는 1996년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은 지 1,500년 되는 해라며 대대적인 기념식을 거행했다.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프랑스를 건국한 인

<sup>9</sup> 정지문, “성 마르티누스 숭배와 클로비스의 개종”, 『역사교육』 vol. 89(2004), 247.

<sup>10</sup> 롤란드 베이턴, 『세계교회사』, 이길상 역 (교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2), 140-141.

<sup>11</sup> 이 편지에는 클로비스가 벨티카 세쿤다의 행정권을 양도받은 데 대한 축하의 말과 주교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권면의 말이 들어 있다.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15』 (서울: 기독교문사, 1996), 125.

<sup>12</sup> 정지문, op. cit., 236-237.

<sup>13</sup>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op. cit., 125.

물이며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 프랑스, 나아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가톨릭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의 개종은 이처럼 현대의 프랑스의 종교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이처럼 클로비스의 개종은 강제성이 있는 집단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강제성과 공동체의 영향이 매우 지속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효성을 가진 집단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이 집단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집단개종이 일어난 그룹이 응집력이 약하거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그러한 집단개종은 표면적 집단개종일 뿐이지, 선교역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집단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3) 클로비스 집단개종의 그림자

사실 그의 개종과 함께 진행된 집단세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클로비스와 그의 부하들의 세례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성경에 따르면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기독교의 입문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옛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만일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클로비스와 그의 부하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지만 전쟁은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던 것이다.<sup>15</sup> 세례에 대한 그들 나름의 진지함과 순수함이 보이는 동시에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물론 과거의 사건을 현대의 시선으로, 그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의 한계를 알고 있다. 하지만 클로비스의 개종이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이고 이러한 집단개종이 선교사의 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를 지금의 진중세례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간혹 우리의 진중세례의 현장에서도 그 시절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 4. 달리트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 1) 달리트의 집단개종

인도에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집단개종이 일어나고 있다.<sup>17</sup>

달리트는 인도 신분제도하의 불가촉천민(untouchable)을 가리킨다. 카스트에 따른 인도인의 신분은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

<sup>15</sup> “이야기 세계교회사(153): 야만족 클로비스의 개종”, 『국민일보』 2005. 8. 14.

<sup>16</sup> 2012년 5월, 연무대 군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실시된 합동세례식을 취재한 『기독교공보』(2012. 5. 26)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세례식에서는 진정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OO 훈련병은 ‘나의 종교는 불교다. 교회 안 다니는 전우들이 대부분 선물이나 받으려고 참석하길래 나도 그냥 왔다’ 며 ‘세례를 받아도 종교를 바꿀 생각은 절대 없다’ 고 전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기자가 훈련병들이 도열한 1백 번째 줄을 직접 조사했다. 그 결과 20%, 82명 중 18명 이상의 훈련병들은 이미 가톨릭과 불교 신자이고, 세례보다는 선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더운 날씨에 세례도 받았는데 왜 연병장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한탄하는 훈련병도 있었으며, ‘이날 세례 받아도 일요일에는 성당에 가겠다. 나는 가톨릭 신자다’ 하고 고백하는 이도 있었다. 세례자 서약이 유명무실해졌다. 세례인원 늘리기보다는 진짜 세례신자 만들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sup>14</sup> 이학수, “클로비스 기념식과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 문제”, 『역사와 세계』 No. 28 · 29(2005), 187.

샤(상인), 수드라(피정복민 및 노예, 천민) 등 4개로 구분되며 최하층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 있다. 불가촉천민은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카스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아웃 카스트(outcaste)라 불리는 일도 있다.

불가촉천민은 계급(카스트)제도 밖의 구성원으로 인간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무엇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에 종사해 왔다. 오물 수거, 시체 처리, 가죽 가공, 세탁, 도기 제조 등이 주로 그들의 몫이었다. 일반인들은 그들과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오염된다고 생각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오염된다고 생각했기에 불가촉천민은 밤에만 활동해야 했다. 또한 그들에겐 사원 출입이 금지되고, 마을 공동우물의 물을 길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버스나 기차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 없었다. 이러한 극단적 차별은 19세기 말까지 성행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불가촉천민의 인권운동과 카스트 철폐운동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 마하트마 간디는 그들에게 신의 자녀라는 의미의 하리잔(Harijan)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숨어 있는 동정적 의미에 반발하며 스스로를 핍박받는 자라는 뜻의 달리트(Dalit)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달리트는 불가촉천민의 대표적 명칭이 되었다.<sup>18</sup>

달리트는 동질성의 집단이 아니다. 달리트 사이에도 관습에 따라 서로

상대방을 경멸하기도 하며, 함께 결혼은 물론이요 식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차별과 무거운 의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힌두교가 지배하는 인도 사회에서 달리트들은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영국의 식민지배 이전에 달리트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2천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힌두교의 지배는 달리트들의 차별과 억압을 위한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물론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이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큰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달리트의 문제 해결은 달리트를 규정하고 있는 힌두교에 대한 비판이나 개혁운동이나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의 식민지배하에서 이러한 달리트들의 집단개종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sup>19</sup>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로만 개종하는 것은 아니며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로의 집단개종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개종에 대해 영국 식민지배하에서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차원에서 비판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는 달리트의 상황은 계속된 집단개종을 낳을 수밖에 없었

<sup>19</sup> 강희숙, “민족주의와 달리트의 집단개종(1858-1947)”, 『인도철학』 vol. 25(2008), 219-220.

<sup>20</sup> 불교 집단개종과 관련해서 암베드카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달리트로 태어났지만 독립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이자 제헌의회의 헌법기초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12세기 무슬림의 침공 이후 힌두교에 강제 포섭된 인도 불교의 부활을 이끈 ‘네오 부디즘’의 창시자였다. 그는 나시크 대회에서 “불행하게도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으나 힌두교인으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대로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그를 따르는 50만 명의 군중과 함께 ‘불교 집단개종의식’을 실행하였다. 게일 윌베트, 『암베드카르 평전 - 간디와 맞선 인도 민중의 대부』, 이상수 역 (서울: 펴맥, 2005).

<sup>17</sup> “인도 불가촉천민 위해 한국교회 나서 달라, 윌슨 신검 성공회 주교 한국 방문”, 『국민일보』 2009. 9. 11, “이 잔인한 종교를 버린다” 『한겨레』 2002. 11. 6.

<sup>18</sup> FMG지식연진연구소 편, 『시사상식 바이블』 (서울: 박문각, 2008), 435.

다. 영국 식민지배시대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 달리트의 집단개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2) 달리트 집단개종의 특징

### (1) 정치적 목적의 개종: 카스트 탈출

달리트의 집단개종은 누가 뭐라 해도 정치적인 목적이 주요하다. 물론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로의 집단개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선 힌두교를 벗어나려는 의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다음으로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앙적이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후자 또한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sup>21</sup>

실제로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영국이 식민지배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달리트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인도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다. 이처럼 개종한 달리트들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을 때 영국 정부는 인도통치법(the Government of India Act, 1909)을 반포한다. 여기에서는 인도를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관심을 가진 집단들의 집합으로 규정했으며,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해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에 인구비례 의석을 할당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몇백만에 이르는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이 기독교공동체에 속해야 하는지 달리트에 속해야 하는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된다.<sup>22</sup>

이는 각 집단의 이익을 수에 비례해서 정치적으로 배려해 주려는 목적

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달리트 기독교인들은 달리트라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 취급되었고, 영국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독립 인도 정부에 의해 계승된다. 그 때문에 독립 이후 실시된 보상차별정책의 혜택에서 달리트 기독교인들은 배제된다. 보상차별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속정부에 의해 주로 달리트 힌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간주된 달리트들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힌두교로의 재개종사건이 달리트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다.<sup>23</sup> 이처럼 달리트의 개종이란 생존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2) 집단성과 지속성을 가진 개종

달리트 개종이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성이 분명하고, 지속성을 가진 개종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종교로의 재개종 역시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꼭 보상차별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재개종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조직의 결속이 강하고,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개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후속조치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성이란 종교적인 지속성이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으로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든 달리트 공동체가 결정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이를 잘 따랐다. 왜냐하면 달리트의 개종은 애초에 공동체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앙적인 요구가 아

<sup>21</sup> 강희숙, *op. cit.*, 225.

<sup>22</sup> 박성기, “인도 달리트 신학의 배경과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30-31.

<sup>23</sup> 특히 1982년 8월 15일, 안드라 프라데쉬의 스티카쿨람(Srikakulam)에 있는 베라가담(Veeraghattam)이라는 마을에서는 침례교회와 로마 가톨릭에 소속되어 있던 782명의 달리트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로 재개종한다. 심지어 1980년대 초에는 소수의 달리트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 안에 편재(遍在)한 불평등과 불의(不義)에 대한 항거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박성기, *op. cit.*, 43.

나라 생존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가 자신들의 공동체에 가장 유익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는 다른 종교로의 재개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개종으로 형성된 달리트의 교회들은 주로 서구의 영향을 배제한 토착화된 교회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이 단지 집단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인도인들의 자생적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sup>24</sup> 하지만 그만큼 달리트 신앙공동체는 그 집단적 일치와 지속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개종보다도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로 안착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적인 기독교와는 다른 그들만의 교회를 형성할 위험성이 있다.

### (3) 달리트 개종의 그림자

달리트의 개종이 인도 선교에 있어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달리트가 아닌 카스트 안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선교할 때, 기독교란 달리트의 전유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한계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sup>25</sup> 달리트의 개종은 매우 효과적인 전도방법이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신앙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달리트의 집단개종의 경우에는 지극히 자신의 공동체 환원주의적 신앙형태로 발전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순수한 교리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그것이 기독교이

든 기독교의 옷을 입은 신흥종교이든 달리트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달리트의 집단개종이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도구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통한 결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부정적인 재개종의 역사나 토착종교화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달리트의 집단개종 또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집단개종이란 그 효율성만큼이나 부작용이 많은데, 그나마 진중세례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한 전제조건인 집단 지속성이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효율성과 관련된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클로비스나 달리트의 개종과는 달리 진중세례식은 단지 표면적으로만 집단성과 지속성을 지닌다. 이는 큰 문제이다. 물론 군대는 강제성을 가진 집단이 분명하지만 훈련소에서 진행되는 진중세례의 정황은 좀 복잡하다. 세례식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물론 훈련기간 동안에는 가능하지만, 수료 후에 전후방 각지로 흩어지는 현재의 신병관리 시스템 속에서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이 가진 집단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의 경우에는 분명한 집단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집단세례나 개종이 단회적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공동체의 강제력이 작용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중세례식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군선교연합회를 비롯한 기관을 통해 세례명단이 민간결연교회에까지 전달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후전도' 해야 하는 군인교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선교의 특성상 필요한 '선세례'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정당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선교방법이 필요하다.

<sup>24</sup> 김경미, "인도 내 자생적인 교회 개척을 위한 수단과 전략", 제1회 인도선교대회:인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걸음 (서울:미전도종족선교연대, 2006), 33-45.

<sup>25</sup> Ibid., 45.

다는 것이다.

## 5. 진중서약식과 세례교육

### 1) 새로운 대안, 진중서약식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는 신앙의 확인이요 구원받는 백성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건한 예식이다. 하지만 군대와 군선교의 특수한 상황은 세례의 본질과 목적에 앞서 다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세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함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회심을 가볍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른 손을 물 밖에 내밀고 세례를 받았던 클로비스와 그의 부하들이 보여 주었던 나뭇의 진지함과 순수함이 아쉬운 현실이다. 자칫하면 신앙의 신비와 경건함을 경험해야 할 세례의 순간이, 교회의 가벼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의미와 유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과거 진중세례식은 훨씬 더 실효성이 있었다. 세례를 받은 병사들은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거나 적어도 다른 종교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랜드슬램’<sup>26</sup>이 유행어처럼 쓰인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각 종파의 성령이 주는 의미는 그리 진중하지 않다. 이러한 시대에 ‘선세례 후전도’라는 과거의 구호로 세례

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다. “일단 침을 발라 놔야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논리이다. 물론 전적으로 정치논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았을 때 힘의 논리가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세례란 회심을 동반한다. 회개와 뉘우침이 없는 세례는 위험하다. 하지만 훈련소의 진중세례식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세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세례가 생각이 나서 제대 후에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자대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하거나, 민간교회에서 군세례 경험을 감추고 재세례를 감행하는 사람들 또한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는 형식적인 세례식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약식이 보다 실효성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세례식 서약에 군인교회에 꼭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선샤인 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서약 후에, 등단해서 축복(안수)기도를 받고, 선샤인 배지와 같은 기념품을 달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의 진중세례가 주는 것 이상의 감동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군세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까지 서약식 현장에 동참시킬 수 있어, 한국교회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중서약식은 민간교회와의 연결뿐 아니라, 서약식 이후 연속성 있는 세례교육을 통해 기존 군인교회와의 연결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sup>26</sup> 기독교의 세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동시에 다 받은 사람을 일컫는 은어(隱語).

### ※ 진중서약식 예문

- 서약자 점명(호명하여 앉자리 앉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 - 예식사

“로마서 10장 9-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약자 여러분! 오늘 서약식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약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목사는 서약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군 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군인교회 신자로서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서약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고백이 단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서약식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서약(목사가 서약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한 서약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의 신앙과 결단의 증거로 문답하고자 하니 경건하게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선사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문 1 :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 답 : “예/아멘.”

- 문 2 :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문 3 :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문 4 :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군인)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문 5 :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질문)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형제들은 앞으로 (군인)교회 출석하며 세례교육

을 받고, 세례를 받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 답: “예/아멘.”

#### - 축복(안수)기도

서약자들이 집례자/기도자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례자가 서약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 - 배지 부착/교환

축복기도 직후 집례자 혹은 보조자가 서약자에게 달아 주거나,

축복기도 이후 전체가 기립하여 서약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선사인’ 배지를 부착해 준다.

#### - 공포

## 2) 연속성 있는 세례교육

일반적으로 군인교회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전입신병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새신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1주 혹은 4주 정도까지 말 그대로 새 교인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세례에 대한 교육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미 대부분이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나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

만약 훈련소에서 세례가 아니라 서약식을 진행하고, 서약식에 참여한 명단을 군인교회로 제대로 전달하고, 전입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의 내용과 연계된 교육과 함께 세례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대전입 한두 달 안에 세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체 군인교회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재 편찬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훨씬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교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인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연계하여 유명한 외부인사와 기독교 출판사 혹은 일반 출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결과물<sup>27</sup>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종료 후에는 기세례신자에게는 수료증,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포함된 세례증을 군선교연합회나 한국군종목사단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나가는 말

과거 세례식이 주는 진중함과 엄숙함에 한없이 진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병사들의 세례식을 대하는 자세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이상으로 세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이를 통해 귀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세례’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를 선교역사 속의 집단개종(세례)으로 설명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sup>27</sup> 가톨릭에서는 김태회를 표지 모델로 한 교리서를 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교리서에는 김태회가 머리에 미사보를 쓰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책을 받기 위해 성당에 많은 병사들이 몰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신우들의 교육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군선교 현장에서 진중세례운동을 실천해 온 것은 실질적인 효과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진중세례식은 과거처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물론 수많은 군선교 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선세례'의 실효성이 공격받고, 집단세례의 진정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 앞에 더 이상 대충 얼버무릴 수 없는 현실에서 '진중서약식'이라는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서약식 또한 완벽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의 결정적 요소인 집단 지속성이 없는 훈련소의 세례보다는, 단기적이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각 군인교회에의 세례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에 힘쓴다면 군선교의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리라 기대해 본다.

군선교의 중요성과 특별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내용을 담는 그릇도 바뀌기 마련이다. 물론 새로운 그릇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선교현장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관  
권  
소  
유

## 군선교신학 11

2013년 10월 25일 인쇄  
2013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mailto:meak@v2020.or.kr)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02-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02-747-1004, FAX / 02-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rbooks@gmail.com](mailto:qrbooks@gmail.com)  
[qrbooks@daum.net](mailto: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8,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